

칼럼 모음

오르비 Cogito Ergo Sum

2022.01.10. ~ 2023.06.02

목 차 [2022.01.10 ~ 2022.09.16]

I. 국어

(1) 방법론

- [1] 방법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5p~10p
- [2] 국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 11p~19p
- [3] 수능 국어를 위한 컨디션 조절, 예열 지문에 관하여 20p~23p

(2) 독서

- [1] 비문학 읽는 법, 공부법 26p~76p
- [2] 간단한 비문학 독해 도구 78p~88p
- [3] 실전 적용 90p~131p

(3) 문학

- [1] <보기> 문제 접근법 134p~144p
- [2] <보기> 문제 추가 적용 146p~166p

II. 수학

(1) 방법론

- [1] 방법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168p~174p
- [2] 쉬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175p~179p
- [3]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180p~185p

(2) 실전

- [1] 나형 3개년 30번 손풀이 187p~194p
- [2] 2309 공통+확통 손풀이 195p~206p

III. 영어

(1) 방법론

- [1] 영어에도 적용되는 국어의 독법 208p~219p

IV. 수기

- (1) 2020학년도~2022학년도 수능
 - [1] 2020학년도 수능 221p~226p
 - [2] 2021학년도 수능 227p~234p
 - [3] 2022학년도 수능 235p~240p
- (2) 슬럼프 극복 동기 부여
 - [1] 좌절과 성공의 이야기 242p~246p

V. 기타

- (1) 독서실 독학 반수 248p~252p
- (2) 성공 수기의 위험성 254p~256p
- (3) 실전 모의고사 활용법 258p~260p
- (4)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한다면 262p~264p
- (5) 다가오는 수능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266p~268p

VI. 번외 - 아랍어

- (1) 방법론
 - [1] 하루 10분으로 서울대 합격 확률 높이는 법 270p~273p

!

-

-

방법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국어편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3월 학평 분석 글도 마무리했고 어떤 글을 쓸지 고민하던 중에,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찾아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문 분석 칼럼을 주로 올리는 편인데,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글을 써보려 합니다.

각 과목별, 생활 습관, 기타 등으로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국어

국어는 워낙 많은 글을 써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쓰겠습니다. 총정리 느낌으로 쓴 거니 이전 칼럼에서 본 내용을 곱씹으면서 읽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1. 독서는 시험에 나올 주제별로 묶어서 3지문씩 푸는 게 좋다.

독서는 **인문 / 예술 / 사회 / 과학 / 기술 / 주제 통합 중 하나의 주제로 지문이 구성**됩니다. (물론 최근 연계 교재는 인문예술 / 사회문화 / 과학기술 / 주제통합 이런 식으로 구성되긴 합니다.)

학생들을 보면, **연계 교재나 N제를 풀 때 순서대로 그냥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주제통합 / 과학 / 기술**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험생들의 향의가 엄청나겠죠.

저는 **아침에 인문 / 과학 / 주제통합, 오후에 사회 / 기술 / 주제통합 이렇게 지문을 골라 풀었습니다.** 주제통합은 요즘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라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첫 문장만 훑어봐도 어떤 파트인지 알 수 있으니까 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학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할 때마다 **마치 국어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선택 과목도 똑같은 방식이지만 매일 국어의 모든 파트를 묶어서 시험처럼 공부하면 쉽게 지칠 가능성이 큼니다. 저는 독서, 문학, 선택 과목을 나누어 시험을 보는 느낌으로 공부했습니다.

2. 지문별 풀이 시간 체크는 필수이다.

1번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을 점검하는 것은 분명 도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확인해보니 인문 지문을 푸는데 13분이 걸렸다고 할까요. 제가 만약 4문단에서 이해하지 못해서 3분 정도를 지체했다면, 인문 지문을 10분 안에 풀어내는 것까지는 제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저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데드라인을 정해 10분 안에 못 풀면 전부 다 틀린 문제로 처리했습니다.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시간만 있으면 맞는 건데. **하지만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3.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위에서 말한 데드라인 공부법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고3때는 여느 수험생들과 똑같이, 국어 시험을 보면 70분 동안 허겁지겁 문제를 풀고, 10분 전이 되면 마킹을 하고 나서 마지막 독서 지문을 풀었습니다. ~~컴싸로 마지막 지문 푸는 거 국룰~~

실모를 풀 때마다 시험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 알아서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독하는 습관을 들이면 속독은 따라온다고들 하지만, **속독하다 보면 정독이 따라오는 것도 맞습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줄이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70분에서 65분으로 줄이고, 60분으로 줄이는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틀렸을 때 기분 나빠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하루에 1분씩만 줄이시면 됩니다.**

60분부터는 30초를 줄이기도 힘든데,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시간은 유지하면서 공부량을 늘리면 됩니다. 저는 21수능 대비할 때 50분대 후반까지 줄여봤습니다. 한수 off 모의고사를 풀때 딱 한 번 52분만에 다 푼 적이 있었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깨달으시겠지만,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틀릴 문제는 틀립니다. 시간을 아무리 적게 줘도 틀릴 일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22수능을 다시 응시해도 잘못 풀었던 문제를 발견할 자신이 없습니다. 무려 정답률이 85%인 문학 문제인데도 말이죠. 정답을 확신하며 넘어간 이상, 검토할 때도 그 문제는 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4.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모두 무슨 문제가 나올지 정해져 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정리한 칼럼은 독서 칼럼뿐이지만, 사실 나머지 과목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정해져 있습니다. 독서 칼럼을 안 보신 분들은 링크의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orbi.kr/00042931099>

4-1. 화법과 작문은 선지의 내용도 정해져 있다.

다른 파트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을 뿐이지만 **화법과 작문은 선지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청중에게 질문을 하며) - (대답을 듣고), 지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청중과 상호작용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와 같은 선지가 나올 겁니다. 안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복습,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 아닙니다.** 출제되지 않은 요소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문학 문제 중 <보기>에 나오는 내용을 기억해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사실 저는 **<보기>의 내용도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내가 기억해둔 <보기>가 아닌데, 지문도 낯선 느낌이라면 읽어 볼 수밖에 없죠. <보기> 관련 이야기로만 칼럼 하나가 완성될 정도라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작년부터는 <보기>를 안 보고 문제를 푸는데, 지문을 읽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보기>를 읽긴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안 읽고 풀 수 있는 이유는 **칼럼으로 정리**했으니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orbi.kr/00043547747>

<보기>를 봐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제시문을 읽자마자 제시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건 수많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6. 문학 지문을 풀 때도 지문을 읽으면서 눈으로 출제 요소들을 미리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아직 칼럼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입니다. 독서 지문을 읽으며 출제 요소들을 미리 짚었듯, 문학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칼럼으로 따로 쓰겠지만, 어쩌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독서의 설명을 문학에 적용한 것뿐이니 일단은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7. 문제를 푸는 순서에는 정답이 없다.

수능 국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나오는 주제인데, 푸는 순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대원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숙한 파트를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긴장을 풀려면 익숙한 지문을 먼저 읽어야 하지 않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학생이 선택 과목을 가장 먼저 푸니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독서 - 문학 - 선택 과목으로 푸시는 분이 있다면, 그 또한 자신만의 풀이 순서로 시험 때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국 문학과 독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인데, **타임 어택에 직면했을 때 어떤 걸 먼저 봐야 할까요?** 당연히 **익숙한 파트**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저는 문학이 훨씬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언어와 매체 - 독서 - 문학** 순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학이 독서보다는 익숙할 겁니다.**

예전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을 본 적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익숙함에 기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8.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는 수능 대비용 자습서로 적합하다.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수능 고득점자의 진부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잠은 8시간 정도 잤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수면 시간 관련 이야기는 아래에 쓰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떤 과목이든 교과서 N회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중에 자습서가 많으니 자습서 N회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겁니다.

하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고1, 고2, 고3 교과서를 구해서 N회독 할 시간이 있나요? 저는 자습서를 5회독 하고 나서야 다음 공부로 넘어갔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습서를 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EBS 수능특강 사용 설명서를 추천하지만, 다른 분석서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수능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만점을 받으려면 교과서에 있는 날개 부분까지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칼럼에서 ‘배경 지식 급조’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공부법은 국어 전반에 대한 내공을 기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수능을 대비하면서 사용 설명서를 8회독 정도 했었는데, 작가 - 작품을 다 외우는 건 물론이거니와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수학은 ‘**개념을 몇 번 돌렸다.**’는 이야기가 정말 쓸모없지만, 국어는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얻어갈 게 많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수능특강 문학 사용 설명서만 봤습니다. 독서는 혼자서 깨닫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9. 아침 일찍 일어날 수만 있다면 수면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고민하는 학생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수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침 6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잠을 많이 자야할 거 같으면 저녁 9시에 자도 됩니다.

왜 국어 편에 생활 습관을 적어두냐면, 수능 국어 문제는 아침 시간대에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상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해 많이 후회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려고 너무 빨리 자면 공부 시간은 어떻게 확보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깨어 있을 때만 공부에 집중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자도 순 공부시간 10시간 이상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잠을 줄이면 좀 쉬엄쉬엄 공부할 수 있는 반면에, 잠을 많이 잔다면 굉장히 빡빡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 칼럼에서 '압축 공부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선택 과목별로 공부법은 조금씩 다르다.

딱 잘라 말해서 화법과 작문은 문제 풀이가 중요하고, 언어와 매체는 개념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언어와 매체 800제' 같은 문제집을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문법 2000제를 푼다고 해도 개념서 3회독만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저는 고3이었던 20수능에서 문법을 세 개나 틀려 재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떠먹는 국어 문법>이라는 책보다 좋은 독학 개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홍보 아닙니다.** 만약 책으로 공부하지 않고 강의를 듣는다면 강사가 제공하는 개념 정리 파일 등을 꼼꼼히 챙기시면 됩니다.

화법과 작문은 개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선지가 나오느냐를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위에서 언급했는데, 이 또한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생기면, 새로운 선지가 보일 때마다 머리 속에 하나씩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며

앞으로 제가 깨달았던 점을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적인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

-독서편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이번 칼럼은 정말 오래 전부터 쓰고 싶었던 주제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국어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어가 기출 분석할 게 뭐가 있음?"

"난 평가원스럽다는 말 자체를 납득할 수 없음."

모두 실제로 봤던 글(또는 댓글)입니다.

아마 제 칼럼을 줄곧 보셨던 분이라면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독서 / 문학 중에 독서만 일단 써보겠습니다.

기출 분석은 정말 필요없는 것이고,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걸까요?

1. 우리가 국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

기출 분석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어차피 수험생 입장에서 글을 한 번 읽고 글의 구조나 선지의 구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수생이라고 해봐야 5년 6년 정도일 텐데, 수능을 많이 봤다고 해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썼던 독서 공부법에 나온 내용은 뭘까요? 갑자기 제가 했던 이야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기출 회독에 시간을 많이 투자(재수 10회독, 삼수 33회독)했고, 언제나 반복되는 공통점이 보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독서 공부법 (1)에서 제시한 독법은 언제나 적용시킬 수 있으며, 독서 공부법 (2)에서 다룬 문제 유형에서 벗어난 문제는 출제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그냥 많이 봤을 뿐입니다.

수험생이 분석 의도를 갖고 기출을 조목조목 뜯어본다? 힘든 일입니다. 제가 대원칙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반복해서 기출 문제를 보되, 공통점이 무엇인지만 잘 파악해보자. 이게 끝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다룬 '평가원스러움' 역시 기출 회독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2. 독서 기출 분석의 의미

솔직하게 말해서 지문에 제시된 이야기를 공부하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배경 지식의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에 필요한 독법의 확립, 발문과 선지의 분석**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독서 공부법 (1), (2) 칼럼**을 참고해주세요.

22수능이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고, 또 지문 자체의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문이 매우 버거운 느낌이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함에도 "나는 쉬웠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쉽게 느꼈지만 그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문의 느낌이 달라졌다?**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2수능 이전에 당장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09 <점유와 소유> 지문, 2009 <삼변측량(비콘)> 지문, 2109 <행정입법> 지문, 2111 <예약> 지문등이 있네요. **이 지문들의 공통점은? 모두 '압축적 독해'를 요구하는 지문**이었습니다.

브레턴우즈 지문과 차량 영상 지문은 당연히 이러한 유형의 지문에 해당하고, 헤겔 지문 역시 주제통합치고는 압축적 독해를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셋 다 압축적 독해 느낌으로 출제된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거나, **예측이 불가능했던 지문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기출을 보며 공통점을 찾는 식으로 분석이 '되었다면'**, 이번 수능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지금 쓰고 있는 책에 들어갈 이야기지만, 독서 공부법 (1)을 썼을 당시에 20 수능 지문이니까 그러한 독법이 쉽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22 수능 헤겔 지문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출 분석하라는 말을 듣고, **헤겔 지문에서 헤겔과 대화를 나누려는 멋진 시도를 하고 싶은 분은 철학과에 진학**하시면 됩니다. (저는 철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것도 추천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능 국어 독서에서 깨달을 부분은 그런 게 아니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독법 내에서 모든 부분이 설명 가능합니다.

(1) 대비되는 짝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A와 반(反)A를 제시했는데, 대비되는 짝이 아니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명확하게 대조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뉘앙스는 몰라도 정립과 반정립은 서로 '대비되는 짝'이겠죠.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 표상 · 사유이다.'

예술 / 종교 / 철학이 직관 / 표상 / 사유에 각각 대응합니다. 즉, 세 쌍의 '대비되는 짝'을 짝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라는 문장을 보면 우리는 이제 대비되는 짝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죠. 저 문장이 뜻하는 바는 지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에 정반합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술-종교-철학

직관-표상-사유

정립-반정립-종합

이게 다였고, 이 구조만 머리에 넣고 문제를 풀었어도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2) 나만의 말로 이해하기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난해했으며 학생들을 좌절시킨 부분은 1문단에 제시된 마지막 여섯 줄입니다. 평가원은 글을 못 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죠. 이해하지 못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것은 변증법으로' 아닌가요? 말이 난해하든 말든 나만의 방식으로 읽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다음 문단에 나온,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라는 문장을 보고 떠올릴 생각은?

'아니 모든 것을 변증법으로 다뤘으면 미학도 변증법으로 가야지 ㅋㅋ' 겠죠.

그럼 변증법적 체계성을 갖춘다는 말을 제시하는, 모든 난해한 문장은?

'나만의 말'로 바꾸면 그냥 정반합을 적용하자!가 되겠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한 영역을 가리킨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절대 정신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저러한 개념어는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말로, 따옴표를 이용해 대놓고 중요한 말임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정신의 한 영역을 가리킨다.'

그래서 '절대"정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나만의 말'로 이해하기.

시험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니, 그 자리에서 곧바로 외워'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 말을 스스로 납득했으니까요. 시험장에서 지문의 내용을 나에게 맞춰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저에게 납득시켰습니다. 수기에도 나와 있듯,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 수능 지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설명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3)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

개념어라고 했지만, 꼭 개념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제가 이런 말을 만든 걸까요? 한 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

(2)에서 다뤘던 문장인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 개념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다시 써 보는 겁니다. 제시된 내용을 보고, '이념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이건 어떨까요? '예술은 그(헤겔)에게 미학의 대상이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또, '종교와 철학은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라는 말도 맞겠네요.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제는 느낌이 올 겁니다. '이념은 절대적 진리이다.'라는 말이 나와야겠네요. 물론 저렇게 바꾸고 추가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념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모르긴 몰라도 일단 헤겔 입장에서는 이념을 절대적 진리라고 봤네?"처럼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앞에 말했던 '나만의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한참 쉽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린, 이번 수능에서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를 활용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다. 그럼 이걸 도대체 왜 알아야 할까요? 언젠가는 나올 거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출을 볼 때는 이미 나와 있는 지문과 문제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물어볼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지도 떠올려 봐야 합니다. '미출제 요소' 생각하기.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바로 나와야 합니다.

중화 상태는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4) 배경 지식 활용하기

지겹도록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헤겔 지문에서는 그렇게까지 배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변증법 = 정반합입니다.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이기도 하지만, 변증법 그 자체를 정반합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정반합을 통해 도출된 합(合)은 다시 정(正)의 입장이 되어 또 다른 반(反)과 대립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대립 -> 도출, 다시 대립 -> 도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논리로 설명하는 게 변증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딱히 지문에 쓰이지 않았지만, 지문을 볼 때 '익숙함'의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좀 쉬운 내용입니다. "철학하면 당연히 사유지ㅋㅋ"이라는 게 시험장에서 떠올린 나만의 말이었는데,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 이해하면 더는 설명이 필요 없죠.

의문이 살짝 들 겁니다. 철학 -> 사유는 상식 아닌가?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식 = 배경 지식입니다. 제가 걸치레가 아닌 진심으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배경 지식일 이야기들이 누군가 에겐 상식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금리, 환율, 경상 수지 등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배경 지식이었을 테고, 브레턴우즈 지문이 그래서 논란이 있었겠죠. 하지만 초중고 교육 과정을 거친 학생이 풀 수 있는 선에서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는 교육과정 지침서의 내용 자체가 제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것도 나만의 말로 바꾸면? 그냥 상식 선에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다만 정시로 방향을 트는 대부분 학생이 초중고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배경 지식으로 설명합니다. 배경 지식 칼럼을 쓰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 하고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이 부분도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죠.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라는 말을 보고 저는 **동굴에 그려진 벽화** 등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게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잘못 떠올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틀릴 텐데, 잘못 떠올리면 어떡하냐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에 더해서 예술-종교-철학으로 이어질 때 종교는 덩그러니 중간에 왜 있을까요? 저는 **중세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종교가 모든 걸 지배할 시기이고,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까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국 철학이 최고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지문에서 제시한, 철학이 완숙 단계에 있다는 말은 당연히 이를 의미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 저는 읽는 내내 **"그럼 전시회는 뭐야? 설명이 다 쓰여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건가?"**라는 생각을 했죠. (나)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는 당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작품 전시회를 생각하면, (나)에서 제시한 **"사실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하여 설명되지 않아?"**라는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어떻게 예술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2109 주제통합 지문에 나온 것처럼 작품 감상 태도가 객관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관적이어야 하는지 토론을 할 수도 있겠으나 핵심은 그게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배경 지식은 언제나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쓰다 보니 헤겔 지문은 배경 지식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제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간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배경 지식**이었을 테고. 다시 말하지만 시험이 어려웠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3. 평가원스러움

정말 논란이 많은 주제죠. 저는 '평가원스럽다.'는 느낌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추상적인 부분이다 보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류가 모여 살게 되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체외 기생충을 옮기는 일이 흔해졌다.** **털충이 퇴화한 이유는 바로, 체외 기생충이 질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체외 기생충에는 빈대나 벼룩 등이 있다.**

위 문장을 평가원스럽게 바꿔보겠습니다.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후,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체외 기생충의 빈번한 전파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빈대나 벼룩 등 질병을 일으키는 체외기생충에 노출되지 않도록 털충이 퇴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혜음 모의고사 독서 지문의 내용을 가져온 건데,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후,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체외 기생충의 빈번한 전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에 빈대나 벼룩 등 질병을 일으키는 체외기생충에 노출되지 않도록 털충이 퇴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처음에 보여드린 보라색 문장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마 다시 쓴 문장이 훨씬 평가원스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슬직히, 글 자체를 읽기 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가원스러운 느낌이 뭘지 정리해볼까요.

콤마(,)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긴 문장을 제시하고
조개도 될 문장을 하나로 써서 호흡을 길게 만들고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죠)

쉬운 단어를 뱉두고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며
~의, ~적인, ~하는 것, ~에 대한(관한), ~를 통해 ~함에 있어서 와 같은 말이 불필요
할 정도로 많고
쓸 데 없는 피동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이 글을 읽고 나서 기출 지문을 아무거나 찾아서 풀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 '평가원체'라고 부릅니다. 이 느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말'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죠. 난해한 문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간단한 문장으로 바꾸는 일도 가능하니까요.

검토할 때도 수정 직전에 항상 하는 말이, "문장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 평가원은 글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입니다. 혜음 모의고사 비문학이 나름 좋은 평을 받았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게 무슨 '감각적으로 직관이 들어와야 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사실 인강은 듣지도 않는데 얼마나 시끌시끌하면 저같은 사람도 알까요ㅋㅋ)

어쨌거나, 이런 특징을 수험생이 의도를 가지고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많이 봤을 뿐입니다. 선지와 발문에서도 평가원스러움을 찾을 수 있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독서 문학 선택과목 모두 '평가원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글이 길어지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출 분석해야 한다는 말에 휘둘려 불안에 떠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저러한 공통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깨닫는 바가 있을 겁니다.

+) 덧붙이자면, 어떤 글을 쓸 때 위에 나온 평가원체를 최대한 덜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글 쓰는 실력이 많이 늙습니다. 자소서 침삭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정시로 대학갔는데 자꾸 자소서 봐달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게 참 과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신기한 건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거..)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국어를 위한 컨디션 조절 & 예열 지문에 관하여

- 국어 시험은 아침에 치러진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이 글은 주제 추천을 받아 작성하는 칼럼입니다. 처음에 약속드릴 때 활동을 재개하면 가장 먼저 쓰겠다고 했으나,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합니다. 하지만 삼수 시기 / 칼럼도 올렸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I. 아침 컨디션 조절

이전 칼럼에서, '많은 학생이 수능 국어 시험은 아침에 치뤄진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라는 뉘앙스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부를 제외하면, 아침에 기운이 넘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수면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랬고, 사실 저는 새벽에 공부가 너무 잘 되는 스타일이어서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재수 때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수면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뇌가 정신을 차리려면 일어난 후 2시간은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게 현실이죠. 해결법을 다루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매일같이 밤샘 공부를 했던 수험생은, 수능 이틀 전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마음 먹는다 해도,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 합니다.(제가 그 수험생입니다.. 저는 심지어 재수 때 예비소집일 당일에도 새벽에 잤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루틴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학생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아침 6시에 수업받던 학생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능을 치는 기분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내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7시 반이니 그때부터 예열 지문을 풀어. 그리고 8시 40분부터는 본격적인 국어 공부에 들어가는데, 국어와 영어 외에는 실제 수능 시간과 똑같이 공부할 필요는 딱히 없어."

이 학생은, 매일매일 수능을 치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수능 당일이 되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원래라면 저와 수업하고 있을 시간에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겠죠.

이 학생은 예열 지문을 푸는 것도 루틴에 포함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실모 시즌에는 8시 40분부터 국어 실모를 풀도록 지도했기 때문에 수능 시험장에 가서도 딱히 겁먹을 일이 없습니다.(실모 시즌이 아닐 때는 주로 수능특강을 풀게 했습니다.)

이러한 컨디션 관리를 체화하면, 실전 모의고사와 수능 시험지의 차이는 글자 수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나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XX모의고사 1회 문제지'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로 표지만 바뀐 느낌이라는 거죠.

저는 세 번의 수능을 쳤지만 단 한 번도 긴장하며 시험장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지켰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 실모 볼 때는 긴장하다가 오히려 실제 시험에서는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어려운데 긴장이 어떻게 안 되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제 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초긴장 상태로 시험지를 받아보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시험지를 받아보았는데 지문이 어려워 보여 긴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전자는 모든 지문을 어렵게 느낄 테고, 후자는 좀 괴랄한 지문을 볼 때만 긴장하며 문제를 풀게 되겠죠.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잠을 깬 뒤, 바로 공부에 돌입하는데, 이때 볼 내용은 수능 날 아침에 차를 타고 시험장으로 향하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할 개념 노트 등일 겁니다. 그리고 7시 반이 되면, 예열 지문 풀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시즌이라면 7시 반에 예열 지문을 풀고 8시 40분부터 모의고사를 보면 되겠지만, 평상시라면 두 시간대 모두 책에 나온 지문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열 지문용으로 볼 책과,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담긴 책은 분리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복잡해 보이니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21수능 대비) 예열 지문용으로 상상 화작문 N제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담긴 책으로 연계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한 마디로 말해서 **'매일 수능을 치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라!**'라는 겁니다. 저는 수험생 때 모든 것을 수능에 맞춰 생각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현실입니다만, **잘 때도 마스크를 끼고 잤고** 당연히 밥먹을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습니다. 독서실에서도 **가장 좁은 책상을 골라 공부**했죠.

마스크와 칸막이가 긴장감을 더한다? 그럼 미리 경험해보면 될 일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웬만하면 모든 학생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잘 때 끼고 자는 건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 모르지만 올해 수능에 응시자 마스크 필수 규정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상상 그 이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볼 수 있겠네요.**

II. 예열 지문?

학생들은 예열 지문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예열 지문이 혹시나 본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실모 시즌에 E사에서 나온 화작 n제를 예열 지문으로 한 번 봤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실모를 치는 족족 망했던 거 같은데, 그 문제집을 풀지 않으니 모의고사 점수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다소 쉬운 수준의 내용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아는데, **그 수준을 본인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건 잘 모릅니다.**그러니 **"이 정도면 예열 지문 난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는 거겠죠.

언제나 본인의 실력에 맞는 걸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독서 / 문학 / 선택 과목 중 무엇을 예열 지문으로 봐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때 가장 먼저 푸는 과목과 동일하게 예열 지문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사고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21수능 때 쉬운 화작을 풀고 시험을 쳤던 경험이 있는데요. 다만 **언매 선택자들은 예열할 시간에 문법 개념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념 단권화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22 수능 때는 예열 지문을 풀지 않고 문법 개념을 주로 봤었던 거 같네요. 이 부분도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다른 방법은,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푸는 과목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과목으로 예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선택 - 독서 - 문학 순의 풀이를 하는 학생이라면, **문학 지문으로 예열**한다는 뜻이죠. **뇌가 refresh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네요. **첫 시작 파트와 같은 과목으로 예열하면 발생하는 '몰입도 과열'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학생을 가르치다가 알게 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개별 솔루션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학생의 문제점이 해결된 건 물론이거니와 이후에 만난 다른 학생들(예열 지문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던 학생들)에게도 잘 적용되더군요. **본인이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이 없다면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맞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는 칼럼 등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아마 예열 지문의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학생도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해보면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II. 마치며

6월 모의고사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적용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훈련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은데, 좋은 결과 있으면 꼭 자랑하러 와주세요. 그 날은 정말 보람찬 하루일 거 같네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독서 공부법(1)

-배경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읽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첫 칼럼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 가장 단순하게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어 독서 공부법입니다. 저는 국어 모의고사를 칠 때 보통 풀이를 52~58분 사이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수능 가서는 65분 정도 쓰지만 어떻게 주어진 시간보다 빠르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3이 되고 3월에 공부를 시작할 때 제 성적은 4등급 수준이었습니다. 성적표에는 턱걸이 3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5개 짝은 거 4개 맞았습니다. 나름 공부를 한다고 한 게 그 정도 성적이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운 좋게 방법을 잘 찾아서 20 수능(고3) 2등급 - 21 수능 1등급 (백분위 97) - 22 수능 1등급 (백분위 100일 줄 알았는데 99) 순으로 점차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실 4등급에서 1년 만에 2등급이 된 것도 신기하지만, 2등급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린 과정도 궁금하실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위권 탈출법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방법

#본질적인 공부법

#이를 적용한 실제 계획

등의 내용도 써보려고 합니다. 이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I. 들어가며

처음 수능 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자, 어느 학부모님들처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제 공부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현행 수능 국어 비문학의 내용은 국어가 아닌 논리학 과목에서 다뤄야 한다며 비판**하셨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어 지문이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독서가 만점이면 국어가 만점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언제나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한글 같지도 않은 한글을 어떻게 나만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문학 / 화작 / 언매 공부법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우선 독서 파트부터 쓰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국어의 공부법은 어느 파트든 모두 다 같습니다. 이 글을 꼭 읽으셨으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II.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훈련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그걸 이해하느냐 일 텐데, 제가 수업하면서 쓰는 방법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첫 수업에 쓰는 2020학년도 수능 지문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대비되는 짝 찾기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이 말은 제가 언젠가 EBS 강의를 들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대비되는 짝을 찾자. 무슨 말일까요. ㉠은 전통적 인식론자이고, ㉢은 베이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각 주장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는데, '반면'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니, 전통적 인식론자는 딱딱 끊어서 참 / 거짓 / 둘 다 아님 - 이렇게 세 가지로 믿음에 대해 말하고, 베이지주의자는 '정도'의 문제라고 하죠.

이런 구조 때문에 이 지문을 고른 것인데, 이렇게 명확한 대조를 이룰 때는 대비되는 짝을 짝지어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국어에서는 대비 / 대조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2) 맥락상 동의어 찾기

사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유기적 독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직관적인 말이 없을까 하다가 맥락상 동의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지문에서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둘 다 아닌 경우'가 전통적 인식론자가 말한 세 가지 태도에 연결되는 맥락상 동의어입니다. (보라색 괄호, 화살표)

이 정도는 누구나 하지만, 뒤로 갈수록 지문이 복잡해져서 그런지 맥락상 동의어를 찾아내는 일을 생각보다 어려워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 본다. 베이지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확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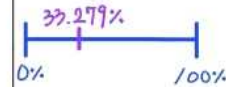
맥락상 동의어

지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은 뭘까요? 바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3) 자신만의 말로 이해하기

배경지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시간 내에 독해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베이즈주의자가 믿음은 정도의 문제이고,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 ~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범위가 있다네요. 저는 여기서 수직선을 떠올렸습니다.

전통적 인식론자는 세 가지로 딱 분리해서 말했지만, 베이즈주의자의 입장에서 “나는 명제 A를 33.279% 정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A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저만의 말로 바꾸어보면,
그냥 ‘A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배경 지식 활용하기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 공부의 핵심입니다. 배경 지식을 활용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조금 뒤에 다뤄드리겠습니다.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같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

회색! 서로 영향? 조건?
=> 조건부 확률

지문을 보면,
명제가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으며,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문을 보고 가장 강한 정도 ~ 가장 약한 정도라고 하면서 확률(퍼센티지)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확률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문제를 풀 때 보자마자
 “어. 이거 조건부확률이잖아?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배경 지식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지문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다면 믿어야 하는 게 수험생의 의무입니다.**

즉, 배경 지식 vs 지문에서, **배경 지식과 일치하는 지문의 내용은 배경 지식을 통해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문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국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답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의 배경 지식과 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면, 본인의 지식이 틀렸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특히나 법 지문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지식과 지문의 꼼꼼한 비교는 필수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수능 시험장에서 조건부확률을 떠올린 후, 글을 읽어보니, 대놓고 조건부확률에 대해서 말한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나온 예시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려 여섯 줄입니다.**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이 읽는 지문의 1/2이나 1/3밖에 안 읽어.**”입니다. 제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지문을 읽는데 어떻게 60분 안쪽으로 풀까요. **효율적인 독서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⑥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조건부확률
⇒ 독립

아래에 또 나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명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네요. 우리가 앞에서 조건부확률 관련 내용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이런 말이 나온다? 너무 대놓고 독립에 관련된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예시는 역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도 네 줄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원은 정말 배경 지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게 출제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가원의 말은, 어느 정도는 맞고, 또 어느 정도는 틀린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상식이 너의 지식인데?”** 정말 독서 파트를 관통하는 말입니다. 평가원은, 어릴 때부터 줄곧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라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합니다. **다만, 대부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원이 원하는 상식이 대부분에게는 배경 지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 조건부확률이 나오는 확률과 통계는 문/이과 수학에서 필수 선택 과목이었고, 수학을 못 해도 저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수험생들의 상식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2021학년도 6월 기술 지문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 전류의 자기 작용**이 나왔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 이걸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른손 법칙이 어떻게 하면서 중3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도 말입니다.

또, 금리가 뭐야?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학생도 극히 적더군요. **금리 = 이자율**. 이걸 그냥 **기본 상식 중에서도 기본**인데, 이걸 몰라서 CDS 프리미엄 지문에서 기준금리가 나왔을 때 당황했다고들 합니다.

사람마다 상식에 대한 기준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평가원이 정해둔 ‘상식’을 ‘배경 지식’으로 공부해야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가원은 배경 지식을 활용하라고 한 적이 없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내지만, 우리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 학생이 되는 거죠.**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학습법 중 하나가, 제 수업을 들은 후, 스스로 외워서 저한테 다시 설명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운다’는, 죽을 때까지 절대 까먹지 않겠다는 의미의 암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문을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수준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암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고, 암기 없는 이해는 이해 없는 암기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이해와 암기는 항상 같이 갑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 파트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게 되고, 저 는 이걸 **‘배경 지식 급조’**라고 부릅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내공이 없는 지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별 도움을 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편법이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수능 국어에서는 지난 12년을 열심히 살아온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걸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지문에서 뭔가를 놓치고, 당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강한 몰입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모든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글을 읽어서는 효율적인 독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몰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스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아 그렇자 하고 넘어가기

지문을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이유 없이 바꾸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가져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 안 될 부분이 있나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한국인이니까 한글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파트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바람직한 독서 방법입니다.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자. 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 읽는 무게

마지막입니다. 이 말은 아마 다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 읽는 무게가 가벼워야 할 부분이 있고, 무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무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건 알고 계실 테고.

아까 위에서 말한 너무나 강한 몰입이 깨졌을 때 당황하는 이유도 모든 부분을 너무 무겁게만 읽기 때문입니다. 과몰입 상태에서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4번에서 말했던, 배경 지식으로 이해한 후에 예시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학생들은 “그럼 아예 읽지도 않고 패스하나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문에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에서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읽는 무게를 가볍게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빠르게 읽어 나가면 좋겠죠. 이런 템포 조절들이 주어진 시간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III. 마치며

사실 독서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하려고 했고, 저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독서 공부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다루려고 했으나, 안 그래도 긴 글에 그런 부분도 추가하면 너무 피로하실 듯해 이번 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대로만 꾸준히 공부하면 비문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 글의 주제 추천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 될 때마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칼럼이라 부족한 점이 많은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지문 손풀이도 첨부하겠습니다. 개별 문단들을 이해하시고, 마지막에 통합적인 이해를 위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서 공부법(2)

-지문을 읽는 순간 문제는 이미 풀려 있어야 합니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지난 국어 독서 공부법 칼럼에서는 하나의 독서 지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서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말해보려 합니다.

독서 공부법 첫 칼럼을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읽어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I. 문제 풀이에 대한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학생들을 보면, 항상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할 테고,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고3 때 들었던 인강에서도 '예측하기'를 먼저 한 후 지문을 봐야 한다고 가르치더군요.

하지만 이 방식은,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제가 지금 알려드릴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한 마디로, 학생들의 일반적인 풀이법은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 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도무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접근 방법의 차이입니다. 저는 독서 파트 전부를 푸는데 보통 23~25분 정도가 걸리는데, 지문을 읽는데 대부분 시간을 쓰고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선지를 읽고 답을 고르는 시간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II. 지문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조금만 기출문제 분석을 해도 알게 될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낯선 것은 지문의 내용 뿐입니다. 늘 출제하던 패턴 그대로 다시 출제하고, 신유형이라는 것도 결국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안다면,

문제 읽기 - 지문 보기 - 문제 풀기의 순서로 시험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문부터 보면 되겠죠. 이는 제가 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어의 모든 파트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시나, 뭐가 나올지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암기 '될'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암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슨 문제가 나올지, 어떤 선지가 나올지 미리 알고 간다.' 정도가 되겠네요. 제시되는 선지까지 고정되어있는 파트는 화작 / 언매 / 문학(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만)이기 때문에 독서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기출 문제에 나왔던 구체적인 발문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논지 전개 방식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동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문 전체에 관해서 묻는 문제로, 대부분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학생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문제가 쉬운 걸 알면서도 빈번하게 틀린다면, 제가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던 '과몰입' 때문일 가능성이 큼니다. 너무 집중해서 읽은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나 심지어 활용 문제(3점 고난도 문제)도 맞히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글의 전개 방식에 관해 물어볼 것을 알기에, 글을 읽으면서 미리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인지, 즉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2) 세부 내용 일치 + 심화 이해

-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0.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 ②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③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 ④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 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역시 독서 문제 중에서 쉬운 편입니다. 글의 내용과 선지를 매칭시키는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내용 일치 문제를 많이 틀리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선지만큼은 **미리** 읽어 보고 가는 연습을 했던 거 같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에, 본인에게 맞는 풀이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올해도 내용 일치 문제 틀렸습니다.~~

(3) 소재 / 대상 / 구절에 대한 이해

- ㄱ~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의 가~다 중 CDS 프리미엄이 가장 큰 것은?, ㄱ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총 네 가지 예시가 있어 아래에 사진을 첨부합니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12.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15.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에서는 작아지겠군.
- ② ㉡에서는 ㉠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 ③ ㉡에서는 ㉠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 ④ ㉡과 실제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 ⑤ ㉡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에서 보정되었겠군.

개별 소재와 대상에 대해 다루는 문제입니다. 여러 소재를 비교하는 문제를 낼 때는 ㉠~㉣과 같이 묶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지문의 핵심 소재에 관해 물어볼 때는, 그 소재에 네모 칸을 쳐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나, 네모 표시가 있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을 물어볼지 **미리** 생각하며 지문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견해 / 주장 / 기능 / 원리 등을 물을 수 있겠죠.

또한, 어떤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단락을 구분해두었다면, 그 구절 / 단락이 왜 나왔으며,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추측해보면서, 지문의 앞뒤 단락에서 이유를 미리 찾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4) 견해 / 기능 비교

-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지문에 나온 견해(기능)와 유사한 글을 <보기>로 제시하여 비교하거나, 지문 내에서 제시된 두 견해(기능)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올해 출제되지 않아 다른 기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이전 글에서 말했던 '배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문을 읽고 나서, 만약 견해나 기능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무엇을 <보기>로 제시할지 대부분 짐작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로도 제 예측이 거의 맞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지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는데 형상과 질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렇다면 <보기>에는 플라톤이 나올 테고 이데아, 시물라크르에 관해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형상은 질료를 담는 그릇이다.’**, **‘이데아-현실-시물라크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물라크르는 가장 가치가 낮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 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운동론자의 견해가 <보기>로 제시될 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운동론자의 견해는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출제 요소로 적절합니다.

★스택

이번에는 기술 지문입니다. **스택**은 **선입후출(FILO)**, 즉 먼저 넣은 것이 나중에 나오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구가 하나뿐인 원형의 통에 탁구공을 차례대로 집어넣고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스택이 제시되었다면, <보기>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당연히 **선입선출(FIFO)**의 구조인 **‘큐’**에 대해 제시하겠죠. 스택과 큐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꼭 한 번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문과지만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수학 수행평가 발표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계산기)으로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덕에 컴퓨터 관련 기술 지문만 나오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배경 지식과 같은 맥락이죠.

★데카르트

좀 더 넓은 범위의 예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에 대해 말하는 **‘이원론자’**입니다. 그렇다면 <보기>에는 **이원론을 수용하는 다른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여 공통점 / 차이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원론을 부정하고 일원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학자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을 때도, 어떤 <보기>가 나올지 짐작하면서 읽어 나가야 문제를 보자마자 해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추가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퀴나스 세 사람이 말하는 이원론적 관점(영혼과 육체)에 관한 이야기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부아지에

마지막으로 순수 과학 분야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문에서 **라부아지에**가 **물질의 연소에서 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하고 있다고 해볼까요. <보기>에는 뭐가 나올까요? 매우 높은 확률로 **에른스트 슈탈의 플로지스톤설**을 제시하겠죠.

플로지스톤설이란, 연소에 대해 말할 때,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연소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론이었으나, 라부아지에가 산소의 역할을 역설하면서, 플로지스톤설은 적절하지 않은 이론임이 밝혀졌습니다.

대략 이 정도인데, 느끼는 바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내가 윤리와 사상을 배운 적이 있거나 좋아한다면, 위에 제시된 철학자의 논의는 매우 익숙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화학이라면? 라부아지에 이야기는 말 그대로 상식입니다.

컴퓨터를 좋아한다면 논리 연산자 문제나 저런 스택, 큐 같은 지문이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화학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문과생이 라부아지에 문제를 본다면? 최상위권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은 읽기조차 싫을 겁니다.** 결국엔 짝는 거죠.

어느 정도의 지식은 어느 분야든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문에서 어떤 견해 / 기능이 제시되었을 때, 비교 대상을 떠올리면서 읽는다면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들은 **떠오르는 대로 고민하지 않고 적은 것으로, 평상시의 상식에 해당합니다.** 수능을 치기 전까지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 윗글을 읽은 후,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헤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은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하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 준 것이다.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네 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다.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 ①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 ②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 ③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 ④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 ⑤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눈치채셨겠지만, 앞에 제시된 문제들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하는 (5)는 모든 지문을 통틀어서 항상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3점 고난도 문제로 많은 학생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칼럼에서 다루겠지만, 수학 <보기> 3점(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독서 <보기> 3점(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문제가 가장 쉽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용 일치 / 과해석 선에서 정리 가능합니다.

한 마디 더 덧붙여서, 수학교 22번 문제가 본질만 놓고 보면 가장 쉽습니다. 다소 어이없으실 수 있으나 수학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견해/주장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ㄱ과 ㄴ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종류의 문제는 제가 고3이었던 2020학년도 평가원 시험부터 비중 있게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발췌 독해’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문 전반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4)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가)와 (나)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주제통합형 지문에서는, (가)의 입장에서 (나)의 견해를 이해 / 비판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한 이해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 지문과 문제를 여러 번 번갈아 보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잡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죠.**

지난 글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수업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지문을 외우자.”**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여기서 외우는 것은 영어 단어 암기와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읽고 나서 지문을 안 보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출 문제와 N제로 반복 학습을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지문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기에, 지문으로 몇 번씩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험장에서 8~10분 만에 모든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합니다. 학습방법의 차이입니다. 저 또한 헛갈리는 부분이 가끔 나오기는 하나, 몇 번씩 지문과 선지를 번갈아 보는 학생들과는 다르게 딱 한 번만 지문을 훑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제가 모의고사에서 55분 내외로 모든 풀이를 마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서울대를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접근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서울대생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7) 사전적 의미 / 적절하게 바꿔쓰기

-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포착(捕捉)한다
- ③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간주(看做)하면
- ⑤ ㉤: 결성(結成)되지

17.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 ② 그것은 슬픈 감정을 지나서 아픔으로 남아 있다.
- ③ 어느새 정오가 훌쩍 지나 식사할 시간이 되었다.
- ④ 물의 온도가 어는점을 지나 계속 내려가고 있다.
- ⑤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나니 마음이 가뿐하다.

독서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으나, 특이하게도 국어에 대한 슬럼프가 왔을 때 많은 학생이 이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 후 정답을 맞혔다고 넘어가지 말고 해설지에 제시된 사전적 의미 등을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국어사전을 많이 읽어야 하지만, 제가 어릴 때도 국어사전을 읽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기본이었다고 하네요.

어차피 수능 국어에서 물어보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설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복습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라면 국어사전을 매일 조금씩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능 독서에 출제되는 유형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드시피, (4)의 경우 올해 수능 독서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출제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비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신유형처럼 보이는 (6) 역시 (4)의 심화 유형일 뿐입니다. 독서에서는 위의 일곱 가지 틀을 벗어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늘 정해져 있다면 외워두고 수능을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이에 더해 화작, 매체, 문학에서 출제되는 부분들도 한 번 쪽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모든 파트의 접근법이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문의 내용이 바뀔 뿐,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선지조차 고정되어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니, 나머지 분야에도 오늘 글의 내용을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III. 마치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가능한 학생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꾸준히 그 방법으로 실력을 다지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지금부터 접근 방식을 바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부터 보고, 지문을 읽기 시작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 어차피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최근 10개년 기출 문제에 적용해본 후 일반화했던 것을 바탕으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학생은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제를 훑어보고 지문을 읽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지문 먼저 읽고 문제를 한 번에 풀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면, 수많은 연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글을 계획 없이 일단 생각나는 대로 쓴 후에, 간단한 점검만을 거치고 곧바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날 때 더 많은 분께 제 경험을 나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떤 칼럼을 썼으면 좋겠는지 추천해주시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매번 다소 두서없을 수 있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서 공부법(2) 보충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걸까?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지난 독서 칼럼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칼럼은 독서 공부법(2)의 보충 설명 관련한 칼럼입니다.
가벼운 느낌으로 앞 칼럼들과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 들어가며

‘지문을 외워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부분을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쪽지로 질문 주신 분도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실시간으로 지문을 외우라고?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암기는 지문을 절대 까먹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곱씹어 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II.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지난 칼럼과 연결되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보겠습니다.

(1) 지난 지문 요약

2020학년도 수능 독서 [베이지주의의 조건화 원리]를 설명한 이전 칼럼의 내용을 짚어가면서 읽으시면 얻어가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나의 말**로 설명하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 전통적 인식론과 베이지주의로 나눕니다.
2. 전통적 인식론은 - 참 / 거짓 / 둘 다 아님 - 세 가지 경우로 믿음을 설명했고, 베이지주의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3. 정도의 문제라는 건?
강하게 혹은 약하게 믿을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4. 참 30 거짓 70의 정도로 어떤 명제를 믿는다고 해도 맞는 말이겠죠.
5. 그에 더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명제가 있는가 하면,
아예 관련 없는 명제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6.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을 바꾸는 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유발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칼럼에 썼던 지문의 내용 정리입니다.

(2) 그래서 이유가 뭔데?

6문장으로 요약해둔 지난 지문의 내용을 보죠.
제가 말하는 '외운다'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문 전체를 일일이 다 설명했나요? 저 내용은 제가 기억에 남는 대로 쓴 겁니다. 딱 그만큼입니다. 읽고 이해한 후, 기억에 남는 부분을 활용하자.

저는 이제 베이지주의가 활용될 지문(특히 수학적 확률 관련 지문)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 6문장만큼의 분량이라도 말이죠.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던 '배경 지식 급조'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매일 3지문 이상의 비문학을 풀고, 복습해서 말로 설명하는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저도 지문을 외우고 나서 까먹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재에 관한 느낌과 어렵풋한 '배경 지식'은 온전히 본인의 머리에 남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 기억'되는' 지문의 내용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확실하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2학년도 수능 날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모님께 시험에 나온 지문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양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다 보면 지문 전체가 기억‘되는’ 경우가 있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최종 단계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험장에서조차 실시간으로 지문의 내용을 기억하기’입니다.

결국, 본질만 놓고 보면, 기억‘되는’ 부분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요. 관념적인 이야기는 이전 칼럼에서 말씀드렸으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세계사

어차피 두 가지로 말할 거라서,
세계사만 보면 울렁거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수학’을 보시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었던 ‘사라예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1914년 6월 28일입니다.

호찌민이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세운 건 언제일까요?
1945년 9월 2일입니다.

국어 칼럼 쓰다가 갑자기 세계사 연표 얘기를 왜 할까요?
6월 28일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생일입니다.
9월 2일은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의 생신입니다.
살짝만 더 깊게 볼까요?

인노첸티우스 3세는 교황권이 극에 달했을 때의 교황입니다.
재위 시기는 1198~1216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1945년 12월 16일 ~ 12월 25일 사이에 개최되었습니다.
1216년. 12월 16일.

쓰다 보니 방금 알았는데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네요.
글을 쓰면서, ‘크리스마스’에 끝났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인터넷 검색을 전혀 하지 않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올해 세계사도 만점이고, 모든 연표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인물’일지 모릅니다. 인물의 생몰년도, 심지어는 사건의 월일까지도 외우니까요. 세계사 칼럼이 아니니 이쯤 하고, 이제는 거의 눈치채셨을 거 같네요. 수학으로 가겠습니다.

2. 수학

수1 삼각함수 관련해서 공식이 정말 많습니다.
12가지, 많게는 16가지로 설명하는 문제집도 있습니다.
아래 공식을 잠깐 볼까요.

$a+b = \pi$ 일 때 (π 공식)

$$\sin a = \sin b$$

$$\cos a = -\cos b$$

$$\tan a = -\tan b$$

$a+b = 2\pi$ 일 때 (2π 공식)

$$\sin a = -\sin b$$

$$\cos a = \cos b$$

$$\tan a = -\tan b$$

복잡하게 뭐가 많네요. 당연히 증명은 모두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 π 공식은 \sin 전용, 2π 공식은 \cos 전용이네? 그런데 전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식을 빌려 쓰는 대신 그 대가로 마이너스(-)를 붙여야 하는구나.”

단 한 번도 헛갈린 적이 없습니다.

국어로 다시 돌아가서,

아예 관련 없는 명제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히 영향도 안 주지.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을 바꾸는 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 쓸데없는 짓 하면 당연히 피곤하지.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시험장에서 곧바로 암기 '되었습니다'.

세계사와 수학, 그리고 국어. 뭔가 보이시나요?

제가 모든 공부 방법은 결국 다 똑같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III. 마치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이미 가능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외운다'의 원리가 이해되시나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본인이 납득할 만한 논리로 지문을 이해하면, 지문이 외워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만의 말로 이해하기'가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유죠.

오늘 칼럼을 보고 지문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깨달았다면, 계속 연습하세요. 지문으로 되돌아가는 횟수가 줄면 줄수록 풀이 시간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능의 차이는 시작할 때만 유효합니다.

지문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알아도, 오랜 시간 동안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법론을 듣고 하루 만에 적용이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 부분만 재능의 영역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재능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뒤로는 누가 더 많은 지문을 기억했는지, 즉 누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재능을 가진 사람은 분명 있겠지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떤 칼럼을 썼으면 좋겠는지 추천해주시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 글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읽으면 좋은 책 추천 + 독서 공부법

- 반복의 힘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최근에 바쁜 관계로 쪽지 주신 분들께 일일이 답장을 못 드렸는데, 시간 나는 대로 답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겹치는 게 많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읽으셔도 좋지만 읽기는 무조건 다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고력 향상에 도움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 생각나는 대로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책 추천

경제 -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사실상 줄글에 준하는(...) 내용 전개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만화책. 만화라고 우습게 보기에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읽고 나면 경제 지문은 상당히 수월한 느낌.

철학 - ~~가 들려주는 ~~이야기(*****) (ex. 김정희가 들려주는 실사구시 이야기)

이것도 어린이용 책으로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직접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리즈로 이루어진 책이라 읽기만 해도 철학 지문의 익숙함은 알아서 얻어지는, 무조건 읽어야 할 책들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용인데 내가 이거 왜 읽어 -> 절대 금물

법학 - 어린이 로스쿨(***)

만화도 있고 그냥 책도 있는 걸로 아는데 법의 기본 베이스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다만 어린이용이다 보니 유치할 수도 있고 상당히 쉽게 쓴 부분도 보이나,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내용 자체는 초심자가 읽기에 아주 좋습니다. 유치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별 5개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다른 책들과 다르게 진짜 만화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느 정도 재미도 가져가고 싶으시면 추천드립니다.

역사 -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교수님의 만화책. 마찬가지로 만화책보다는 그림이 있는 장문의 줄글책에 가깝습니다. 만화로 보기엔 재미가 덜 하지만 그냥 책보다는 그래도 한참 흥미롭습니다.

과학 관련 책도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쓰겠습니다. 어린이 로스쿨을 제외하면 만화임에도 도서관에 가면 어른 코너에 책이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형식이 만화일 뿐 얻어갈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만화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책 읽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독서 공부법

그냥 공부했던 그대로 써보려 합니다. 잘 체화하셔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1. 눈으로 풀기

말 그대로 필기 없이 눈으로 푸는 단계. 한 번 읽은 후 절대로 지문으로 돌아가지 말 것. 그럼 대부분 문제를 틀리거나 헛갈려서 우왕좌왕할 텐데, 상관없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맞았을 때의 기분 좋음을 기억하고, 틀렸을 때의 기분 나쁨을 기억하다 보면 정답으로 수렴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 기출 /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 때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이 단계에서는 답만 확인하고 해설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험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짝 말해보면, 시험장에서 약간만 쓰면서 풀어도 굉장히 차분한 마음으로 지문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 단축을 가져오죠.

2. 쓰면서 풀기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쓰면서 풀어보는 단계. 참고로 눈으로 푸는 단계에서 맞은 문제도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3. 해설지를 보고, 보기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메모해두기

모든 문제에 제시된 모든 선지를 다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혹 틀린 문제만 복습하는 학생도 있는데, 맞았든 틀렸든 단 하나의 요소만 몰랐어도 저는 틀렸다는 표시를 합니다. 속으로 "아 이걸 생각 못했네." 하는 거보다, 눈으로 보이게 틀림 표시를 해 놓는 게 더 좋습니다. 기분이 엄청 나쁘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다음엔 정답을 향해 나아가겠죠.

4.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본 후, 책 덮고 소리 내서 설명하기

매번 강조하지만 틀리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설명하고 난 다음 책 내용 다시 읽어보고 놓친 부분이나 틀린 부분 있으면 해당 문단만 다시 설명해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까먹으면 됩니다. 어차피 다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5. 관련 소재 인터넷에 찾아보기

예를 들어서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지문이 나왔다면, 정언 명령이 뭐였는지 다시 찾아보고, 다른 이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이처럼 지문의 핵심은 '취미 판단 이론'이었지만, 우리는 '칸트'라는 학자를 알아보는 거죠. 보통 키워드를 먼저 검색하고, 구글 검색으로 자세한 내용을 찾아봅니다.

검색할 때는, 해당 검색어에 대한 블로그, 카페, 여타 사이트들을 5개 정도 열어두고, 공통된 내용만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용하면 잘못된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외연 자체가 넓어졌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 안 외워져서 고민이라는 분들은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만 해도 배경 지식에서 밀린다는 느낌은 안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 정도 하면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집니다. 경험담입니다. **저 과정을 지나오면 이미 5회독이 끝난 상태인데,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지문을 저렇게 공부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푸는 시간 15분 + 복습 설명 검색 25분 해서 지문당 40분 정도 쓰고, 매일 3지문은 꾸준히 공부했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차이는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재수 때는 4개월밖에 없다 보니 3지문씩 보는 걸 두 번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으니 **저 방식으로 하루 3지문씩 일주일만** 해보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실전에서 비문학 읽는 법(1)

- 2022학년도 수능 헤겔 지문 ver.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예고드렸던 독서 공부법 칼럼을 쓰게 되었네요.

이 칼럼은 제가 처음으로 썼던 글이자,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글을 22수능에 맞추어 다시 쓴 것입니다. 지금 다룰 내용은 독서 파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문학을 읽는 법이자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연초기도 해서 20수능 비문학, 그러니까 좀 쉬운 지문을 가지고 글을 썼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이건 22수능에 적용 안 되는 거 아님?"같은 댓글을 달지는 않으셨지만, 이러한 독법이 20수능, 22수능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는 걸 보여드리려 합니다. 물론, 다가올 23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겠지만, **여러분의 국어 점수를 바꿔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칼럼 및 헤겔 지문 전체 설명 링크

: <https://youtu.be/iHQmgOTuE98>

I. 7가지 독법을 기억하자

(1) 대비되는 짝 짝기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이 말은 제가 고3때 언젠가 들었던 말입니다. 대비되는 짝을 짝자. 무슨 말일까요. 정립과 반정립의 경우, A와 반A의 형태이므로, 당연히 '대비되는 짝'입니다. 저는 대조의 대비와 대응의 대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는데, 정립과 반정립은 '대조의 대비'겠죠.

그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이념의 내적 구조와 이념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도?
내부 - 외부의 대비되는 짝이겠네요.

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㉞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이번에는 '대응의 대비'입니다. 이걸 좀 쉬웠던 게, 예술 / 종교 / 철학에 각각 직관 / 표상 / 사유가 대응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아무리 쉬워도 이걸 짚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있겠죠.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㉜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㉝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여기서 외면성 - 내면성, 객관성 - 주관성은 '대조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외면성 - 객관성과 내면성 - 주관성은 '대응의 대비'겠죠.

(2) 맥락상 동의어 찾기

사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유기적 독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직관적인 말이 없을까 하다가 맥락상 동의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㉞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예술 / 종교 / 철학은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고, 각각 직관 / 표상 /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이라는 말은, 위의 말들과 '맥락상 동의어'가 되겠죠.

(3) 나만의 말로 이해하기

배경 지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시간 내에 독해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나만의 말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텍스트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 지문에 나온 부분을 모두 짚겠습니다.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㉞ 지녀야 한다.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념의 내부-외부에 대한 것도 변증법적이고, 이러한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을 활용해야 한다네요.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모든 것은 변증법으로". 6줄 분량이 한 마디로 정리됩니다.

또, 변증법적 체계성이 제시된 문장을 '나만의 말'로 바꾸면?
그냥 "정반합을 활용하자!" 정도겠네요.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⑥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나만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정신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죠. 이런 낯선 용어를 보고 떠올릴 '나만의 말'은?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절대' '정신'

이렇게 이해했더니 시험장에서 곧바로 암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네요.

'나만의 말'로 바꾸면? 직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표상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고,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입니다.

그럼 표상은 그냥 떠오르는 생각, 사유는 깊은 생각.

그러니 사유는 '진화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것도 '나만의 말'입니다. 이 지문은 진화론 지문이 아니니까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형식 간의 차이로 (동일한)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앞에서는 동일한 내용이라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만의 말'로 바꾸면? "아는 만큼 보인다."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시절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과거로 한정된다? 저는 여기서 '구석기 시대 동굴에 그려진 벽화'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틀리고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말이 틀리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요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은 가장 못 쓴 문장이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혜읍 모의고사를 만들면서 그토록 강조했던 '평가원체'죠.

본질적, 유기적, 질적.

그냥 간단하게 바꾸면

각자의 고유한 성질이 사라지거나 섞여버리지 않고,

조화롭게 모여서(수렴적) 올라간 것(상향성을 가진 것)을 종합이라고 하는 거네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라는 표현은, (가)지문의 6줄짜리 문장처럼 (나)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말'로 바꾸면?

내가 이해했던 것을 '제3자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라.

그럼 완전히 주관적인 내 생각을 재객관화할 수 있겠네요.

철학의 주관성을 재객관화. '제3자의 시선'을 떠올렸으면 무리없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 배경 지식 활용하기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 공부의 핵심입니다.

배경 지식을 이용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배경 지식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지문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다면 믿어야 하는 게 수험생의 의무입니다.

즉, 배경 지식 vs 지문에서, **배경 지식과 일치하는 지문의 내용은 배경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문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국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답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배경 지식과 지문이 다르다면, 본인의 지식이 틀렸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특히 법 지문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지식과 지문의 꼼꼼한 비교는 필수입니다.

헤겔 지문에서는 그렇다 할 배경 지식이 많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브레틴우즈 지문을 설명할 때 좀 유의미할 거 같네요.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소재이지만,

사실 한 번쯤 다들 변증법을 지문으로 접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변증법의 구조는, 정 - 반 - 합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증법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종합은 또다시 정립의 위치에서 또다른 반정립과 대립합니다. 그렇게 도출된 종합은? 다시 정립의 위치에서 또다른 반정립과 대립하게 됩니다.

무한한 삼각형의 연속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걸 언제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헤겔은 세계의 모든 것은 이러한 끊임 없는 변증법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고, 세상을 세 가지로만 보려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은 지문을 푸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 내용을 몰랐어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배경 지식일까요?

저는 항상 "모든 배경 지식은 아는 대로 다 끌어와야 한다."를 강조합니다.

배경 지식의 역할은 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5) 한 문장 안에 제시된 개념어 파악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23학년도 6월 혈액 응고 지문은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와 '맥락상 동의어'로만 글이 쓰인 수준이었습니다.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이념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이다."라는 것을 짚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 가리킨다. 예술·종교·여기서도, "이념은 절대적 진리이다."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화 상태는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개념을 찾을 수 있죠.

(6)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걸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지문에서 뭔가를 놓치고, 당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강한 몰입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모든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글을 읽어서는 효율적인 독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몰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지문을 보면, **글쓴이는 변증법의 이론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 안 될 부분이 있나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한국인이니까 한글 글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파트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바람직한 독서 방법입니다.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자.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 읽는 무게

마지막입니다. 이 말은 아마 다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 읽는 무게가 가벼워야 할 부분이 있고, 무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무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건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한 **너무나 강한 몰입이 깨졌을 때 당황하는 이유도 모든 부분을 너무 무겁게만 읽기 때문**입니다. 과몰입 상태에서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이해한 후에 지문에 예시가 등장하면 이걸 읽을 필요가 없다. 같은 말을 들으면 학생들은 "**그럼 아예 읽지도 않고 패스하나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어지문에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6번에서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읽는 무게를 가볍게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빠르게 읽어 나가면 좋겠죠. 이런 템포 조절들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II. 마치며

저대로 꾸준히 공부하면 비문학에서 고생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요. 국어는 언제든 제대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양으로 밀어붙여도 쉽사리 오르기 힘든 과목입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 저렇게 읽는 연습을 해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받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과목별로 돌아가면서 글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다음 국어 칼럼은 가능하다면

브레턴우즈 지문 - 현장 6분컷의 비결

처럼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글일 거 같습니다.

헤겔 지문으로 독법을 자세하게 다뤘다면 **브레턴우즈 지문을 갖고 쓰는 글은 오늘 이야기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칼럼**이 되겠네요. 오늘 칼럼도 실전적인 부분을 다루긴 했지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분 간 브레턴우즈 지문에서의 사고 과정

- 2022학년도 수능 브레턴우즈 지문 ver.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원래 수학 칼럼을 쓰려고 하다가 브레턴우즈 지문 관련 칼럼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비문학 읽는 법 2편을 쓰게 되었네요.

이 글은 이전 칼럼의 내용이 체화되었을 때 얼마나 실전력이 극대화되는지 현장 6분컷의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는 독법별로 다뤘으니 이번에는 내용 순서대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칼럼 및 브레턴우즈 지문 전체 설명 영상 링크

: <https://youtu.be/1VKquveD2Ws>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다. 그리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 문장 하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1달러가 1000원에서 1200원이 되죠.

그럼 우리는 1달러만큼의 물건을 외국에 팔았을 때

1000원이 아닌 1200원을 받게 되니 수출하는 입장에서 좋겠네요.

또, 1달러를 갖고 싶을 때 1000원만 줘도 됐는데 1200원이나 줘야 한다는 건 원래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니 우리나라 화폐가 안 좋아졌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상식에 가까운 배경 지식 몇 가지(기축통화는 달러구나 등등)를 제외하면

저 한 문장으로 지문 전체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I. 2022학년도 수능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1)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가 갖는 구조적 모순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맨 처음에 기축 통화의 개념을 주고 시작하는데 이 역시 아는 내용이므로 빠르게 넘어 갔습니다. 약간의 상식이 있었다면 "어? 달러화?"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지문에서 헤겔이 중요하듯, 트리핀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해야 할 겁니다. 트리핀은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1944년, 44개국이 모여 IMF 설립, IBRD 설립,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지정

이 세 가지를 합의했던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출발하죠.

IMF와 IBRD가 이 지문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전혀 상관 없었지만 익숙함을 주었을 겁니다.

경상수지의 흑자와 적자를 이야기하는데

경상수지는 무역과 관련된 것, 흑자는 +, 적자는 -

특히 흑자 / 적자 개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상식에 가까운 배경 지식이에요.

그럼 수입 > 수출일 때 왜 적자일까요.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내가 물건을 외국에 팔아서 돈을 벌어드는 것보다, 외국한테서 판 걸 사오느라 바깥으로 돈이 더 많이 나가는구나."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수출 > 수입이라면 흑자일 텐데

이번엔 반대로 물건을 외국에 팔아서 돈을 벌어드는 게 더 크니까 플러스겠네요.

(2) 트리핀 딜레마: 국제 유동성 확보 vs. 달러화의 신뢰도 확보

위에서 언급했던 경상 수지의 흑자 적자 개념이
기축 통화국인 미국에게 적용되면 문제가 생기나 보네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미국이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즉, 수출 > 수입을 유지한다면?

"미국이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안 사올 테니까 달러화가 바깥으로 안 풀리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배경 지식이 등장하는데, 어차피 밑에서 제공을 해준다지만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 있었겠죠.

유동성은 원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라는 뜻을 가지나,

국어 비문학 경제 지문에서도, 일상에서도

일반적으로 유동성 = 화폐, 돈의 맥락으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적자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달러화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라 했으니

"국제 화폐 공급이 중단? 아 국제 화폐는 달러화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짐바브웨에 가서 원화로 물건을 살 수 없듯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화폐가 세계에 돌아다니지 않으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반대로 적자 상태를 허용한다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사오니 달러화가 바깥으로 많이 풀리겠구나."

그럼 신뢰도가 저하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여기서 "이건 인플레이션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배경 지식이겠네요.

그리고 고정 환율 제도의 붕괴를 보고 떠올릴 생각은 뭘까요.

"아니 네이버 보면 어제는 1달러에 1100원인데 오늘 1110원이잖아.

이거 변동 환율 아님?"

맞습니다. 딜레마가 있으니 이후에 붕괴되었겠죠.

그리고 지금의 변동 환율 제도로 변했을 테고.

나만의 말과 배경 지식의 적절한 활용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는 각각 위에 나온 말과 맥락상 동의 어겠네요

(3) 금 본위 체제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아까 주지 않았던 국제 유동성의 개념을 이제야 제시합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은 넘어가겠죠.

저는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까지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ㄱ을 주고 금 본위 체제를 제시하니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건 독서 공부법(2)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를 봤는데 ㄴ에 브레턴우즈 체제

체제끼리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다네요.

아까 달러화가 국제 유동성이었는데?

관점을 수정해야죠.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화폐였구나.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가 유용했습니다.

각 국가의 통화 가치를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 그에 따라 환율 자동 결정.

일단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은지는 몰라도 환율 자체의 개념은 아실 겁니다.

"아, 1달러에 1200원 이런 거?"

그럼 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를 활용해보겠습니다.

금 1개에 1달러라고 해볼까요. 그럼 제 머리 속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 ---1달러
금 1개 | ---1000원
| ---100엔

이걸 1달러는 1132원이잖아! 이러지 말고 간결한 수치인 100, 500, 1000등으로 나타내는 게 좋겠죠.

금 1개라는 말도, 그 가치가 1달러라는 말도 실제와 다른,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입니다. 왜 구체적이되 간결해야 할까요?

저렇게 각 국가가 금에 화살표를 꽂으니깐 각 국가끼리는 1:1000, 10:1, 1:100 순으로 세 가지 환율이 자동 결정되네요. 이렇게 간단하다면 글로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겠죠.

(4) 브레튼우즈 체제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금, 달러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받는 걸까요?

답이 어차피 아래에 제시되어 있지만 배경 지식이 있었다면?

달러는 과거에 금 교환권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달러화를 내고 정해진 양의 금을 받는 거였죠. 이후에 달러 != 금 교환권으로 변하고 나서도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전세계적인 사기극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네요.

어쨌거나, 아래를 읽어 보니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금 환 본위제, 바꿀 환이니깐 바꿔주나 보네요.

금 1온스와 35달러를 맞교환해준다는 조항을 보고, 저는 **관점을 수정**했습니다.

아까 분명 '신뢰도 저하'에서 인플레이션을 떠올렸지만

금 1온스를 35달러와 '언제나' 교환해준다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신뢰도 저하만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 부분을 짚지 못해 11-1번 선지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좀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니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는 달러 = 금 교환권이라는 의미이고, 달러화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다면 금이 아닌 달러화에 화살표를 꽂아야겠네요.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 ---1000원
금 1개 - 1달러 |
| ---100엔

그러면 달러화를 제외한 화폐들 간 관계는?
10:1로 교차 환율이 한 가지 자동 결정되네요.

(5) 경상 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한 달러화 과잉 공급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할지 말지 딜레마에 놓여 있던 미국에 결국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상 수지 적자가 점점 쌓여가고, 그에 따른 달러화 과잉 공급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결국, 금을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도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떻게 평가 절하와 평가 절상이지? 둘은 완전 반대인데?"

제가 환율을 설명할 때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해결책을 살펴보면

1. 달러화의 가치를 직접 내리는 평가 절하
2.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평가 절상 -> 달러화의 가치 평가 절하

결국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네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환율이 오르면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으니

환율을 하락시키면 그 가치는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네요.

동전의 양면이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나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11-1을 잘못 해설하는 걸 종종 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경상 수지 적자인데 왜 달러화를 평가 절하하지?"

안 그래도 많이 풀린 달러인데 평가 절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금 태환 조항에서는 금 1온스를 '언제나' 35달러와 맞교환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35달러는 '언제나' 금 1온스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달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신뢰도 하락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관점 수정' 파트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달러의 절대량은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미국의 금 준비량은 정해져 있죠.

금 1개에 1달러인데, 100달러가 풀려버렸고, 내가 지금 가진 금은 1개라고 해볼까요.

왜 평가절하를 하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100달러에 상응하는 금 100개를 주는 건 불가능하니, 금 1개를 100달러로 올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는 평가 절하되죠.

달러는 무조건 정해진 양의 금을 교환해주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많이 풀릴수록, 동일한 금 준비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평가 절하할 필요가 있네요.

(6) 닉슨 쇼크 -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위에서 해결책으로 달러화를 직/간접적으로 평가 절하시키는 걸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규정상 직접 평가 절하는 안 됩니다.

남은 건 **여타국 통화를 평가 절상하여 간접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건데 **독일, 일본 등은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라서 평가 절상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이 수출 주도 국가였다는 것만 알았어도 충분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죠. 지문만 본다고 해도 대미 무역 흑자 상태라는 건, 미국 상대로 수출을 많이 했다는 뜻인 걸 짚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다. 그리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수출을 주로 했던 독일 일본은, 환율이 올라야 좋습니다.

그런데 자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하면 환율은 하락하죠.

"수출 주도인데 우리가 환율을 왜 내려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가 미국인데 니네가 어쩔건데 ㅋㅋ"

어차피 얼마 못 가 평가 절상될 것을 예상하고

독일과 일본의 화폐를 투기적으로 사들입니다.

환율은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죠. 오르면 수출이 좋고 내리면 수입이 좋으니.

하지만 화폐 자체를 사들인 사람은? 화폐 가치가 오르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네요.

이렇게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문을 두드리고 영국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멘탈 붕괴. 그리고 브레턴우즈 체제도 붕괴되었네요.

이를 닉슨 쇼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에도 배경 지식을 떠올려볼 수 있죠.

닉슨 독트린(1969), 중국 방문(1972), 워터게이트 사건(1972~1974)

전혀 지문 이해에는 도움 안 되는 배경 지식이었지만

1971년의 사태가 왜 '닉슨' 쇼크인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네요.

(7)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에도 기축 통화의 역할을 했던 달러화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㉔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었다고? 근데 지금은 왜 달러가 기축 통화지?"

달러가 금 교환권이 아니게 된 시점부터, 전 세계적인 사기극이 시작된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에 의존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였으니..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규모의 경제는 배경 지식이었지만 몰랐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우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규모의 경제는, '많이 생산해서 생산 단가 낮추기' 이 정도가 되려나요.

연필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공장이 연필을 만드려면 1000원짜리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건 올해 4모의 영업고정비 개념이죠.)

그리고 그 설비로 연필 하나를 만드는 데 100원이 듭니다.

연필 1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100원. 생산 단가는 1100원.

연필 2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200원. 생산 단가는 600원.

연필 3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300원. 생산 단가는 433.333원.

많이 생산할수록 개당 비용이 줄어드네요.

규모의 경제를 나만의 말로 표현하면?'많이 생산해서 생산 단가 낮추기'.

이게 도대체 환율과 무슨 상관일까요?

| ---1달러

금 1개 | ---1000원

| ---100엔

아까 나왔던 이 구조와

| ---1000원

금 1개- 1달러 |

| ---100엔

이 구조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3가지 환율이 생기는 첫 번째 케이스에 비해 두 번째에는 1가지 교차 환율만 생기죠.

여기서는 3가지 / 1가지 정도지만, 고1 과정의 순열과 조합 파트를 떠올려본다면?

3C2 / 2C2

4C2 / 3C2

5C2 / 4C2

.

.

.

처음에는 3가지 / 1가지였던 것이 6가지 / 3가지 -> 10가지 / 6가지 ...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죠. 전 세계 국가를 다 고려한다면 효율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과 학생이라면 이걸 떠올려보시면 되겠네요.

$$\lim_{n \rightarrow \infty} \left(\frac{n(n+1)}{2} - \frac{n(n-1)}{2} \right)$$

마지막으로, c의 경우는 뭔가요? 금은 없을 거고, 달러도 기축통화의 위치가 아니라면

| ---1달러

X | ---1000원

| ---100엔

c은 c에서 금이 사라진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나만의 말입니다.

문제 풀이

10번의 정답은 트리핀이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될 것임을 예측했고,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1번도 쉽지 않았기에 11, 12, 13번 순으로 보겠습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듯, 달러화는 정해진 양의 금과 동일한 가치였으므로 경상 수지가 누적됨에 따라 점점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을 겁니다. 닉슨 쇼크 이후 평가 절하가 가능해진 건 알겠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몰랐던 분들은 지문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 선지에서는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가 중요했습니다.

금 1개	1달러	1000마르크
금 1개	1달러	500마르크
금 2개	2달러	1000마르크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된다는 것은 마르크화의 환율이 하락한다는 뜻이죠. 환율이 오르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으니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달러를 1000마르크가 아닌 500마르크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대로 1000마르크로 돌리면? 이는 2달러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금 2개와 바꿀 수 있네요.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증가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3 = 3$**
-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1 = 1$**
-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3, 6, 10, 15...$**
-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3 < 1$**
-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1 < 3$**

역시 체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지문 설명에서

㉠은

 | ----1달러
금 1개 | ----1000원
 | ----100엔

㉡은

 | ----1000원
금 1개 - 1달러 |
 | ----100엔

㉢은

 | ----1달러
X | ----1000원
 | ----100엔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1. ㉠에서 자동 결정되는 환율 3가지.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 3.
2. ㉡이 붕괴된 이후에도 달러가 여전히 기축 통화라면?
그냥 ㉠에서 금 1개 자리만 사라진 거죠.
즉, 변화가 없으니 교차 환율은 계속 1가지입니다.
3. 지난 칼럼에 나와 있지만, ㉢이든 아니든
국가 수를 하나씩 늘릴 때는 다른 국가와 연결을 각각 해줘야 합니다.
당장 ㉢에서 국가 수를 하나 늘릴 때 환율은 3가지가 늘어나네요.
4. ㉠의 환율 가짓수는 3, ㉡의 교차 환율 가짓수는 1이네요.
5. ㉡의 교차 환율 가짓수는 1, ㉢의 환율 가짓수는 3이네요.

13번은 문제 볼륨이 커서 <보기>와 선지를 나누겠습니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우선 보자마자 1985년의 플라자 합의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도 알고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시문 자체는 생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세 감면 및 군비 증대로 인한 A국 금리 인상부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를 노린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화폐가 많아졌으니 **외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는 곧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고 미국 입장에서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경제 지문을 읽다 보면 **금리가 오르면 환율은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비교적 자주 나오는데 알아뒀으면 좋았겠죠.

어쨌거나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으니, **다른 나라 환율을 내려서 미국의 환율을 높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B국(독일)과 C국(일본)의 환율을 낮춰버린 겁니다.

냉전 이야기, 경상 수지 적자 이야기 등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만 알면 될 듯합니다.

핵심은 **B국과 C국의 환율이 각각 50%, 30% 하락**했다는 거겠네요.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1. A국 통화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지문에서는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달러화 과잉 공급을 언급**했었으니 외자 대량 유입은 내용 일치만 놓고 봐도 틀린 말입니다. A대신 B를 주는 오답 논리는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2. **B국의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B국 통화의 가치 상승** 즉 **A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3. 여기서도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가 빛을 발합니다.

B국과 C국의 환율이 각각 50%, 30% 하락했다고 했으니 이렇게 되겠네요.

A	B	C
1달러	1000마르크	100엔
1달러	500마르크	70엔
2달러	1000마르크	140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은 <보기>에서 봤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B국 통화와 C국 통화가 각각 50%, 30%씩 하락했으니

1000마르크는 500마르크가 되었고, 100엔은 70엔이 되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1000마르크로 원상 복귀시키면?

1000마르크는 140엔에 대응합니다.

B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은 100엔에서 140엔으로 상승한 겁니다.

4. 위에서 말한 것처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올랐다면?**

B국 상대로 하는 무역에서 C국의 경상 수지는 당연히 개선되었겠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이전 칼럼에서 말씀드린 한 문장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5. 이걸 실현적으로 바로 풀 수 있는 게,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완화 방안이 B국 통화의 환율 상승이어서는 안 됩니다.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을 좋게 만들어야 하니

A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켜야겠죠. 즉,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야 합니다.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된 게 아니라면 그건 그거대로 틀린 거네요.

+ <보기>에서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가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니 A국 통화의 환율을 낮췄을 겁니다.

환율이 내리면 수입이 좋겠죠. 경상 수지는 악화되었겠네요.

문제편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는 것의 의미

-정답 특성의 원리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는 방법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독서공부법 (1)에 나와 있는 7가지 독법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는 아마 추가했을 겁니다.)

원래 이 방법은 그리 거창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업하다 보니 신기해하는 학생이 많아서 글로 남겨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I. 들어가며

아마 "문제를 지배하면서 풀어라.",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능동적으로 풀어라."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도대체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는 건 어떤 의미 일까요?

사실 제가 알려드렸던 독법 7가지나, '어차피 나오는 독서 문제' 7가지, 나오는 내용만 반복되는 문학 <보기>는 대부분 아는 내용이므로 실전에서 <보기>를 읽지 않고 푸는 방법 등도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는 것에 해당합니다. **어차피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문제를 낼지 예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전에 들려드린 적 없는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다.'의 의미를 써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뭐야 결국 정답이니까 정답이다. 오답이니까 오답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잖아?"

흔히 말하는 '사후적인 해설'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글에 담겨 있습니다. '정답 특정'이 가능한 문제 유형(소재에 대한 이해 등)에서는 답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5개 중에 1개 고르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애초부터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문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오지선다형이니 5개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너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어도 맞힐 수 있어야 돼."입니다.

수험생 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모의고사를 출제해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오답 선지 구성하는 게 더 힘들어요 ㅋㅋㅋㅋ

가끔 보면 사후적인 해설이라고 비판받는 지점은 바로 여기겠죠. 어차피 정답이 아닌데 근거를 설명하려다 보니 사후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바로 골라주면 그만입니다.

II. 문제를 지배하면서 푼다는 것의 의미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0학년도 6월 [공생발생설]

가지이다. ㉠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전 칼럼에서 보셨겠지만, 저렇게 ㉠이 나온다는 건? ㉠의 원리나, 이유 등 뭐가 됐든 문제로 내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죠. 아마 ㉠에 밑줄 그어놓고 문제 안 내면 그건 그거대로 논란일 겁니다.

㉠의 이유는, 바로 밑에 ~때문이었다 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선지를 보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렇게 내놓고 이유를 주면,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그대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글의 다른 부분과 엮어서 물어보겠죠. 조금 더 '나만의 말'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9.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공생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③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④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9번을 보고 좀 당황스러운 건 당연할 겁니다. 설명을 위해 5번을 강조해 두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누가 형광펜으로 표시해줄 리는 없습니다. 잠깐 지문으로 돌아가 보죠.

연구 주제가 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여기서 '정답 특정'의 원리가 쓰이는데, 제가 추가 근거를 어떻게 찾는 순간, 무조건 5번이 정답입니다.

애초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미토콘드리아 = 독립된 생명체 = 생명체면 자기 고유 정보 전달하지" 와 같은 구조였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데, '정답 특정' 유형 중에서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해서 좀 힘들었죠.

이렇게 되면 다른 선지들은?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이 아닌 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풀이 방식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근거 하나 찾고, 추가 근거 찾으니까 5번. 하지만 1, 2, 3, 4번을 매우 자신 있게 거르기 때문에 시간 측면에서 차이가 나겠죠.

(2) 2023학년도 6월 [혈액 응고]

신뢰를 드리게 위해 가장 최근 기출을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공생발생설 지문보다 훨씬 더 정답 특정하기가 편한 문제였습니다.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 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칼슘의 역설에 네모 박스가 있으니 무조건 문제를 낼 겁니다. 칼슘의 역설에 대한 설명을 보고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뼈의 칼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칼슘을 열심히 섭취하는데, 정작 뼈에는 칼슘이 없네." 즉, 칼슘을 먹는데 칼슘이 부족하니까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1.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₁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그렇게 '정답 특정' 후에 문제를 보면 선지가 다섯 개여도 답은 그냥 2번입니다. 1, 3, 5번은?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이 아닌 선지'입니다. 애초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4번에 대한 해설**을 보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했다는 것을 오답 근거로 꼽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 이야기는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걸 짚었든 못 짚었든, '혈관 벽에 칼슘 침착'은 애초부터 묻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술형으로 나와도 맞힐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II. 마치며

이 문제들 말고도 '정답 특정'의 원리가 쓰일 수 있는 지문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 번 기출을 보면서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문제 정도 다루려고 하니 너무 길어지네요.)

점점 더워지는 시기인데,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열심히 달리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데 간결한 수치

- 2023학년도 6월 국어 이중차분법 킬러 문제 쉽게 풀기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6모 독서 / 문학 칼럼을 순서대로 적는 것을 살짝 늦춰야 할 듯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것만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 문제만 볼 건데, 바로 이중차분법 - 평행추세가정 지문의 킬러였던 15번 문제입니다.

* 지문 내용을 복습하신 후 읽으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이중차분법과 평행추세 가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중차분법을 '나만의 말'로 이해하면? 그냥 **변화의 차이**입니다.

또한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 (22수능 브레턴우즈 강의/칼럼 참고)를 떠올리면?

예를 들어 원래는 시행집단도 50, 비교집단도 50의 값을 갖도록 똑같이 맞추어놓고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면, 이중차분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행추세가정을 생각해볼까요.

즉 사건이 없었을 때 일어났을 변화가 같다고 가정하고 그 똑같은 변화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50 = 50$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을 같게 맞춰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값을 각각 $70 + a + b$ 와 $50 + a$ (a는 사건이 없을 때도 일어났을 같은 변화량)라고 해볼까요.

어차피 변화의 차이만을 고려할 것이므로 초기 값이 같지 않은 70과 50이라 하더라도, 이중차분법에 따르면 사건의 효과는 언제나 $(a + b) - a = b$ 가 됩니다.

그런 $60 + a + b$, $80 + a + b$, 1억 5천만 $+ a + b$ 를 가져와도 언제나 같겠죠. 결과 값은 언제나 b입니다.

이 부분은 지문의 후반부에 제시된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이라는 문장에서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는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중차분법으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15번은 매우 쉽게 풀립니다. 시행집단에서는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더 크다고 하네요.

'나만의 말'로 이해하면?

'시행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실업가능성이 높다.' 정도가 되겠죠.

그 말을 다시 바꿔 표현하면

사건이 없었을 때를 가정해도 애초부터 시행집단은 실업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증가 효과 (변화)가 비교집단보다 적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애초부터'에 별표 100만 개)

문제를 보겠습니다.

15.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프로그램이 없었어도 시행집단은 **애초부터**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률 증가(변화)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구체적이되 간결한 수치'를 활용하면?

아까 전의 예에서처럼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각각 $70 + a + b$ 와 $50 + a$ 가 아니고, $70 + (a - c) + b$ 와 $50 + a$ 이런 식으로 되겠죠. (c는 양수)

즉, **애초에 (사건이 없었을 때) 변화한 수치가 시행집단은 $a - c$, 비교집단은 a 로 달랐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결과값은 $(a - c) + b - a = b - c$ 로 평행추세 가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값인 b 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이되 간결한 예시로 이해하고 나면, '나만의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변화가 덜 일어나는 집단이니까, 이중차분법을 쓴다 해도 평행추세 가정을 고려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변화가 작을 수밖에 없지."

항상 말씀드리는, **어차피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ㄱ에 밑줄을 쳤으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미리 생각할 부분이었고, 15번 문제는 읽자마자 바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학생들의 말을 들어 보니 타임 어택과 더불어 헛갈릴 만한 지점이 많아서 머리가 하얗게 됐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제가 칼럼과 강의에서 다뤘던 부분을 6모에서 잘 짚으면서 피드백하시면, 수능 때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ver.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6월 모의고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모두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글은 모의고사 때마다 매번 돌아오는 짧은 칼럼입니다. 원래는 총평 및 리뷰를 다루려 했으나 그건 유튜브 해설 때 하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이미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일어나니 점심때' 님의 총평이 가장 실전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링크를 첨부하니 한 번 읽어보세요! [<https://orbi.kr/00057041883>])

제 글을 읽다보면 사후적으로 지문을 분석한 후 국어의 틀을 만들어놓고 60분컷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아닌지 살짝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6월 국어는 또 뭔가가 바뀌었다는 말이 많던데, **22수능도 그렇고 언제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 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독서론 지문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2020학년도 6월 경제 지문입니다.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독서론과 경제를 왜 묶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읽어보시면 두 글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2023학년도 6월 독서론에서 [A]에 제시된 부분은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선순환 악순환이구나.'

독서론과 경제 지문은 주제도 다르고 난이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저는 독서론을 읽으면서 저 경제 지문을 떠올렸는데, 이것도 제가 강조하는 **배경지식**이겠죠.

독서론은 좀 쉬웠으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④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은 비타민 K1, ㉡은 비타민 K2였습니다.

그런데 K1이든 K2이든 둘 다 비타민 K 아닌가요?

즉, 비타민 K1과 비타민 K2는 당연히 비타민 K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포함 관계'** 이야기죠.

이 부분을 이해했다면 2, 3, 4, 5번 선지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선지'인 것도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아래는 2022학년도 6월 PCR 지문입니다.

14.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기출을 떠올려보면 기억나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통적 PCR이든 실시간 PCR이든 모두 PCR이라는 거죠.
즉, 실시간 PCR은 PCR 과정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위 두 문장은 PCR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지는 결국 실시간 PCR은 PCR의 특징을 갖고 있냐?를 묻는 건데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역시 **'포함 관계'** 이야기입니다.

결국 제가 정리했던 부분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출제 패턴 적중인가요? 아닙니다.

본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22학년도 3월 고3 학력평가 독서

- 정책 딜레마와 그 해결책 /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고3 학생들의 첫 시험인 3월 학력평가의 해설로 찾아뵙습니다. 학력평가도, 모의평가도 수능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수미잡(수능미만잡)이라는 웃픈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본인의 위치를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시험입니다. 모쪼록 꾸준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I. 들어가며

최근 수능 독서는 '압축적 독해'를 요구하는 기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할 경제 지문의 경우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 구성을 살펴보면, 정보량으로 수험생을 괴롭히는 지문도 있고, 짧은 지문을 주고 어려운 문제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정보량이 많은 경우 / 압축적 독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절히 섞여 있어 적절한 시험이었다고 느꼈습니다.

II. 2022학년도 3월 고3 학력평가 독서 경제 지문

(1) 실체설과 과정설이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재와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 보는 입장이다. 과정설은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흔히 나오는 익숙한 소재가 등장합니다. 사용재나 공공재 같은 개념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소비하는 것을 공공재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재와 다르다고 하네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재는 공공적으로 = 다 같이 쓰는 것을 뜻합니다. 사용재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 일 텐데, 사적재와 같은 말입니다. 공공 vs 사적. 이런 식으로 대립 구도를 세우면 얼른 봐도 한눈에 이해가 될 텐데 사용재라고 하니 뭔가 애매하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라는 말도 경제의 단골 멘트입니다. 물건과 서비스라고 하면 좀 쉬울 까요. 어쨌든 위에서처럼 지문을 '나만의 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공공재는 다 같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 같이 쓰는 건데 사익을 목적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모든 걸 몰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겉으로 드러난 뜻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떠올렸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익'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관점을 제시합니다. 읽을 때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공익은 그냥 공익이지 관점이 왜 두 가지야?" 공익의 뜻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서로 다른 두 관점을 언급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공익의 뜻, 즉 배경 지식을 언제든 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지문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법 지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를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정설은 뭘까요. 공익과 특정 실체를 연결 짓지 않고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 둘 다 말이 엄청 길지만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실체설은 '공익'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것을 공익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과정설은 그런 실체와의 연결은 모르겠고 공익이 뭐냐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실체'와 연결 지으니 '실체'설, '과정'을 중시하니 '과정'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내용을 받아들이면,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외워 '질'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제가 수능 날 봤던 지문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모님께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독서 공부법 (2) 보충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 전체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정책 딜레마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 왔다**.

‘나만의 말’로 이해하는 훈련을 충분히 했다면 매우 쉽게 느꼈을 문단입니다. **딜레마**는 쉽게 말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공존하기 어렵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할 텐데 둘 다 공익이기 때문에 뭘 포기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공익을 포기하면 발생할 손실을 막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책이 복잡한 이유는,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건설 관련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볼까요. A회사 입장에서 정부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쳐주면, 지금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래대로 일을 진행할 예정이죠. 그런데 **딜레마 때문에 정부의 정책 결정이 지연된다면?** 일을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시간과 돈 낭비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자금을 어디서 조달해왔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든 건설에 쓰든 해야 할 텐데 그냥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건설 정책은 건설사만 영향을 받나요? 목재 회사, 콘크리트 회사, 시멘트 회사 등 수없이 많은 회사가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이 엄청나겠죠.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시를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정책 딜레마에서 벗어날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왔다**고 하네요. 읽는 순간 다음 문단에서는 **해결책이 제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결책이라기엔 하나는 너무 이상적이고 하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적 독해’**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3) 정책 딜레마에 대한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의 설명

㉠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의사 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만족모형'**은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강조**한다.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 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보통 내용이 길면 한 문단이어도 나눠서 설명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을 나누지 않았습니니다. 상당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합리 모형'은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가 있다면 딜레마 상황에서도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족 모형'에서는 최적 수준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으니 적당한 선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네요.** 부연 설명을 덧붙여, **'만족 모형'을 적용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면 도덕 / 논리 등과 무관하게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니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했습니다.**

'합리'모형은 '합리'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만족'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적당히 결정하자는 이야기네요. 또 지문의 내용을 외워버렸습니다. **'나만의 말'**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제별 스킬 정리 칼럼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경제 지문은 클리셰가 있습니다.** 경제 지문에서는 전통 이론과 새로 등장한 이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높은 확률로 새로운 이론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될걸?"**이라는 말과 함께 전통 이론을 비판합니다. 대체로 전통 이론은 이상적인 이야기(ex. 완전 경쟁 시장)에, 새로운 이론은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응합니다.

이상 vs. 현실의 대립 구도는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늘 그렇게 전개되니까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말이 쉽지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99%의 확률로 지문이나 <보기>에서 현실은 이상(이론)과 다르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합리 모형은 이상적이고, 만족 모형은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니까 앞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다.'**라고 한 겁니다.

(4) 정책 결정에서 만족 모형이 갖는 의의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딜레마 지속으로 인한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의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결정자들의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

상식적인 이야기로 지문이 마무리됩니다. 합리 모형을 적용할 때 충분한 예산과 정보를 얻어도 그에 따라 필요한 검토 시간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겠죠. 앞에서 제시했듯 사회 전체 비용도 대폭 증가합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만족 모형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전부 다 고려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적당히 결정하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의 지속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네요. 합리화 ~~같기도~~ 하교

내가 어떻게 생각했든,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다**고 하니, ‘정책 결정자들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족 모형을 선택한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틀린 거겠죠**.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어**는 **평가원** **단골 출제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 지문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5)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뉘는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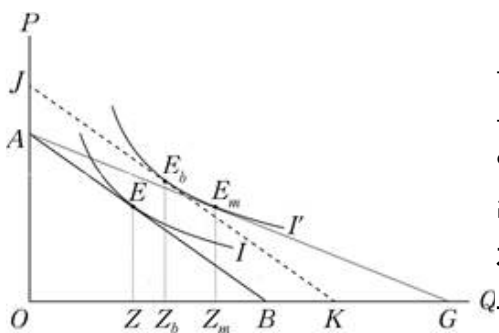
지방 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에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나) 지문을 보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핵심**인 거 같네요. (가)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공재’일 겁니다. 주제 통합형 지문을 볼 때는 항상 출제자가 **왜 이렇게 두 지문을 묶어서 출제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재정 지원은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읽어 보면 정액 지원금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정률 지원금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되네요. **‘나만의 말’**로 이해하는 연습,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내용을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의 종류 두 가지를 알려줬으니, 각각을 설명하는 문단을 구성해야 할 겁니다. 이는 **기술 지문의 구조**와 비슷한데, 본질만 놓고 보면 **지문을 읽는 방식이 모두 똑같다**고 (제가 썼던) 다른 글에서도 강조했습니다.

(6) 예산선 및 사용재와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균형점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Q)**과 **사용재의 양(P)**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B**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로,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로 나타나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E**로 나타나 있다.



그래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프를 보면 당황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들 하는데, 시간이 들어도 천천히 읽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빨리 읽고 넘기려다 보니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배경 지식 없이 풀 수는 있겠지만, 그래프를 처음 보는 사람과 자주 봤던 사람은 차이가 나겠죠.**

가로축은 **공공재**, 세로축은 **사용재**와 연결됩니다. **예산선**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예산을 300원으로 잡고 설명해보겠습니다. Q축 위의 B점에서는 300원을 모두 공공재에 투자하는 겁니다. P축 위의 A점에서는 반대로 사용재에 모두 투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프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멈추면 공공재 100원 & 사용재 200원 / 공공재 170원 & 사용재 130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의 선호는 **I**로 나타나 있는데, **반비례 곡선**입니다. 공공재를 선호하는 비율이 늘어나면, 사용재를 선호하는 비율은 줄어듭니다. 재정 지원에 따라 선호가 변화한 **I'**를 살펴보면, 그래프가 **평행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평행이동한 걸 알 수 있으니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고 봐야 할까요? **익숙함의 정도**가 다를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평행이동은 재정 지원, 말하자면 총 사용금의 증가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300원의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500원 정도가 되어 **금액 자체가 늘었으므로 그래프가 개형을 지키면서 평행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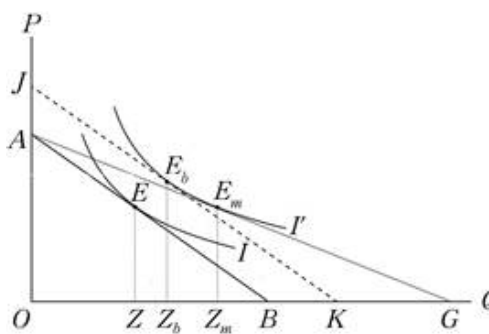
또, **균형점을 E**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문단에서는 재정 지원으로 인해 선호가 I'로 바뀐 건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또, **지역 주민의 선호를 나타낸 곡선(I)과 예산선(AB)이 접할 때** 균형점이 형성된다는 것을 짚으면 더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프끼리 접하는 부분에서 균형점이 형성된다.’**라는 배경 지식이 있었던 학생과, 해설을 듣고 나서야 알아차릴 학생은 시험장에서 **지문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이런 내용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고, 만약 접하는 데도 균형점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배경 지식을 과감히 버리고 지문의 내용을 받아들여야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문에서는 균형점이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라는 뜻인데, 한 번이라도 **“그래프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접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거고 내용이 기억 ‘될’ 겁니다.

(7) 이론적으로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정액 지원금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액 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예산선**은 원래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해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다. <그림>에는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균형점이 E_b**로 나타나 있다. 이론적으로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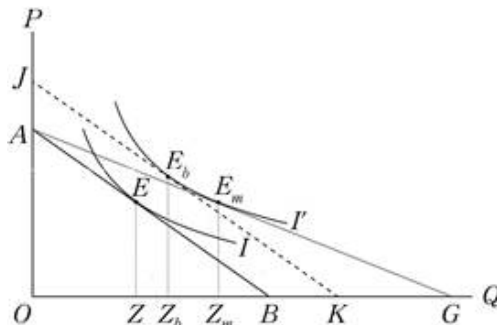
정액 지원금은 소득 증가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났을 거고, 예산선 역시 평행 이동합니다. 예산 자체가 증가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예산선과 선호를 나타낸 곡선이 모두 평행 이동했으니 균형점은 E_b가 됩니다.** 역시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맨날 나오는 설명이 또 제시되는데, 어떤 건지 눈치채셨나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정액 지원금 = 소득 증가**이기 때문에 지역 재정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재정 기반 보완, 재정 격차 감소 등에 주목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정액 지원금 = 소득 증가일 때, 쉽게 말해 자금이 늘어나니 당연히 재정이 보완될 거고, 다른 지역과 격차를 줄일 수 있겠죠. ‘겉으로 드러난 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여기서 더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8)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하는 정률 지원금

한편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그림>에서 원래의 예산선은 선분AB였는데, 정률 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은 선분AG로 변한다. 이렇게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_m 이 된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 정액 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개별 요소를 각각 설명한다.’라는 기술 지문의 구조가 경제 지문에서도 쓰입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를, 이런 이야기들이 지문을 읽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정률 지원금을 지급하면, 예산선이 선분AB에서 선분AG로 변합니다. 기울기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라는 말이 제시되어 있고, 균형점이 E_m 으로 변했을 때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공공재 보조금 아니야?”라고 말해도 지장이 없겠죠.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선분AB와 선분AG를 놓고 가로 직선을 그어 보시면, 동일한 사용재의 양(P값)에 대한 공공재의 양(Q값)이 더 많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_m 이 균형점인 이유도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된 예산선(선분 AG)과 변화된 선택을 나타낸 곡선(I)이 서로 접하고 있습니다. E에 비해 공공재의 양(Q값)이 늘어난 것도 맞구요. 결국, 공공재 생산 증가를 유도하기에는 정액 지원금보다 정률 지원금이 더 효과적인 건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9) 실증 연구를 통해 알려진 끈끈이 효과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 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사 결정자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을 모두 설명하고, 추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이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액 지원금 = 소득 증가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즉 현실에서는 정액 지원금이 직접적인 소득 증가보다 공공재를 추가 생산하도록 만드는 데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를 '끈끈이 효과'라고 부르고,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한 후 글이 마무리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면 지문이 너무 복잡해진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그렇다고만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정보만 고려하면, 공공재 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정률 지원금 / 정액 지원금 / 직접적인 소득 증가 순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제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물어볼 만한 문제였습니다. 이 글이 기출 문제 해설이 아니고 칼럼인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학생들이 크게 당황했던 이유도 이러한 '미출제 요소'를 짚어 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III. 마치며

첫 모의고사치고는 생각보다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읽기만 했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문은 길지만, 문제는 쉬운 유형'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학력평가임에도 충분히 풀어 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지문에 나온 내용은 상식으로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독서에서 '익숙함'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으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칼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 검색에 활용되는 해시 함수 알고리즘

오르비 Cogito Ergo Sum (1105120)

(1) 자동 완성과 검색이 이루어지는 방식

지문

문자 입력 창에 한 글자만을 입력했는데 완성된 문구가 제시되는 자동 완성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코’라는 문자를 입력했다면 ‘코피’, ‘코로나’ 등이 후보로 @제시되어 휴대 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을 찾고 그중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워드 프로세서에서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것이다. 검색은 자동 완성과 달리 대상 문자열의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 빈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분석

첫 문단은 항상 중요합니다. 요즘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자동 완성’을 먼저 제시합니다. 친숙하지만 원리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소재를 다루는 것이 최근 기술 지문의 출제 경향입니다. 인터넷 기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학 기술 관련 글을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자동 완성은 한 마디로 ‘첫 글자를 바탕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를 제시’하는 겁니다. ‘나만의 말’로 이해하는 연습은 간단한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과정인데, 자동 완성과 달리 사용 빈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했으니 주목해야 하고, 부정어 또한 짚어줘야겠죠.

(2) 검색어를 찾는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

지문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글'이라는 검색어를 '한글:~우리나라에서~창제된~우리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에서 검색한다고 가정해 보자.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글'이 3글자이므로 대상 문자열을 **3글자씩 잘라 1글자씩 비교하는 것이다**. '한글:', '글:', '~', ':~우' 등과 같이 **16개의 비교 대상**을 만들고 이를 **검색어와 각각 비교**하여 모두 같은지 확인한다.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하므로 총 16×3 번 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 이 방법은 검색어와 비교해야 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비교 횟수가 늘어나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

분석

지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2문단부터는 **'검색'**과 관련된 이야기로 지문이 제시된다는 점을 짚었어야 합니다. 이는 제 칼럼 중 **2020학년도 수능 독서 [베이즈주의의 조건화 원리]**를 설명한 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칼럼에서 베이즈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 인식론을 끌어온 것처럼, 자동 완성은 **'검색'**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소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알아둔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글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3글자씩 자르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3글자로 나눈 대상을 검색어와 일일이 비교**한다고 하네요. 또한, 세 글자인 검색어 '우리글'과 일치하려면 **비교 대상의 각 글자가 모두 같아야겠죠**. 즉 **비교 대상 하나당 세 번을 비교해야 검색어와 일치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1글자씩 비교하면 18개의 비교 대상이 생기니, 글자가 하나씩 늘 때마다 비교 대상이 17개, 16개...으로 줄어듭니다. **'4글자씩 잘라서 비교한다면 비교 대상은 15개가 된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문자열이 길어져 비교 대상의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비교 횟수가 늘어납니다.

(3)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해시 함수

지문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검색어와 비교 대상을 1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3글자씩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면 그만큼 비교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검색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문자열에 특정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하고, 어떤 문자열에 대해 **해시 함수가 생성한 값을 해시값**이라고 한다.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한다면 **검색어의 해시값과 비교 대상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두 문자열이 일치함을 단번에 @판단**할 수 있다.

분석

이전 문단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야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검색한다고?”** 18글자일 때는 저런 식으로 검색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300쪽 분량의 책에서 찾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표준 국어 대사전(약 7300쪽)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런 생각을 하며 글을 읽으면 **해시 함수를 이용한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시 함수는 각각의 문자열에 특정 값(해시값)을 부여하는 함수**라고 했으니 **문자열마다 해시값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짚었어야 합니다.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문에 나온 **‘한글: ㄱ우리나라에서 ㄱ창제된 ㄱ우리글’**로 예를 들어 보면, **‘ㄱ우’**의 해시값 100, **‘라에서’**의 해시값 200, **‘우리글’**의 해시값 300처럼 값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검색할 때 **‘우리글’**을 입력하면 컴퓨터는 **해시값 300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받았다고 인식**할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해시값이 300인 문자열이 포함된 **‘한글: ㄱ우리나라에서 ㄱ창제된 ㄱ우리글’**을 보여주겠죠.

동일한 해시값을 찾지만 하면 되니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4)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해시 함수

지문

앞의 예와 같이 검색어가 3글자이고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이 제시된다면 비교 대상은 16개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각 비교 대상에서 문자열 비교는 1번의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비교 횟수는 감소**하게 된다. 물론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의 연산이 추가**되지만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각 글자 단위의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다면 전체적인 검색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시 함수는 연산이 간단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해시값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

해시 함수를 통한 검색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앞에서 제시했던 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색어가 3글자이고 18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인 건 변하지 않으니 **비교 대상은 똑같이 16개**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법에서는 각각의 글자(총 세 글자)를 비교하는 과정이 있어 하나당 3번의 연산이 필요**했습니다. **총 48번의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시 함수는 문자열에 부여한 해시값만 비교하면 되므로 **16개의 비교 대상을 각 1번씩만 비교**하면 됩니다. **비교 횟수가 1/3로 줄어든** 겁니다.

다만 해시 함수가 해시값을 부여할 때도 연산이 필요하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시값을 부여하는 데 드는 연산 시간이 추가된 걸 고려하더라도, **해시 함수를 활용한 연산이 글자 각각을 비교하는 연산보다 빠른 경우가 많**겠죠.

“**그런 말 안 나와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3문단의 시작에서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해시 함수 알고리즘**을 제시했으니, **웬만하면 해시 함수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 리드의 행위자 인과 이론

오르비 Cogito Ergo Sum (1105120)

(1) 흄의 인과 이론과 다른 주장을 펼친 리드

지문

㉠ 멈춰 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쳐 흰 공이 움직였다고 하자. 흄은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친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고,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서 나타나야 하며,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적 결합'이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이 움직여 부딪친다면, 같은 식으로 공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리드는 위 사례와 같이 흄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오직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분석

첫 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읽고 인과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제임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흄은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동양과 서양의 인과 이론' 지문에도 등장했었죠. 인과 관계의 세 가지 요건 중에 조금 낯선 건 '항상적 결합' 뿐입니다. 시간적으로 앞서고 시공간이 이어져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인과 관계는 선후 관계에 포함된다.'라는 선지가 나와도 맞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미출제 요소를 고려하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적 결합'을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항상 같은 방식으로 결합하는, 즉 같은(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리드는 이러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없다면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네요. 자유 의지를 언급하니 행위자가 인간이 아닐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2) 리드의 행위자 인과 이론

지문

행위자 인과 이론에서 리드는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이다.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다.

분석

이전 문단에서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드가 볼 때, ‘양면적 능력’이 있고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를 원인으로 보았네요. 존재를 원인으로 본다는 게 독특한 부분이겠죠.

‘양면적 능력’이 뭔가 살펴보니,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네요. “그래서 양면이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보는 즉시 양면적 능력이 뭔지 외워‘질’ 겁니다.

일단 변화를 만든다, 변화를 책임진다. 뭐 이런 말들이 제시되었으니 행위자는 능동적인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제시했던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히는 이야기. 이 부분을 리드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은 흰 공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만 있고, 변화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ㄱ을 설명할 때 흠이 생각하는 인과 관계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리드의 입장이 저러하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당연히 ㄱ을 두고 견해를 비판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학력평가이다 보니 ㄱ을 각 학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만 물어봤는데, 평가원이었다면 제 말대로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왔을 겁니다. 저는 ㄱ을 소재로 무슨 문제가 나올지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해두었습니다.

(3) 인간만을 행위자로 여겼던 리드

지문

경험론자인 리드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 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빨간 공을 굴렸고 흰 공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행위자이고 흰 공이 움직인 것은 결과에 해당한다. 리드는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다.

분석

예상했던 대로 리드는 인간만을 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빨간 공을 굴려 흰 공을 움직이게 했다면 그 사람을 행위자로 본다는 겁니다.

결과가 발생하려면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건 이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적 결합은 흥이 제시한 논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리드는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 즉 인간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빼고는 흥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일까요. 난해한 표현이지만, '나만의 말'로 바꾸면? 원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의욕)이 들면 결과에 항상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의욕으로 어떨 때는 변화를 주고, 또 다른 때에는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으면 '항상적 결합'은 항상 같은(유사한)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4) 행위자 인과 이론에 대한 반박과 그에 대한 설명

지문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리드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이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리드는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분석

수능 국어 지문이 항상 그러하듯,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박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은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문장이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역시 **'나만의 말'**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양면적 능력이 발휘되어, 즉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의욕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양면적 능력의 발휘 => 의욕 생성**이라고 본다면, 결국 저 문장은 이런 뜻 아닌가요? 의욕을 갖기 위한 의욕을 갖기 위한 의욕을... **한 마디로 무한 반복**이네요. 이것만 짚었으면 쉬웠습니다.

리드는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을 두고 **'의욕을 일으킴'과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연결 관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능력 발휘가 의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능력 발휘 = 의욕이므로 무한 반복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반박 의견에 답하기는 쉽습니다. **'항상적 결합'을 했으니 의욕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항상적 결합'만이 인과 관계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5) 진정한 원인으로서는 주체적 인간

지문

리드는 ㉔‘기회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당시에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뿐이며,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기회 원인은 일상적으로는 마치 원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 리드는 이러한 입장을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욕과 행위뿐이며 행위에 신이 개입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분석

마지막 문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quotation(‘ ’) 표시가 있다면 주목해야 한다.’를 매번 강조하는데, 이 부분만 잘 짚었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기회 원인’은 겉으로는 원인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원인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중세 철학에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은 왜 행위자를, 즉 인간을 기회 원인으로만 봤을까요.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신이 모든 것을 행하도록 지시하고, 인간은 그걸 따를 뿐인데 우리 눈에는 행위자가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행위자가 아닌 신을 진정한 원인으로 봤겠죠.

하지만 앞에서 제시했듯 리드는 경험론자였기에,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원인이 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행위자인 인간을 진정한 원인으로 보는 리드의 견해는, 인간의 주체성이 지닌 의미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꼭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처럼 제시되지 않더라도 견해가 갖는 의의는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견해에 대한 반박, 그 한계, 의의 등은 ‘논지 전개 구조’를 묻는 문제에서 단골 선지로 등장합니다.

2022학년도 4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 맹자가 말하는 상도와 권도 / 병자호란에 관한 유교적 논쟁

오르비 Cogito Ergo Sum (1105120)

(1) 상도와 권도의 개념

지문

도덕적 규범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유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상도(常道)’와 ‘권도(權道)’로 설명하고 있다. **상도**는 일반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이고,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황론**으로서 그 상황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이다.

분석

익숙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도덕을 논할 때,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각각의 논리**는 다르다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말은, **일반 vs. 예외**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뜻이죠.

유학에서 논하는 **일반 vs. 예외**의 구도는 **상도**와 **권도**로 나타납니다. **‘대비되는 짝’**을 짚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이 지문 전체에서도 계속 적용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도 - 원칙론 - 보편적 규범은 ‘맥락상 동의어’에 해당하겠죠. **권도 - 상황론 - 개별적 규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론, 상황론 같은 단어를 처음 듣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이론(주장)**이니 **원칙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주장)**이니 **상황론**. **‘나만의 말’**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2) 도와 연결되는 상도와 권도

지문

도(道)는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이다. 상도는 도를 인간의 도덕적 원리로 연결한 인(仁), 의(義), 예(禮)와 같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다.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알맞게 대응할 때 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데, 이때 권도가 필요할 수 있다.

분석

수험생이 상당히 싫어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형이상학은 세계의 궁극적 근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정의를 보니 더 헛갈릴 수도 있는데, **형이상학 = 철학**으로 보면 됩니다. 이걸 뛰어넘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고, 출제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배경 지식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상관없겠죠.

도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철학적으로 밝힌 것이며, 내가 따라야 할 도덕적 (행위) 규범은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인, 의, 예, 지는 다들 들어보셨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사대문 이름을 떠올리면 됩니다. 거기에 **‘신’**까지 더해 보신각이 있는 걸 테고. 말이 복잡하지만, **‘나만의 말’**로 이해하면? **상도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고, 이는 ‘도’와 이어져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 문단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상도와 권도는 모두 도에 해당합니다. **‘이어져 있다.’**라는 말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알맞게 대응할 때 도가 올바르게 구현된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규범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는 힘들겠죠. 이때 권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상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변칙적인 상황에는 권도를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끝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죠.

(3) 권도가 그 합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지문

맹자는 권도를 일종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㉞해법으로 제시한다. 맹자는 “남녀 간에 주고받기를 직접 하지 않음은 예(禮)이고,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權)이다.”라고 하였다. 남녀 간에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상도에, 형제의 부인을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한 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높은 경지의 상황 판단력을 요한다. 상황의 위급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 중 스스로 선택한 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권도가 합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권도의 합당성은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분석

일반적인 상황에는 상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앞 문단에서 설명했습니다. 권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시를 맹자의 말을 인용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주고받기를 직접 하지 않음’을 보고 뭘 떠올려야 할까요? 당연히 ‘남녀칠세부동석’이겠죠.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범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상도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졌다면? 형제라고 했으니 ‘나’는 남자이고, ‘형제의 부인’은 여자입니다. 남녀유별, 쉽게 말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뒀야 하니 물에 빠져 죽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권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상도를 떠올려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될 일이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고 위급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권도는 이러한 딜레마, 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의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예외를 허용하므로, 그 합당성을 논하려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해서 올바른 결과가 나왔는지를 고려해야 할 겁니다.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는 이를 뜻합니다.

(4) 권도와 상도에 대한 맹자의 생각

지문

위의 맹자의 말에서는 권도에 해당하는 규범이 상도인 '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권도가 상도에 반하거나 또는 예가 아니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맹자의 관점에서 **상도와 권도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도 결국 모두 도이다**. 권도는 **도를 굽힌 것이 아니라** 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위의 상황에서 남녀 간에 손을 잡는 행위 자체는 상도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 행위는 결국 생명을 구하여 도를 실천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분석

이 문단에서는 항상 말하는 **'배경 지식을 버릴 준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맹자의 말을 들으면 권도는 상도에 반하거나 예가 아니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권도는 상도에 반하는 것 같지 않나요?

뒤에 제시되는 말처럼 두 가지 다 도를 실천한 건 맞겠죠. 그렇지만 권도가 상도에 반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바로 이럴 때 **배경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제시문만 보면 **상도와 권도는 상충하지 않고, 권도는 도를 굽힌 게 아닙니다**. 배경 지식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다면, **'권도는 도를 굽힌 것이다'**라는 말로 **수험생을 낚을 수 있는 부분임을** 짚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전 문단에서 제시한, **'사건의 결과'**라는 말에 대해 **그 행위를 해서 올바른 결과가 나왔는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결과'**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과'**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상도에 맞지 않겠지만 결국 생명을 구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는 도를 실천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제시한 **권도 역시 도에 해당한다**는 말이 이해되실 겁니다.

(5) 상도를 권도의 기반으로 생각했던 맹자

지문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서 권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상도를 권도의 기반으로 보며 매우 중시**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상도를 따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분석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권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말이 상도를 저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도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일반적인 도덕 규범일 테니까요.

이 문단에서도 얻어갈 게 있는데,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상도를 따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만약 '상도는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선지가 나온다면 맞는 말**이겠죠.

방금 저는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를 짚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출제 요소'**를 떠올렸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읽는다면 **'지문을 읽는 순간 문제는 사실상 이미 풀려 있는 상태'** 일 겁니다. **제가 국어를 60분 안쪽으로 풀 수 있는 이유이자,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수능은 63분 동안 풀었습니다.)**

마지막은 **예상했던 대로, 상도를 바탕으로 권도를 활용해야 한다!** 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저 말만이 남을 겁니다.

(6) 유교적 명분을 중시했던 척화론자

지문

병자호란 당시 청이 조선에 제시한 강화 조건은 조선이 ㉠고수해 왔던 명에 대한 의리, 곧 대명의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에 ㉡척화론자들은 대명의리를 지켜야 하므로 청과의 화친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당대인들은 조선과 명을 군신(君臣)이자 부자(父子)의 의리가 있는 관계로 보았고, 특히 임진왜란 때 명의 지원을 받은 후 대명의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척화론자들은 불의로 보존된 나라는 없느니만 못하다고까지 하면서 척화론을 고수하였다. 이때 이들이 우려한 것은 명의 ㉢문책이라기보다는 대명의리라는 보편적 규범의 포기에 따르는 도덕 윤리의 붕괴였다고 할 수 있다. 척화론은 실리의 문제를 초월한 의리의 차원에서 당시뿐 아니라 후대에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분석

(나) 지문은 누구나 들어봤을 병자호란을 소재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은 '명과의 국교 단절'을 강화 조건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선 입장에서 청은 오랑캐였고, 명은 받들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유교 국가였으니까요.

척화론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화친을 반대하였고, 또한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후 이를 '재조지은(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라고 할 만큼 명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습니다. 본문에서 대명의리라고 제시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명의리를 보편적 규범으로 봤다는 것인데, 이는 (가) 지문에서 말하는 상도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주화론자는 권도에 대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역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척화론자의 견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인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명분을 지키는 게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했는지 의문이 들 겁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이러한 유교적 명분을 저버린다는 것은, 곧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명의 문책을 우려한 게 아니라 도덕 윤리의 붕괴를 걱정했다는 말은 이를 의미합니다.

(7)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던 주화론자

지문

반면 ㉠최명길 등의 주화론자들은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명길도 대명의리가 정론(正論)임을 인정하였고, 강화가 성립된 후에도 대명의리를 계속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논거를 들어 청과의 화친이 합당한 판단임을 주장했다.** 우선 그는 척화론자들의 ‘나라의 존망을 헤아리지 않는 의리’를 비판하였다. 중국 후진의 고조는 제위에 오를 때, 이민족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힘을 빌리며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다. 그런데 다음 황제 때에 신하 경연광이 요의 신하라고 칭하는 것을 그만두자는 강경론을 주도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요가 침입해 후진은 멸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학자 호안국은 천하 인심이 오랑캐에게 굽힌 것을 불평하고 있었으니 **한번 후련히 설욕하고자 한 심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정치적 대처 면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죄는 ㉡속죄될 수 없다고** 경연광을 비판했다. 최명길은 이 호안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신하가 나라를 망하게 하면 그 일이 바르다 해도 죄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분석

예상했던 대로, 주화론자의 입장이 제시됩니다. 주목해야 했던 부분은, 최명길로 대표되는 주화론자도 **명분을 경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화론자라고 하면 보통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했던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명길도 대명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명분을 지킬 수는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위에 제시된 내용을 보자마자 **권도**를 떠올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명분보다 실리’**라는 말이 왜 옳다고 할 수 없는지 알게 될 겁니다. 주화론자들은 실리만을 추구했던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화친을 주장**한 거죠. 이는 (가) 지문에서 권도는 **도를 굽힌 것이 아니라** 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의 차이**라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서 후진과 요의 사례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후진 역시 명분을 지키려다 요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학자 호안국은, **나라를 망하게 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호안국의 주장을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이상만 좇지 말고 현실을 파악해라!** 정도가 되겠네요.

(8) 화친의 정당성에 대한 최명길의 생각

지문

그리고 최명길은 조선이 명으로부터 중국 내의 토지를 받은 직접적인 신하가 아니라 해외에서 조공을 바치는 신하일 뿐이기 때문에 **명을 위해 멸망까지 당할 의리는 없으며 조선의 임금은 백성과 사직을 보전할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춘추**」에 따르면 신하는 먼저 자기 자신의 임금을 위해야 하므로, **조선의 신하가 명을 위하여 조선을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마땅한 의리**라고 하였다.

분석

마지막 부분에서 최명길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로 화친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조선은 중국 내에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라 해외에서 조공만 바치는 국가였으니 **'같은 나라'**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 **명을 위해서 멸망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춘추'**를 근거로 화친의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춘추에 따르면 신하는 자기 자신의 임금을 위해야 하니, 조선의 신하에게는 조선이 최우선**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춘추에 대한 해석은 무수히 많고 저 구절이 정말 최명길이 말하는 뜻이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러한 근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척화론자 vs. 주화론자의 대립은 청이 남한산성에 당도할 때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래엔 **'삼배구고두'**의 치욕을 겪으며 전쟁은 마무리되죠.

(가) 지문을 참고해 생각해 보면, 척화론자 역시 유교 사상을 따르는 조선 사람이었을 텐데, 권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척화론자도 유교를 따르는 쪽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권도를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화친 자체를 권도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평가원이었다면 이 부분까지도 물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2학년도 4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 영업고정비가 영업레버리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

오르비 Cogito Ergo Sum (1105120)

(1) 영업비의 종류와 영업고정비가 갖는 의미

지문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영업비**와 기업이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재무비**로 구성된다. **영업비**는 다시, **원재료 구입비, 소모품비 등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변동비**와 **설비나 사무실의 임차료 및 유지비용, 직원의 임금 등 생산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영업고정비**로 구분된다. 영업고정비는 기계 설비의 구입, 공장 신설, 시설 확장 등과 같이,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분석

경제 지문이지만, 글의 구조 자체는 기술 지문과 유사합니다. 개별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각각 서술하는 방식이죠. 또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재무비와 영업비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문단에서는 재무비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짝’**을 제시하려 했다면, 재무비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비에는 영업변동비, 영업고정비가 있다**는 것만 제시하고 있으니, 재무비는 영업비를 설명하기 위해 **‘끌어온’** 소재일 뿐이라는 뜻이겠죠. (20학년도 수능 ‘베이지주의의 조건화 원리’ 지문 참고)

‘나만의 말’을 잘 활용했어야 합니다. **영업변동비**는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는 **영업비**이고, **영업고정비**는 **고정**되어있는 **영업비**겠죠.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맞는 말일 겁니다. 영업고정비를 더 간단한 **‘나만의 말’**로 바꾸면? **기업 경영의 기반이 되는 비용**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다음 문단부터는 영업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이유가 제시될 겁니다. 그게 **‘지렛대의 역할’**이겠죠.

(2) 영업레버리지도의 의미와 그 정의

지문

그런데 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때로 영업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영업위험**은 기업의 영업 성격이나 영업비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기업은 **투자 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한데, 이때 이용되는 도구가 바로 **영업레버리지도**이다. 영업레버리지도는 **기업의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공헌이익이란 매출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헌이익에서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수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영업 레버리지도} = \frac{\text{공헌이익}}{\text{영업이익}} = \frac{\text{매출액} - \text{영업변동비}}{\text{매출액} - \text{영업변동비} - \text{영업 고정비}}$$

분석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영업고정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영업레버리지 효과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영업고정비가 영업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더 읽으면 알게 되겠지만 사실 두 이야기는 같은 맥락입니다.

영업위험을 엄청 복잡한 것처럼 제시했지만 **'나만의 말'**로 이해하면? **영업으로 인해 기업이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이겠죠. 이는 당연히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의 변동이 심하면, 안정적이지 못한 거니 영업위험은 증가**하겠죠.

결국, **투자 정책이 이러한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이때 쓰이는 도구가 바로 '영업레버리지도'**라고 합니다. 즉, **영업레버리지를 알면 투자 정책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겠네요.**

영업레버리지도가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라면, **영업레버리지 효과는 매출액의 변동이 영업이익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말할 겁니다. 수식을 보고 당황했을 수 있는데,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이라고 했으니 우선 **공헌이익 / 영업이익**이네요.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비**인 건 **당연합니다**. 매출에서 그 전에 투입된 비용을 빼야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공헌이익은 매출이 기업의 이익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나타내는 것**인데, 이익이니 역시 매출액 - 영업비는 맞을 겁니다. 하지만 공헌을 논할 때 **기반을 다지는 데 쓰인 비용은 제외**하겠죠. 즉,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만 빼주는 겁니다.**

(3) 영업레버리지도 수식이 갖는 의미

지문

$$\text{영업 레버리지도} = \frac{\text{공헌이익}}{\text{영업이익}} = \frac{\text{매출액} - \text{영업변동비}}{\text{매출액} - \text{영업변동비} - \text{영업 고정비}}$$

위 수식은 **영업고정비가 클수록 영업레버리지도가 커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영업고정비가 클수록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 10억 원, 영업변동비가 6억 원, 영업고정비가 2억 원이라면, 이 기업의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인 4억 원이 되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와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인 2억 원이 된다. 따라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인 **영업레버리지도는 2가 되며, 이는 10%의 매출액 증감이 있을 때, 영업이익은 그 2배인 20%의 증감이 됨을 뜻한다.**

분석

수식을 보면, **영업고정비가 늘어날수록 분모가 작아지므로 당연히 영업레버리지도가 증가합니다.** 이는 **영업고정비가 클수록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즉,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비율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겠죠.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매출액 10억, 영업변동비 6억, 영업고정비 2억 이렇게 제시되면 $10 - 6 / 10 - 6 - 2 = 2$ 가 되겠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업레버리지도가 2라는 의미는,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20%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2배로 손실을 본다**는 의미이죠. **‘영업고정비가 많이 투입될수록 매출액 → 영업이익 증폭 정도가 커진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 **당연히**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

지문

영업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생산 규모의 확대에 의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고 단위생산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되어, 매출액이 증가할 때, 종전의 소규모 생산 시설을 유지할 때보다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할 때에는 영업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의 감소 폭이 더 커진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영업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분석

영업고정비가 왜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업고정비를 '기반 비용'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업고정비를 들여 생산 설비 등을 확충하고 대규모 생산을 하면 단가는 내려갑니다.

규모의 경제는 2022학년도 수능 경제 지문에서도 제시된 적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물품 A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의 가격은 1000원이고, 그 설비를 사용하여 A 물품 한 개를 생산하는 데 100원이 듭니다. 한 개를 생산할 때는 1100원이고, 두 개를 생산하면 1200원, 세 개를 생산하면 1300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단가는 순서대로 1100원, 600원, 약 433원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는 이를 가리킵니다. 많이 생산할수록 단가가 점점 내려가므로 매출액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설비를 마련했는데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해볼까요. 최소한 물품을 100개는 생산하려고 설비를 구매했지만, 물품의 수요는 10개밖에 안 된다면? 설비의 유지비는 계속 나갈 거고, 애초에 계획했던 만큼 판매 또한 이루어지지 않으니 매출액의 감소는 영업이익을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업레버리지도 높게 설정할수록 소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구조가 되는 거겠죠. '지렛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바로 눈치챈을 겁니다. (애초에 레버리지(leverage) 자체가 지렛대의 작용, 지렛대의 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문을 읽는 순간 문제는 이미 풀려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5)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있는 영업레버리지 효과

지문

이렇게 영업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 폭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사업 전망과 관련지어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이 영업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이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 전망이 흐린 기업이 영업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시설 투자 혹은 생산 방식의 전환은 기업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비용 구조를 변화시킨다.** 즉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문제는 영업레버리지 효과의 변화를 가져와 영업위험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영업고정비를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

앞 문단에서도 말했듯, **영업고정비가 증가하면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 폭이 확대된다는 게 바로 영업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크면 클수록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사업의 전망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도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죠.** 전망이 좋다는 가정하에, 영업레버리지도를 5까지 올린다면, 이는 매출액이 10% 늘어날 때 영업이익은 50%가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망이 좋지 않는데 영업레버리지도가 5라면? 매출액이 10% 감소할 때 영업이익은 50% 감소하게 됩니다.

또 **기업의 의사결정은 시설 투자 및 생산 방식의 전환이 자산 구조를 바꾸는데, 예를 들면 자산을 현금으로 100억 보유하다가 현금 40억, 시설 60억처럼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영업비의 비용 구조에서 영업고정비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겠죠. 결국,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달라지고 그 영향을 받은 영업위험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고정비를 증가시키는 결정은 영업이익, 영업위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인 걸 눈치챘을 겁니다.** 또한, 2문단에서 **투자 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것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2022학년도 4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 디지털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는 방식

오르비 Cogito Ergo Sum (1105120)

(1) 자동 초점 방식을 활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지문

디지털 카메라에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자동 초점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자동 초점 방식은 일반적으로 ㉠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활용하여 초점을 맞추는데, 자동 초점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대비 검출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이 있다.

분석

항상 강조하지만, 기술 지문에는 ‘익숙한 소재이지만 그 원리를 정확히는 모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메타버스 지문도 그렇고, 차량 영상 기술도 마찬 가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는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방식이 활용된다고 하며, 이때 쓰이는 방식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대비 검출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이 있 네요.

여기서 바로 눈치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다음 문단에서는 대비 검출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할 테고, 그다음에는 위상차 검출 방식이 뭔지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겁니다. ‘**개별 (구성) 요소들을 나열한 후, 각각의 설명을 순서 대로 설명한다.**’라는 말은 **기술 지문의 전형적인 구조**를 나타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기술 지문의 구조는 다른 분야의 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강조했었고, 다른 해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대비 검출 방식

지문

대비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피사체의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내 이미지 센서에서 초점을 직접 검출한다. 이 방식은 피사체로부터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들의 밝기 차이인 빛의 대비를 분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빛의 대비가 클수록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상이 선명해져 초점이 정확하게 맞게 된다. 이런 원리를 활용해 대비 검출 방식에서는 빛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 렌즈를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미지 센서에 맺힌 상을 분석한다. 이 방식은 촬영 렌즈가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 하지만 별도의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하지 않고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에서 직접 초점을 검출하기 때문에 초점의 정확도가 높으며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

분석

예상했던 대로, 대비 검출 방식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비 검출 방식의 특이한 점은, 이미지 센서에서 초점을 직접 잡아준다는 겁니다. 분명 이미지 센서는 피사체의 상을 감지하는 역할일 텐데 말이죠. 이런 특이점들은 '특이하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놓아야만 합니다.

초점 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방식의 명칭이 왜 이런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빛의 대비를 이용해 초점을 검출한다고 하니 이름을 대비 검출로 붙인 거겠죠. 역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대비를 이용하는 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구별이 뚜렷하면 상이 선명하게 맺힌다.'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방식입니다. 화장품 광고나 유튜브 등을 보면, 립스틱을 들고 그 뒤에 손바닥을 놓는 식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바로 빛의 대비를 활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빛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때는 초점을 맞추기 힘들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초점의 정확도는 높고 오류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3) 위상차 검출 방식

지문

위상차 검출 방식은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가 직접 초점을 검출하지 않고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한다. 이 방식은 AF 센서에 맺히는 빛의 위치 차이인 위상차를 분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위상차 검출 방식을 활용하여 초점을 맞추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빛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와,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거나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하게 된다.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뷰파인더로 보내져 촬영자가 피사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한 빛은 보조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어 한 쌍의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하면서 분리되고 각각의 AF 센서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AF 센서에서는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위상차 기준값과, 새롭게 측정한 위상차 값을 비교하여 초점이 맞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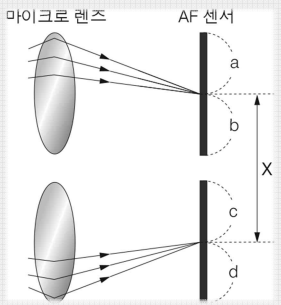
대비 검출 방식을 설명했으면, 이번에는 위상차 검출 방식을 설명할 차례겠죠. 읽으면서 그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제시될지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위상차 검출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미지 센서가 아닌 AF 센서가 초점을 검출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또 명칭이 기억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의 위상차를 이용해 초점을 검출하니 위상차 검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위상차 검출 방식을 활용하여 초점을 맞추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데, 기술 지문에서 어떠한 과정을 제시한다면 무조건 주목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과정 같지만, ‘나만의 말’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빛이 촬영자에게 와야 제대로 이미지를 포착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촬영자에게 가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일부는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하는데, 이 빛은 보조 반사 거울에서 반사됩니다. 그 후 마이크로 렌즈에 의해 두 갈래로 분리되겠죠. 한 쌍의 마이크로 렌즈이니 두 갈래로 분리된다는 것도, 평가원이라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빛이 도달하고 나면 새로운 위상차 값을 AF 센서에서 미리 정해놓은 위상차 기준값과 비교하게 되죠.

(4) AF 센서와 초점 사이의 관계

지문



<그림>과 같이 한 쌍의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각각의 AF 센서 표면의 한 점에서 수렴되면,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인 위상차 값 X 가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위상차 기준값과 일치하게 되어 AF 센서는 초점이 맞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림>의 상황과 달리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하게 되면 빛들은 각각 AF 센서의 b 영역과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다. 이 경우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시킨다. 반대로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하지 못하게 되면 빛들은 각각 AF 센서의 a 영역과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다. 이 경우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커지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촬영 렌즈를 앞으로 이동시킨다. 이 방식은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하여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키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분석

왜 위상차 검출 방식을 두 문단이나 쓰냐고 묻는다면, AF 센서라는 구성 요소가 추가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답할 겁니다. 이전 문단에서 AF 센서에서 이미 결정되어있는 위상차 기준값과 새로운 위상차 값을 비교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초점을 검출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준값에서 3cm 떨어져 있으면 초점을 맞춰진 것으로 간주한다.'와 같이 부가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읽어 보니, 새로운 위상차 값이 위상차 기준값과 일치할 때 초점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우선 제시된 그림만 보면 두 AF 센서의 중간 지점을 연결한 길이만큼을 기준값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빛이 AF 센서에 도달했을 때 수렴하면 초점이 정확하다고 판정할 겁니다. 하지만 빛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한다면? 빛은 b와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합니다. 한 마디로, 기준보다 길이가 짧은 거죠. 반대의 경우는 a와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하는데, 이는 기준보다 길이가 길겠죠. 기준보다 길이가 짧을 때는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시키고, 길이가 짧으면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한 번만 촬영 렌즈를 조절하면 되니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빠른 게 당연합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독서

-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과정과 비타민 K의 역할

오르비 Cogito Ergo Sum (1105120)

(1) 혈액 응고의 개념

지문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분석

혈액과 관련있는 이야기로 지문이 시작됩니다. 혈액은 세포에 산소와 포도당 등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 내에 존재하는 노폐물을 수거해갑니다. 혈액 순환이 중요한 이유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학교 때 배우는 '상식'입니다.

그다음 부분에도 상식적인 부분이 제시되는데, 혈소판과 혈액 응고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에 더해 약간은 낯선 정보를 알려주네요. 단순히 혈소판이 끝이 아니고, 혈액 응고에는 좀 더 복잡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를 왜 그토록 강조했는지 아실 겁니다. '피브린은 섬유소 단백질이다.', '섬유소 그물은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다.', '혈소판 마개는 혈소판이 응집된 것이다.', '혈병은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뭉쳐 만들어진다.' 전부 다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참고로 혈병은 우리말로 흔히 아는 피떡입니다. '오병이어'할 때 '떡 병'이라는 한자죠.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우리는 지문을 볼 때 '익숙함'을 위해서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2) 혈관 속에서 혈액이 응고되어 생기는 혈전

지문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석

그다음에는 혈액 응고가 혈관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 제시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간단한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를 활용하면? 혈전은 혈병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혈관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의 현상이 생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나만의 말’로 이해하면? “혈관도 통로인데, 자꾸 뭐가 들러붙으면 통로가 좁아지기도 하고 여타 문제가 생기겠지.” 정도가 되겠네요. 배경 지식을 조금 활용하면 뇌졸중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사실 혈액 응고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해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문의 구성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라면 ‘혈액 응고는 출혈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 이 부분은 이리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때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처럼 모든 정보를 제시한 후에, ‘이렇게 필수적인 혈액 응고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와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게 좀 더 완결성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도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을, 그러니까 다소 집중이 흐트러졌을 문장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어쨌든 비타민 K가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어색했던 것과 상관없이, 다음 문단에서 비타민 K가 혈액과 관련해서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시할 것이라고 당연히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는 연쇄적인 과정

지문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분석

이번에는 혈액의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 K의 역할을 언급하며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은 병아리는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부족해서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물질 = 그 물질 = 비타민 K입니다.

그리고 나서 혈액 응고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지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해서 무언가 연속적으로 맞물리며 일어나는 현상인가 보네요. 더 읽어보니,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라면서 문장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짚을 지점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인자 = 혈액 응고 인자, 즉 '맥락상 동의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혈액 응고 인자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보는 이 지문 내내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고, 그 뒤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네요. 이러한 활성화로 인해 프로트롬빈은 트롬빈으로 변합니다. 이 트롬빈은 뭘 하나요? 혈액에 있는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계속 맞물려서 일어나는 과정을 차근차근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 프로트롬빈 활성화 - 트롬빈으로 전환 - (트롬빈의 작용으로)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 정도가 되겠네요.

그에 더해 '피브린은 불용성이다.'라는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가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4)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

지문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분석

이전 문단에서 “그럼 비타민 K의 역할은 원데?”라는 의문을 가졌다면 원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K는 위에서 파악했던 연쇄 반응 중 첫 번째 단계인 여러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및 프로트롬빈 활성화에 관여**하네요. 즉, 연쇄 반응을 다시 정리하면 **비타민 K가 관여 - 여러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 프로트롬빈 활성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여러 혈액 응고 인자**’라는 말에서 **프로트롬빈 역시 혈액 응고 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문장에서 ‘**혈액 응고 인자들은 간세포에서 합성되어 활성화된다.**’라는 것까지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제시하는데, **혈액 응고 인자는 칼슘 이온과 결합하여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들 혈액 단백질이~**’ 하고 시작되는데 **혈액 단백질 = 혈액 응고 인자**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혈액 응고 인자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위에서 파악했기 때문이죠.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려면, 즉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르복실화의 개념은 당연히 알려주겠죠. 카르복실화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 문장 안에 개념어 제시**’가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한다.**’, ‘**글루탐산은 아미노산(의 일종)이다.**’라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비타민 K랑 무슨 상관일까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알려줍니다. 읽어보니 **비타민 K가 카르복실화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연쇄 반응을 다시 정리하면,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인자를 카르복실화 - 여러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 프로트롬빈 활성화...** 가 됩니다. 이런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하네요.

(5) 비타민 K₁와 비타민 K₂로 분류되는 비타민 K

지문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₁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₂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₁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분석

비타민 K의 종류를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₁은 식물에서 합성되고 비타민 K₂는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만들어집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함관계’인데, 쉽게 말해 비타민 K₁과 비타민 K₂는 모두 비타민 K입니다.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비타민 K₁과 비타민 K₂는 비타민 K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문제를 푸는 핵심 단서였고,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PCR 지문에 나온 문제와 완전히 똑같은 패턴입니다.

마지막 문장도 그냥 일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는 듯하지만,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비타민 K₁과 비타민 K₂를 제시해놓고, 일반적으로 비타민 K₁이 부족할 일은 없으니 혈액 응고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비타민 K₂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지 않는 건가? 우리 몸에서 비타민 K₂는 부족할 일이 없는 걸까?”와 같은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계속 의문을 던지며 글을 읽어야 흔히 말하는 비판적 독해를 잘 할 수 있고, 이는 수능 국어 독서에서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6) 칼슘의 역할과 관련된 비타민 K의 기능

지문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분석

비타민 K의 역할은 혈액 응고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또 다른 설명을 제시하며 이는 **'칼슘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저렇게 네모 칸을 쳐놓았다는 건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읽어 보니 역시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지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데, 혈액 내 칼슘 농도만 높아질 뿐 골밀도 자체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뼈 조직의 칼슘 밀도 = 골밀도**로 이어지는 **'맥락상 동의어'**를 짚었어야 했고, 그다음으로 **칼슘의 역할**이 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칼슘 보충제를 아무리 먹어도 뼈는 칼슘이 부족하다.'** 정도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답 특정하기'**가 가능하죠. 이는 **문제를 풀기 전에 미리 답을 정해놓고 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출제자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였다는 거**죠.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칼슘 보충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는 없고 오히려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단백질인 MGP가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는 점**이네요. 즉,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가 제대로 작용할 수 없고, 이는 혈관 석회화를 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7)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비타민 K₁과 K₂

지문

비타민 K₁과 K₂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₁은 간세포에서, K₂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₁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₂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₁과 K₂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₂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분석

비타민 K₁과 K₂ 모두 비타민 K이기 때문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K₁은 간세포에서 K₂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고 제시한 후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K₁이 담당하고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K₂가 담당한다고 하네요.

왜 ‘그러므로’일까요? 설명하기 전에, 이 문단에서는 이전에 제시된 두 가지 복선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액 응고 인자는 간세포에서 합성된다.’라는 말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합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K₁이 간세포에서 활성이 높는데 혈액 응고 인자는 바로 그 간세포에서 합성되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비타민 K₁이 담당하겠죠.**

비타민 K₁도 활성화라 하고 혈액 응고 인자도 활성화라고 나와서 헷갈린다면, **비타민 K₁이 간세포에서 주로 활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 활동 무대에서 합성되는 혈액 응고 인자를 활성화하는 건 담당자인 **비타민 K₁이** 해야겠죠.

두 번째 복선은,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₁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혈액 응고는 주로 비타민 K₁이 담당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는 거였네요.** 또한, 아까 가졌던 “비타민 K₂는 필요 없나?”라는 의문도 해결됩니다. **비타민 K₂ 섭취를 늘릴 것을 권고한다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

-

- ^

>

-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문학 <보기> 문제

-모든 문제는 내용 일치와 과해석 선에서 정리됩니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독서에 이어 문학 관련 칼럼을 써 보려고 합니다.

시간만 투자하면 맞힐 수 있는 표현상 / 서술상 특징이나 세부 내용 일치와는 다르게,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즉 <보기>가 제시되는 문제는 학생들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칼럼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고민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관점이 바뀌시리라** 확신합니다.

I. 들어가며

가장 어려운 <보기>문제가 가장 쉽다니,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그렇게 말한 걸까요?

실제로 모든 <보기> 문제는 **내용 일치 / 과해석** 선에서 정리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평가원 기출들을 모두 분석 해봤을 때, **내용 일치 선에서 정리되는 문제가 90%**입니다. (과해석이 섞여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 일치**'라는 말의 위력이 엄청난 건, 세부 내용 일치 문제처럼 눈이 아플 정도로 지문과 선지를 일일이 대조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표현상 / 서술상 특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모든 선지를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세부 내용 일치 문제가 어려워서 틀렸다고 한 줄 있는데,
실제로 세부 내용 일치 문제보다 <보기> 문제가 훨씬 간단합니다.
'**과해석**'에 관해서는 나중에 아래에서 문제를 통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에 더해 저는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거의 안 읽습니다.
<보기> 문제를 워낙 많이 봐서 웬만하면 아는 내용이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보기>와 관련된 내용이 자연스럽게 암기'**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보기>를 안 보고도 풀리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풀이 시간 차이를 만드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보기>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오랜 경험으로 수능에서 제시하는 '**외적 준거**'를 대부분 알 뿐입니다.

~~저도 드물긴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지문 나오면 혈레벌떡 <보기>부터 봅니다.~~

II. 정말 <보기> 문제가 가장 쉬울까?

기출 문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1) 19번 - 초가

이육사 시인의 작품입니다.

올해 수능에 나온 <보기> 문제를 모두 다룰 것이고,
전부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9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정말 내용 일치 선에서 정리될까요?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씨레나무가 밀려 나리면 젊은이들은 돈 벌러 타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상을 읽어 보면 쉽사리 돌아오지 못하죠.
3번 선지를 다시 읽어 볼까요.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시에서는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얼른 봐도 보이는데, 선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틀린 말이고, **내용 일치로 정리**되죠.
<보기>는 안 봤습니다.

(2) 23번 - 초가, 거산호 2, 답초

각각 이육사 시인, 김관식 시인, 문인 이육의 작품입니다.
이 문제는 '내용 일치'와 더불어 살짝 '**과해석**' 측면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과해석**'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었지만,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선지를 읽었을 때, "**저건 너무 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과해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갖다**'는 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출**'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느낌이 **과해석**인지 문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23번의 정답은 4번이었는데, 이 역시 <보기>를 안 보고 바로 풀었습니다.

하나 짚고 가자면, <보기> 문제에서는 따옴표(“”)로 묶여 있는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선지는 실제로 지문에 제시된 부분, 그리고 출제자가 서술한 부분으로 나뉘죠. 항상 그럴듯한 말을 가져와 연결 짓는 소위 '남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느낌만 파악을 한다면 틀릴 일은 없습니다.

지문을 보겠습니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둘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줄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중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이 지문은 '하늘'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간'만이 대상의 귀천을 따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가 제시된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한 것은 '부호가의 장막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천한 것은 가을 서리처럼 변해버린다.**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그렇다면, 선지에 제시된 것처럼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이라는 구절이 포함된 문장에서 적막한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나요?

그냥 편하게 지낸다는 이야기인데, 적막한 분위기라는 말은 '너무 간 것' 아닌가요?

약간의 과해석이 반영된 선지였습니다. 또한 내용 일치 선에서 정리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자면, 우리는 평가원의 의도를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적막함'이라는 말을 쓴 걸까요? **평가원 남시 코드 - '장막 안'은 '혼자서 쓸쓸하고 답답하게 지내는 공간'일 거라는 착각을 유도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지만, 평가원의 이러한 '남시'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내용 일치 선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찾는 훈련을 하면, 헛갈릴 일이 없습니다. 문학에서 지문과 선지를 왔다갔다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느낌은 뭔가 정답인 거 같은데 왜 그런지를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27번 -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윤홍길 작가의 작품입니다. 익숙한 작가의 낯선 작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기>를 거의 안 보니 선지가 이상하면 바로 답 체크를 하는데, 많은 학생은 그게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기>에 지나치게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보기>와 선지의 억지 연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달체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체가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 ② 김달체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 ③ 김달체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체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 ④ 김달체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체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 ⑤ 김달체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체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27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선지를 읽으셨으면, 지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림에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यो.”

김달채 씨는 엉겁결에 잠바 자락 한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깨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이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
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
처럼 무르춘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

글의 상황을 정리하면,

김달채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우산)을 이용하여 뭐라도 된 듯한 행세를 합니다.
그야말로 가짜 권력으로 허세를 부리는 거죠.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을 너무 거칠게 다루지 말라고 말하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가짜 권력의 징표를 내보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보기엔 아무 의미도 없는 우산일 뿐이었고,
김달채는 한 차례 경고를 받은 후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 돌아서고 말죠.
당연히 허세보다는 본인의 안위가 중요할 테니까요.

선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맥없이 돌아서는 장면을 보고,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단절'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와 같은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김달채가 학생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적 있나요?
그냥 시위 현장에서 허세를 부렸을 뿐입니다.

김달채가 기득권이었나요?
굳이 따지자면 기득권인 척을 한 거죠.

당연히 틀린 설명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타산적 태도'는 맞는 설명입니다. 보기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역지로 상황을 연결하는 식으로, 수험생의 착각을 유도합니다.

(평가원 낚시 코드) 심지어, '학생을 살살 다루라'는 부분을, '유대관계'에 접목해 '낚시'를 합니다.

김달재는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거지, 학생들과 유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읽었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답을 고르도록 유도하는지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31번 - 박태보전

작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큰 틀에서의 내용 일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아니 진짜 이렇게 풀면 끝인 건가?" 싶은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보기>문제는 원래 쉽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 ② 국운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31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느낌이 올 텐데, <보기> 문제는 선지의 후반부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겠으나, 어느 정도 본인의 풀이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는 효과적일 겁니다. 5번부터 역순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선지를 보면, <보기> 문제이지만,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문학 개념을 같이 넣었습니다. 서술자의 개입 = 편집자적 논평,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기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훈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뒀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편집자적 논평은 아주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박태보는 임금의 잘못된 점에 대해 간언하는 충신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죠.
오히려 감히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또 '배경 지식'의 힘이 나오는데, 아마 박태보전은 워낙 유명해서 다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태보는 1689년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 폐위를 반대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연도는 안 찾아봤지만 맞을 겁니다. '권리장전 승인',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의 연도
니까요. 연도는 뭐 세계사의 직업병이라 치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적어도 당황하지는 않을 테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박태보는 결국 임금의 잘못된 점을 고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은 박태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분명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기우는 국운을 회복했을까요?
애초에 포인트는 국운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전 칼럼에 말씀드렸던 습관을 기른 학생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국운을 회복하는지는 제시되지도 않았고, 그것보다 박태보는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무언가를 회복했다는 '긍정적 뉘앙스' 자체도 틀렸어요."
라고 하겠죠.

큰 틀에서의 내용 일치는 어이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공정 / 부정만 짚어도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1) 34번 - 탄궁가

문인 정훈의 작품입니다.

아마 마지막 지문은 다들 수월하게 푸셨을 겁니다.

이번 문제는 과해석을 설명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은 파종할 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② ㉡은 술과 시루가 녹는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
- ④ ㉣은 밭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틀리면,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기출과 N제, 수많은 실모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틀리고 또 틀리고, 화가 나는 그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과해석'이고, 내용 일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평상시에 문제 풀고 나서 <보기>의 내용을 꼭 복습하셔야 합니다.
<보기>에 나오는 주제들도 칼럼으로 정리해서 올릴 텐데, 미리 다 알고 가야 합니다.

이 글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찍는 방법에 대한 글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은?

<보기> 문제는 내용일치 선에서 정리된다.

"저건 너무 간 거 아니야?" 같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과해석을 어느 정도 포함한다.

<보기>가 다소 이해되지 않아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보기>를 읽지 않을 수도 있다.)

항상 글 잘 보고 있다는 말씀들에 보람을 느낍니다.
더 좋은 칼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가

-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문학 <보기> 문제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ver.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문학 <보기> 문제 칼럼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내용일치와 과해석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왜 제가 <보기>를 안 봐도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 22수능 문학 <보기> 칼럼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한 번쯤 보고 와서 글을 읽으시면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문학 <보기> 문제 (1) : [<https://orbi.kr/00043547747>]

I. 들어가며

제가 이전 칼럼에서 내용일치와 과해석을 다루면서 기출에서는 그 비율이 거의 9:1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내용일치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짙고 넘어갈 부분도 분명 있었으니 끝까지 잘 따라와주세요. 원래라면 2편으로 나누어 업로드했겠지만 가장 최근에 치러진 모의고사이니 그냥 한 편으로 올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세요!

* 저는 31번 문제 <보기>를 살짝 봤습니다. 아직도 실전에서 자의적 해석이 조금씩 제 발목을 잡아서, 마지막 판단에서는 <보기>를 참고했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오랜 경험으로 수능에서 제시하는 '외적 증거'를 대부분 알 뿐입니다. 저도 드물지만 이해 안 되는 지문 나오면 혈레벌떡 <보기>부터 봅니다.

위 사진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보기 칼럼의 일부입니다. 취소선 참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II. 정말 <보기> 문제가 이번에도 가장 쉬웠을까?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모든 <보기> 문제는 내용일치와 과해석 수준에서 정리됩니다.

(1) 21번- 소현성록

작자 미상의 작품이고, 고전 산문 파트입니다. 다양한 인물이 제시되어 현장에서 부담감은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 ③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21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용일치 그 자체인 문제였습니다. 근거를 볼까요.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왈,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보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상서가 여씨를 교화하려 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양부인이 여씨를 내친 것도 맞네요.

.
. .

끝이네요? 5번 선지로 돌아가볼까요.

-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방법이 '달랐을'뿐이죠. 어찌면 과해석도 조금 들어가 있을 법한 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

(2) 24번- 자도사

조우인의 작품입니다. 시 자체가 쉬운 느낌은 아니었는데, 답을 찾는 과정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큰 틀에서의 내용 일치'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수월할 듯합니다.

보겠습니다.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입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을 통해, 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④ ㉣을 통해, 무정한 입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입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4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워낙 많이 다뤄졌던 패턴이 활용되어 그렇게 많은 학생이 틀리지는 않은 거 같네요.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켜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길고자 하전마는

㉠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화자는 이별 상황에서 임의 옷을 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임은 내 마음을 알아줄지, 찾아올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고,

음력 선달이 지나고 나면 새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늦기 전에 옷이나 기워놓자.. 하고 있는 상황이죠.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지에서 말하는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슬프긴 슬픈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시간은 흘러가니 새봄 오기 전에 옷이나 기워놓자 이런 느낌이죠.

(약간 옷이나 기우지 뭐 에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더 쉬울까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다 하더라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절대로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 27번- 사시가

황희의 작품입니다. 이런 류의 작품은 비연계든 연계든 그 느낌만큼은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전원 생활의 즐기는 모습이 나오거나, 매번 속세 vs. 자연을 대립 구도를 세우고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전시가의 클리셰입니다. 이 칼럼 자체가 <보기> 문제를 안 보고 푸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주제는 <보기>를 당연히 안 보고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남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깬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끝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27번의 정답은 2번이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서 따로 코멘트할 것은 없으니 근거를 찾으려 가겠습니다.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잡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 퇴에 엮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샷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베고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는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퇴에는 새 다 굶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샷갓 쓴 저 늙은이

뉘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황희, 「사시가」 -

1, 2, 3수에서 모두 '나'가 강호에서의 생활을 즐겁게 여김을 알 수 있고, 여유로운 모습도 돋보이죠. 4수에 제시된 '저 늙은이' 역시 강호에서 낚시를 하며 인생을 즐기는, 즉 속세를 떠난 사람입니다. 선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뉘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나'와는 달리 한가로이? 정답이 2번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한가로이 지내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서술도 부적절합니다.

(4) 31번- 미스터방

채만식의 작품이고, 누구에게나 익숙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보기> 문제는 5개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고, <보기>를 안 보고 푸는 저도 이 문제만큼은 마지막에 <보기>를 참고했습니다. 문제로 가겠습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31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만했는데 5번 자체를 고르는 건 큰 문제가 없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을 다 알지는 못 해도 모든 문제를 다 맞힐 수는 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문제죠.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
 하였다.

가족들은 맞아 죽을 뻔하고, 백선봉은 처가로 도망가고, 백 주사는 서울로 도망갑니다. 앞 내용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가족 전체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죠. 선지를 보겠습니다.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아까 분명 가족들은~, 백선봉은~, 백 주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봤는데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 백 주사가 가족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고 일관되게 서술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거 같으면 1번 선지에서도 백 주사의 아들인 백선봉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따로따로 서술한 것을 백 주사가 바라보고 썼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잘못 생각하면 끝이 없어서, 어떻게든 느낌을 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거 같다면, 22수능 칼럼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보기>로 달려가야죠. 평상시에 <보기>를 안 보는 건 그렇게 해도 작품과 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34번- 향아

신동엽의 작품입니다. 아마 4수 이상(낭만파)이신 분들은 2020학년도 수능특강에서 보셨을 작품이죠. 확실히 회독의 효과는 제가 살아있는 증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걸 보면..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같이 나온 작품이 기형도의 <전문가>였는데, 이 작품 또한 2021학년도 수능특강에 실린 <홀린 사람>을 보면 바로 이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과년도 연계교재 학습법]에서 다루도록 하고, 문제로 가겠습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주는군.

3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도 22수능의 흐름과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근거를 찾아볼까요.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넨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이 시는 마치 김광균의 <대장간의 유혹>처럼 긍정 - 부정의 대비되는 짝이 명확한 작품입니다. 미개지 = 전설같은 풍속 = 싱싱한 마음밭은 모두 긍정적인 옛 모습을 상징하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기생층의 생리와 허식 = 발돋움의 흉내는 모두 부정적인 현재의 모습을 상징하죠. '맥락상 동의어'도 중요했네요. 본질적으로 모든 파트가 통한다고 했던 게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독서의 독법이 여기에 등장하네요..!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선지를 보면 '공동체의 터전 확장'을 제시하는데 아예 틀린 설명이죠. 미개지로 가자는 것은 옛 모습(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이지, 확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맞네요.

III. 마치며

이렇게(최근 10개년) 기출에 나오는 모든 <보기>는 내용일치 / 과해석 선에서 정리 가능합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제외했지만, 평가원이 <보기>를 구성하면서 매번 사용하는 '낯시 코드'(오답 유도 방식)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져 책이 될 지경..

거기다가 <보기>를 외우라고 했으면 <보기>에 맨날 나오는 내용이 도대체 뭔지도 정리를 해줘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실 거 같아서 그 부분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유익한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문학 <보기> 문제

-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ver.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문학 <보기> 문제 칼럼입니다.

'내용 일치'와 '과해석'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왜 제가 <보기>를 안 봐도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 22수능 문학 <보기> 칼럼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한 번쯤 보고 와서 글을 읽으시면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틀릴 일 없는 문학 <보기> 문제 (1) : [<https://orbi.kr/00043547747>]

I. 들어가며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내용일치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도 분명 있었으니 끝까지 잘 따라와주세요. 원래라면 2편으로 나누어 업로드했겠지만 가장 최근에 치러진 모의고사이니 그냥 한 편으로 올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세요!

II. 정말 <보기> 문제가 이번에도 가장 쉬웠을까?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모든 <보기> 문제는 내용 일치와 과해석 수준에서 정리됩니다.

(1) 21번- 정수정전

작자미상의 작품이고, 고전 산문 파트입니다. 과년도 연계교재에 있던 <홍계월전>을 어디선가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 쉽게 느끼셨을 겁니다. 홍계월 - 보국의 관계와 정수정 - 장연의 관계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심지어 대원수 - 중군장의 관계까지.. 제가 <보기> 문제는 나올 게 정해져 있다고 했던 글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당장 말하라고 하면, [소시민적 삶,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소외, 독재 / 일제 강점기 치하의 암울한 현실 | 그 속에서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는 사람들, 분단의 아픔 등 시대 상황의 문제를 한 개인의 인생에 투영, 물질 문명과 대비되는 과거의 순수했던 시절, 천상적강 모티프, 계모의 구박을 이겨내고 성취를 이루는 주인공, **남장을 통한 여성의 사회 진출**, 혼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주인공] 등이 있겠네요.

그 중 하나가 '남장을 통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었습니다.

이 경우 나올 이야기는 두 가지죠.

1. 사회에 진출하여 영웅적 면모를 보이거나 남존여비 사상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함.
2. 영웅적 면모와 당시 여성으로서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남.

이번에는 2번이 활용되었고 아마 제 글을 꾸준히 읽어주셨던 학생 분들은 정답을 찾기가 꽤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21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용 일치 그 자체인 문제였습니다. 근거를 볼까요.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 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정수정은 분명 전쟁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령관인데,
 그 과정에서 남편인 장연을 (아마도 군법에 따라) 징계하게 되죠.
 한편으로 마음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하늘 같은 남편을 아녀자인 내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이건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죠. 국가적 영웅 vs. 아녀자의 역할이 혼
 재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 마음이 좋지 않은 정수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2) 23번- 별 - 금강산시 3, 길

각각 박두진, 신경림의 작품입니다. 시 자체가 쉬운 느낌은 아니었는데, 답을 찾는 과정
 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특히 **연계 체감이 확실하게 되는 선지였다**고 생각합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혼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양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24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역시 내용 일치 선에서 정리됩니다.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길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
[D]
└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길의 기능을 모른다고 하네요.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선지에서는 '내적 성찰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3) 27번- 편지

백석의 작품입니다. 처음 읽었을 때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나, 수능 문학이 언제나
그렇듯 100% 이해를 하지 못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출이 중요한 이유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답 논리가 거의 똑같았기 때문이죠.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
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
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
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 ①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부갯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새악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겠군.
- ⑤ ‘자갈자갈’, ‘끼득깨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군.

27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에도 만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찌뚱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데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걷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편지 형식으로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수식하는 표현이 '당신께서 좋아하실'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래에 나온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 읽어 봤을 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 대비?

글쓴이의 경험을 그냥 들려주는 상황입니다. 내용 일치 선에서 정리되죠.

푸는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했어도, 왜 저렇게 나왔는지 항상 <보기>를 복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기>를 살펴볼까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 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딱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은?

"아, 양면성이라는 게 그 양면성이 아니구나."

이 패턴은 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조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③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보기>에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선지 구성을 했지만?

되며,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갈 뿐만 아니라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허물은 내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 어째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樂土)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으리라.”

허물은 '너'(여기서는 가난 귀신)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지 '나'가 게으름을 자신의 허물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죠.

미스매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논리가 완전히 똑같아서 어렵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번 9월이나, 20학년도 6월(위 지문)에서 '양면성'은 왜 나온 건가요?

지문의 어디에선가 활용(또는 작품의 전문 중 어느 부분에서 활용)되었겠지만 저기서 쓰인 부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mismatching이죠.

(4) 31번- 크리스마스 캐럴 5

최인훈의 작품이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가 있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지문이었지만, 읽다 보면 이해되었을 학생이 대부분일 겁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거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날개'가 '깃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31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도 '자유'를 중심으로 읽으셨을 거고, 여러 곳에서 패러디되었던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을 알고 계셨다면 "오 이 작가는 억압적인 시대 상황에서 자유를 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보기>를 읽지 않았어도 들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22수능 칼럼 때 이육사 시인의 <초가>에 대해 설명할 때도, 선지에 일제 강점기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세모(아직 확실히 모름)표시를 하겠지만 보기에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경우에 세모 표시를 생각해보기 전에 답이 나온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접해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여기서 **공리적인 목적은 '치료'였는데**
윗부분에서 통행 금지 시간이 언급되고, 경관이 오면 숨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책의 성격이 '변질'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치료 -> 자유에 대한 갈망
이렇게 된 것이겠죠.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에 대한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자유에 대한 필요성이 망각?
정말 내용 일치 선에서 정리되는 문제였습니다.

평가원 낚시 코드는 뭘까요?
"변질? 상황이 나쁜 쪽으로 흘러갔다 보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5) 34번- 소유정가

박인로의 작품입니다. 누항사도 나올 법했는데 너무 익숙한 작품이라 소유정가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 가져갈 포인트는, **"평가원의 일부 진술이 애매하더라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다."**가 되겠네요.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관련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홍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께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 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34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두 가지 진술이 제시되네요.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현장에서, 추풍은 뱃놀이 전의 흥취이지 뱃놀이 자체의 흥취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약간 있었어서 과해석인지 아닌지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푸른 물결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돋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그러나 '강풍'에 있어서는 뒷부분까지 모두 참고한다고 해도 흥취의 대상이 옮겨가는 것은 찾기 어렵네요.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그럼 도대체 왜 저런 게 나왔을까요?

제가 위에서 초록색 형광펜 표시를 해두었던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이걸 보고 '산으로 흥취의 대상이 옮겨갔다'라고 생각하게 유도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의 낚시에는 대부분 당하지 않았을 듯합니다.

ebs 해설지에는 '귀범'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저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귀범'이 뭔지 몰라도 상관 없었습니다.

III. 마치며

이렇게(최근 10개년) 기출에 나오는 모든 <보기>는 내용일치 / 과해석 선에서 정리 가능합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모든 문제에 전부 다 쓰지 못했지만, 평가원이 <보기>를 구성하면서 매번 사용하는 '낚시 코드'(오답 유도 방식)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유익한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방법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수학편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지난 국어 칼럼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학 칼럼을 써보려 합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수험생활을 하며 깨달은 점과 방법론적인 부분을 위주로 글을 작성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수학을 어려워하는지 생각해볼까요. 다른 과목들은 강의나 독학서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할 만한데, 유독 수학은 그게 잘 안 되는 과목입니다.

수능 수학 만점자에게 “혹시 본인은 수능 수학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높은 확률로 그렇다고 할 겁니다. 3등급 이하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잘 모르는 거 ‘같다’, 개념은 잘 아는 거 ‘같은데’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등의 답변을 하겠죠. 이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념이 완벽한데 연습 부족 때문에 점수가 낮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개념을 알긴 아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그 느낌을 지워내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득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을 완벽하게 알기 전까지는 내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력이 완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1. 과정을 차례대로 밟지 않으면 최상위권에 도달할 수 없다.

국어 칼럼에서 제가 ‘배경 지식 급조’나, 수능특강 사용 설명서를 활용해 ‘국어 전반에 대한 내공을 단시간에 쌓는 법’ 등을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수학은 이런 방법으로 점수를 올리기 힘듭니다. 사실 말만 놓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자기만 아는 것처럼 쓰고 있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80% 이상이 중학 개념부터 다시 배워야 할 수준이었고, 실제로 저는 이 학생들을 중학 개념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건 강사의 몫이겠죠.

저는 수능 수학 1번을 못 푸는 수준에서 나름 칼럼을 쓸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다짐했던 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였습니다. 수학은, 중간 부분이 비어있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중학 개념도 정확히 모르는데 미적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2. 열심히 공부해서 적당한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1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히 인문 계열의 경우, 예전에는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형 1등급 컷 정도에 걸리는(그 당시 21 29 30 틀리던) 학생들 풀이를 들어보면, "이렇게 풀어도 1등급이 나온다고?"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중간 난도의 문제가 강화된 요즘 수능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적다고 생각합니다. 22 수능을 보고, "이제 무작정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4등급도 받기 어려운 시험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3. 꺼내 쓸 수 없는 개념은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은 <중학 도형 특강>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말인데, 이 문장을 보고 깨달은 점이 많아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네요. **개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니 이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4.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이다.

현역 수기에도 썼지만, 저는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정승제 F의 <완포자를 위한 중학수학특강>이라는 강의를 먼저 봤습니다. 마침 집에 큰 화이트보드도 있어서, 부모님을 앞에 두고 **제가 배웠던 내용을 강의 형식으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마 동생이 있었다면 동생에게 했을 텐데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중요한 건, 학창 시절을 보낸 지 30년도 더 지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짚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수학자도 아니고, 수학 학원 원장님도 아닙니다. 함수의 개념을 설명하는 날이었는데, "너는 지금 함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왜? 제가 설명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대충 얼버무리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느낌으로 말했다는 걸 저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개념을 설명해보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어느 부분에 자신이 없는지를 한 번에 알게 됩니다.

가족에게 설명해도 좋고, 거울을 보고 혼자 설명해도 좋습니다. 다만, 머릿속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번 개념을 떠올려 보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말로 설명하려 하면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지만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번의 말을 좀 바꿔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면 개념과 실전의 연결 고리를 깨달을 수 있다.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나형 시절에, 실력이 어느 정도 늘어서 다른 문제는 다 풀 수 있는데 30번(지금의 22번) 문제 하나를 못 풀어서 고민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수능완성을 반복해서 여러 번 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문제를 풀 때마다 다른 풀이가 생각난다.’**였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한 문제당 세 가지 정도의 풀이를 떠올려 보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물론 2점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답도 알고 있고, 많이 풀어서 풀이 과정도 외웠으니 별 의미 없을까요? 신기하게도 풀 때마다 풀이법이 달라집니다. 아나 나 어거 어떻게 안 풀었는데 어거 답 뭐야 일단 맞간 맞았네.. 그런 경험이 많아질수록 개념과 실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짚을 수 있게 됩니다.

“22번에는 매번 똑같은 문제만 나온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개념적으로 따지고 보면 같은 문제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개념과의 연결 고리를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이 **‘연결 고리’**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흔히 말하는 ‘양치기’(다양한 문제를 무작정 많이 풀어보기)에 돌입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양치기를 통해 연결 고리를 찾는 학생도 많습니다. 제 방법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런 이야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수용하시면 됩니다. 무비판적인 수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고난도 개념, 실전 개념은 따로 공부해주는 것이 좋다.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안다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문제에 관련된 스킬을 익히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인강으로 공부하는 것도, 문제 풀이 스킬에 치중하는 것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저 **“개념을 다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시험을 치면 왜 결과는 좋지 않을까?”**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기본 개념과 고난도 개념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또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도 합니다. 다소 철학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22번 문제를 많이 접해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7. 배우지 않은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듯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21. 상수 a, b 에 대하여 삼차함수 $f(x) = x^3 + ax^2 + b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가) $f(-1) > -1$
 (나) $f(1) - f(-1) > 8$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점]

- <보 기>
- ㄱ. 방정식 $f'(x) = 0$ 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ㄴ. $-1 < x < 1$ 일 때, $f'(x) \geq 0$ 이다.
 ㄷ. 방정식 $f(x) - f'(k)x = 0$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의 개수는 4이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이 문제는 사실상 부등식이 전부인 문제였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설명해준 다음, 혼자서는 왜 못 푼 것 같냐고 물어보면 “부등식만 활용해서 풀 수 있을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가)와 (나)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a > b > 3$ 뿐입니다.

부등식밖에 안 줬는데 그걸로 특정 a 값과 b 값을 찾아낼 수 있나요?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었나요? 학생들은 저 조건을 활용할 생각은 하지만, 뭔가가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죠. 주어진 게 없는데 어떻게 추가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21. 두 곡선 $y=2^x$ 과 $y=-2x^2+2$ 가 만나는 두 점을 (x_1, y_1) , (x_2, y_2) 라 하자. $x_1 < x_2$ 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점]

<보 기>

ㄱ. $x_2 > \frac{1}{2}$

ㄴ. $y_2 - y_1 < x_2 - x_1$

ㄷ. $\frac{\sqrt{2}}{2} < y_1 y_2 < 1$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함수와 이차함수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걸 수식으로 풀어 보려는 학생이 많았죠. 지수방정식과 이차방정식을 연립하는 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ㄷ 조건에서 $y_1 y_2$ 을 2의 x제곱과 관련된 식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풀이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y_1 = -2x_1^2 + 2$$

$$y_2 = -2x_2^2 + 2$$

$$\frac{\sqrt{2}}{2} < (-2x_1^2 + 2)(-2x_2^2 + 2) < 1$$

$$4x_1^2 x_2^2 - 4x_1^2 - 4x_2^2 + 4$$

$$4\{x_1^2 x_2^2 - (x_1^2 + x_2^2) + 1\}$$

$$\frac{\sqrt{2}}{2} < 4(x_1^2 - 1)(x_2^2 - 1) < 1 ??$$

‘배우지 않은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없는 조건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걸 배운 적이 없음을 간과하고, 심지어는 뻔한 조건을 두고도 안 배운 방법으로 문제는 푸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설명은 이해했는데 혼자서는 못 떠올릴 거 같아요. 여기서 이런 풀이를 생각해내는 게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명시적으로 설명하려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지 않은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이번 글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8. 고난도 문제일수록 시중에 있는 해설지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게 좋을 때도 있다.

이건 제가 썼던 수학 22번 칼럼을 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하위권부터 올라오면서 30번 문제의 해설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풀면 한 문제 풀다 시험이 끝나겠는데?”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삼차함수 비율 관계 등으로 대표되는 ‘고난도 기본 개념’을 활용하는 해설도 요즘에는 자주 찾아볼 수 있기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라고 단정 짓지는 않고, 그럴 때도 있다고만 썼습니다. 여전히 100분 동안 풀어야 할 것만 같은 스케일을 자랑하는 해설이 존재하니까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이법도 다양합니다. 해설지에 나온 풀이를 고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설지 봐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고생하지 말고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독창적인 풀이를 떠올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9. 문제를 풀다가 막힌다면 5분 정도만 고민하고 해설을 보는 게 좋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공부는쉬워야한다’님께서 칼럼으로 자세하게 다루어주셨습니다. 궁금한분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기에 9번 항목에 넣었고, 좀 더 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능’ 수학을 공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 연계 교재는 풀어 볼 만한 N제이다.

수학은 정말 실모 말고는 사실 쪽 콘텐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연계 교재만으로 공부했는데,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N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연계에 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데, 어차피 수학 1등급 받는 (만점이 아닌) 수험생이 문제를 내도 26문제에서 많게는 28문제까지 평가원과 유사하게 낼 수 있을 겁니다.

즉, 유형은 누구나 80% 이상 파악하고 있으니 문제 적중과 같은 말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가 있으려면 신유형이 뭐가 나올지를 알아야 할 테고, 그래서 고난도 / 신유형 문제집이 인기가 있는 거겠죠.

마치며

방법론적인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더더욱 그런 과목입니다.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명시적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았기를 바라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 수학 문제를 대하는 자세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요즘 원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어 2주 만에 글을 쓰네요.
오늘은 국어가 아니고 간단한 수학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예전에 22번 모음 칼럼 올렸을 때도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해설 강의 같은 영상의 댓글을 보면
논리는 깔끔한데 혼자서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힘들 거 같다는 이야기가 참 많죠.
아무리 '22번 참 쉽죠?'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도.. 그 말이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에서 준 조건을 활용해서 '일단' 식을 시험지에 써본 다음,
뭔가 연결 고리가 있을 만한 걸 뽑아내서 답을 찾았습니다.

최근에 UR독존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것을 얻었는데
들었던 말을 요약하면 딱 하나만 남습니다.

**본인의 풀이가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떤 식으로 풀지 떠올라야 한다.**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수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풀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거 같네요.
2등급 초~1등급 중간 정도의 학생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ㅋㅋ...

반성은 이쯤하고, 간단한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너무 길 거 같아서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사실 생각만 하다가 글을 쓰게 된 것도 수업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8. 삼차함수 $f(x)$ 가

$$\lim_{x \rightarrow 0} \frac{f(x)}{x} = \lim_{x \rightarrow 1} \frac{f(x)}{x-1} = 1$$

을 만족시킬 때, $f(2)$ 의 값은? [3점]

- ① 4 ② 6 ③ 8 ④ 10 ⑤ 12

2022학년도 9월 8번 문제입니다.

제가 글을 쓰기 전 3등급 정도 받는 후배에게 풀이를 써서 보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f(1) = 0$
 $f(x) = ax^3 + bx^2 + cx$
 $\left\{ \begin{array}{l} x(ax^2 + bx + c) \\ \rightarrow x(x-1)(ax-1) \end{array} \right.$
 $\lim_{x \rightarrow 1} \frac{x(x-1)(ax-1)}{x-1} = a-1 = 1$
 $f(x) = x(x-1)(2x-1)$
 $f(2) = 2(1)(3) = 6$

제가 저걸 좀 바꿔서 깔끔하게 쓰면 이 정도 풀이가 되겠네요.

$$f(0) = f(1) = 0, \quad f'(0) = f'(1) = 1$$

$$f(x) = kx(x-1)(x-a)$$

$$f'(0) = ak = 1$$

$$f'(1) = k(1-a) = k - ak = 1$$

$$\underline{k=2}, \quad a = \frac{1}{2}$$

$$f(x) = 2 \cdot 2 \cdot 1 \cdot \frac{3}{2} = \underline{6}$$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f(0) = f(1) = 0, \quad f'(0) = f'(1) = 1$$

$$f(x) = kx(x-\frac{1}{2})(x-1)$$

이걸 보고 의문이 드는 학생도 있을 테고, 오 그렇구나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수학 교수 분들이 보시면 별것도 아닌데 글을 쓰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림을 과감하게 생략해서 저것만 남은 건데 눈으로 푼 걸 종이에 쓰다 보니, 웬 수직 선이 튀어나왔나 하실 분도 계실 거 같습니다.

방금 저는 고난도 기본 개념(재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삼차함수에서, 두 실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나머지 한 근은 그 중점에 존재한다.

$x = 0$ 과 $x = 1$ 에서 실근을 가지는데, 두 x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 둘을 이은 지점은 무조건 점대칭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점대칭점 역시 x 축 위에 있으며 그 값은 0과 1의 평균인 $1/2$ 이 됩니다.

기존의 풀이는 1~2분 걸리는데 저렇게 생각하면 10~20초 정도 걸릴 겁니다. 이걸 들려주니 후배가 "너무 발상적이지 않아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실전에서 이걸 쓰겠냐는 의미로 한 말 같은데, 저는 이 재료를 예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미 뽑아냈었습니다. 해설지에는 없었지만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문제는, 22번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게 풀어야 하나고 수학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많이 풀다 보면 떠오른다는 대답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22번 문제에는 5번 문제의 개념도, 8번 문제의 개념도, 13번 문제의 개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22번이 예전에 비해 최고난도 킬러 문제 같지 않다는 건, **이런 개념을 엮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제 풀 때 습관을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테드라인 정하기 - 문제 수준에 따라 3~8분
2. 실전이라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풀기
3. 복습하면서 내 풀이 말고 더 나은 풀이는 없을까 고민하기

제 후배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발상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시험장에서 꺼내쓸 수가 없습니다. 3번을 끊임없이 연습하면, 실전에서 2번처럼 풀어도 최선에 가까운 풀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3번에서 더 나은 풀이를 떠올리지 못 해도 상관없습니다. 고민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제가 독존님께 몇 가지 조언을 듣고 좀 연습을 해봤는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대부분은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당연해 보이는, 진부한 소리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것'을 직접 실천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어에서도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을 때 테드라인 공부법을 활용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수학 역시 극한의 상황으로 본인을 몰아 넣으면 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테드라인 공부법이 좋은 게 시간제한이 걸리면 최대 효율로 문제를 풀어야 해서, '일단' 써보는 식으로 무작정 문제를 푸는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 속으로 과정을 다 그려 놓고 나서 문제를 푸는, 즉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목에서, 쉬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난도 문제는 고정 100점이 아닌 이상 빠르게 풀 수 있을지, 시간이 많이 걸릴지, 아니면 풀지 못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 시간이 적을수록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했었는데,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하겠지 뭐~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할 이야기는 좀 더 간단했는데, 도형 문제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무거운 글들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졌습니다ㅠ)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 5가지 이야기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칼럼입니다. 주로 2~3등급 이하 학생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권 분들은 도형에 약하시다면 가볍게 봐주세요..!

도형에 대해 떠오르는 것이 있어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려 합니다.

도형 문제는 어느 정도 풀이가 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워낙 많고, 간결한 풀이와 정말 기발한 풀이가 넘쳐 나지만 그림에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도형은 해야 할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 2~3등급 분들이 지금 당장, 수학 칼럼을 쓰시는 독존님이나 악어새님 등등..처럼 될 수는 없어도 **저만큼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문과거든요~~

도형 문제 학습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답지를 보면 알겠는데 어떻게 떠올려야 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답지를 본다고 실력이 확실히 느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저에게 '이유'를 설명해줬으면 했습니다.

1. 삼각함수 값 하나를 준다면, 그건 모든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제가 좀 해매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sin법칙과 cos법칙을 따로따로 물어보면 외접원 주니까 sin, 세 변 or 두 변과 끼인 각 주니까 cos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딱 쉬운 삼각함수 3점 문제겠죠.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져도, 여기서는 sin, 저기서는 cos, **썼다가 안 썼다가 뭐 어찌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는 걸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죠.

하나의 삼각함수 값만 줘도, 적어도 삼각형 안에서는 모든 삼각함수 값을 다 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sin값을 줘도 cos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sin값을 제시했지만 cos법칙을 활용하려면 값을 이리저리 바꿔야 한다!" 이게 아니고 **애초부터 삼각함수 값은 다 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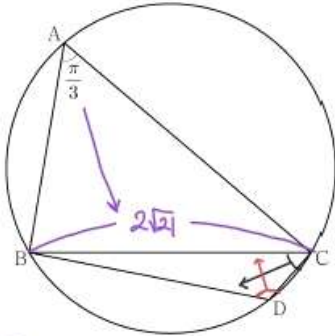
문제로 보겠습니다.

12. 반지름의 길이가 $2\sqrt{7}$ 인 원에 내접하고 $\angle A = \frac{\pi}{3}$ 인

삼각형 ABC가 있다.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의 점 D에

대하여 $\sin(\angle BCD) = \frac{2\sqrt{7}}{7\sqrt{7}}$ 일 때, $\overline{BD} + \overline{CD}$ 의 값은? [4점]

- ① $\frac{19}{2}$ ② 10 ③ $\frac{21}{2}$ ④ 11 ⑤ $\frac{23}{2}$



$$\frac{\overline{BC}}{\sin \frac{\pi}{3}} = 4\sqrt{7} \quad \overline{BC} = 4\sqrt{7} \cdot \frac{\sqrt{3}}{2} = 2\sqrt{21}$$

$$\frac{2\sqrt{21}}{\sin \frac{2\pi}{3}} = 4\sqrt{7} = \frac{\overline{BD}}{\frac{2}{\sqrt{7}}} \quad \overline{BD} = 8$$

$\sin \angle BCD ? \rightarrow \cos \angle BCD \approx \frac{2}{\sqrt{7}}$
 $\sin \angle BCD = \frac{2}{\sqrt{7}} \quad \frac{\sqrt{7}}{\sqrt{2}} \cdot 2 \rightarrow \cos \angle BCD = \frac{\sqrt{3}}{\sqrt{7}}$

$$\cos \angle BCD = \frac{8^2 + k^2 - 64}{2 \cdot 8 \cdot k} = \frac{\sqrt{3}}{\sqrt{7}} \quad (\overline{CD} = k)$$

$$k^2 + 20 = 2k \quad k = 2, \cancel{10} \quad \therefore \overline{CD} = 2$$

$$\frac{a}{\sin A} = 2R$$

$$a = 2R \sin A$$

$$\sin A = \frac{a}{2R}$$

$$a^2 = b^2 + c^2 - 2bc \cdot \cos A$$

$$\cos A = \frac{b^2 + c^2 - a^2}{2bc}$$

여기서는 sin BCD만 주었지만, 사실상 cos값도 같이 준 것이겠죠.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풀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2. 보조선은 보조선을 긋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보조선을 긋는 것 자체'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조선의 의미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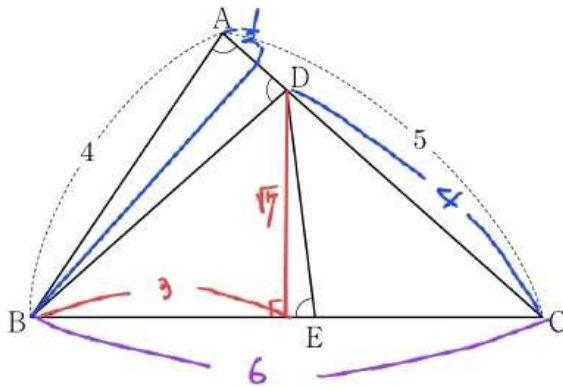
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12. 그림과 같이 $\overline{AB} = 4$, $\overline{AC} = 5$ 이고 $\cos(\angle BAC) = \frac{1}{8}$ 인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C 위의 점 D와 선분 BC 위의 점 E에 대하여

$$\angle BAC = \angle BDA = \angle BED$$

일 때, 선분 DE의 길이는? [4점]



- ① $\frac{7}{3}$ ② $\frac{5}{2}$ ③ $\frac{8}{3}$ ④ $\frac{17}{6}$ ⑤ 3

$$\cos \angle A = \frac{16 + 25 - \overline{BC}^2}{2 \cdot 4 \cdot 5} = \frac{1}{8}, \quad \overline{BC} = 6$$

$$\cos \angle A = \frac{1}{8} \text{ 이므로 } \overline{AD} = \frac{1}{2} \cdot 2 = 1$$

$$\cos \angle DEB = \frac{1}{8}, \quad \begin{array}{c} 8 \\ \triangle \\ 1 \end{array} \text{ 3}\sqrt{7}, \quad \sin \angle DEB = \frac{3\sqrt{7}}{8}$$

$$\sin \angle DEB = \frac{\sqrt{17}}{DE} = \frac{3\sqrt{7}}{8}, \quad \overline{DE} = \frac{8}{\sqrt{3}}$$

이 문제의 마지막에서 저는 cos값을 찾으려고, 그리고 sin값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2-1. 삼각형에서의 삼각함수 값을 활용할 생각도 해야 한다.

보조선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보통 \sin , \cos , \tan 의 정의 그대로를 기억하거나, \sin 법칙, \cos 법칙 그 자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삼각형에서의 삼각함수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죠. 위에 나온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변형 공식은 암기해둘 필요가 있다.

\sin 법칙에서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공식을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frac{a}{\sin A} = 2R$$

$$a = 2R \sin A$$

$$\sin A = \frac{a}{2R}$$

\cos 법칙에서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공식을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a^2 = b^2 + c^2 - 2bc \cdot \cos \angle A$$

$$\cos \angle A = \frac{b^2 + c^2 - a^2}{2bc}$$

워낙 문제를 많이 풀고, 또 수학 실력이 뛰어나서 안 외우고도 자유자재로 전환이 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도 머리 속에 이미 '외워져' 있는 거겠죠.) 일반적인 학생들은 "아니 누가 변형 공식을 무식하게 외웬? 그냥 현장에서 식 변형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2008-0106]

- 7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frac{q}{p}$ 이다. $p+q$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가) $\overline{AB} \times \overline{BC} \times \overline{CA} = 6$ $abc = 6$
(나)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R=1$

$ab = \frac{6}{c}$, $\sin C = \frac{c}{2R} = \frac{c}{2}$
 $\Delta ABC = \frac{1}{2} ab \sin C = \frac{1}{2} \cdot \frac{6}{c} \cdot \frac{c}{2} = \frac{3}{2}$
 $\therefore p+q=5$

[22008-0107]

[22008-0114]

- 7 2보다 큰 자연수 n 에 대하여 $\overline{AB} = n^2 - 2n$, $\overline{CA} = n + 4$ 인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3

(가) $\cos^2 B + \sin^2 C = 1$ (나) $\cos B + \cos C = 1$

① 8 ② 16 ③ $16\sqrt{3}$ ④ 32 ⑤ $32\sqrt{3}$

$1 - \sin^2 B + \sin^2 C = 1$ $n^2 - 2n = n + 4, n=4, b=c=8$
 $\left(\frac{b}{2R}\right)^2 = \left(\frac{c}{2R}\right)^2$ $\frac{a^2 + b^2 - 64}{2 \cdot a \cdot 8} + \frac{a^2 + b^2 - 64}{2 \cdot a \cdot 8} = 1$
 $b=c$ $\frac{2a^2}{16a} = 1 \cdot a=8$ $\frac{\sqrt{3}}{4} \cdot 8^2 = 16\sqrt{3}$

[22008-0115]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보자마자 풀이가 시작되려면 체화의 과정도 분명 필요할 겁니다.

삼차함수 비율 관계를 현장에서 증명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cos 공식 같은 경우, 저는 두 번째 공식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거 같네요.

솔직하게, '반드시' 암기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머리 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바로 꺼내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암기에 앞서 이해는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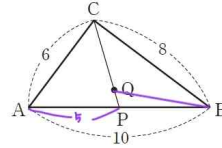
4. '나만의 말'로 여러 가지 도구를 정립해두자.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같은 cos값을 다른 삼각형에서 활용하기', '각을 넘기면 cos은 마이너스' 등 문제에 곧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을 나만의 말로 다듬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2008-0110]

3 그림과 같이 $\overline{AB}=10$, $\overline{BC}=8$, $\overline{CA}=6$ 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중점을 P, 선분 CP를 4:1로 내분하는 점을 Q라 하자. 세 점 B, C, Q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할 때, R²의 값을 구하시오.



$$\begin{aligned} \text{△ABC에서} \quad \text{△APC에서} \\ \cos \angle CAB = \frac{36+100-64}{2 \cdot 6 \cdot 10} = \frac{36+25-k^2}{2 \cdot 6 \cdot 5} \quad (\overline{CP}=k) \\ 36 = 36+25-k^2, \quad k=5, \quad \overline{CQ}=4 \\ \cos \angle BCQ = \frac{25+64-25}{2 \cdot 5 \cdot 8} = \frac{4}{5} = \frac{16+64-m^2}{2 \cdot 4 \cdot 8} \quad (\overline{BQ}=m) \end{aligned}$$

$$\begin{aligned} m &= \frac{12}{\sqrt{5}} \\ \cos \angle BCQ &= \frac{4}{5} \quad \frac{5\Delta}{4} \\ \sin \angle BCQ &= \frac{3}{5} \\ \frac{\frac{12}{\sqrt{5}}}{\frac{3}{5}} &= 2R \text{에서 } R=2\sqrt{5} \\ R^2 &= 20 \end{aligned}$$

5. 삼각형의 변과 각에 대한 명칭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쉬운 문제에서 삼각형을 매번 그림으로 그려가며 푸는 학생들이 있어 간단하게만 넣겠습니다. 다들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겠네요. 3번 파트에서도 똑같이 썼었죠.

[22008-0104]

5 $\overline{AB}=2$, $\overline{BC}=2\sqrt{3}$, $\angle CAB=60^\circ$ 인 삼각형 ABC의 넓이는?

- ① $2\sqrt{2}$ ② $\sqrt{10}$ ③ $2\sqrt{3}$ ④ $\sqrt{14}$ ⑤ 4

$$\begin{aligned} \cos A = \frac{1}{2} = \frac{b^2+4-12}{2 \cdot b \cdot 2}, \quad b^2-2b-8=0, \quad \underline{b=4} \\ \Delta ABC = \frac{1}{2} \cdot 4 \cdot 2 \sin 60^\circ = \underline{2\sqrt{3}} \end{aligned}$$

더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 이 정도인 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29. 함수

$$f(x) = \begin{cases} ax+b & (x < 1) \\ cx^2 + \frac{5}{2}x & (x \geq 1) \end{cases}$$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다. 함수 $y=f(x)$ 의 그래프와 역함수 $y=f^{-1}(x)$ 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3이고, 그 교점의 x 좌표가 각각 $-1, 1, 2$ 일 때, $2a+4b-10c$ 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b, c 는 상수이다.) [4점]

$f(3) = f(4) = f(5) = 0, f(1) = -1, f(2) = 1$ 인 경우

$\frac{f(5)-f(3)}{2} \leq 0$
 $\frac{f(6)-f(4)}{2} \leq 0$
 조건 (나) 만족

$f(x) = (x-3)(x-4)(x-5)(px+q)$
 $f(1) = -2 \cdot -3 \cdot -4 \cdot (p+q) = -1$
 $f(2) = -1 \cdot -2 \cdot -3 \cdot (2p+q) = 1$

$\begin{cases} p+q = \frac{1}{24} \\ 2p+q = -\frac{1}{6} \end{cases} \Rightarrow p = -\frac{5}{24}, q = \frac{1}{4}$

$f(\frac{5}{2}) = -\frac{1}{2} \cdot -\frac{3}{2} \cdot -\frac{5}{2} \cdot (\frac{5}{2} \cdot -\frac{5}{24} + \frac{1}{4})$
 $= -\frac{15}{8} \cdot -\frac{13}{48}$
 $= \frac{65}{128}$
 $\therefore 128 \times f(\frac{5}{2}) = 65$

$f(1) = f(4) = f(5) = 0, f(2) = -1, f(3) = 1$ 인 경우

(X) ($\because \frac{f(6)-f(4)}{2} > 0$)

30. 사차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가)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sum_{k=1}^n f(k) = f(n)f(n+1)$ 이다.
 (나) $n=3, 4$ 일 때, 함수 $f(x)$ 에서 x 의 값이 n 에서 $n+2$ 까지 변할 때의 평균변화율은 양수가 아니다.

$128 \times f(\frac{5}{2})$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가) $f(1) = f(1)f(2)$
 $f(1) + f(2) = f(2)f(3)$
 $f(1) + f(2) + f(3) = f(3)f(4)$
 $f(1) + f(2) + f(3) + f(4) = f(4)f(5)$
 $f(1) + f(2) + f(3) + f(4) + f(5) = f(5)f(6)$

(나) $n=3 \Rightarrow \frac{f(5)-f(3)}{2} \leq 0$
 $n=4 \Rightarrow \frac{f(6)-f(4)}{2} \leq 0$

point. 연속적인 값이 커지는 도(시)의 본질 $\Rightarrow (n$ 을 대입한 것) - (n-1을 대입한 것)

차례대로 보면
 $f(5) = f(5) \{ f(6) - f(4) \}, f(5) = 0$ (2건 (나))
 $f(6) - f(4) = 0$ 이면 $f(5) = 0$
 $f(6) - f(4) = k (k < 0)$ 이면 $(1-k)f(5) = 0, f(5) = 0$
 $f(4) = f(4) \{ f(5) - f(3) \}, f(4) = 0$ (2건 (나))
 $f(3) = f(3) \{ f(4) - f(2) \}, f(3) = 0$ or $f(4) - f(2) = 1$
 $f(2) = f(2) \{ f(3) - f(1) \}, f(2) = 0$ or $f(3) - f(1) = 1$

$f(5) = 0, f(4) = 0$ 은 고정 / 4가지 케이스 분류 (실질적으로는 2가지)

① $f(3) = 0$
 (1) $f(2) = 0$
 $f(1) = f(1)f(2)$ 에서 $f(1) = 0$ (X) 사차함수 근 5개
 (2) $f(3) - f(1) = 1$
 $f(3) = 0$ 이므로 $f(1) = -1, f(2) = 1$

② $f(4) - f(2) = 1$
 (1) $f(2) = 0$ (X) $f(4) = 0$ 이므로 $f(2) = 0$ 케이스는 당연히 X
 (2) $f(3) - f(1) = 1$
 $f(2) = -1$
 $f(1) = f(1)f(2)$ 에서 $f(1) = 0, f(3) = 1$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결국 2가지 그래프만 비교하면 됨.

$f(3) = f(4) = f(5) = 0, f(1) = -1, f(2) = 1$ or
 $f(1) = f(4) = f(5) = 0, f(2) = -1, f(3) = 1$

29. 첫째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수열 $\{a_n\}$ 과 첫째항이 자연수이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수열 $\{b_n\}$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_7 + b_7$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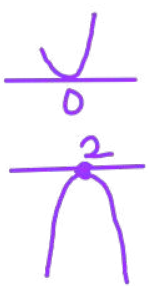
- (가) $\sum_{n=1}^5 (a_n + b_n) = 27$
- (나) $\sum_{n=1}^5 (a_n + |b_n|) = 67$
- (다) $\sum_{n=1}^5 (|a_n| + |b_n|) = 81$

점선의 개수

- ① 점대칭점 1개
- ② 점대칭점 점선위 (①개의) 2개
- ③ 곡선위 (①개의) 2개
- ④ V 영역 1개
- ⑤ ∩ 영역 3개

30.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 와 최고차항의 계수가 -1 인 이차함수 $g(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가) 곡선 $y=f(x)$ 위의 점 $(0, 0)$ 에서의 접선과 곡선 $y=g(x)$ 위의 점 $(2, 0)$ 에서의 접선은 모두 x 축이다.
 - (나) 점 $(2, 0)$ 에서 곡선 $y=f(x)$ 에 그은 접선의 개수는 2이다.
 - (다) 방정식 $f(x) = g(x)$ 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 교점 1개



$x > 0$ 인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x) \leq kx - 2 \leq f(x)$$

각각 접할 때 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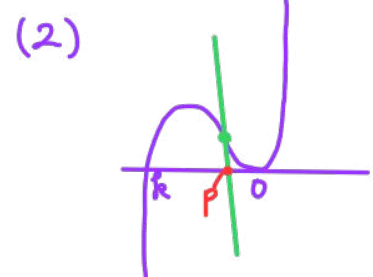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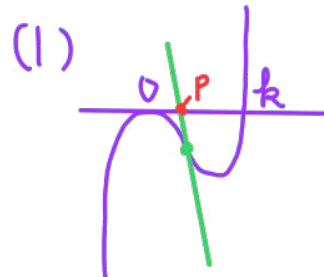
를 만족시키는 실수 k 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각각 α, β 라 할 때, $\alpha - \beta = a + b\sqrt{2}$ 이다. $a^2 + b^2$ 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b 는 유리수이다.) [4점]

조건 (가)에서 $f(x)$ 는 $k=0$ 에서 접하고 $g(x)$ 는 $k=2$ 에서 접한다.

$$g(x) = -(k-2)^2 \quad \text{--- 바로 결정}$$

$$f(x) = x^2(x-k)$$

① $k \neq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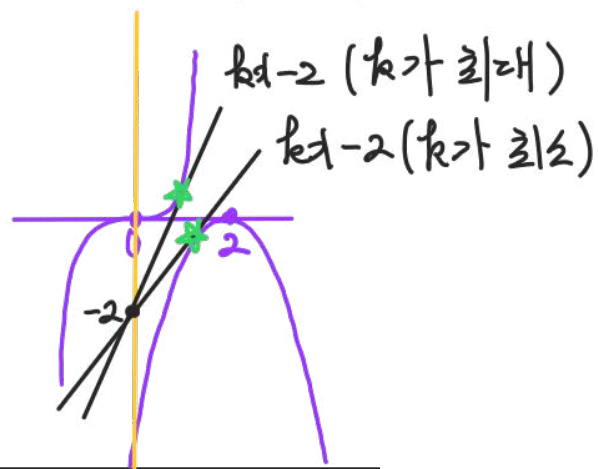
$k=2$ 이 $p=2$
'(다) 오직 하나의 실근'
조건 충족 X

바라가지로 $k=2$ 이 $p=2$
 $k < 0, p < 0$ 이므로 X

② $k = 0$

$$f(x) = x^3$$

$$g(x) = -(x-2)^2$$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k 가 최댓값일 때 점점을 t 라 하면
 $(0, -2), (t, t^3)$ 사이 기울기 $= f'(t) = k$
 $t^3 + 2 = 3t^2$ 에서 $t=1, k=3, \alpha=3$

k 가 최솟값일 때 접하면 $-(x-2)^2 = kx - 2$
즉 $x^2 + (k-4)x + 2 = 0$ 의 판별식 $D=0$
 $k = 4 \pm 2\sqrt{2}$ 에서 $\beta = 4 - 2\sqrt{2}$ ($\because \alpha > \b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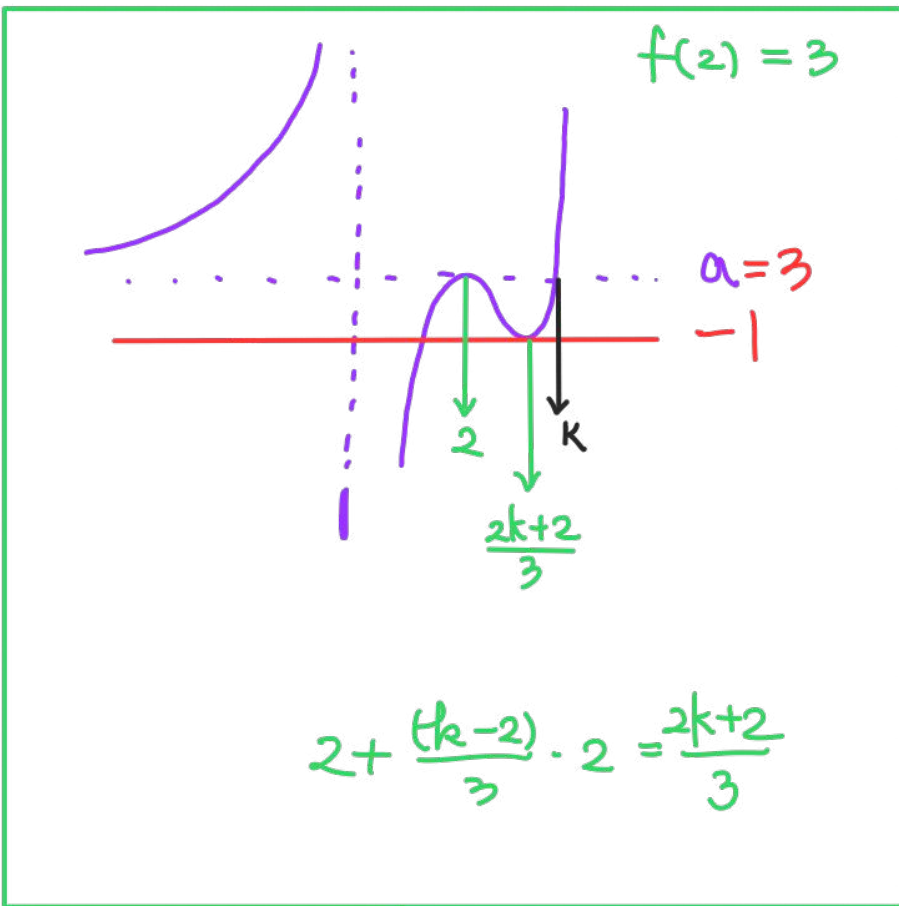
$$\alpha - \beta = -1 + 2\sqrt{2}$$

$$a = -1, b = 2$$

$$\therefore a^2 + b^2 = 5$$

29.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_1, x_2, x_3 의 모든 순서쌍 (x_1, x_2, x_3) 의 개수를 구하시오. [4점]

- (가) $n=1, 2$ 일 때, $x_{n+1} - x_n \geq 2$ 이다.
- (나) $x_3 \leq 10$



30.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f(2)=3$ 인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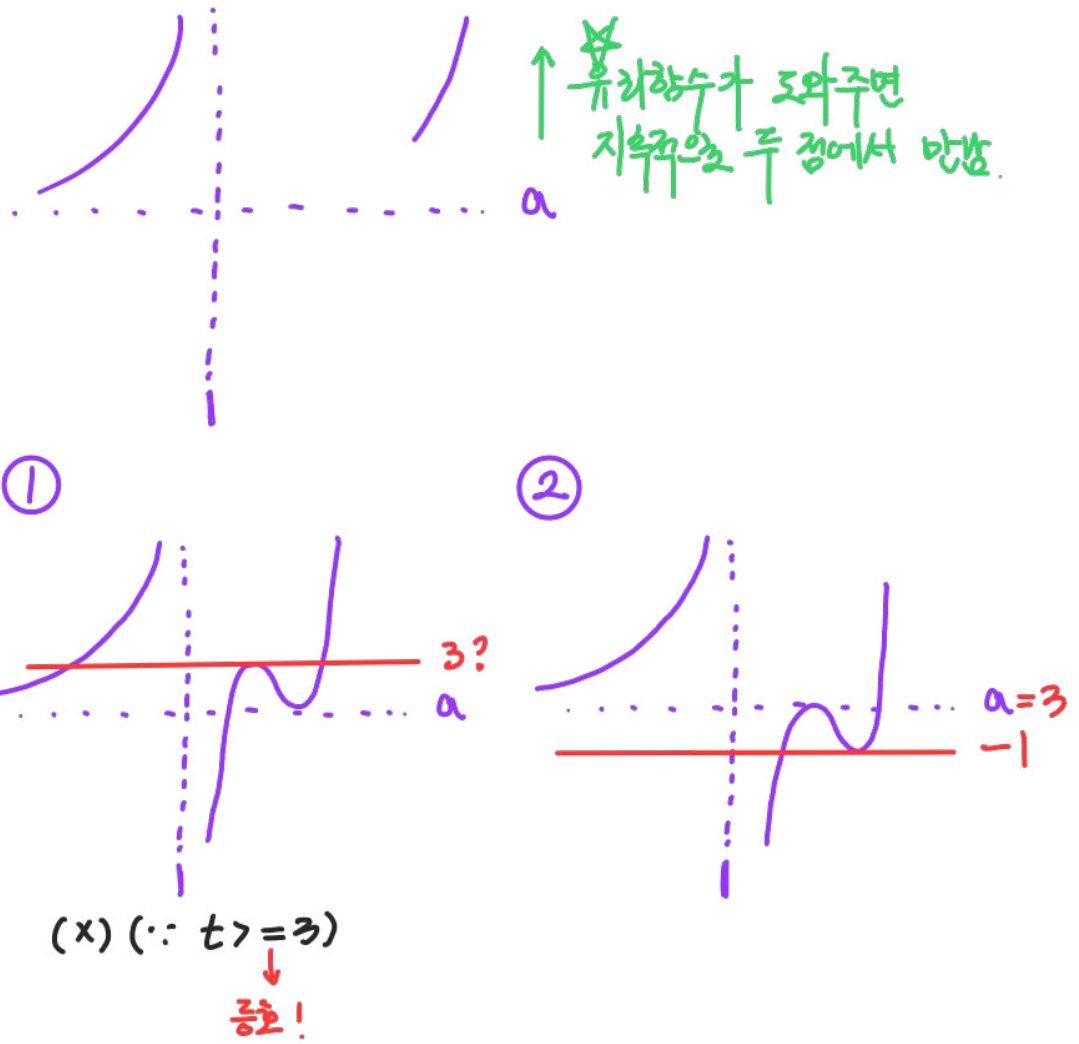
$$g(x) = \begin{cases} \frac{ax-9}{x-1} & (x < 1) \\ f(x) & (x \geq 1) \end{cases} \quad \frac{a-9}{x-1} + a$$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y=g(x)$ 의 그래프와 직선 $y=t$ 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 의 값의 집합은 $\{t \mid t = -1 \text{ 또는 } t \geq 3\}$ 이다.

$(g \circ g)(-1)$ 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는 상수이다.) [4점]

* point. $t \geq 3$ 이라는 조건에 주목
삼차함수만으로는 '지속적인'
가로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없다!



$$f(x) = (x-2)^2(x-k) + 3, \quad f\left(\frac{2k+2}{3}\right) = -1 \text{ 에서}$$

$$\left(\frac{2k-4}{3}\right)^2 \left(\frac{-k+2}{3}\right) + 3 = -1$$

$$\frac{4(k-2)^2}{3} \cdot \frac{(k-2)}{3} = 4, \quad (k-2)^3 = 3^3$$

* 확인 사항 $k=5$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g(-1) = 6, \quad g(6) = f(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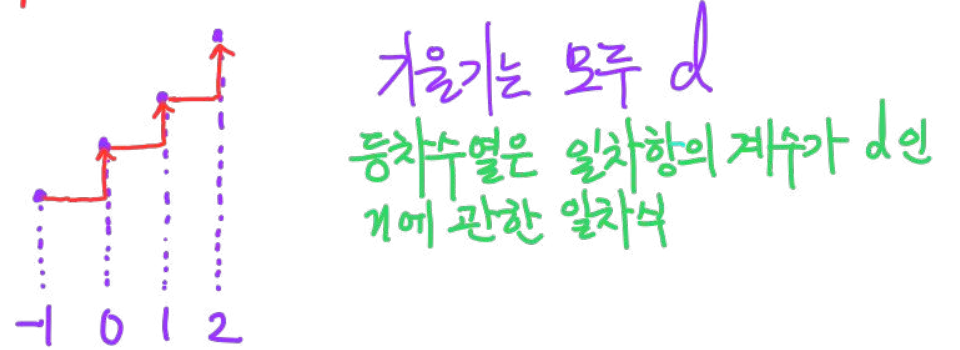
$$\therefore \boxed{g(g(-1)) = f(6) = 19}$$

29. 연필 7자루와 볼펜 4자루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연필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볼펜끼리도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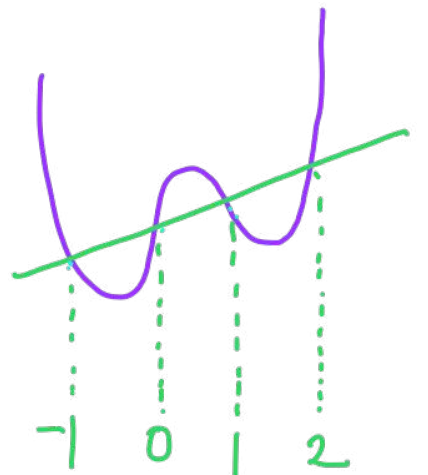
- (가)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는 서로 같고, 남학생이 각각 받는 볼펜의 개수도 서로 같다.
- (나) 여학생은 연필을 1자루 이상 받고, 볼펜을 받지 못하는 여학생이 있을 수 있다.
- (다) 남학생은 볼펜을 1자루 이상 받고, 연필을 받지 못하는 남학생이 있을 수 있다.

30.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사차함수 $f(x)$ 에 대하여 네 개의 수 $f(-1), f(0), f(1), f(2)$ 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곡선 $y=f(x)$ 위의 점 $(-1, f(-1))$ 에서의 접선과 점 $(2, f(2))$ 에서의 접선이 점 $(k, 0)$ 에서 만난다. $f(2k)=20$ 일 때, $f(4k)$ 의 값을 구하시오. (단, k 는 상수이다.) [4점]

point. $f(n) = a_n$ 의 의미를 체화할 것



$$f(x) = (x+1)x(x-1)(x-2) + ax + b$$



① $(-1, f(-1))$ 에서의 접선 $y = f'(-1)(x+1) + f(-1) = (a-6)(x+1) - a + b$

② $(2, f(2))$ 에서의 접선 $y = f'(2)(x-2) + f(2) = (a+6)(x-2) + 2a + b$

$y = -6(x+1) - a + b$ 와 $y = 6(x-2) + 2a + b$
 $(k, 0)$ 에서 만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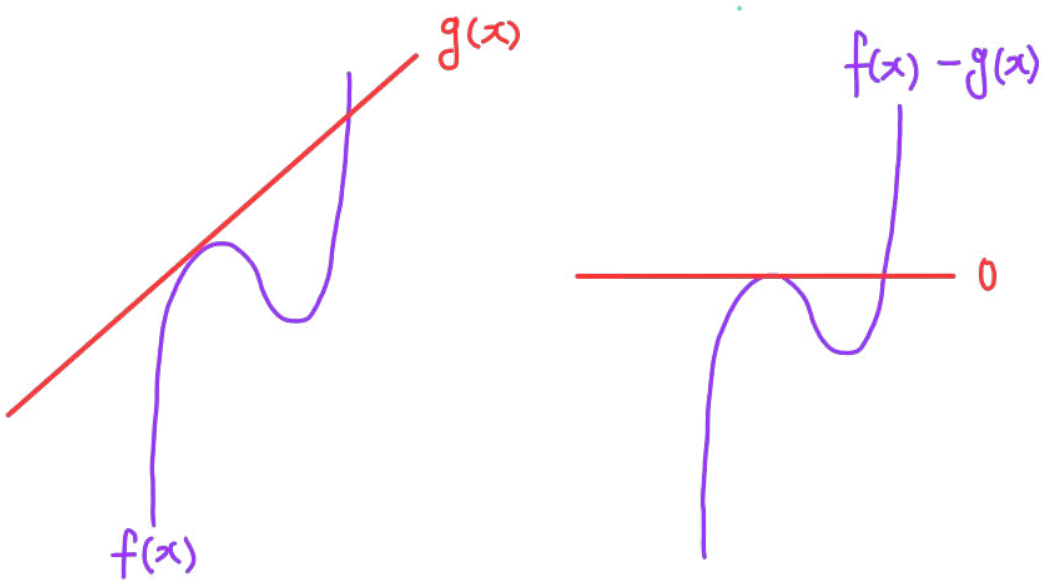
$$\begin{cases} 0 = (a-6)(k+1) - a + b & (a-6)k + b - 6 = 0 \\ 0 = (a+6)(k-2) + 2a + b & (a+6)k + b - 12 = 0 \end{cases} \ominus$$

$$-12k + 6 = 0 \implies k = \frac{1}{2}$$

$f(2k) = f(1) = a + b = 20$
 $(a-6) \cdot \frac{1}{2} + b - 6 = 0$ 에서 $\frac{1}{2}a + b = 9$
 $\frac{1}{2}a = 11, a = 22, b = -2$
 $f(4k) = f(2) = 2a + b = 42$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수평화



두 그래프는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y = f(x)$ 와 $y = t$ 의 관계식처럼
 풀어도 문제가 없다.

29. 세 명의 학생 A, B, C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6개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4점]

- (가) 학생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1 이상이다.
- (나) 학생 B가 받는 초콜릿의 개수는 1 이상이다.
- (다) 학생 C가 받는 사탕의 개수와 초콜릿의 개수의 합은 1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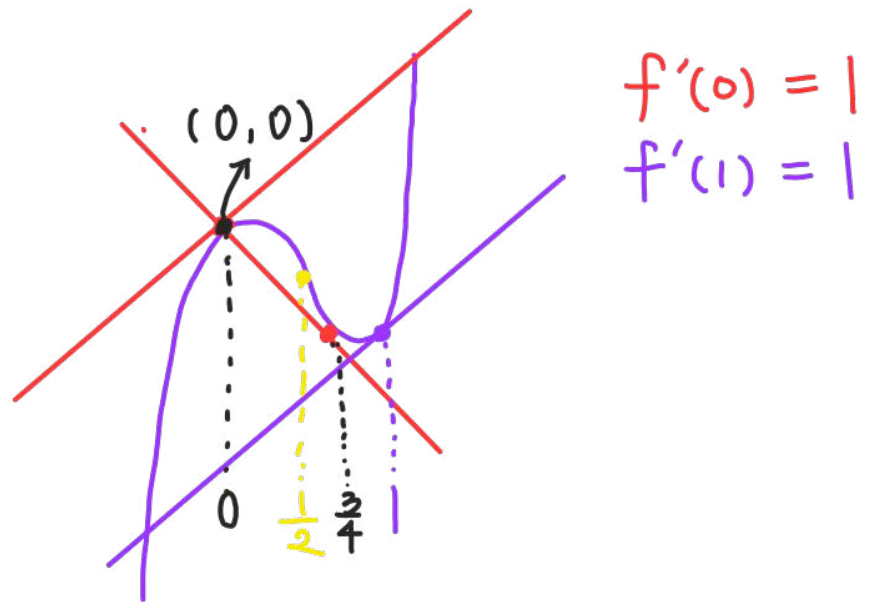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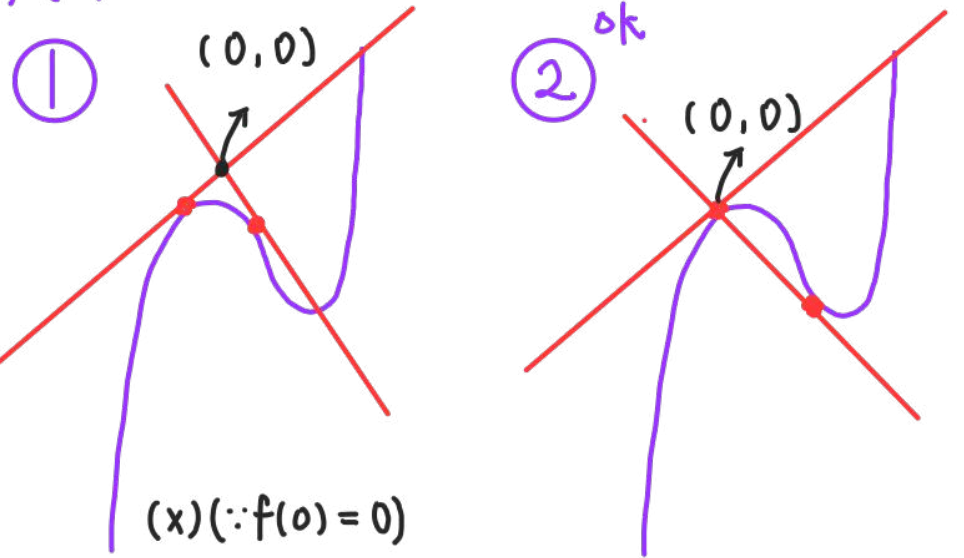
30.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삼차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상차함수에서 가장 편한 조건.

- (가) 방정식 $f(x)-x=0$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이다.
- (나) 방정식 $f(x)+x=0$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이다.

$f(0)=0, f'(1)=1$ 일 때, $f(3)$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f(x) = x$
 $f(x) = -x$] 점화라



$$f(x) + x = kx(x - \frac{3}{4})^2$$

$$f'(x) + 1 = k[(x - \frac{3}{4})^2 + 2x(x - \frac{3}{4})]$$

$$f'(1) + 1 = k(\frac{1}{16} + \frac{2}{4}) \rightarrow k = \frac{32}{9}$$

$$f(3) + 3 = 3k \cdot \frac{81}{16} =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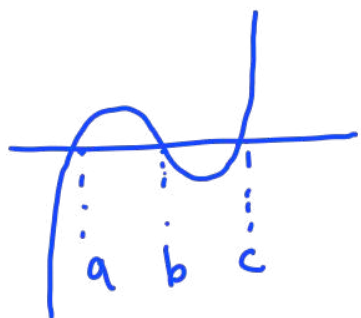
$$\therefore f(3) = 51$$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9. 집합 $A = \{1, 2, 3, 4\}$ 에 대하여 A 에서 A 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p 이다. $120p$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 (가) $f(1) \times f(2) \geq 9$
- (나) 함수 f 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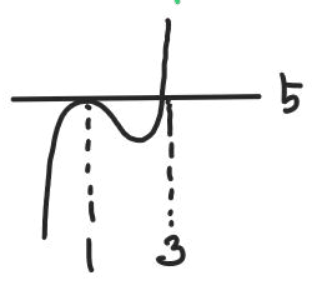
차이항수



$f(x) = (x-a)(x-b)(x-c)$
 $\Rightarrow f(x) - 0 = (x-a)(x-b)(x-c)$

$y = f(x)$ 와 $y = 0$ (x축) 관계
 같은 맥락에서
 $f(x) = (x-a)(x-b)(x-c) + 0$

※ 즉, 보이는 가로 직선의 식을 세우고
 x축이 아닌 것을 x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만큼 '평행 이동'시키기

ex) 

$f(x) = (x-1)^2(x-3) + 5$


30. 이차함수 $f(x)$ 는 $x = -1$ 에서 극대이고, 삼차함수 $g(x)$ 는 이차항의 계수가 0이다. 함수

$$h(x) = \begin{cases} f(x) & (x \leq 0) \\ g(x) & (x > 0) \end{cases} \quad \xrightarrow{\text{ax}^3 + \text{bx} + \text{c}}$$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3) + h'(4)$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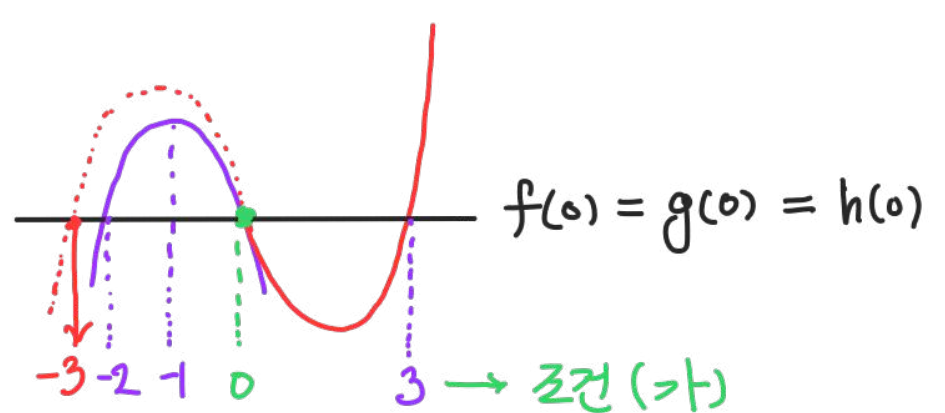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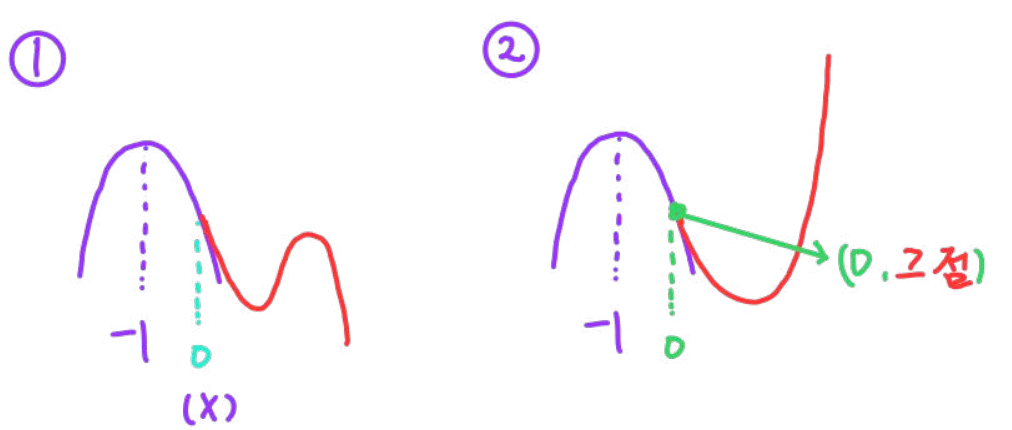
- 상수항은 필요없다!
- (가) 방정식 $h(x) = h(0)$ 의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다.
 - (나) 닫힌구간 $[-2, 3]$ 에서 함수 $h(x)$ 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는 $3 + 4\sqrt{3}$ 이다.

$f(x)$ 가 $x = -1$ 에서 극대



$g(x) = ax^3 + bx + c$ 의 형태이므로
 $(0, c)$ 대칭 $\rightarrow (0, g(0))$ 대칭

$x=0$ 에 대응하는
 꼭대기 대칭.



조건 (나)에서
 $f(-1) + g(\sqrt{3}) = 3 + 4\sqrt{3}$
 $f(x) = ax(x+2) \rightarrow f(-1) = -a$
 $g(x) = bx(x^2-9) \rightarrow g(\sqrt{3}) = -6\sqrt{3}b$

$-a + 6\sqrt{3}b = 3 + 4\sqrt{3} \quad a = -3, b = \frac{2}{3}$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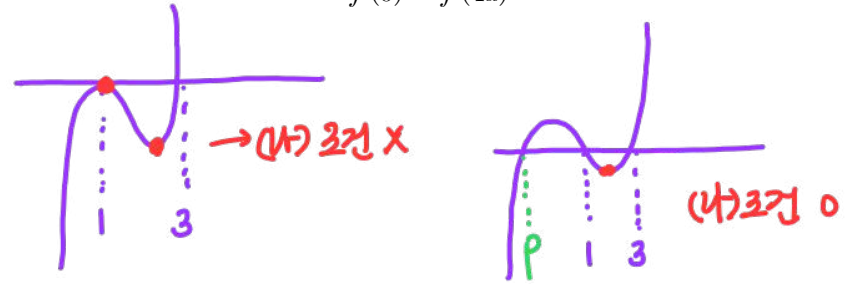
$f'(x) = 2ax + 2a \rightarrow f'(-3) = -4a = 12$
 $g'(x) = 3bx^2 - 9b \rightarrow g'(4) = 39b = 26$
 $h'(-3) + h'(4) = f'(-3) + g'(4) = 38$

29.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세 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4점]

30. 삼차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가) $f(1) = f(3) = 0$
- (나) 집합 $\{x \mid x \geq 1 \text{ 이고 } f'(x) = 0\}$ 의 원소의 개수는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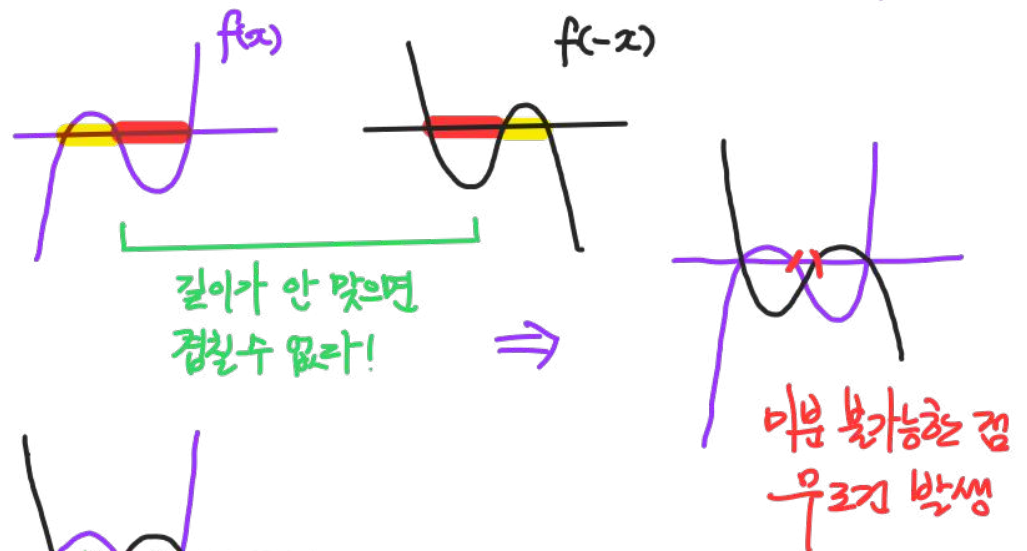
상수 a 에 대하여 함수 $g(x) = |f(x)f(a-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할 때, $\frac{g(4a)}{f(0) \times f(4a)}$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f(x)f(a-x)|$ 가 실수 전체 집합 미분 가능?

↳ 모든 근이 짝수 이상*

$f(a-x) \Rightarrow f(-(x-a))$. y축 대칭 후 평행 이동.



중대칭점(변곡점)에서 점치면 조건 만족 $\therefore p = -1$

$f(x)$ 와 $f(a-x)$ 는 $x = \frac{a}{2}$ 대칭

두 그래프는 $x=1$ 대칭 $\Rightarrow a=2$

$$\frac{g(4a)}{f(0) \times f(4a)} = \frac{g(8)}{f(0) f(8)} = \frac{|f(8)f(-6)|}{f(0) f(8)}$$

$$f(x) = k(x+1)(x-1)(x-3) \quad (k \text{는 상수})$$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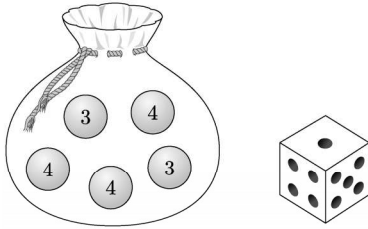
$$\frac{19 \cdot 7 \cdot 5 \cdot k \cdot (-5) \cdot (-7) \cdot (-9) \cdot k}{3k \cdot 9 \cdot 7 \cdot 5 \cdot k} = 105$$

$|k^2| = k^2$

29. 숫자 3, 3, 4, 4, 4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이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세 눈의 수의 합을 점수로 하고,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이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네 눈의 수의 합을 점수로 한다.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10점일 확률은 $\frac{q}{p}$ 이다. $p+q$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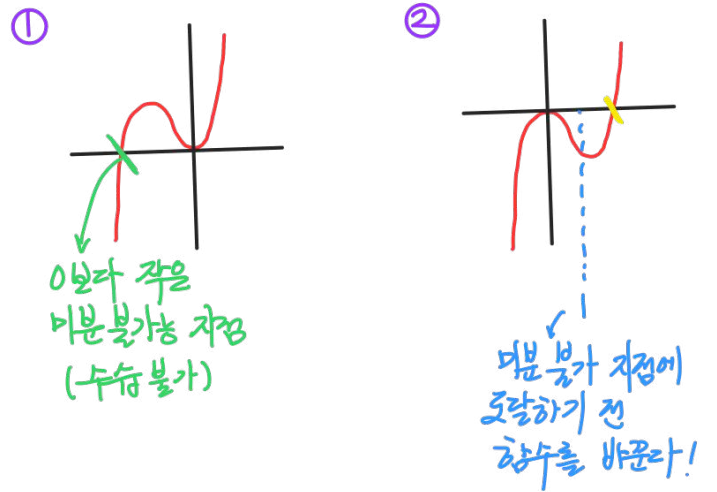


30. 함수 $f(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이고, 함수 $g(x)$ 는 일차함수이다. 함수 $h(x)$ 를

$$h(x) = \begin{cases} |f(x) - g(x)| & (x < 1) \\ f(x) + g(x) & (x \geq 1) \end{cases}$$

이라 하자. 함수 $h(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고, $h(0) = 0$, $h(2) = 5$ 일 때, $h(4)$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미분 불가? $x=1$ or $|f(x) - g(x)|$ ($x < 1$)
 point '최대한 미분 가능하게'
 $f - g$ 로 삼차함수, $h(0) = 0$ 에서



②에서 $f'(0) - g'(0) = 0$
 $h(0) = 0$, $f(0) - g(0) = 0$) 일차항과 상수항이 모두 같다!
 (마지막 줄이기)

$$f(1) - g(1) < 0$$

$$\Rightarrow -f(1) + g(1) = f(1) + g(1)$$

$$f(1) = 0$$

$$g'(1) \neq 0 \text{ (} g(x) \text{는 일차함수) 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f'(1) = 0$$

$$f(x) = (x-1)^2(x-k) \rightarrow (1+2k)x - k$$

$$g(x) = (1+2k)x - k$$

$$h(2) = 5 \text{에서 } (2-k) + (2k+2) = 5$$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h(4) = f(4) + g(4)$
 $= 9(4-k) + (7k+4)$

$k = \frac{1}{2}$

$\therefore h(4) = 40 - 2k = 39$

제 2 교시

수학 영역

5지선다형

1. $\left(\frac{2^{\sqrt{3}}}{2}\right)^{\sqrt{3}+1}$ 의 값은? [2점] 4
- ① $\frac{1}{16}$ ② $\frac{1}{4}$ ③ 1 ④ 4 ⑤ 16

$(2^{\sqrt{3}-1})^{\sqrt{3}+1} = 2^2 = 4$

2. 함수 $f(x) = 2x^2 + 5$ 에 대하여 $\lim_{x \rightarrow 2} \frac{f(x) - f(2)}{x - 2}$ 의 값은? [2점] 1
- ① 8 ② 9 ③ 10 ④ 11 ⑤ 12

$f'(x) = 4x$
 $f'(2) = 8$

3. $\sin(\pi - \theta) = \frac{5}{13}$ 이고 $\cos \theta < 0$ 일 때, $\tan \theta$ 의 값은? [3점] 2

- ① $-\frac{12}{13}$ ② $-\frac{5}{12}$ ③ 0 ④ $\frac{5}{12}$ ⑤ $\frac{12}{13}$

$\sin \theta = \frac{5}{13}$ $\tan \theta = \left| \frac{5}{12} \right|$ $\cos \theta = -\frac{12}{13}$
 $\therefore \tan \theta = -\frac{5}{12}$

4. 함수

$$f(x) = \begin{cases} -2x + a & (x \leq a) \\ a x - 6 & (x > a) \end{cases}$$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의 값의 합은? [3점] 1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a = a^2 - 6$
 $a^2 + a - 6 = 0$

5.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a_1 = 2a_5, \quad a_8 + a_{12} = -6$$

일 때, a_2 의 값은? [3점] 3

- ① 17 ② 19 ③ 21 ④ 23 ⑤ 25

$$-4d = a_5 \quad a_{10} = -3$$

$$-4d + 5d = -3 \quad \underline{d = -3}$$

$$a_2 = -3 - 8 \cdot (-3) = \boxed{21}$$

6. 함수 $f(x) = x^3 - 3x^2 + k$ 의 극댓값이 9일 때,

함수 $f(x)$ 의 극솟값은? (단, k 는 상수이다.) [3점] 5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f'(x) = 3x^2 - 6x \quad x=0, 2 \quad \sim$$

$$k=9$$

$$f(2) = 8 - 12 + 9 = \boxed{5}$$

7. 수열 $\{a_n\}$ 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_n 이라 하자.

$S_n = \frac{1}{n(n+1)}$ 일 때, $\sum_{k=1}^{10} (S_k - a_k)$ 의 값은? [3점] 5

- ① $\frac{1}{2}$ ② $\frac{3}{5}$ ③ $\frac{7}{10}$ ④ $\frac{4}{5}$ ⑤ $\frac{9}{10}$

$$S_k - a_k = S_{k-1} = \frac{1}{k(k-1)}$$

$$\sum_{k=1}^{10} S_{k-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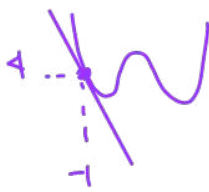
$$S_1 - a_1 = 0 \rightarrow k=2 \text{부터}$$

$$\sum_{k=2}^{10} S_{k-1} = \sum_{k=2}^{10} \frac{1}{k-1} - \frac{1}{k} = \frac{9}{10}$$

8. 곡선 $y = x^3 - 4x + 5$ 위의 점 $(1, 2)$ 에서의 접선이

곡선 $y = x^4 + 3x + a$ 에 접할 때, 상수 a 의 값은? [3점]

-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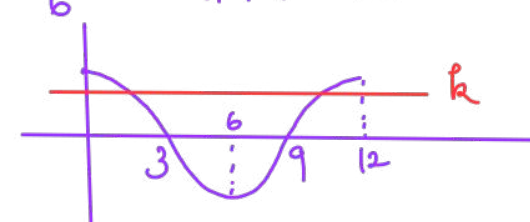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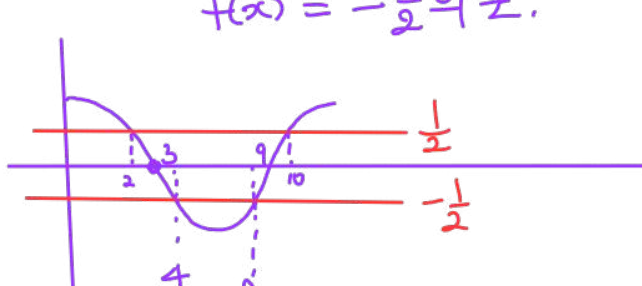
$f(x) = x^3 - 4x + 5$
 $f'(x) = 3x^2 - 4$
 $f'(1) = -1$
 $y = -(x-1) + 2 = -x + 3$
 $g(x) = x^4 + 3x + a$
 $g'(x) = 4x^3 + 3$
 $g'(x) = -1$ 인 x 값
 $4x^3 + 3 = -1 \Rightarrow x = -1 \rightarrow (-1, 4)$

 $4 = 1 - 3 + a$
 $\therefore a = 6$

9. 닫힌구간 $[0, 12]$ 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 \cos \frac{\pi x}{6}, \quad g(x) = -3 \cos \frac{\pi x}{6} - 1$$

이 있다. 곡선 $y = f(x)$ 와 직선 $y = k$ 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α_1, α_2 라 할 때, $|\alpha_1 - \alpha_2| = 8$ 이다. 곡선 $y = g(x)$ 와 직선 $y = k$ 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β_1, β_2 라 할 때, $|\beta_1 - \beta_2|$ 의 값은? (단, k 는 $-1 < k < 1$ 인 상수이다.) [4점]

- ① 3 ② $\frac{7}{2}$ ③ 4 ④ $\frac{9}{2}$ ⑤ 5

$\frac{\pi x}{6} \rightarrow 2\pi, x \rightarrow 12$

 $k < 0$ 이면 $|d_1 - d_2| < 6$
 대칭성에 따라 $3 - 1 = 2, 9 + 1 = 10$
 $d_1 = 2, d_2 = 10$
 $f(2) = \cos \frac{\pi}{3} = \frac{1}{2} = k$
 $g(x) = -3f(x) - 1 = \frac{1}{2}$ 의 근 β_1, β_2
 $f(x) = -\frac{1}{2}$ 의 근.

 $\therefore |\beta_1 - \beta_2| = 4$

10. 수직선 위의 점 $A(6)$ 과 시각 $t=0$ 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가 있다. 시각 $t(t \geq 0)$ 에서의 점 P 의 속도 $v(t)$ 를

$$v(t) = 3t^2 + at \quad (a > 0)$$

이라 하자. 시각 $t=2$ 에서 점 P 와 점 A 사이의 거리가 10일 때, 상수 a 의 값은? [4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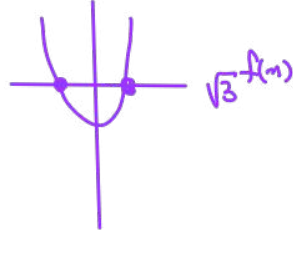
$s(t) = t^3 + \frac{1}{2}at^2$
 $s(2) = 8 + 2a$
 $A(6)$
 $2a + 2 = 10$
 $a = 4$

11. 함수 $f(x) = -(x-2)^2 + k$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의 개수가 2일 때, 상수 k 의 값은? [4점] 2

$\sqrt{3}^{f(n)}$ 의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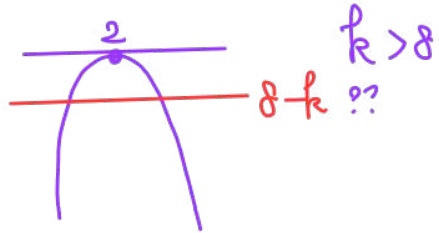
- ① 8 ② 9 ③ 10 ④ 11 ⑤ 12

$x^4 = \sqrt[3]{f(n)}$
 $x = \pm 3^{\frac{f(n)}{8}}$
 $\frac{f(n)}{8} = 1$



$f(n) = 8$ 인 자연수 n 2개

$-(n-2)^2 = 8 - k$



$k = 9$ 이면 $-(n-2)^2 = -1$
 $n =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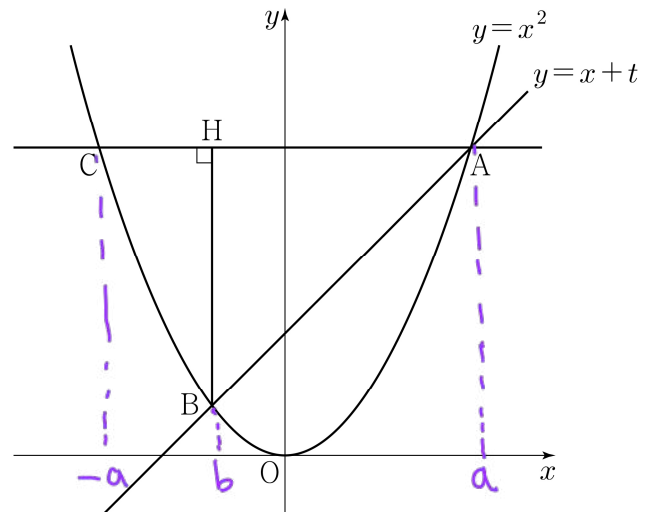
$\therefore k = 9$

$k = 10$ 부터 자연수 x

12. 실수 $t (t > 0)$ 에 대하여 직선 $y = x + t$ 와 곡선 $y = x^2$ 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점 A를 지나고 x 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 = x^2$ 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C, 점 B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lim_{t \rightarrow 0^+} \frac{\overline{AH} - \overline{CH}}{t}$ 의 값은? (단, 점 A의 x 좌표는 양수이다.) [4점] 2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x^2 = x + t$ 의 두 근 a, b

$\overline{AH} = a - b, \overline{CH} = b + a$

$\overline{AH} - \overline{CH} = -2b$

$\lim_{t \rightarrow 0^+} \frac{-2b}{t} = ?$

$b \Rightarrow x^2 - x - t = 0$ 의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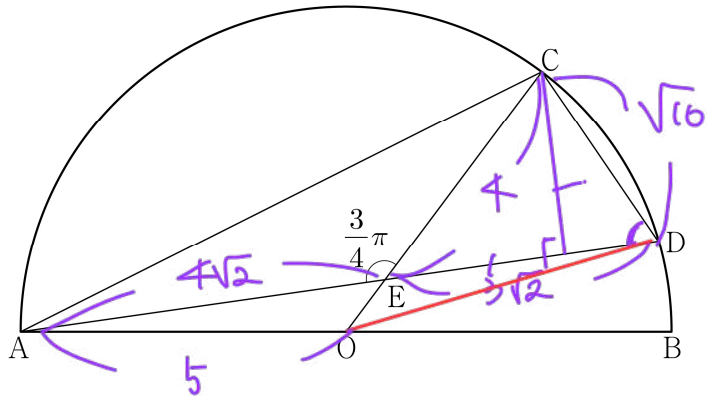
$\frac{1 \pm \sqrt{1+4t}}{2} \rightarrow b = \frac{1 - \sqrt{1+4t}}{2}, -2b = \sqrt{1+4t} - 1$

$\lim_{t \rightarrow 0^+} \frac{\sqrt{1+4t} - 1}{t} = \lim_{t \rightarrow 0^+} \frac{4}{\sqrt{1+4t} + 1} = 2$

13.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두 점 C, D가 있다. 선분 AB의 중점 O에 대하여 두 선분 AD, CO가 점 E에서 만나고,

$$\overline{CE} = 4, \overline{ED} = 3\sqrt{2}, \angle CEA = \frac{3}{4}\pi$$

이다. $\overline{AC} \times \overline{CD}$ 의 값은? [4점]



- ① $6\sqrt{10}$
- ② $10\sqrt{5}$
- ③ $16\sqrt{2}$
- ④ $12\sqrt{5}$
- ⑤ $20\sqrt{2}$

$$\cos \frac{\pi}{4} = \frac{16+18-x^2}{2 \cdot 4 \cdot 3\sqrt{2}} = \frac{\sqrt{2}}{2}$$

$$34-x^2=24 \quad x=\sqrt{10}$$

$$\cos DCE = \frac{16+10-18}{2 \cdot 4 \cdot \sqrt{10}} = \frac{1}{\sqrt{10}}$$

$$\cos DCE = \frac{r^2+10-r^2}{2 \cdot r \cdot \sqrt{10}} = \frac{\sqrt{10}}{2r} = \frac{1}{\sqrt{10}}$$

$$\therefore r=5$$

$$\cos \frac{\pi}{4} = \frac{k^2+1-2b}{2 \cdot k \cdot 1} = \frac{1}{\sqrt{2}}$$

$$k^2 - \sqrt{2}k - 24 = 0$$

$$\begin{matrix} | & +3\sqrt{2} \\ | & -4\sqrt{2} \end{matrix}$$

$$k=4\sqrt{2}$$

$$\cos CDE = \frac{18+10-16}{2 \cdot 3\sqrt{2} \cdot \sqrt{10}} = \frac{9+10-m^2}{2 \cdot 3\sqrt{2} \cdot \sqrt{10}}$$

$$28 = 108 - m^2$$

$$m = \sqrt{80} = 4\sqrt{5}$$

$$4\sqrt{5} \cdot \sqrt{5} \cdot \sqrt{2} = 20\sqrt{2}$$

14.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f(0)=0, f(1)=0$ 인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함수 $g(t)$ 를

$$g(t) = \int_t^{t+1} f(x) dx - \int_0^1 |f(x)| dx$$



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점]

- <보 기>
- ㉠ $g(0)=0$ 이면 $g(-1) < 0$ 이다.
 - ㉡ $g(-1) > 0$ 이면 $f(k)=0$ 을 만족시키는 $k < -1$ 인 실수 k 가 존재한다.
 - ㉢ $g(-1) > 1$ 이면 $g(0) < -1$ 이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7. g(0) = \int_0^1 f(x) dx - \int_0^1 |f(x)| dx = 0 \Rightarrow [0, 1] f(x) \geq 0$$

$$g(-1) = \int_{-1}^0 f(x) dx - \int_0^1 |f(x)| dx < 0$$



$$L. g(-1) = \int_{-1}^0 f(x) dx - \int_0^1 |f(x)| dx > 0$$

$$g(-1) = 0 \rightarrow k = -1$$

$g(-1) > 0$ 이면 왼쪽이 더 큼. $k < -1$

①, ④는 $\int_{-1}^0 f(x) dx < 0$

$$Z. g(-1) = \int_{-1}^0 f(x) dx - \int_0^1 |f(x)| dx > 1$$

$$= \int_{-1}^0 f(x) dx + \int_0^1 f(x) dx > 1$$

$$\int_{-1}^1 x(x-k)(x+1) dx > 1$$

$$\int_{-1}^1 x^3 - (k+1)x^2 + kx dx > 1$$

$$\int_0^1 (k+1)x^2 dx < -\frac{1}{2}$$

$$\frac{1}{3}(k+1) < -\frac{1}{2}$$

$$k < -\frac{5}{2} \text{ 이면}$$

$$g(0) = \int_0^1 f(x) dx - \int_0^1 |f(x)| dx$$

$$= 2 \int_0^1 f(x) dx < -1 ?$$

$$\int_0^1 x^3 - (k+1)x^2 + kx dx$$

$$= \frac{1}{4} - \frac{k+1}{3} + \frac{k}{2} < -\frac{1}{2}$$

$$3 - 4k - 4 + k < -6$$

$$2k < -5$$

$$k < -\frac{5}{2} \text{ 이면 } k < -\frac{5}{2}$$

15. 수열 $\{a_n\}$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모든 자연수 k 에 대하여 $a_{4k} = r^k$ 이다.

(단, r 는 $0 < |r| < 1$ 인 상수이다.)

(나) $a_1 < 0$ 이고,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1} = \begin{cases} a_n + 3 & (|a_n| < 5) \\ -\frac{1}{2}a_n & (|a_n| \geq 5) \end{cases}$$

이다.

$|a_m| \geq 5$ 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m 의 개수를 p 라 할 때, $p + a_1$ 의 값은? [4점]

- ① 8 ② 10 ③ 12 ④ 14 ⑤ 16

$a_{4k} = r^k \rightarrow$ 등차 $a_4 = r \quad a_8 = r^2$

① $a_1 < -5$

$a_1 = -5 - d \quad (d > 0)$

$a_2 = \frac{5+d}{2}$

$a_3 = \frac{11+d}{2} \quad (d < 5)$

or $\frac{-a-5}{4} \quad (a \geq 5)$

$a_4 = \begin{cases} \frac{17+d}{2} & (d < -1) \\ \frac{-d-11}{4} & (d \geq 1) \end{cases}$

$\frac{-d+7}{4} \quad (d < 15)$

$\frac{d+5}{8} \quad (d \geq 15)$

Run!

단답형

$x > 4$

16. 방정식 $\log_3(x-4) = \log_9(x+2)$ 를 만족시키는 실수 x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log_9(x-4)^2 = \log_9(x+2)$

$x^2 - 8x + 16 = x + 2$

$x^2 - 9x + 14 = 0$

$x=2, x=7$

17. 함수 $f(x)$ 에 대하여 $f'(x) = 6x^2 - 4x + 3$ 이고 $f(1) = 5$ 일 때, $f(2)$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f(x) = 2x^3 - 2x^2 + 3x + 2$

$f(2) = 16 - 8 + 6 + 2 = 16$

18. 수열 $\{a_n\}$ 에 대하여 $\sum_{k=1}^5 a_k = 10$ 일 때,

$$\sum_{k=1}^5 c^k = 65 + \sum_{k=1}^5 c$$

를 만족시키는 상수 c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10c = 65 + 5c$$

$$c = 13$$

19. 방정식 $3x^4 - 4x^3 - 12x^2 + k = 0$ 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 의 개수를 구하시오. [3점]

$$f(x) = 3x^4 - 4x^3 - 12x^2 = -k$$

$$f'(x) = 12x^3 - 12x^2 - 24x = 0$$

$$12x(x^2 - x - 2) = 0 \Rightarrow x = -1, 0, 2$$

$$f(-1) = 3 + 4 - 12 = -5$$

$$f(2) = 48 - 32 - 48 = -32$$



$$f(-1) < -k < f(0)$$

$$-5 < -k < 0$$

자연수 k 는 6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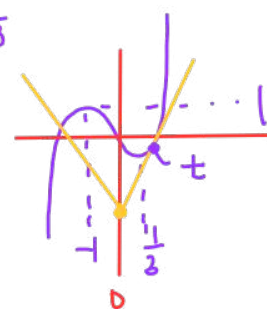
20. 상수 $k(k < 0)$ 에 대하여 두 함수

$$f(x) = x^3 + x^2 - x, \quad g(x) = 4|x| + k$$

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일 때,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 라 하자. $30 \times S$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f'(x) = 3x^2 + 2x - 1 = 0 \Rightarrow x = -1, \frac{1}{3}$$

$$g(x) = \begin{cases} 4x + k & (x \geq 0) \\ -4x + k & (x < 0) \end{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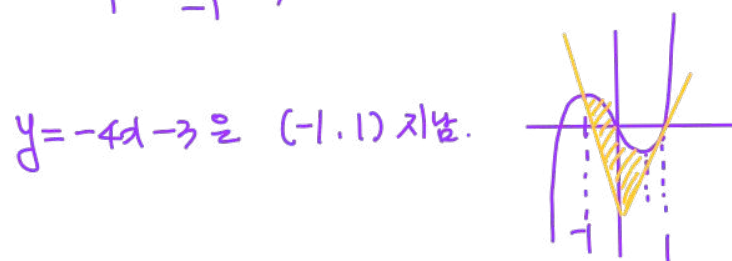


$$f'(x) = 4 \text{인 } x \text{ 값}$$

$$3x^2 + 2x - 1 = 4 \Rightarrow 3x^2 + 2x - 5 = 0$$

$$\Rightarrow x = 1, -\frac{5}{3}$$

$t = 1$ (1, 1) $y = 4x + k$
 $k = -3$



$$S = \int_{-1}^0 f(x) - (-4x - 3) dx + \int_0^1 f(x) - (4x - 3) dx$$

$$\int_{-1}^0 x^3 + x^2 + 3x + 3 dx + \int_0^1 x^3 + x^2 - 4x + 3 dx$$

$$= \int_{-1}^1 x^3 + x^2 + 3x + 3 dx - \int_0^1 4x dx$$

$$= 2 \int_0^1 x^2 + 3 dx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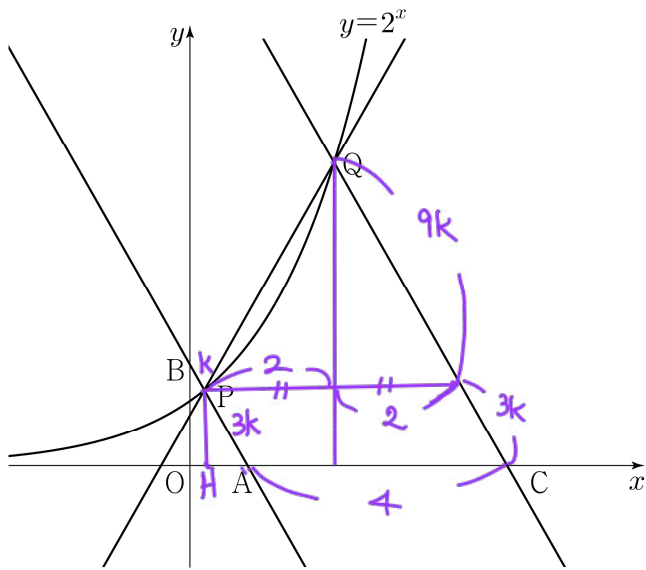
$$= \frac{20}{3} - 4 = \frac{8}{3}$$

$$30S = 80 //$$

21. 그림과 같이 곡선 $y=2^x$ 위에 두 점 $P(a, 2^a)$, $Q(b, 2^b)$ 이 있다. 직선 PQ의 기울기를 m 이라 할 때, 점 P를 지나며 기울기가 $-m$ 인 직선이 x 축, y 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점 Q를 지나며 기울기가 $-m$ 인 직선이 x 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overline{AB} = 4\overline{PB}$, $\overline{CQ} = 3\overline{AB}$

일 때, $90 \times (a+b)$ 의 값을 구하시오. (단, $0 < a < b$) [4점]



$H(a, 0)$

$2^a : 2^b = 1 : 4$

$2^{a+2} = 2^b \quad \boxed{a+2=b}$

$\overline{AH} : 2 = 1 : 3 \quad \overline{AH} = \frac{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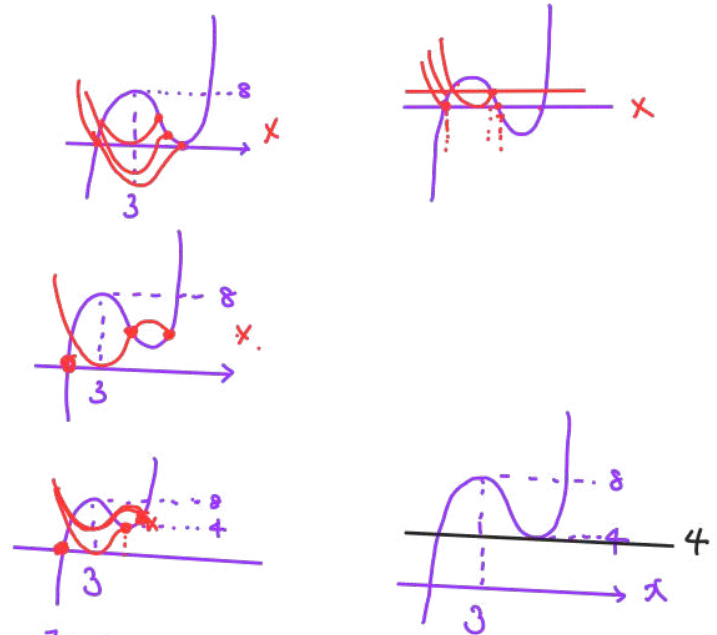
$a : \frac{2}{3} = 1 : 3 \quad a = \frac{2}{9}, b = \frac{20}{9}$

$\boxed{90(a+b) = 220}$

22.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x=3$ 에서 극댓값 8을 갖는 삼차함수 $f(x)$ 가 있다. 실수 t 에 대하여 함수 $g(x)$ 를

$$g(x) = \begin{cases} f(x) & (x \geq t) \\ -f(x) + 2f(t) & (x < t) \end{cases} \quad y=f(x) \text{ 대칭}$$

라 할 때, 방정식 $g(x)=0$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 라 하자. 함수 $h(t)$ 가 $t=a$ 에서 불연속인 a 의 값이 두 개일 때, $f(8)$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극소 4일 때

$\therefore 3-k, 3+2k \ \& \ y=4$

$f(x) = (x-3+k)(x-3-2k)^2 + 4$

$f(3) = k \cdot 4k^2 + 4 = 8$

$4k^3 = 4 \quad \underline{k=1}$

$f(8) = (5+k)(5-2k)^2 + 4$
 $= 6 \cdot 9 + 4 = \underline{58}$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2 교시

수학 영역(확률과 통계)

5지선다형

23. 다항식 $(x^2+2)^6$ 의 전개식에서 x^4 의 계수는? [2점]

- ① 240 ② 270 ③ 300 ④ 330 ⑤ 360

$6C_2 \cdot (x^2)^2 \cdot 2^4 \rightarrow 15 \cdot 16 = \underline{240}$

24. 두 사건 A, B 에 대하여

$P(A \cup B) = 1, P(A \cap B) = \frac{1}{4}, P(A|B) = P(B|A)$

일 때, $P(A)$ 의 값은? [3점] 3

- ① $\frac{1}{2}$ ② $\frac{9}{16}$ ③ $\frac{5}{8}$ ④ $\frac{11}{16}$ ⑤ $\frac{3}{4}$

$P(A) = P(B)$

$1 = x + x - \frac{1}{4} \quad 2x = \frac{5}{4} \quad \boxed{x = \frac{5}{8}}$

2

수학 영역(확률과 통계)

25. 어느 인스턴트 커피 제조 회사에서 생산하는 A 제품 1개의 중량은 평균이 9, 표준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B 제품 1개의 중량은 평균이 20,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A 제품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1개의 중량이 8.9 이상 9.4 이하일 확률과 B 제품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1개의 중량이 19 이상 k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다. 상수 k 의 값은? (단, 중량의 단위는 g이다.) [3점]

- ① 19.5 ② 19.75 ③ 20 ④ 20.25 ⑤ 20.5

$A \sim N(9, (0.4)^2)$, $B \sim N(2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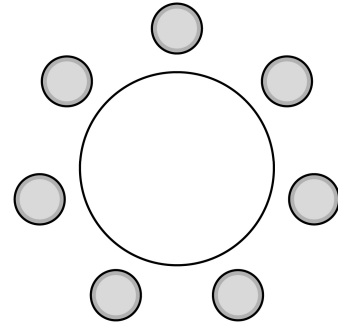
$P(8.9 \leq A \leq 9.4)$

$P(-\frac{1}{4} \leq Z \leq 1) = P(19 \leq B \leq k)$
 $-1 \leq Z \leq \frac{1}{4}$

$k = 20 + \frac{1}{4} \cdot 1$
 $= 20.25$

26.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 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모두 둘러앉을 때,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될 확률은? [3점] 2 → 전체 6!

- ① $\frac{1}{2}$ ② $\frac{3}{5}$ ③ $\frac{7}{10}$ ④ $\frac{4}{5}$ ⑤ $\frac{9}{10}$



① A와 B이웃

(AB)

$5! \times 2!$



② A와 C이웃

$5! \times 2!$

③ A가 B와 C 모두 이웃

(BAC)

$4! \times 2!$



$\frac{5! \times 2! \times 2! - 4! \times 2!}{6!} = \frac{4}{6} - \frac{2}{6 \cdot 5}$
 $= \frac{18}{30} = \frac{3}{5}$

27. 이산확률변수 X 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0	1	a	합계
$P(X=x)$	$\frac{1}{10}$	$\frac{1}{2}$	$\frac{2}{5}$	1

$\sigma(X) = E(X)$ 일 때, $E(X^2) + E(X)$ 의 값은? (단, $a > 1$) [3점]

- ① 29 ② 33 ③ 37 ④ 41 ⑤ 45

$$E(X) = \frac{5+4a}{10}$$

$$E(X^2) = \frac{5+4a^2}{10}$$

$$V(X) = \sqrt{E(X)^2} \text{ 에서}$$

$$E(X^2) = 2 \{E(X)\}^2$$

$$\frac{5+4a^2}{10} = \frac{(5+4a)^2}{100} \cdot 2$$

$$25+20a^2 = 16a^2 + 40a + 25$$

$$4a^2 - 40a = 0 \quad a=10$$

$$E(X) + E(X^2) = \frac{10+4a^2+4a}{10} = \boxed{45}$$

28.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된 세 개의 수의 곱이 5의 배수이고 합은 3의 배수일 확률은? [4점]

- ① $\frac{3}{20}$ ② $\frac{1}{6}$ ③ $\frac{11}{60}$ ④ $\frac{1}{5}$ ⑤ $\frac{13}{60}$

$$\{1, 4, 7, 10\}, \{2, 5, 8\}, \{3, 6, 9\}$$

① 5만 선택 ✗

$$1 + 1 \times 3C_1 \times 3C_1 = 10$$

② 10만 선택 ✗

$$3C_2 + 1 \times 2C_1 \times 3C_1 = 9$$

③ 5, 10 둘 다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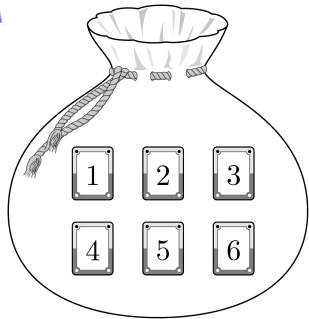
$$1 \times 1 \times 3C_1 = 3$$

$$\frac{22}{120} = \boxed{\frac{11}{60}}$$

단답형

29.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4번 반복하여 확인한 네 개의 수의 평균을 \bar{X} 라 할 때, $P\left(\bar{X} = \frac{11}{4}\right) = \frac{q}{p}$ 이다. $p+q$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4점] 전체 6+

4개항 11



- (6, 3, 1, 1) (6, 2, 2, 1)
- (5, 4, 1, 1) (5, 3, 2, 1) (5, 2, 2, 2)
- (4, 4, 2, 1) (4, 3, 3, 1) (4, 3, 2, 2)
- (3, 3, 3, 2)

$$\frac{4!}{2!} \times 6 + 4! + 4C_3 \cdot 2 = 72 + 24 + 8 = 104$$

$\frac{4 \cdot 27}{162}$

$$\frac{2^3 \cdot 13}{6^4} = \frac{2 \cdot 2 \cdot 2 \cdot 13}{6 \cdot 6 \cdot 6 \cdot 6} = \frac{13}{162}$$

$P+q=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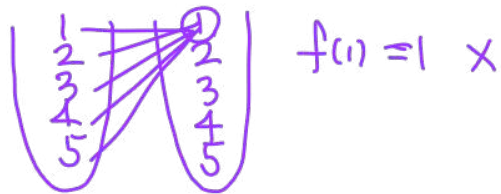
30. 집합 $X = \{1, 2, 3, 4, 5\}$ 와 함수 $f: X \rightarrow X$ 에 대하여 함수 f 의 치역을 A , 합성함수 $f \circ f$ 의 치역을 B 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의 개수를 구하시오. [4점]

- (가) $n(A) \leq 3$ 치역 3
- (나) $n(A) = n(B)$
- (다) 집합 X 의 모든 원소 x 에 대하여 $f(x) \neq x$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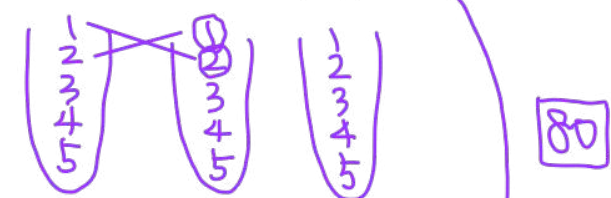
자기 자신 X.

$n(A) \neq 0$

$n(A) = 1$ 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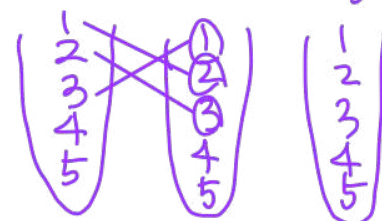
$n(A) = 2$ 이면 5C_2



1, 2는 크로스, 나머지 상관 X

$1 \times 1 \times 2 \times 2 \times 2 = 8$

$n(A) = 3$ 이면 5C_3



$f(1)=2$ or $f(1)=3$ / 2, 3 자름 별개. 4, 5 상관 X

$2C_1 \times 1 \times 1 \times 3 \times 3 = 18$

260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미적분)」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

-

영어에도 적용되는 국어의 독법

- 영어보다 국어가 먼저입니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최근에 국어 관련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관련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물론, 국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I. 들어가며

영어 관련 칼럼을 쓸지 말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 저만이 들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 서울대를 목표로 했었기에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아예 영어 지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의 수능에서 연속으로 89점을 받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21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12%.

물론 3학년이 되기 전에 영어를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89점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다른 과목 성적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성적임도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영어에 관심을 끄고 살다가 결국 9월 모의고사에서 75점을 받았고, **확실히 알고 풀었다는 생각이 드는 지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곧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알고 있는 것도 거의 없는데 75점이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어**에 있습니다. 저는 흔히들 지양하라고 하는 **'감 독해'**를 잘했고, 추론 능력 역시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감 독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단어 실력이 부족한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감 독해가 잘못된 것이지, 단어 실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정답을 추론해나가는 방법은 합리적입니다.

어린 시절, 신문의 경제면을 볼 때마다, 모르는 말들이 정말 많이 쓰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효과적인 구문 독해 방법을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단어, 지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모르면 추론도 어려워지기에, **단어 공부**는 기본입니다. 대부분 아는 사실이죠.

어쨌든 75점이면 서울대 지원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적표 받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직접 점수를 눈으로 보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어떻게 한 달 반의 짧은 시간 만에 100점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구문 해석 및 어법 등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구문 해석 및 어법 등은 저보다 잘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스스로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이죠. 이 점을 고려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II. 국어와 영어에서의 동일한 접근 방식

고등학생 때 친구들에게 영어 관련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최선의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에 설명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달랐겠죠.

“너 이거 그러면 해설지 들고 국어 선생님 찾아가서 여쭙봐”

제 대답은 정말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도대체 왜 국어 선생님께 여쭙아야 할까요? **국어와 영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어에서 독서의 접근 방식을 많이 적용하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상위권 학생들도, 단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해석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문장 구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법, 구조 독해, 기타 등등 영어 관련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고 한들, 국어가 약하면 어려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기출 문제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기출 문제를 옆에 두고 제 글을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전 국어 칼럼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글들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1) 21번합축 의미 추론

-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의 의미

구절의 함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로, 지문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수험생일 때 처음 등장했는데, 신유형이라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이런 문제는 출제되었습니다.

21번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Scientists have no special purchase on moral or ethical decisions; a climate scientist is no more qualified to comment

1.

purchase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결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랑 비슷한 느낌이죠. 도덕적 결정에 강점이 없다? 거기까지 몰라도 도덕 관련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감 독해이자, 제가 학생들에게 독서를 가르칠 때 강조했던 특정 단어 / 구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만 ~은 아니다, ~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 .]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영어는 국어 독서 파트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어에서 주목해야 할 특정 단어 유형은 단순합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역접의 기능을 하는 단어를 잘 짚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특히나 부정어의 위력은 국어에서든 영어에서든 엄청납니다.

2.

혹시 국어 독서 공부법 칼럼에서 '읽는 무게'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부연 설명했던 부분 중 하나가, 안 읽어도 된다고 해서 진짜 안 읽는 것이 아니다. 읽는 무게를 가볍게 해서 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죠.

영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아예 안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 강의에서 강사들이 전치사 + 명사라든지 기타 수식하는 말들을 괄호로 묶어서, 화살표를 그리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느낀 거지만 영어에서 ‘가볍게 읽는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은 완전히 지워버려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다 읽지 않기 때문에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기도 하구요. 제시된 부분에서 decisions 이후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bee colony collapse. The very features that create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 lead to ignorance in many others. In some

1.

아까 분명 과학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윤리 파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 지식에 관한 특징이 다른 것들에 대한 무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덕적 결함이 아니고 ‘도덕적 결정에 강점이 없다’라고 서술한 이유입니다. ‘강점’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가 있네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칼럼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국어에서 배경 지식을 활용해 지문을 읽되,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제시되면 지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영어에서도 이처럼 생각을 수정하며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2.

전문 지식에 관한 특징이 다른 분야에서의 무지로 이어진다는 지문을 ‘자신만의 말’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저는 읽자마자 ‘아, 전문 바보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지문을 읽고 떠올린 저만의 말이자, 굉장히 혼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the very features that~ 과 같이 이어지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 -> ignorance in many others였습니다. 공부할 때 지문의 내용을 하나씩 다 봐야 하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시험 상황에서는 이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체 문장을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국어와 다르게, 세부 내용까지 일일이 주의를 기울일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표, 내용 일치 제외)

specialized domain lead to ignorance in many others. In some cases lay people —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1.

이번에는 ‘대비되는 짝’입니다. lay people - scientists 구조이죠.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문장은 쉽습니다. 대비되는 짝을 짝어내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짝어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영어는 국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훨씬 간단한 문제들만 출제된다는 뜻입니다. 대비되는 짝을 찾고 문제에 어떻게 제시될지 미리 다 예상해야 하는, 국어의 독서 파트와 난이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쉽습니다.

2.

이전 문장에서 봤던 부분과 이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문 바보가 된다면 다른 분야는 잘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과학자(전문가)가 모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분야에만 집중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Indeed, in recent years, scientists have begun to recognize this: the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includes observations gathered from local native groups.~~ So our trust needs to be

1.

이어지는 예시입니다. 이전 문장에서 제시된,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에 이상한 점이 있나요? 없다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예시를 볼 필요가 없죠.

국어 독서 공부법에서 말했던 ‘예시 읽지 않기(가볍게 읽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한 점이 없으니 넘어간다는 것은, ‘한글 그대로 이해하기’ 파트와 대응됩니다.

영어니까 ‘겉으로 드러난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기’ 정도가 되겠네요.

2.

혹시 이전에 제시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예시를 읽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역 토착(원주민) 집단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 어느 시골에 조사를 나간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눈이 내리는 것을 30년째 본다고.(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는 데이터만 갖고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위의 예에서처럼, 비전문가인 어르신께서 과학자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죠. /

방금 저는 또다시 '나만의 말'로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국어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limited, and focused.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 Blind trust will get us into at least as much trouble as no trust at all. **But**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 (the men and women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sorting out tough questions about the natural world we live in) — we are paralyzed, in effect not knowing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전문가들만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예 없는 거 만큼이나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흐름이 바뀝니다.

1.

역시나 **역접**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위험함을 말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전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비될 것이고'. (저는 얼어붙는다 / 당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전문가를 믿기는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문을 반드시 다 읽어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역접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뒤집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2.

전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할까요?

당연히 **전문가들만의 이야기**를 모르겠죠. 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전혀 몰랐어도 풀 수 있었고,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상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3.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모든 문제 풀이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는 것**입니다. 국어 독서 칼럼에서, 구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지문을 읽었을 때 이미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국어만큼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에서 기본인 것이 영어에서는 전부입니다. 제가 2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만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영어에서도 정답을 미리 **특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선지를 보고 일일이 비교해가며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s가 정답이었는데, 핵심은 **information offered by experts**, 즉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죠.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 = **전문가들만의 이야기**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2) 38번문장 삽입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전통적인 킬러 유형은 빈칸 추론이었지만, 최근 킬러 문항은 거의 문장 삽입 유형에서 출제됩니다. 이런 유형은,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표지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소재**를 언급한 경우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경우

(그 외) **글의 흐름**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

이 문제를 많은 학생이 어려워했던 이유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만한 지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찾아야 하는 문제였죠.

38.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for new positions within the company will also greatly reduce their fear of being laid off.

1.

삽입될 문장의 핵심을 어느 정도 알고 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만 짚고 나머지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배정되는 노동자들을 재훈련시키는 것이, 노동자들의 공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노동자가 가질 공포는? 당연히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밑줄 친 부분만으로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새로운 업무에 배정되면 기존 업무에서 갖고 있던 익숙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일을 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는 실직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부분 역시, ‘걸음으로 드러난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기’ 파트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은데, 깊게 생각하면 더 복잡해지죠.

2.

해고될까 두려워하는 노동자를 재훈련한다는 구절은, ‘문제 상황에 따른 해결 방안 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어의 독서 파트에서도 해결 방안이 제시되면 항상 주목해야 하고, 제시되지 않았다면 문제를 풀기 전 미리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also**를 제시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해결 방안이 제시된 이후에 삽입되어야 할 문장입니다. 논리적 비약은 짚어내기 힘들었지만, 표지어는 분명 존재했고 이는 답을 찾는 핵심 단서였습니다.

상식 Introduction of robots into factories, whil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is being reduced, creates worry and fear. (①) It is

1.

로봇의 도입이 인간 노동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우려와 공포를 낳았다는 내용입니다. 분명 삽입될 문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문제 상황이 나오네요. 이런 사고를 하며 글을 읽는 게 흔히 말하는 '유기적 독해'입니다.

2.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배경 지식이 매우 유용했던 국어와 다르게,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지문을 출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경 지식을 좀 더 적용해 읽는다면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workers is being reduced, creates worry and fear. (①)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to prevent or, at least, to ease these fears. (②) For example, robots could be introduced only in new plants rather than replacing humans in existing assembly lines. (③) Work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lanning for

1.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공포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이 경영진이 할 일이다. 예방하고 완화하는 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이죠.

2.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삽입될 문장의 내용이 해결 방안 관련이었으니, 정답을 찾은 걸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also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가 정답이라면, 다음 문장에 for example이 나오면 안 되겠죠.

새로운 업무에 배정되는 노동자들을 재훈련시키는 것 또한 공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두 번째 해결 방안을 준 다음, 예시로 이리이러한 첫 번째 해결 방안이 있다는 걸 제시한다?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쪽 읽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for example로 제시한 하나의 해결 방안
에 대해 쪽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lines. (③) Work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lanning for
new factories or the introduction of robots into existing plants,
so they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④) It may be that robots

1.

계속 강조하는 '필요 없는 부분 생략하기'입니다.

노동자들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업무)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다.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지워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 시험에서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독해 방식입니다.

so they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④) It may be that robots
are needed to reduce manufacturing costs so that the company
remains competitive, but planning for such cost reductions
should be done jointly by labor and management. (⑤) Since

1.

역시나 상식에 가까운 배경 지식이 등장합니다. 로봇을 업무에 도입하면, 제조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절감은 노사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노사 간 원만한 협의'죠. 장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있으니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끝입니다.

당연한 상식이고 기본인 내용이 담긴 문장이기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에서 저는 또다시 '자신만의 말'로 지문을 이해했습니다.

should be done jointly by labor and management. (⑤) Since
robots are particularly good at highly repetitive simple motions,
the replaced human workers should be moved to positions
where judgment and decisions beyond the abilities of robots
are required. — 통찰력

1.

로봇이 단순 반복적인 동작에 뛰어나기 때문에, 자리를 빼앗긴 인간 노동자는 ~~한 업무로 변경해야 한다. 삽입될 문장에서 제시되었던 for new 'positions' 기억하시나요? moved to 'positions'과 대응됩니다. 그 부분을 짚었다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문장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for example 이후에 제시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문장들이기 때문입니다.

2.

주황색 밑줄을 보시면, 로봇의 능력을 넘어선 판단과 결정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말'로 바꾸면? 그냥 **통찰력이 요구되는 업무**라는 거죠. 그리고 통찰력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한 줄 반 정도의 구절을 **'통찰력'**이라는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말'로 자문을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III. 마치며

3~4문제 정도 다루려 했으나 계속 똑같은 이야기이고 글이 너무 길어질 듯해서,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다던 두 문제만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문제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지 않나요? 학생들이 영어 자체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칼럼 주제를 추천해주시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문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칼럼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했던 문제의 전체 지문을 첨부합니다.

21. 밑줄 친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Scientists have no special purchase on moral or ethical decisions; a climate scientist is no more qualified to comment on health care reform than a physicist is to judge the causes of bee colony collapse. The very features that create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 lead to ignorance in many others. In some cases lay people —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Indeed, in recent years, scientists have begun to recognize this: the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includes observations gathered from local native groups.~~ So our trust needs to be limited, and focused.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 Blind trust will get us into at least as much trouble as no trust at all. But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 (the men and women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sorting out tough questions about the natural world we live in) — we are paralyzed, in effect not knowing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전문가들만의 이야기

* lay: 전문가가 아닌 ** paralyze: 마비시키다 *** commute: 통근

- ① questionable facts that have been popularized by non-experts
- ②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s
- ③ common knowledge that hardly influences crucial decisions
- ④ practical information produced by both specialists and lay people
- ⑤ biased knowledge that is widespread in the local community

38.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for new positions within the company will also greatly reduce their fear of being laid off.

상세 Introduction of robots into factories, whil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is being reduced, creates worry and fear. (①)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to prevent or, at least, to ease these fears. (②) For example, robots could be introduced only in new plants rather than replacing humans in existing assembly lines. (③) Work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lanning for new factories or the introduction of robots into existing plants, so they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④) It may be that robots are needed to reduce manufacturing costs so that the company remains competitive, but planning for such cost reductions should be done jointly by labor and management. (⑤) Since robots are particularly good at highly repetitive simple motions, the replaced human workers should be moved to positions where judgment and decisions beyond the abilities of robots are required. — 통찰력

IV.

- 2020

~2022

-

일반고에서 정시를 준비한다는 것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도 썼듯이 최근에 할 일이 좀 많아져 [2023 수능특강 완전정복] 시리즈의 업로드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 저를 팔로우해주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류의 수기 같은 칼럼이라도 씁니다. (제 학습 칼럼은 다소 무거울 수 있어, 지금 당장 공부할 게 아니라면 이런 칼럼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정식 수기를 쓰겠지만, 저는 자공고에서의 낙오자였고 전학 간 이후 일반고 정시 준비생이었습니다. 1학년 내신도 워낙 안 좋았지만, 막상 일반고로 전학 가고 나니 더 마음이 풀려서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결국, 고3이 되는 1월에 정시 준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겪었던 일, 제가 했던 다짐들을 순서대로 좀 써보려 합니다. 참고로 N수생 분들도 얻어갈 게 많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3월이 되었으니 1~2월은 그냥 재미로 보시고, 3월부터 주목해주세요.

1~2월

1월 1일에 무슨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부모님께 ‘저 이제 공부해야겠습니다.’ 선언 이후 방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전혀 집중이 안 되겠죠? 그전까지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했는데 뇌가 정상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에 물을 항상 갖다 놓는데, 마침 눈에 띈 물이 제 불안을 해소하는 희생양(...)이 되었고, 저는 불안할 때마다 물을 마시면서 15시간 동안 앉아 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들었던 강의가 정승제F의 <완포자를 위한 중학 수학 특강(2011)>.

일반고는 여러분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어차피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니 까요. 마찬가지로 N수생 입장에서, 독서실 재수나 인강으로는 공부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신독(愼獨)’이 쉽지 않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출전 [대학] -군자필신기독야(君子必愼其獨也) :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조심한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시험을 망치면 인생을 그만 살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놀 때 최상위권은 열심히 했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최상위권은 공부량을 더 늘립니다. 격차는 쉽게 좁힐 수 없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까 걱정이 되어 덧붙이자면, 평상시에 각오를 저렇게 하고, 막상 수능 날에는 “**망치면 한 번 더 하지 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3월

개학하고 나면 항상 개별 상담 시간이 있고, 이를 위해 상담 사전 조사서를 주고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죠. 전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늦게 대학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서울대 아니면 같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결국 타협해서 연대 경영에 갔지만, ~~아직 타협 안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저렇게 적었습니다. 지금도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자주 찾아뵙고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 정말 이 학생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각 과목의 첫 수업이 끝날 때마다 교무실로 돌아가는 선생님들을 붙잡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뒤늦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수업을 들어서 수능 만점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꼭 가야만 합니다. 제 스케줄대로 다른 공부하는 것을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 반의 탐구 선택이 생윤 사문 한지였는데, 저는 동사 세계사를 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말씀을 드렸죠. 사문 선생님 말고는 허락해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 그 부분도 오케이 받았고. (사문 선생님은 **“올 1등급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라며 비웃음을 날리셨고, 저는 **“올 1등급은 당연히 하고 전체에서 두 개 내외로 틀려야 하는데요.”**라는 말로 응수하고 교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마 찍혔을지도..?)

4월

3월 학평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저는 믿어달라고 말하면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국어 영어 수학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일주일간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각 하루 1시간씩 공부하고 4모에서 둘 다 1등급을 받았죠. 이건 물론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어서 가능했지만, 학평 1등급이 고3 입장에서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생윤 시간에 동아시아사, 한지 시간에 세계사를 공부했습니다.) 그 후 선생님께 드린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과목이 탐구입니다. 저는 탐구 성적으로 제 노력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선생님도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4월 학평 때 영어 원점수 98점을 받았고, 그 당시 영어가 쉬웠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 제 말을 증명하는 성적이었습니다. 3월엔 3등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월

5월부터는 반복이라 딱히 적을 말이 없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네요. 저는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싸주셨던 빵을 들고 한 손으로 쓰고 한 손으로는 먹으며 텅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5시간 앉아 있는 거? 저 스스로 뿌듯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심 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공부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 정도는 의지는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점심 먹으러 가서 줄 서는 순간 마음이 풀어져 버리니 미리 끊어내는 거죠. 반 친구들 모두 밥 먹으러 가서 집중도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가끔 다이어트를 한다고 교실에서 같이 밥 먹는 여자애들이랑 얘기한 거 빼면, **점심시간은 학교에서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6월

6월 모의고사에서 사탐 만점인 22211을 받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잘 쳐줘도 5~6등급대였던 처음과 비교하면 굉장한 발전이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선생님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마음이란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 너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순간 **‘말뿐인 학생’**이 되니까요.

7월

잇을 수 없는 시기죠. 국어 1컷 85였던 7월 학평에서 98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험이 수능이었다면 1컷은 95 정도였을 겁니다. 수시 시즌이라 컷이 엉망이 된 거죠. 모의평가조차도 수미잡 (수능미만잡) 이라는 소리를 듣는 마당에, **학평으로 방심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N수생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고3이라 방심했었고, 결국 수능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재수를 결정했습니다. 전 과목 성적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아님에도, 그야말로 방심, 마음을 놓아버렸죠. 그리고 **대부분 이때쯤에 슬럼프가 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온종일 공부만 했던 그 의지는 어디 가고, 집에 오면 얘기만 하다가 잠이 드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성적이 그만큼이라도 나온 건 학교에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9월

고3이 방학을 맞이하는 기간이자, **일반적인 고3과 N수생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기간**입니다. 7월 학평의 과목별 컷이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 덕에 완전히 박살나고, 고3은 7월 성적이 본인의 진짜 실력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방학’이라는 단어가 갖는 느낌 때문인지 완전히 풀려버리죠. 슬럼프 극복법에 관한 책이나 이런 걸 봐도, 슬럼프의 원인을 알려주는 책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같으면 몰라도 일반고는 보통, 방학 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공부해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습관이 깨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 번 망가진 패턴은 다시 되돌리기 힘듭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열 배에서 스무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9월 모의고사는 당연히 망했고, 보통 학생들은 여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학생이 많을 텐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학생은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돼?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라는 말과 함께 흘러가는 대로 대충 시간을 보냅니다.

목표가 높아서 당연히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글에 달린 슬럼프 극복법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지 말고 공부와 관련된 다른 여가활동(영화, 책, 전시회 등)을 하며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게 불안하면 공부량을 두 배로 늘려라. 견디기만 하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거다.**”

저는 공부량을 두 배로 늘리는 쪽이었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수능 50일 전 그 당시 30번급 문제를 두 개나 맞추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나형 30번은 너무 쉬운 문제지만 6평 2등급, 9평 3등급이었던 수학 실력에서 그게 가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30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게 맞는지, 이런 관점은 어떤지, 이런 걸 생각하려면 무슨 발상이 필요한지 등을 학교 끝나면 담임 선생님께 계속 여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죄송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심하면 6시 반까지 이어지는 질문에도 계속 답해주셨으니..

10월~ 수능

10월 학평은 3월 학평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내는데, 고3 입장에서 보면 항상 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0월에 3등급이었던 수학이 수능에서는 백분위 98에 1등급이었으니, 혹시나 나중에 10월 학평을 보고 좌절한다면 꼭 제 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학평은 수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학평을 잘 봤어도 자만하면 안 되고, 못 봤다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10월 말에 가서 그 당시에 제일 어려웠던 사설 나형 문제를 친구가 질문해서 그걸 설명해주고, 선생님과도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생님께서 수학 만점 받을 거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말이었던지 진담이었던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동안의 노력이 어쨌든 남들 눈에도 보인다는 것이니 상당히 기쁩니다.

그 사문 선생님마저도 진짜 서울대 갈 거 같다는 말씀을 했었고, 실모 풀 때마다 서울대 경영에 합격 가능한 성적이 나와서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했으나, 아시다시피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탐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반드시 때립니다. N수생은 그걸 알고 있으니 더 꼼꼼하게 준비하지만, 고3 시절 저는 모평 성적이 잘 나왔다는 이유로 방심해서 망했습니다. 하나 틀렸는데 3이 뜨는 사람...

결국, 처음에 7~8등급 수준에서 시작하여, 수능 성적은 학교 모의지원 프로그램 기준 건동홍 적정~소신 정도가 났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재수를 결정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성적이 나온 것도 엄청난 거였고, 제가 우울해할 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겪은 슬럼프까지도 너의 최선이었을 거다.”

상당히 감동적인 말이고, 또 정확한 말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슬럼프가 오지 않았으면’, ‘실수하지 않았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 말하지만, 거기까지도 한 명의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 말은, 슬럼프를 겪거나 혹은 시험장에서의 실수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면에는 다시 도전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 같다면 일찍 마음을 접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저도 누군가에겐 선배일 테니 한 말씀 올리자면 **20대의 1년은 너무나 큽니다.** 저는 뜻한 바가 있기도 했고, 재수든 삼수든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수험생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할지 모릅니다. 재도전을 결정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1년을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은 결과가 있는가.

마치며

제가 겪었던 일들과 주변의 반응, 실패했던 이유 등을 써봤는데, 아마 많은 학생이 재수 삼수 성공 후기를 보고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수나 재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오늘 쓴 글처럼 **치참히 실패하는 수기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제가 성공한 부분도 있었고 인정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자신만만했던 고3이 왜 실패했는지를 꼭 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라도 그 부분을 고치지 못한다면 5수 6수를 해도 성공하지 못 합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부분만을 떠올리면서 자기합리화를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갈 수 있어.”**보다 **“이렇게 안 하면 대학 절대 못 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는 N수를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왜 좌절했고, 다시 그러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실패라고 하지 않고, 좌절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해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수능특강 시리즈를 업로드하겠습니다.

4개월 공부하고 고려대 합격하기

-압축 공부법에 관하여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공지했던 대로 가벼운 느낌의 칼럼도 조금씩 올려보려 합니다. 저번에는 현역 때 있었던 일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쪽 적어보았는데, 다음 이야기도 이어써보겠습니다. N수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이지만, 현역 학생들도 압축 공부법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현역 때 7~8등급에서 시작하여 수능 때는 국민대 숭실대 소신 지원권 정도까지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즉, 재수를 시작할 때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봐야 3등급도 있고 그랬지만, 7~8등급 학생이 4개월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다는 그런 꿈같은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일단 한 번 입시에 실패하고 나면 엄청난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았냐 그렇지 않았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죠. 지금까지도 그게 마음에 남아서, 어디 강연을 가거나 고등학교 후배를 만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분명히 노력했지만 성공할 만큼 노력하지는 않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분께 해당하는 말일 테고, 어쩌면 가혹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노력 부족’**을 실패의 원인으로 여기고 다시 도전하려는 분들은 꼭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성공할 만큼 노력하지 않았는지, 혹은 노력하지 못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쯤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1~5월

1~2월도 아니고 1~5월이라니, 뭔가 이상한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6월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정신없이 놀지도 않았고, 마음 편히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죠. **수능이 끝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만 원서를 넣고 재수를 결정했는데, 막상 공부하려 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억울..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감정이 '안타까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억울했습니다. 열심히 안 살아 놓고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N수 전에 방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4월이 되어서 모의고사 응시 신청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공부할 의지는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침 6월에 이사하기로 결정이 나서, 이사 가면 자주 못 보게 될 고등학교 친구들과 열심히 놀았습니다. 방황할 때의 도피처이자 인생이 꼬이는 데 상당히 많이 기여했던 롤(LOL). 2015년부터 지금까지 8년 차인데, 게임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다이어드 찍어봤고, 새로 만들었던 계정이 겉으로 보이는 거에 비해 맵칭이 워낙 높아서 나중에는 게임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던 방송인까지 만난 적이 있었죠. ~~야 골드인데 다이어드를 왜 만나~~

갑자기 게임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저도 그냥 게임과 축구를 좋아하는 여느 남학생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게 전부였습니다. 1월 초부터 5월이 끝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으며, 유일한 업적이라고는 롤 다이어 달성한 거뿐이었습니다.

6월

엄밀히 말하면 5월 말에, 원래 살던 곳과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족들과 "이사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이때 이사한 것이 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3 때는 집이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는 남들 다 가는 독서실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역시 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이 바뀌었으니 만날 사람도 없었고, 독서실이 마침 외진 곳에 있어서 PC방을 갈 일도 없었습니다. (재수가 끝나고 찾아보니, 걸어서 10분 거리에 PC방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공부가 하고 싶었는지 모르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의 긍정적인 사례였을까요.)

너무 오랜만에 공부해서 그랬겠지만 처음 며칠 간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고3 초반에 15시간 공부하는 데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금방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독서실에 가면서 떠올렸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장기전에 약하지만, 슬럼프가 온다 해도 4~5개월은 버틸 수 있다. 4개월 만에 서울대를 노릴 수 있나? 보통 사람이 하는 공부량의 세 배를 하면 이론상 1년 공부하는 거네. 할 수 있겠다.”~~어떤 가능성중 하나야?~~

그때도 역시 확신을 심어주셨던 아버지가 계셨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만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나. 6개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지만, 누군가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실패하는 이유도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저는 운 좋게 이런 도움을 받았지만,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는 도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뛰어난 분들이 쓰시는 칼럼을 보고 확신을 얻어도 좋고, 저처럼 가족에게 받는 용원을 원동력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6월 모의고사는 당연히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아직 초반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6월은 준비 단계이기도 했고, 공부 방법도 전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서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만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7월

7월 들어서 가장 많이 변했던 부분은 공부시간이 아닌,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대부분 순 공부시간이 얼마냐에 집중하는데, 7월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작년과 다를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에 빠졌죠. 그때 고민한 이후로 방법을 바꾸었고, 그 덕에 공부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글을 쓸 때 자주 언급하는 ‘**압축 공부법**’은 이때 떠올린 건데, (물론 저 말은 이미 있는 말입니다. 서울대생 100인이 전하는 말이었나 아무튼 그런 제목의 책에 나와 있던 게 기억납니다. 뜻은 다소 다를 겁니다.) 그 과정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어차피 전과목 공부를 다 해야 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시간만 날리지 않을까? 그리고 계획은 세워놔야 못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저는 플래너와는 잘 안 맞는 스타일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구체적인 계획이 본인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플래너식 공부의 가장 큰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계획만 틀어져도 하루 공부 계획이 엉망이 된다.’

이런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A는 8시 28분쯤에 2분 후부터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답장을 해주고 나니 8시 33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8시 40분부터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유튜브를 잠시 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8시 42분이네요. **그냥 9시부터 공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 오늘 공부도 밀렸네.’**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예시처럼 하루를 망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고민 끝에 공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국어(문법 제외)와 수학을 공부하는 데 합쳐서 4시간 반, 문법 / 탐구 / 영어를 공부하는 데 3시간 반을 쓰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제2외국어를 쉬엄쉬엄 보기로 했구요. 그리고 세부 계획 속에서 공부시간을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 반 정도로 잡았습니다. 문법, 탐구, 영어는 **알아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다. 자율 시간으로 남겨둔 거죠.

국어 2시간 속에 독서 3지문 1시간 10분, 문학 3지문 50분으로 **‘대충’** 잡고 수학도 **‘대충’** 과목별로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을 공부하기로 한 4시간 반 동안은 **몰입하여 공부했습니다.**

계획을 **대충** 세웠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 단위 계획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보다, 공부량을 정해두고 그에 알맞는 시간을 배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대략적인 계획만을 세웠고, 독서 1시간 반에 문학 30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량은 변함이 없었죠.**

4시간 반 + 3시간 반 = 8시간을 하루에 두 번만 돌리자고 생각했습니다. 4.5 -> 3.5 -> 4.5 -> 3.5의 네 사이클로 공부하기로 했고, 저는 각 시간대만큼만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에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자기 전까지 16시간 동안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일단 4시간 정도만 완전히 몰입하고 좀 쉬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까요? 전자의 학생은 앞이 안 보일 겁니다. 중간에 계획이 틀어지면 공부하기가 싫어지겠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일단 이거 끝나면 무조건 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 방식을 무조건 따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4시간 동안 완전한 몰입이 가능하면 누구나 성공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힘들니, 그냥 스스로가 생각하는 ‘**집중 가능한 시간**’을 정하고, 3~4번 반복하는 식으로 공부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최대 집중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한다면, 2시간 동안에는 말 그대로 딱 생각하지 말고 ‘**압축적으로**’ 공부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 반복 사이클이 4번을 넘어가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칩니다. 보통은 3번만 해도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 가능한 시간이 최대 2시간인데, 수기 같은 걸 읽어 보니 15~18시간 정도 공부했다고 하니 사이클을 8번 돌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시간밖에 집중을 못 하면 6시간에서 8시간만 공부하세요. 사실 그렇게만 매일 할 수 있어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크고, 목표가 높다면 사이클을 더 많이 돌리는 게 아니라 집중 가능한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시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집중 가능한 시간이 2시간이라면 다음 공부 시작할 때 2시간 반 동안 집중하기로 마음먹어 보고, 안 되면 2시간 10분이라도 집중해보는 식으로 조금씩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씩 강도를 높여 훈련하기 때문이겠죠.

여기까지가 **압축 공부법**에 관한 이야기였고, 7월 초에 이 공부법을 완성한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들이 쌓여가니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졌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겁니다.**

8~9월

여름이 되면 **슬럼프**에 빠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상담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지만,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극복한 사람도 **슬럼프와 싸워서 이겨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슬럼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3일 정도 미친 듯이 놀거나, 공부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거나.

저는 공부량을 두 배 정도 늘리는 방법으로 슬럼프에서 벗어났지만,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수능 때까지 다시 펜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수험생활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3일 정도 정신없이 노는 걸 추천하는데,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일이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데”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고 결국 6개월 중에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4개월밖에 없었습니다. 슬럼프로 무려 두 달을 날린 거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기에 말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하고, 오르비에서는 그다지 자랑도 아니겠지만 저는 정시로 수능 전과목에서 4개를 틀리고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올해는 점수만 놓고 보면 서울대도 합격할 수 있었는데 서울대 낮은 과(사범대)보다는 연세대 경영이 낫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서울대는 상향지원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께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3일이나 버리는 거? 아까울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나름의 성공도 거뒀습니다. 나중에 슬럼프가 찾아온다면 **제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리는 게 그리 큰 손해는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간만에 대학 언급을 했는데, 그 정도로 진심입니다.

9월이 되어서 모의평가를 봤는데 결과는 **평균 2등급**. 객관적으로 중하위권은 아니었지만 **스카이 문과를 노리는 학생이 받아서는 안 되는 점수**였죠. 그럼에도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재수 4개월(슬럼프 포함 6개월)동안 80%의 시간을 개념 공부에 투자했었고, 그때 들었던 생각도 “**아직 실전 연습 안 했잖아.**”였습니다.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고 3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걱정도 안 하셨습니다. 어차피 수능은 잘 볼 거라고.

10월

이때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어에서는 선지와 <보기>를 안 보고 지문을 먼저 읽는 습관을 들였고, 문과 수학을 공부함과 동시에 이과 수학도 공부했습니다.

국어부터 이야기하면, 칼럼에 매번 등장하는 국어 문제 풀이 방식을 이때 확립했습니다. 계기는 정말 별 거 없었습니다. 쉬면서 공부 관련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그때 봤던 게 서울대생이 국어를 53분 만에 푸는 영상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관심을 끌려고 그러나 싶어서 좀 봤는데, 선지랑 <보기>를 보지도 않고 지문부터 먼저 보더니 문제도 바로 푸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한 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도전해봤는데, **진짜 되는 걸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차피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를 점검하고 가야 한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위에 말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칼럼의 내용은 이때 머리 속으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국어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지문만 봐도 대부분 알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문학 파트에서 제시하는 <보기>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의 <보기> 문제를 보고 나면 총 세 번의 복습**을 했습니다. 처음 오답 체크할 때, 자기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세 번 정도 보니 외워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 제 칼럼을 보신 분이라면 이해되실 겁니다.

+ 선지와 <보기>를 안 보고 지문부터 읽은 건 모든 부분에 다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비슷한 <보기>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건 당연히 문학에만 해당합니다.

이과 수학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난 후, 공부할지 말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예전에 이미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 거부감이 없어서 일단 공부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과 공부를 하라는 말씀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덧셈을 배우고 나면 $2 + 2 + 2 + 2 + 2 = 10$ 을 알게 되지만, 곱셈을 배운 후에는 $2 * 5 = 10$ 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덧셈의 원리를 까먹나요? 곱셈은 덧셈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대략 이런 논리로 아버지께서는 "이과 수학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기본만 알아도 문과 수학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합성함수의 미분법 / 몫의 미분법 / 로피탈 정리 등을 '암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암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문과 학생들에게도 알려주는 강사도 있다고 하네요. 분명 저는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단지 이과 수학의 기본만 공부했을 뿐인데도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한 것도 되게 컸습니다.

수능

국어는 무난하게 봤고 친구와 답을 맞춰보는데 수학 30번 정답을 39로 썼다길래 누가 맞냐 토론하느라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38을 썼었죠.) 결국, 제가 **계산 실수**를 한 거였고 국어도 무난하게 시간 20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문학에서 쉬운 문제들만 골라서 틀렸습니다. 급하게 쌓아올린 실력은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국어 3개 수학 1개 틀려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적으로 서울대는 제일 낮은 과도 안 되는 걸 보기 전까지는요. 그러게 ~~이과하자~~ 크랬어

마치며

수기 같은 칼럼 형식으로 제 이야기를 담아 보았는데,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공부법을 적용해서 **2~3시간씩 사이클 4번** 돌리는 거만 매일 잘 지켜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순 공부시간 16시간이 어땠고 18시간이 어찌고 이런 말들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공부하고 연세대 경영(서울대)에 합격하려면

-남을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의 세 번째 수능 이야기입니다. 칼럼 같은 수기, 수기 같은 칼럼인 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N수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현역 분들도 제가 글에 언급할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수험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저번 글의 맨 앞 부분에 썼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역 때 7~8등급에서 국민대 송실대 소신 지원권 정도까지 실력을 끌어 올렸으니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3등급도 있고 그랬지만, 7~8등급 학생이 4개월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다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고려대 일반과에서 2개월 20일 정도만에 연세대 경영(서울대)에 합격한 이야기인 만큼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대라고 적은 이유는 제 성적이 서울대 문과 사범대를 하나 빼고 모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사범대에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을 사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사범대에 합격 가능했다는 건 지금 제가 2회째 참여하고 있는 혜음 모의고사 공동 출제자이신, 정시 컨설턴트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이쯤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22 수능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4개 틀리고 서울대에 불합격한 건 좀 안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두 번째 도전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또다시 저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재수, 삼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적극 찬성하셨었죠. 무력감으로 인한 시간 낭비 때문에, 항상 **기간상으로만 반수의 형식**이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부제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22 수능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학생을 실제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이미 베이스가 있었던 것도 컸겠지만, 보통 연고대 반수생들도 그 베이스를 가지고도 1년 또는 6개월을 투자해야 합니다. 노베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1 ~ 2월

수능이 끝나고, 좌절감과 무관하게 어쨌거나 저에게는 **고려대**라는 수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축하할 만한 대학에 붙었고 제가 입학했던 과는 당시 **고려대 문과 입학결 3위**였으니 낮은 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만 슬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반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힘듭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주위에선 모두가 축하하는 그런 상황**. 삼수에 바로 돌입하기로 결심해놓고도 그냥 놀았습니다. 시간만 보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3월

재수 수기에서 **이사와 독서실**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는데, **삼수를 성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과외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특이한 루트로 정식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비공식 시작은 재수 때였던 거 같은데, 이 역시 특이하니 잠시 언급만 하겠습니다.

(재수할 때는 대학 합격증도 없었고, 이전 수능 성적도 좋지 못했죠. 그럼에도 다른 입시 사이트에서 **활동할 당시 제 글을 보고 연락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받아볼 수 있냐고. 그리고 본인은 수업을 원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제 고3 성적이 국어 2등급 나형 백분위 98이었으니 막 나쁜 성적은 아니어도 굳이 저한테 맡길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학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성적이 비록 뛰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가르치는 것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재수를 하는 중이기에 실전 감각 역시 살아 있습니다. 수업하는 것을 보시고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수학 1등급**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고려대에 합격했습니다.)

적다 보니 재수할 때 과외 쓸도 평범하지는 않네요 ㅋㅋ..

어쨌든 3월이 되어서 이제는 합격증을 들고 과외를 해보겠다고 막 찾아다녔는데,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늦게 하시기도 했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지인 과외를 소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죠.

제가 지금은 의지가 있는 학생만 받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만,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과외 구인 글이 올라오면 쪽지나 메일을 보내는 식이었는데, **하루에 20개씩 글을 보내도 대부분 읽씹당했고, 두 달 동안 단 한 건의 수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메일함을 열어보면 제가 보낸 이력서가 아직도 15페이지가량 남아 있습니다.

제 글들을 보고 정말 기적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앞 이야기들은 그리 유쾌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3월에 한 학생이랑 연락이 되어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예 노베이스였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께서는 수능때까지 모든 걸 케어해주길 바라셨고, 무려 **전과목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정식 과외**의 시급이 무려 5만원.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수도 없는 제안이었죠. (보통 스카이 학생들 과외 시급이 3만원~4만원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 상담이나 커리큘럼 짜주기, 생활 패턴 관리까지 모두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걸 감안하더라도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활 패턴 관리의 명목으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쪽 아침 6시~9시 사이에 수업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게으른 편이기에 수험 생활을 과외로 버텨낼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일이 있으면 일어나야 하니까요.

이 학생과 수업을 시작한 덕에 삼수를 성공했다고 항상 말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기출 문제와 연계교재를 봐야 했고, 강제적으로라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직업윤리 의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쪽이었고,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니 기본적인 실력도 같이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능을 3개월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때 쌓인 내공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4 ~ 6월

제가 현역 수기에서, 배운 내용을 부모님께 설명드리며 공부했다고 언급한 게 기억나 실 겁니다. 그때보다 효과가 더 좋았는데, 수업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실력이 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질문할지를 모르니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며 공부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관점을 접해볼 수 있었죠. 이때 저는 국어에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많이 지워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지에 있는 걸 외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 보며 좀 더 간단한 풀이를 계속 연구했고, **'한 문제당 세 가지 정도의 풀이 생각해보기'**는 이때 정립한 공부법입니다. 설명할 때마다 풀이가 달라지는 강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ㅋㅋㅋㅋ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다 보니 학생을 수험생활 메이트 느낌으로 가르치는 것도 좋았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다 보니 **헛갈리는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업할 때 당장 어떤 질문을 할지 예측할 수조차 없는데, 헛갈릴 만한 부분은 모두 보완하는 게 당연했죠.

남을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혼자 공부했다면 점검하지 못했을 부분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또한,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말로써 내뱉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을 가르치며 실력이 체감상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더는 올라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꼭 누군가에게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그 자체만으로 실력이 늙니다.

이 학생은 개인 사정으로 6월 말 즈음 그만두게 되었지만, 56399(사탐을 아예 새로운 결로 시작해서 9등급으로 가정)에서 13211(사탐 만점)까지 갔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학생이죠. 방향만 잘 잡으면 3~4개월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꼈고, 수학은 정말 올리기 어려운 과목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7월

잊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6월 말에 과외가 끝나면서 또다시 백수 신세. 심지어 수업 할 때 빼고는 수능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했던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수업을 구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습니. 하루에 20개씩 메일을 보내던 시절과 비슷하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수업 설명 글을 작성했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아침 6시 수업이니 의지 있는 학생만 와라, 성과가 안 나오면 대가 없이 추가 수업한다 뭐 이런 내용의 설명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 게시글에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흘 뒤인가부터 문의가 쏟아져서 수업을 도저히 더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나중에 물어보니 알 수 없는 이끌림 때문에, 웬지 잘할 거 같아서 문의했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2021년 7월의 저만큼 운이 좋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나름 진솔하게 과장 없이 써보려 노력했는데, 그게 먹혔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당시 최종 합의된 수업이 11개였고, 제 생활까지 포기해가며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대학은 반수를 위해 휴학. 결론적으로는 수업을 위한 휴학이 되었죠.) 저는 원래부터 강사 체질이었습니다.

수업하면 할수록 공부 실력과 가르치는 실력이 점점 느는 걸 느꼈고, 11명 모두 기출 문제로 수업을 진행하여, 기출을 33회독한 거나 마찬가지였기에 재수할 때 깨달았던 부분을 훨씬 더 정형화해서 정리할 수 있었죠. 재수 수기에 국어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알고 <보기>가 항상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썼지만, 세부 내용을 전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건 이때였습니다. **느낌으로만 알던 부분이 명확해졌다**고나 할까요.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 묻는 학생이 많은데, 애초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무슨 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출 분석이라고 '말하는' 글에 항상 회의적입니다. 분석을 하라고 추천할 거면 방법을 알려주는 게 먼저니까요.

(그 방법은 독서 공부법 1, 2, 3에 순차적으로 담아놓았습니다. 게시글 참조.)

8 ~ 9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때였습니다. 가르치던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이 향상되고 다 좋았지만, 마음 한 켠에 제가 수험생이라는 걸 항상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를 현장 응시하지 못해서 그런지 9월 모의고사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국어를 60분 안에 푸네 마네 하면서 열심히 설명해놓고 저는 정작 시간이 부족했었죠. 아무리 실전을 안 했다지만 국어 수학 영어에서의 감각이 모두 박살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뒤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아마 9월에 영어 75점 받은 게 크지 않았을까요.

10월 ~ 수능

시간이 부족할 때 개념과 실전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많은 분이 급한 마음에 실전으로 뛰어들이지만, 저는 실전 모의고사 기간을 극도로 줄이고 개념에 몰두했습니다. 아마 실모를 푼 기간이 20일이 안 되었던 거 같네요. 어차피 실전 감각은 금방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고, 9월 성적이 안 나온 것도 실전 부족 때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 날은 언제나 그렇듯 실수를 남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듯 그게 커리어하이였습니다. 올해 수능은 실수라 할 만한 것들(사실 이걸 실력입니다. 실수라고 합리화할 뿐이죠)이 유독 많았습니다. 뭘 생각인지 몬스터(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수능을 보는 바람에 국어 시간에 화장실을 3번, 수학 시간에 2번 갔다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복학해야 하나 하는 생각만 났고, 나중에 탐구 시간 때 수학 21번 계산 실수한 게 떠올라서 더 좌절했던 거 같네요.

커리어 하이라는 걸 당연히 당일에는 알 수가 없었고, 집으로 오는 내내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안 한 걸 아시니까 좋게 보시지도 않았죠. 그 와중에 국어 비문학 내용 설명했던 그때의 제게 존경을 표합니다 ㅋㅋ..눈치가 없어 눈치가

그리고 국어가 엄청 어려웠다는 의견이 무색하게, 다음 날 **부산시 교육청에서 국어 1컷을 89인가 90으로 발표**하면서 복학이 확정되는 듯했습니다. 수학은 이미 망했으니..

하지만 나형 시절의 수학이 아니었고,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어마어마한 열세를 보였다는 점을 저는 감안하지 못했던 거 같네요. 제 수학 성적도 최상위권의 성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성적이지만, 다른 문과생은 더 망했던 걸로.. 심지어 국어 컷은 82점이라는 쪽으로 점점 굳혀졌고, 실제 컷은 그보다 높았지만 **모의지원을 해보니 J사 기준으로 연세대 경영학과 커트라인에서 점수가 5점가량 남았습니다.**

복학까지 생각하다가 서울대 사범대를 붙을 성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고, 원서 접수 시점에 **운 좋게 컨설팅(폭발/핑크 예측 위주 x. 그야말로 컨설팅)도 해봤었죠.** 2021년의 저에게는 좋은 기억만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마치며

제 수험생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이 좋게 봐주셔서, **프리퀄 느낌으로 전교권에서 놀던 중학생이 왜 반 28등이 되었는지도**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마 제 칼럼 업로드 예정 리스트에 있는 **'절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2022년에도 **혜음 모의고사 출제 / 수만휘 대표 멘토 선발 / 모 교육 유튜브 출연 예정** 등 감사한 일이 많아서, 요즘 업로드가 좀 뜸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생도 만만찮아서 시간이 정말 없네요.

혜음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 전에 2회가 배포될 듯하니 많관부..! 저희 예상보다 컷이 너무 낮아서 난이도를 좀 더 고려했으니 이번에는 만점자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1회는 시간이 날 때 공동 출제자 분과 합의한 후 여기에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

-

-

좌절과 성공의 이야기

-슬럼프가 고민인 학생이 봤으면 하는 글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시험이 한 과목밖에 남지 않아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거운 공부 이야기를 연달아 썼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가는 느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시 돌아온 수기 같은 칼럼, 칼럼 같은 수기 시간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 슬럼프에 빠진 학생도 있을 거고, 이제 곧 슬럼프가 '찾아올' 학생도 있겠죠. 제 글을 줄곧 읽으셨다면 이게 **악담이 아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슬럼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흘려보내는 거죠.

하지만 그 슬럼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위로를 해주셔도, 머리에 남는 생각은 "아 공부해야 하는 거 아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일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아닌 친구나, 아는 선배가 이야기하면 조금은 실감이 날 거 같아, 감히 제가 그 위치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일침이 아니고, 그냥 제가 겪었던 두 가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는 좌절도 해봤고 나름 성공도 해봤으니깐요.

좌절의 시간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방황했던 학생입니다. 현역 수기에 나와 있었나요? 꽤나 공부를 잘했던 중학교 때도 그 속은 이미 썩어들어가는 중이었고, 중2부터 고2 말까지 그야말로 중2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한 게 고3 직전 겨울 방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고, 저는 그 도움으로 거의 한 편의 드라마를 쓰게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교육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거의 전문 컨설팅 수준으로 수능까지의 방향성을 설계하신 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놀라우리만치 급격하게 성적이 올랐던 저는, 7~8등급 시절부터 꿈꾸던 서울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었고 반드시 서울대에 가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수능을 치고 나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교과서 좀 볼 걸, 수특으로만 하지 말고 기본서부터 공부할 걸." 등 수능을 한 번 치고 나서야 깨닫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좌절했으니까요. 누구보다 서울대를 원했던 저는, 인서울 상위 10개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도 못 받았습니다. 당연히 목표는 뚜렷했으니 (가)군의 서울대 경영학과에만 지원하고 재수를 결정했습니다.

왜 제가 재수 때 4개월 만에 고려대를 가게 된 건지 아시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극적으로, 4개월 공부해서 고려대 정취하자! 라고 외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역 때의 좌절 이후 그 엄청난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으니까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랄까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자신도 없었고, 겁쟁이었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했지만 왜 학생들이 '고작' 입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있어 입시는, '고작' 따위로 는 수식할 수 없는 단어였을 겁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일반고이다 보니 당연히 특유의 북적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후회하는 일이지요. 졸업식을 뒤로 하고 칼같이 집에 온 저는 또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받아도, 전혀 소용이 없었고 불효막심하게도 부모님께 역으로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친구가 조금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 웃어넘기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싫었고, 아니 그냥 살아 있는 게 싫었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는 게, 그렇다고 열심히 살 용기도 없는 게 도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방황할 때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거짓말하고 PC방 간 거 들켰을 때 삭발당했던 기억은 있네요. 어쨌거나 정말 큰 잘못이 아니면 터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들은 이야기는, 어머니는 속 터져서 화내시는데 아버지는 "놔둬라. 돌아온다."를 반복했다는 거.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쁨

재수였던 2020년(21학년도 수능 대비)에 **이사가 결정**되었는데, 이사 날짜가 되기 한 달 전에 그 사실을 알았죠. 그때부터 한 2주 뒤쯤에 아버지가 그해 처음으로 공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인생 전체에서 늦은 건 없다. 그런데 서울대를 목표로 할 거라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사실 올해 대학을 갈 거라면 지금도 늦었고, 죽기 살기로 해야 가능할 거다."

사실 저는 저 말을 듣고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럴 거라는 걸 아버지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대학에 가고,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사 가기 전까지 저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이사 이후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4개월 압축 공부법 칼럼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재수하는 동안에 공부에 집중하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 쉬어가면서 하라는 말도 들어봤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뿌듯하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막바지에 가서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결국 **수능 때 4개 틀리고 고려대에 붙었죠.**

진짜는 여기부터입니다. 그해 수능에서 원점수 288점을 받았던 저는, 어떤 상황에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컴퓨터를 사려고 부품을 알아보는데, 판매자에게 전화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언제나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유독 통화만 하면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뭐.. 이때도 당연히 자신이 없었겠죠. 속으로 떠올린 생각은?"**아니 내가 수능 288점인데 뭐 어쩔 건데**"였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실제로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합당한 사고입니다. **없던 자신감도 생기고, 전화는 물론이거니와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죠.**

예전에 어떤 성대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 봤었는데, 저는 **씻을 때조차 고려대생이라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졌고, 집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은 '고려대생'**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니다. 제 목표는 서울대였으니까요.)

심지어는 외갓집에 갔을 때, 그 연로하신 **외할아버지조차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몇 십 년 전에 가보셨을 안암 이야기를 끝도 없이 쏟아내셨습니다.** 여기서 뭐 타고 가서 뭘 갈아타면 어떻게 되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평소라면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지금 쓰는 이야기들에는 과장이 없다는 걸, 성공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ATM에서 돈을 뽑고 있었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야 봤냐? 나 고대 과장 처음 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뒤돌아봤을 때는 그 학생들도 자기 갈 길을 가느라 시선이 안 마주쳤지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아마 고3 학생들이었을 거 같네요.)

올해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는데, 형이 담배 심부름시켜서 편의점에 갔을 때 학생증을 보여주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내밀 때는 신분증이 없으니 이거라도 내밀자는 생각이었지만, 알바생은 적잖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게 너무 오랫동안 학생증을 안 돌려줬습니다. 주변에서 스카이생을 처음 봤을지도 모르죠.)

속으로 들었던 생각은, "성공하니까 참 별 일도 다 생기네."였습니다. 어이 없는데 기분 좋은 느낌을 아시나요. 딱 그랬었습니다. 이외에도 에피소드가 많지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저는 어느 정도만 성공한,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 원래 목표였던 서울대는 여전히 좌절의 기억으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대학에 간 이후 겪었던 일들은 어떤 의미로든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별 거 아닌 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시간이었죠.

하고 싶은 말

제가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리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좌절할까 두려워서라도, 또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라도 슬럼프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슬럼프는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만, 지나가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간혹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성공의 기쁨을 누린다는 식의 학벌주의로 이야기가 흐르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여러분이 좌절하고 또 자존감을 잃었던 이유는 대학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마음에 품고 있던 목표에 안타깝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고려대만 가도 여한이 없다고 할 학생이 널렸을 테고, 또 반대로 고려대로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할 학생도 많을 겁니다. 특히 입시 사이트에서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이 말은 결국 본인이 무언가를 도전함에 있어 성공했냐 그렇지 못했냐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슬럼프가 올 때 한 번이라도 제 글을 떠올리고, 또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슬럼프가 왔다고 포기하면, 끝없는 좌절 속에 빠졌던 것처럼,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국 패배하게 될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다면, 제가 맛보았던 성공의 기쁨을 똑같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성공은, 단지 입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껏 이뤄낸 것들이 비록 큰 틀에서는 입시에 속하지만, 그렇게 처절한 노력으로 **성공해봤으니깐 일단 저지르고 보는 식(?)으로 뭐든 도전**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과외도, 컨설팅도, 칼럼도, 모의고사 출제도, 강연, 라이브 / 유튜브 강의도 전부 그랬 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해본 적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 게 됩니다.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또한 가지게 되겠죠. 성공했던 '기억'이 있으니 까요. 제가 비록 아직은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도 엄청난 도움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아픈 느낌이네요. **좌절의 시간을 꺼내보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 그리고 겪고 있을 학생들에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만큼 상처가 되는 표현이 없을 거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정말로 맞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빠져나 오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게 당연하니까요.

공부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마치며

최근 들어 팔로워 수를 확인한 적이 없는데 벌써 2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이 렇게 길고 무거운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 글은 끝까지 읽는 데도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ㅋㅋ...

다음 글은 아마도? **문제를 지배하면서 푼다는 것의 의미 - '정답 특정'의 원리** 정도가 되겠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V.

-

-

독서실 독학 반수

- 고려 사항, 조언, 이야기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 시작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년 전 이맘때쯤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네요.
슬럼프가 왔음에도 수능에서는 운 좋게 국수탐에서 4개를 틀렸었던 해였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독서실 독학 반수 관련 칼럼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기도 하고, 저도 반수생과 비슷한 기간 동안 공부했기에 반수 조언이 되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은 재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짝 늦은 감이 있는데, 댓글이나 쪽지, 메일을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많은 거 같아서 한 번 써보겠습니다..!

설명 영상 링크 : <https://youtu.be/rwxtRPQ-h54>

1. 독서실 반수를 선택하는 기준

저는 유혹에 잘 넘어가는 타입이라 이걸 끊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머리 밀기였고 두 번째가 핸드폰 부수기였습니다. 머리아 그냥 밀면 되는데, 핸드폰은 제가 직접 실제로 부숴줍니다. 망치 들고..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할까요?

본인에게 의지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줄 필요도 있겠죠. "나 이제부터 핸드폰 안 할래."보다는 눈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머리를 밀면 거울 볼 때마다 현타와서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휴대폰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가진 학생이 있을 겁니다. "공부해야 하는 거 아는데 SNS나 인터넷 끊으면 집중이 안 될 거 같아."

제가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학생은 관리형 독서실이나 재종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에 나오겠지만 답답함을 견딜 수 있다는 가정 하에요.)

무언가 제약이 있는 상태로 공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독서실 독학 반수가 잘 어울리죠. 저도 "공부를 해도 내가 하고, 놀아도 내가 정한 시간에 놀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관리형 독서실 같은 곳에 갔으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기에서 생각해볼 포인트는 유혹과 답답함이라는 거죠. 유혹은 참아도 답답함은 못 참느냐, 아니면 그 반대냐의 문제입니다.

결정하려면 6월 중순 전까지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맘때쯤 마음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던 저는, 독서실 반수에 대한 최종적인 고민을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는 쪽입니다.

2. 독서실 위치 정하기

시설이야 각자 마음에 드는 대로 가면 되지만 아는 친구가 많은 독서실이나, 집에서 가까운(또는 먼) 독서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실 듯하고, 왜 가까움과 먼 것이 같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저는 가까운 스터디 카페를 등록해보니 가까워서 오히려 더 안 가게 되는 느낌이었고, 어떻게 집을 나서서 스터디 카페에 도착해도, 냉방병이 어찌니 하면서 핑계를 대고 2~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독서실을 등록했죠. 한 번 떨궈지고(?) 나면 이젠 못 돌아옵니다.(그걸 버스 타고 돌아가려고 한다면 반수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 집에 가고 싶어도 독서실에 앉아 있어야 하고, 일단 앉아만 있으면 공부할 의지 정도는 있었으니까 일과가 잘 굴러갔죠.

다만 멀리 있다는 이유로 집에서 출발을 아예 안 하게 되는 타입이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적어 놓았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시간 분배하는 법 (루틴 짜는 법)

제 일과는 9시에 가서 1시 반, 2시부터 6시 반, 8시부터 11시, 11시 10분부터 2시이렇게 네 번 정도 나눠서 돌아갔던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실 열기 전까지 집에서 공부한 것도 있는데요. 간혹 압축 공부법 칼럼을 보고 반드시 (4시간 + 3시간) * 2의 루틴을 지켜야 하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최대 집중 시간이 4시간 언저리까지는 올라갔었던 저는, **아침과 오후에는 다소 무리하는 느낌으로 30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무리라고는 하지만, 저는 어차피 공부 분량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4시간 분량을 4시간 반에 걸쳐서 공부하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조금 더 여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6시 반에 공부가 끝나고 텀이 무려 1시간 반이나 된다는 건데, 저는 이 시간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식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번은 아무 생각 없이 좀 길게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밤 시간을 보시면 쉬는 시간이 10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꼭 저녁 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8~9월에는 오후에(이상하게 나른하고 피곤할 때) 긴 쉬는 시간을 넣었거든요. **제일 공부 안 될 타이밍에 템포를 한 번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일같이 그 타이밍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정리하면 하루의 스타트는 좀 열심히 달리고 집중이 안 될 때는 좀 길게 쉰 뒤, 밤에는 길게 쉰 대가(?)를 치르는 느낌이죠. 그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령 "나는 10시만 되면 너무 피곤하고 10시 반만 어떻게 넘기면 피곤이 짝 사라져."하는 학생들은 밤에 쉬는 시간을 잡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하는 게 좋겠죠.

4. 좌석 위치 정하기

남녀 공통 좌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웬만하면 남녀 나뉘어져 있는 데를 가야겠죠. 그리고 본인의 성격에 따라 문 근처 또는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좌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가 들리든 말든 혼자 집중 잘 할 수 있는데 남들 눈치를 보는 게 싫다면 문 바로 앞자리를,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며(?) 구석에서 혼자 공부하고 싶으면 가장 깊은 자리를 선택하면 될 겁니다. (가운데는 짐 놓기도 눈치 보이고 왔다갔다할 때 양쪽에서 레이저를 쏘는 느낌이라 정말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건 금방 적응이 되기 때문에, 눈치 보일 일은 없다시피 하는 문 앞자리가 정말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쓸 데 없는 이유로 컴플레인 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예민함의 차이**겠죠.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 난다고 컴플레인을 넣으신 분도 계시서..

특히나 **깊숙한 쪽으로 갈수록 공무원 시험 등 수능이 아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죠.** 정말 예민한 게 아니라면 문에서 가까운 자리를 선택하고 마음 편히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 자리가 본인과 안 맞는다 싶으면 "말하기도 껄끄럽고 옮기기 귀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옮겨야 합니다. 공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5. 외로움에 대비하기

독학 반수는 정말 외롭습니다. 위에 말했던, 유혹에 잘 넘어가는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외부와 단절하려고 할 텐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슬럼프가 왔을 때는 외로움을 스스로 증폭시키는 경향이 강한데, 그 시기를 잘 넘기려면 미리미리 조금씩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집에 들렀던 거고, 여러분도 가족한테 응원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더해 **정말 친한 친구 한 명 정도는 꼭 연락을 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의지가 앞서서 핸드폰 없애면서 폴터폰에 친구 번호도 안 옮겼지만, 그 한 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매우 큽니다. 슬럼프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외로움, 그리고 슬럼프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을 맹신하는 순간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대부분 저런 자신감은 과도한 열정에서 나오니 템포 조절은 필수입니다.

어쨌거나 외로움을 감수하지 못할 거 같고, 형편이 된다면 학원을 가는 게 맞겠죠.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제가 9월 넘어가고 나서 놀란 게, 학생들이 보통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떨어져 나가다 보니, 9월부터는 방 전체에 저 혼자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 한 명 있거나 이런 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은 저뿐일 텐데,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공부에 지쳐서 외로움을 핑계 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꼭 차 있어야 하는 방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진짜 글자 그대로 외롭습니다. 사실 저런 기간에 접어들면 집에서 공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학습 효율이 3분의 1토막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미리 알고서 대비하면 덜 외로울 거라는 위로와, 그 정도를 견딜 수 없으면 독서실 독학 반수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경각심 정도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아는 것의 반만 실천해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반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지만... 그만큼 아는 것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뜻이죠.

Fin.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수험생 시절에 잘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잤습니다.

적응 훈련이랍시고 한 건데 지금 보면 좀 바보같네요ㅋㅋㅋㅋ

책상마다 칸막이가 있을 거라고 해서, 매일 책상의 일부분만 활용해서 공부했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 한 끼조차도 보통 삼각김밥이었죠.

화장실 왔다갔다할 때도 영단어를 외워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집중이 깨지는 게 싫어서
물도 그냥 안 마셨습니다. 하루에 한 컵은 마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중간에 긴 쉬는 시간을 가져주는 게 좋다는 걸 수험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깨달은
게 아닙니다. 공부를 멈추고 잠시 쉴지언정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보통 15시간 앉아 있으면 한 번 정도 일어났던 거 같습니다.

순공시간을 체크할 필요도 없는 게,
앉아 있는 시간이 곧 순공 시간이었습니다.

"나처럼 살지 않으면 실패한다."와 같은 일침이 절대 아닙니다.
저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본인의 간절함을 증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속일 이유도 없겠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뭔가를 이루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라고 뭐 이렇게 칼럼 쓰는 사람이 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의 노력은 언젠가는 분명히 빛을 발할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V.

-

-

성공 수기의 위험성

- 실패하는 패턴도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점점 더 고민이 많아지고 체력적으로는 지쳐가는 시기일 텐데요.

늘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7월 중반이 다가오는 만큼 본인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느낌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썼던 수기들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시절이 모두 특이했고

수기를 읽어보시면 현역, 재수, 삼수는 더 드라마틱(?)했죠.

수기를 쓰면서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면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올리기 전까지도 고민했던 건, 결국 **그 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속 없는 생활을 하도록 만들지는 않을까**였습니다.

헛된 희망이라도 희망을 품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실천하지 않는 건 정말 치명적**이죠.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수기를 경계하라고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수기에서 1년 단위로 각각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열정을 다하는 법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최대의 효율로 공부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남을 가르칠 때 본인의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얻어갈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공 수기는 적당히 봐도 그만입니다. 실패하는 패턴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은, 본질적으로만 따지면 열심히 하는 게 전부입니다. 크게 방향이 잘못 되지 않는다면요. (방향이 아예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 수기도 어느 정도는 봐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하지 하지 않는 법'만 알아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성공하는 법을 깨달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느리겠죠.

실패하지 않는 법은, 실패하는 법을 알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입니다.

성공하는 법을 찾아 헤메기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법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참히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찾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얻어질 때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썼던 기출 분석 글에 빗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반복해서 보다 보면 기출 분석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실패하는 법을 알고, 공포를 느껴서 그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그게 결국 실패
하지 않는 법이 '되는' 거겠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상식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꿈만 같다. 상상도 못 할 일이다."

물론 그중에는 형식적이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제가 성공했던 이야기가 언급될 때마다 꿈만 같다고 말합니다.
~~캐망나니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

제가 성공 수기를 쓰려고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끝에 성공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었을 테고, 그 많은 깨달음을 요약한 게 성공 수기가 되
었겠죠. 도움은 분명 되겠지만, 어디선가 전해 들은 '성공하는 법'을 아직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자꾸만 성공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실패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 그저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린
다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압감도 덜 하지 않을까요.

덧붙여서, 제가 글을 계속 쓰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냥 글을 썼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수능 성공 - 과외 - 컨설팅 - 칼럼 작성 시작 - 유튜브
브 라이브 4주 무료 강의 - 개인 유튜브 시작 - 모의고사 무료 배포 - 모의고사 출
판 예정까지 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 생각
입니다. 10만 명이면 ~~좀 다른가~~

그 어떤 기회도 바라지 않고 그냥 무지성 칼럼 업로드를 했는데,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거죠.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돈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학생 분들이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달릴 뿐이지 "나 이번에도 대학 못 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좋으니 과정이 미화된 걸 수도 있지 않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제가 겪은 과정은 미화가 불가능합니다 ㅋㅋㅋㅋ...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순공 15시간을 플래너에 장식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내가 아침 7시 이후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 한 번 쉴 때 유튜브 영상에 10분 이상 빠지지 않았다는 것 등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원동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걸 안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늘 생각하던 '수기의 위험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쩌다 보니 위로 엔딩인 거 같기도 하네요.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V.

-

-

실전 모의고사 활용법

- 실전 모의고사는 '다소 못 봐도 괜찮은 수능'입니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짧은 칼럼입니다.

9월 이후는 상위권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에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두가 실모를 풀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벌써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계실 겁니다.

제가 활용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본인이 실전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쳐도 될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참고 정도는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국어 위주로 쓰겠지만 모든 과목에 적용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언제나, '다소 못 봐도 괜찮은 수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제시된 방법을 쓰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한 복습은 필수입니다.

1. 극단적인 상황에서 모의고사 보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입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에 들기 2시간 전에 모의고사를 친 적이 많습니다. 나름 컨디션 같은 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많이 처참했죠.

특히 밤에 골랐던 정답이 아침에 일어나보면 헛웃음 나올 정도로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4번 정도 치고 나니 평소 실력과 비슷해졌는데 이런 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KF94 쓰고 모의고사 보기'였네요. 어차피 진짜 실전에서는 일반 마스크를 쓸 거였으니까요.

그 밖에도 음악 틀어 놓고 모의고사 치기 등 많은 것들을 시도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느 상황에서 봐도 실력이 유지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2. 집중력을 강제 향상시키기 - 1일 2실모 등

지금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아마 최상위권 분들은 수학에서 벌써 2실모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로 응시하는 회차의 답이 궁금해도 2개의 모의고사를 다 보고 채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두 번째 모의고사의 점수가 낮을 겁니다. 몇 번 시도하다 보면, 두 모의고사의 성적이 비슷해질 때가 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예 공부를 놓지 않는 한 향상된 집중력이 다시 저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매일같이 1일 2실모 하면 슬럼프가 올지도 모릅니다.**

중간중간 연습용으로만..!

3. 타임 어택 설정하기

사실 이 부분을 칼럼으로 따로 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개념, 기출, 연계 교재 등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시간 단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이전 국어 방법론 칼럼에서도 썼듯,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어느 파트에서 ~~하고 효율적으로 읽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론상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결국 무식하게 시간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저러한 방법을 시도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단축했음에도 여전히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날림으로 풀었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 **날림으로 읽어도 기억에 남는 게 좀 생겼습니다.**

좀 더 지나고 나니 **날림으로 읽었는데 느낌만 가지고 찍어도 맞는 게 생겼고**

결국에는 **느낌만으로 확신을 갖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억력도 일정 수준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왔다갔다 하는 건 본인 풀이에 확신이 없고 애매한 선지가 있어서 그런 걸 텐데, 저는 비문학만큼은 한 번 읽고 거의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느낌으로 확신하고, 실제로 검토도 할 테니 더 정확하겠죠. 검토를 할 시간이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면? 이 방법으로 훈련했던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4. 그날 하루만큼은 시험 내용을 기억하기

이는 비단 모의고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치고 비문학 3지문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봤고 문학 작품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전문이 있으면 저장해두었다가 공부하기 싫을 때 봤습니다. (문학은 이런 방법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히 소설은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한 경우가 많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 순간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중간에 기억이 안 나면 지문을 살짝 보고 다시 설명해도 됩니다. 외우는 게 목적이 나니니까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 문법은 따로 꼼꼼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5. 쉬운 모의고사 남겨두기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막 풀어도 되는데 수능 일주일 전부터 풀 모의고사는 쉬운 것들로 선별해서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수능 치기 일주일 전에 킬링캠프 시즌 2를 봤고 자신감이 최악인 상태로 수능 수학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못 풀 문제도 아니었는데 라는 것은 당연히 변명이겠지만 이러한 여지를 줄 이유가 없죠.

어려운 모의고사는 공부용으로 쓰는 게 더 좋다고 보는 편입니다.

'타임 어택이 있으며, 문제가 유형별로 한 챕터에 정리된 N제' 느낌으로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국어든 수학이든 쉬운 모의고사를 고르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거 같아요.

~~모의고사 N회차 너무 쉽던데 라는 글을 여러 번 보면

저는 그 모의고사를 비축해두는 식으로 수능 직전에 필요한 실모를 구비해뒀었네요.

마치며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 것은 실전 때문인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 구체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칼럼을 잘 못 썼는데 일도 거의 끝나가니 자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쯤 혜음 모의고사 정식 판매 글을 캐스트에 걸어야 해서 칼럼을 보려고 팔로우해주신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말 동안에는 캐스트 올려달라고 요청을 못 하는데 이걸 안 걸 수는 없어서 ㅠ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V.

-

-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한다면

- 빈틈을 채워야 하는 이유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수능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이라 이제는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써보려 합니다. 늘은 실력이 점점 향상될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간과해 현역 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추석에 하면 좋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정 파트에서 실력이 향상될 때, 학생들은 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가령 한 학생이 문학을 못하다가 갑자기 문학 20분 컷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해볼까요. 그 학생은 계속 해서 문학 공부를 할 겁니다.

수능특강 문학 사용 설명서도 여러 번 읽어보고... 고난도 문제도 풀고, 심지어 연계에 대비하겠다고 작품의 전문까지 뽑아서 학습하죠.

원래 비문학은 잘 안 틀렸기 때문에, 문학 실력이 향상된 것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일 겁니다.

이 학생은 높은 확률로 수능에서 비문학 파트를 풀다가 울고 싶어집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하다 보니 머리가 갠 느낌을 받으며 수2 고난도 22번 문제를 맞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이야 늘 잘 풀었다고 생각하며 22번 문제만 미친듯이 풀겠죠. 풀면 풀수록 22번을 관통하는 '고난도 개념'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문제를 보자마자 10분 내외로 풀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이 학생은 수능 시험장에서 준킬러의 벽에 막혀,
그토록 잘 풀던 22번 문제에는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수학 시험이 끝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주변에서 봤거나 혹은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 중에서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이런 게 무서운 이유는

수능 시험장에서 좌절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간과한 부분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취약점도 잘 찾고 보완했는데 잘 하던 부분에서 틀린 거니까 올해는 괜찮겠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생각인 줄 알았다면 현역 때 이미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자신이 잘 한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아예 배제하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다가올수록, 모든 부분을 매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 사용설명서를 회독할 때도

고전 시가 1~12 -> 현대시 1~12 이런 순으로 한 파트씩 통으로 공부하지 않고
고전 시가 / 현대 시 / 고전 소설 / 현대 소설 / 극 수필
각 2지문씩 골라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네요.

완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어느 정도 잘했던 부분에서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자신의 취약점이 있음에도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까요?

**분명 나는 삼각함수 잘 모르는데, 수열 고난도 문제 잘 못 푸는데
그래도 미분이 재밌으니까 수2만 맨날 붙들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막바지에 가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삼각함수 가형 기출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21학년도 수능 대비)

~~크런데 카10 = 나28 을 보여주더군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위에서 썼던 두 가지 케이스는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내가 진짜 약한 부분이 뭔지, 무의식적으로 제쳐두고 있던 부분이 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솔직하게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이 구멍을 찾아 잘 메울 수 있다면, 수능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PDF 모음은 일주일 안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쓴 글이 많아 편집할 게 꽤 많네요 ㅠㅠ

V.

-

-

다가오는 수능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 누구나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수능이 벌써 6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맘때쯤 느꼈던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작년에 지금 정도의 날짜로부터 한 1~2주 정도 전에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지금 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불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은 **벌써 실모 푼다더라, N제 몇 권 풀었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더 그럴 겁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쓰신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두 달이면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시기이다."

사실 이런 말은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 넘어가도 되겠지만

"**다만 그걸 못해서 문제다.**"라는 말에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제목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라고 적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60일 남았으니까 당연히 불안하지." 같은 소리가 아니고

공부는 원래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의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당장 시험을 쳐도 서울대를 갈 거 같고, 이때까지 공부를 안 했지만 하면 금방 오를 거 같고. 한 마디로 '불안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하면 될 건데 왜 불안하지?

그렇지만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실력이 늘면 늘수록 불안감에 휩싸였죠.

이 말도 되게 중요한데, **실력이 향상될수록 불안감은 커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어든 수학이든 졸다 시험을 쳐도 100점을 받을 실력이 아닌 이상 다 불안할 겁니다. 오히려 100점에 근접한 학생일수록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한 부분만 잡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저도 현역 때는 그 불안감이,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능, 세 번째 수능을 준비할 때 깨달았던 건 **실력이 늘면 늘수록 불안감이 커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학생들과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도 항상, "나중에 실력이 늘면 불안해질 건데, 그때는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럼 다들 실력이 느는데 왜 불안해지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만 나중에 가서는 공감하더라구요.

당연히 불안한 학생 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불안한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불안하지 않은 학생 중에서도 정말 완벽해서 불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공부를 닦치는 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는 학생 분들께서는 조금만 참고 그냥 원래대로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불안해 하지 말고 하던 걸 하라고 해도, 그게 다 뜻대로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아버지께 수없이 들었음에도 언제나 "알아요. 아는데 불안한 걸 어떡합니까." 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한 단계를 넘어서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위로를 전하면 (그때의 저처럼)
"엄마는/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미 이겨내 본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성공 수기를 보고 공부에 그닥 관심이 없는 현실 친구들은 고려대에서 반수했으니 2개월만 해도 서울대 사범대 성적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연고대 문과 학생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1년 내내 준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수 때 성공했던 게 저만의 공부법을 확립한 덕분이라면,
세 번째 수능에서 단기간에 실력이 향상될 수 있었던 건 그에 대한 확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저는 "아니 하루에 18시간 공부하면 대충 4개월 동안 반수하는 애들이랑 똑같네."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의심한 적이 있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확신보다는 약했던 거 같네요.

열심히 달리는 수험생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니깐, 알게 모르게 실력이 느니까 불안한 거라고..

이걸 깨달으면 확신도 생기는데, 눈에 보이질 않으니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힘내서 달리셨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VI.

-

-

수능 아랍어 방법론

- 하루 10분으로 서울대 합격 확률 높이는 법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 아랍어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을 좀 해봤는데 아마 아랍어 칼럼은 제가 최초(?)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활동 재개하면서 첫 번째 글로 작성합니다.

이 칼럼은 아랍어 50점(전국 1등입니다 ㅋㅋ)이 들려주는, '최소한의 공부로 적당한 점수 받기'에 관한 글입니다. 지금은 10분이지만 나중에 정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하루 30분씩 일주일 정도는 투자할 생각이 있는 학생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강의도 조금씩 들으며 단어를 외우면 좋겠지만, 그건 그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우선은 방법론을 1편으로 하고, 작년 수능 아랍어 문제로 2편을 쓰려 합니다.

수능 아랍어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써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아랍어 1등급(45점 이상)은 총 200명이고, 아직까지 제 주위에도 50점을 받은 친구는 못 봤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만점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1. 수능 아랍어가 물어보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유치원 ~ 초등학교 수준이다.

제2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대부분 들어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모르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아랍어 해설지를 잠시만 들여다 봐도, 민망할 정도로 쉬운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장문 독해 파트가 살짝 어렵지만 이 또한 '수능 아랍어'치고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2. 수능 아랍어는 알파벳이 90%이다.

사실 공부를 거의 안 하고 4~5등급 정도만 받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알파벳이 전부입니다. **읽을 줄만 알면 4~5등급을 받을 일도 없거나와 8등급만 안 받았어도 서울대에 붙었을 거라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알파벳이 100%라고 하고 싶습니다.** 알파벳은 총 28자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루 30분씩 일주일만 투자하면 됩니다.

3. 아랍어 문제에는 '뉘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아랍어에 하루에 30분씩 2주 정도 투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꽤많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문제 속에 '뉘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 이거 어디서 본 단어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정답일 겁니다.

4. 선지의 구성도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하다.

이 부분은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شرب [샤리바]는 '마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나는 ___를 마셨다. 라는 문장이 제시되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가정할까요. 선지 구성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1. 소
2. 연필
3. 교실
4. 자동차
5. 커피

뉘.. 소를 마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아랍어를 읽을 줄 알게 되려면 그래도 강의를 조금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준의 단어 정도는 강의에서 알파벳 읽기를 배울 때 예시로 나오기 때문에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초급 알파벳 강의를 들어도, 연필 / 교실 / 자동차 정도의 단어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커피라는 단어를 몰라도 정답을 맞힐 확률은 50%입니다. 좀 있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렇게 선지를 걸러낸 다음에는 정답 개수 추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정답 개수 추론은 대체로 유용하다.

다른 과목과 달리, 아랍어는 1번과 2번이 정답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랍어 10개년 기출 분석을 하는 동안 저는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정답 개수만 세어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모르면 3번과 4번 중에 찍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3번과 4번에 제시된 선지가 정답이 아닌 게 확실하면? 가장 적게 나온 번호로 찍으면 됩니다.

국어나 수학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니 이게 무슨 팁이야?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라고 하겠지만, 아랍어는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정직한(?) 과목이죠. 분명 유의미한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6. 한 문제에 제시된 부분을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부분을 모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랍어는 일반적으로 수능 시험이 갖고 있는 복잡함, 추잡함(?) 같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번에서 활용된 문장이, 8번에서 핵심 포인트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론 능력만 뛰어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7. 버릴 부분을 버리고 공부해도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를 거르면 수능에서 본인이 걸리지게 된다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랍어는 다릅니다.

매번 제시되는 자음과 모음 연결 / 기본 인사 / 시간 / 교통수단 / 날씨 / 금지 표현 / 서간문(편지) 문제는 작년 기출만 보고도 대비 가능할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인 문법 / 장문 독해 등을 버려도 좋은 점수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버릴 부분을 버려야만' 합니다. 수학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아랍어 공부를 하나요. 특히 이과생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빨리 깨달을수록 심리적 부담도 덜해질 겁니다.

8. 알파벳을 외울 때를 제외하면 아랍어 글자를 직접 써볼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읽을 줄도, 쓸 줄도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공부로 점수를 얻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직접 문장을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알파벳 외우기 역시 단어나 예문 등을 읽어주는 걸 열심히 들으면 해결됩니다. 이는 제가 항상 말하는 외워'지는' 공부법에 해당합니다. 그냥 강의를 들으며 따라가기만 하면 알파벳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많은 학생이 알파벳 때문에 아랍어 공부를 포기하는데, 한 번에 모두 외우려 하니 그런 겁니다.

9. 아랍어 글자에 어두, 어중, 어말형이 있는 이유는 글자를 이어쓰기 위함이다.

아랍어는 단어의 시작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에서 각 글자의 모양이 다릅니다. 한 마디로 한 글자가 세 가지 형태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아랍어 알파벳은 28자라 그랬으니 무려 84자를 외워야 할까요?

간간이 올라오는 글을 읽다 보면, "한 글자의 형태가 위치에 따라 각각 달라서 공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경험자들의 조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음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9번의 제목 자체가 약간의 스포를 담고 있는데, 같은 글자의 형태가 다른 것은 글을 한 번에 이어 쓸 때 유용합니다.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어두형 / 어중형 / 어말형에 대한 압기는 전혀 필요없을 겁니다.

10. 아랍어 강의 추천

유튜브에 나온 '유라시아어학원 아랍어 강의'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도,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강의들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먼저 듣고 수능특강 EBS 강의를 들었는데 아마 처음부터 수능특강 강의를 듣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외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셔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
.
.

세 줄 요약

1. 아랍어는 알파벳이 전부다.
2. 버릴 거 버려도 점수는 나온다.
3. 강의는 유라시아어학원 아랍어홍보 아닙니다

+ 시작 시기는 지금부터 하면 제일 좋지만 9월부터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늦게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게 문제죠. 지금부터 하면 하루 5분으로도 1등급 가능하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차 [2022.09.17 ~ 2023.06.02]

I. 국어

(1) 방법론

- [1] 수능 국어에 필요한, 짧은 내신식 공부법 277p~281p
- [2] 국어 타임어택에 대비하는 법 283p~291p

(2) 독서

- [1] 수능 국어 한 문제 더 맞힐 수도 있을 글 294p~306p

(3) 문학

- [1] 문학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글 309p~314p
- [2] 문학에서 낯이지 않는 법, 선지 거르는 법 316p~321p
- [3] 극단적 시간 단축 - 문학편 323p~332p

(4) 언매

- [1] 실전에서 언매 고난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335p~339p

(5) 실전

- [1] 2406 공통 + 언매 손풀이 342p~357p

II. 동기부여 / 기타

- (1) 수능 직전 - 열심히 한다는 것 359p~361p
- (2) 물리적인 시간의 중요성 363p~365p
- (3) 무지성 노력, 무지성 재능 367p~369p
- (4) 수험생활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 [1] 12가지 칼럼들 372p~376p
 - [2] 10가지 칼럼들 378p~383p
- (5) 계획의 추상성 없애기 385p~388p
- (6) 기타 - 과외에 관한 모든 것 390p~399p
- (7) 수능 이후 - 더 해도 좋지만 401p~402p

!

-

-

-

-

수능 국어에 필요한, 짧은 내신식 공부법

-국어 전반에 대한 내공을 위하여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3.02.24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글을 쓸 당시에 '나는 시험장에서 본 22수능의 독서 지문 3개 모두,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모님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들 이걸 1~2월, 혹은 3월에만 시작했어도 국어 점수가 유의미하게 바뀌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장점 2가지를 대략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실전에서 빠른 속도의 풀이 가능

(2) 실전에서 아예 모르는 지문은 나오지 않음

그런데 생각해보면 (1)은 (2)에 포함되는 내용 아닐까요? 대부분 한 번쯤 들어봤거나, 아예 알고 있는 지문이다 보니 빠르게 푸는 것도 훨씬 쉬웠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의 정점은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독특함 덕에 많은 관심을 받은 거겠지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감안하고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신식 공부는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이며 특히 수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문학에서 비, 바람 같은 시어를 보자마자 '시련'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건 수능에 적합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내신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신식 공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방법 덕에 **현역 수능 때부터 독서에서 전혀 모르는 내용의 지문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내신식 공부를 하되, 짧게 끝내자.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기출 분석을 하다가 헤겔 지문을 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문장 구조는 이렇고, 맥락상 동의어 나오고 ... 선지에서 오답 논리는 선후 관계 바꾸기구나. 이걸 병렬인데 포함 관계로 제시해서 낱시켰구나." 정도의 생각을 하겠죠. 제가 써 놓은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출 분석'에 들어가긴 합니다.

읽다 보면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문의 기출 분석이 끝나면 바쁜 수험생으로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죠.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음 지문(또는 다른 과목 공부)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나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저렇게 넘길 때, 저는 마지막 5분 동안 분석이 끝난 해당 지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까먹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떻게 5분 동안 본 걸 계속 기억할까요?

기출 분석이 끝난 뒤, 여러분의 머리 속에는 지문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다 들어 있을 겁니다. 그 감각을 가진 상태에서, 지문을 마지막으로 읽은 다음에, 1문단부터 내용 설명을 쭉 해보세요. 혼잣말이어도 좋고, 저는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 했던 거 같네요. 이렇게 하면,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헤겔은 절대 정신에 세 가지 형식이 있다고 보았는데..."라고 말하다가 끊기면, 나는 예술 종교 철학이 절대 정신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뇌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내용입니다. 혹시 본인의 이름이나 생일을 잊어버리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납득된 정보'는 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내신식 공부입니다. 1문단부터 쭉 외워서 설명한다는 게 내신 시험 범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연 설명을 덧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지문을 영단어 암기하듯이 외운 게 아닙니다. **대충 읽어 놓고 외워'지기'를 바라는 입장**이죠. 당연히 훨씬 덜 힘들 겁니다. 두 번째로, 여차피 다시 나오지 않을 지문이라고 해도, **그 내용 자체는 언제든지 다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대로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에 며칠을 투자해서 '진짜 내신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딱 그 순간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기출 / 연계 교재 / 사설 모의

고사 지문들에 대해서 모두 이런 방법을 적용시켰습니다. 한 번에 배경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면 전문 서적도 가져다 봐야 할 거 같고 그렇지만, 그때그때 흡수한 배경 지식은 설명 까먹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을 마주했을 때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배경 지식은 기출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었고, 연계 교재 + 사설 N제 / 모의고사 내용까지 포함하면 따로 공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전에 역사 과목의 암기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반'을 다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대략 어떤 느낌의 내용들이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기반이 다져진 거죠. 그 이후부터 저는 새로운 느낌의 지문을 볼 때 마다 하나씩 추가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부하는 족족 지식이 느는 단계에 들어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늘다 보면 다른 시너지 효과 역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분명 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냥 읽었을 뿐인데,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의도적으로 외우려고 하는 암기력 자체도 향상됩니다. 늘 강조하던 '나만의 말'로 바꿔서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암기'되는'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1. 아예 모르는 지문도 아닌데 2. 보면서 외울 수 있다면

시험장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수능 국어 비문학 정도 길이의 어린이용 전래 동화를 읽는다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적인 길이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내가 읽었던 내용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계속 지문 - 문제 - 지문 - 문제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글을 쓰더라도, 리스크가 있을 만한 공부법을 논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작년의 '극단적 시간 단축 - 문학편' 역시 그랬습니다.

그냥 지문 분석 끝내고 쉴 시간에, 내가 무슨 지문을 읽었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대충 중얼거려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만의 말'로 바꾸는 연습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했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저렇게 혼잣말로 곱씹어보는 것 자체가 '나만의 말'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작년 기출도 봐야 하나, 기술 지문은 안 겹치지 않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냥 다 보시면 됩니다. 정점에 오르고 싶다면 뭔가 거르는 습관 자체를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보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가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맞습니다.

22수능을 기준으로 저는 비문학 3지문 중에 2.5지문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헤겔과 브레턴우즈는 안 읽고도 풀 정도였지만 기술 지문은 그렇지 않았죠. 0.5지문을 알고 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뭔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흐름이나 용어의 활용에 있어 익숙한 상태이고 다른 배경 지식으로 얼마든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22수능 기술 지문을 보면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그림 그리면 뒤에 있는 게 더 작게 나타나는 거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3차원을 2차원으로 변환할 때 활용되는 1점 투시도법 / 2점 투시도법에 대한 지문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에 봤던 예술 지문을 기술 지문을 푸는 데 활용했습니다.** 왜일까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완전 똑같으니까요. 그러니 사실 내용을 전부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지문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덜 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결국 특정 내용을 거르지 않고 모든 지문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배경 지식은 더 이상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 서적을 구한다고 한들, 수험생 입장에서 그걸 들여다 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썼던 이야기는 제 칼럼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ㅠㅠ 독자적으로 출판해 주세요...



받은편지함



2022. 6. 15.

받는사람: 나



선생님 칼럼들을 꾸준히 따라오고 종종 유튜브로도 강의를 수강한 학생입니다

선생님께서 쓰시는 칼럼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왔고,

또한 '배경지식의 급조'라는 대전제로 기출들을 풀어나가시는 관점이 정말

구조와 제재별 특징만을 강조하는 현 입시판에 한줄기 빛 같은, 몇없는 칼럼들이었는데

하셔도 따로 독자적인 교재도 출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출판 당시에 감사하게도 메일로 이런 내용을 보내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모르는 제 칼럼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었죠. 실제로 저는 구조 독해나 제재별 특징에 대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수능을 잘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보고 계신다면 연락이라도 한 번 주세요)

문학도 가능할까?

비문학 위주로 글을 쓴 것 같은데, 혹시 문학에서는 불가능한 걸까요? 가능합니다. 문학 칼럼은 나중에 따로 올리겠지만, 고전 시가 / 산문의 클리셰 기억하기, <보기> 내용 외워지도록 공부하기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를 안 읽고도 풀 수 있다고 말했고, 요즘의 트렌드는 점점 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일치 / 과해석에서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저런 말씀을 드렸을 때, <보기>를 안 읽고 풀 수 있는 이유에는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문학 기출 분석 이후에는 <보기>를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읽어보세요. 풀 때, 분석할 때, 그리고 마지막 한 번까지 <보기>를 총 3회독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아무리 외우기 싫어도 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기>도 대부분 늘 나오는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문학적 배경 지식' 차원에서 유의미할 겁니다. 이것도 내신식 공부를 짧게 하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대로 고전 파트에서는 늘 나오는 주제 의식과 작품의 흐름이 있고, 이를 기억해두는 데 내신식 공부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수능 전까지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실천해보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누구라도 가능한, 리스크는 없는 공부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방법도 그중 하나이니 한 번쯤 믿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

국어 타임어택에 대비하는 방법

-목표 시간과 마지노선 조절하기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3.05.29

안녕하세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 운영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 전과목 운영법을 쓰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다른 과목은 더 잘하시는 분들이 남겨주신 것도 많은 듯합니다. 그에 더해 수학의 경우 모르면 넘겨라 가 워낙 확실한 운영이라 딱히 할 말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글은 현장 기준으로 시험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맞힐 문제를 맞히게 해주는 글은 아닙니다. 최소한 자기 실력대로, 혹은 운이 좋으면 실력보다 한 문제 더 맞히기를 바라는 칼럼입니다. 또한, 수험생 본인이 일정 실력은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작성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수업 때 필기하며 설명했던 파일도 올려놓을 테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파일 링크 : <https://orbi.kr/00063142006>)

좀 간략하게 적기는 했는데 글이랑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듯합니다.

국어는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70분 내 풀이를 목표로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시험장에서는 마지막 지문을 컴싸로라도 풀어야 합니다.

"버릴 건 버리자."가 실전에서 시험 운영의 핵심인 것은 당연한데, 대부분은 이러한 '버릴 문제'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서 3점 보기는 그냥 다 버린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독서를 예로 들면, 요즘은 보기 3점이 쉽고 내용 일치에서 추론의 느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기 3점은 다 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면, 쉬운 보기는 찍었기 때문에 틀리고, 어려운 내용일치는 실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마지막 부분에 써보겠습니다.

시험 운영 전략의 가장 큰 틀은, 평소 내 실력에 맞추어 문제당 평균 시간을 배분하고, 각 파트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제 통합 지문에 13분을 쓰는 편이면 목표 시간을 12분 정도로 하고, 마지노선을 15분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이럴 경우 12분 ~ 15분 구간에서는 늘 하나 남은 문제를 고민할 실력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웬만하면 이 구간에서는 킬러 문제(보기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조차도 딱 15분이 되면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왜 평소 실력이 13분인데, 12분으로 잡는가? 하면,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평소보다 글을 빨리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럴 거라면, 시간 분배를 약간 타이트하게 한 대신 "여유가 있으니까 지문 읽는 속도 자체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를 일반적인 1~2등급 학생이라 가정하고 목표 시간과 마지노선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언제나 문학 독서 순입니다. (원래 저는 언제나 독서 문학 순으로 푸는 편입니다.)

순서나 시간은 자신의 평소 실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큰 틀은, 독서는 지문 주제별로 시간 분배 / 언제나 문학은 지문당 +1분을 기준으로 잡기인데, 이건 보다 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언어 35~36

처음 받았을 때 가장 안 풀리는 파트입니다. 긴장한 상태이기도 하고, 지문형 문법이 까다롭기도 하죠. 처음 봤을 때 2개 중에 1개는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헛갈려도 잠시 봐둘 필요는 있습니다.** 지문 내용 자체도 기억에 남거니와, 요즘은 지문형 문법 문제들도 개념을 제대로 익힌 사람들에게는 금방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후술할 37~39번 문제에 비해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답을 그나마 도출해낼 근거가 있는 파트입니다.

목표 시간 : 3

마지노 : 5

헛갈리는 문제 : 1

이렇게 잡는다면 3분 01초부터 4분 59초 사이의 시간 동안은 헛갈리는 그 문제 하나를 보고 있어야 하겠죠.

언어 37, 38, 39

여기는 언매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믿음과 그에 상응하는 실력이 있다면 처음에 살짝 머리가 열려 있어도 풀리는 게 맞습니다. 마인드는 항상, "개념이 완벽한데 답이 안 보일 리가 없다."여야 합니다. 저는 3문제에 2분 내로 푸는데, 평균적으로는 문제당 1분 잡고 푼다고 생각하고 마지노를 4분으로 잡으면 될 거 같네요. 어려운 문제에 30초 정도 더 투자할 여유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문형 세트에 비해 이 파트는 안 풀리면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의 문법은 헛갈리면 그냥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붙잡고 있어도 풀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1~2등급의 경우 여기 세 문제는 안 틀리고 곧잘 푸는 편입니다.

목표 시간 : 3

마지노 : 4

매체 40~43 (40~42), 44~45 (43~45)

주로 4문항 2문항으로 구성될 텐데, 3문항 3문항일 수 있습니다. 4문항 2문항일 때가 많으니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 (오히려 3문항 3문항이면 딱히 설명할 게 없어서..)

말씀드렸듯 항상 기본 마인드는 문제당 +1분입니다. 4문항짜리 지문에 5분, 2문항짜리 지문에 3분을 배분하되, 오히려 2문항짜리 지문에 조금 여유를 주는 게 좋습니다. 4분을 마지노로 잡으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4문항 지문은 개인적으로 6분내로 풀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목표 : 8 (5+3)

마지노 : 10 (6+4)

운영이 망했을 때를 가정하면 총 5 + 4 + 6 + 4 언매 19분입니다. 그리고 지문형 문제가 하나 헛갈리는 상태일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만약 내가 저 위에 말한 마지노선을 터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언매를 다시 볼 이유는 없다는 점입니다. (웬만하면 매체 4문항 파트에 6분 쓰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 시간 여유가 생길 만합니다.) 앞으로 이걸 재투자를 할지 말지 정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언매에서는 재투자보다는 그 시간을 그대로 갖고 공통과목으로 진입하는 게 낫습니다.

언매는 처음에 보나 마지막에 보나 못 풀 사람은 못 풀고 풀 사람은 푸는 파트지만, 시간을 비축해둬야 독서 문학에서 무너졌을 때 커버할 여력이 생깁니다.

이제 문학을 볼 건데, 문학도 그냥 하나의 케이스를 가정하여
현대 소설, 고전시+고전시+수필, 고전 소설, 현대시+현대시와 같은 세트가 4+5+5+4문
제 정도로 구성된다고 하겠습니다. (문제 수는 4+6+4+3일 수 있음)

당연히 배치가 바뀔 수 있고, 시+소설+수필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략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현대소설 18~21

보통 1~2등급 기준으로 고전 시가, 고전 소설은 잘 틀리지도,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
런데 꼭 현대소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소설 파트를 풀 때는 변수가 가
장 많으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에서 문학도 문제당 +1분이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 이론상 문학이 21분 내로 마무
리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큰 틀로 잡아놓고 시간을 추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대 소설이 쉽게 나오면 또 무난무난하게 잘 읽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
시간과 마지노 사이의 간격을 조금 넓게 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문제 +1분을 목표로
하고, 마지노는 거기서 +1분을 더한다고 보면 되는데, 현대 소설은 약간 더 여유를
두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고전 소설이 약하다면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목표 : 5

마지노 : 7

헛갈리는 문제 : ?? (대체로 시간만 부족한 거긴 할 겁니다.)

아마 1~2등급 학생들이 현대 소설 4문제에 7분을 쓸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을 거
라서 시험이 쉽게 나와주면 시간이 남을 겁니다. 일단 킵해두고 가는 게 좋겠죠. 이
잔여 시간은 문학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어떻게 쓸지 결정해도 좋습니다.

갈래복합 22~26 (22~27)

이 부분은 아래에 후술할 독서 파트의 주제 통합 지문처럼,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구
간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있어도 변수는 없도록** 해두는 게 중요하겠죠. 문제당
+1분이지만, 5문제를 두고 웬만하면 6분에 푼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나쯤 헛갈리는 문제가 나올 만합니다. 그게 여러 지문을 동시에
 물어봐서든, 고난도 보기 문제가 포진해 있기 때문이든 말이죠.

그래서 **목표 시간에 좀 여유를 주되, 마지노선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22수능 문학 23번과 같은 고난도 문항이 나올지언정, **어차피 1문제를 빼고 나면 다들 7분 안에도 풀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맞힐 만한 건 다 맞히자."에 있습니다.

목표 시간 : 8

마지노 : 9

헛갈리는 문제 : 1

27~30 고전 소설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1~2등급 학생들에게는 거의 변수가 없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항상, "어차피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올 거고, 시간이 초과되어도 나중에 다시 보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낫다는 쪽입니다.** +1분을 마지노로 잡고 가도, 어차피 **이쪽 파트는 나중에 봐도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고전 소설이 더 약한 사람들은 시간 분배를 바꿔야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고전 소설처럼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파트가 있을까 싶네요. 만약 여기서 요령이 부족해서 마지노선을 터치하고도 남는 문제가 있다면, 잔여 시간을 쓸 때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일단 시간만 투자하면 답은 거의 바로 보이는 편이니..

목표 시간 : 4

마지노 : 5

31~34 현대시

두 작품이 묶여서 나오는데, 의외로 평가원은 여기서 힘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해서는 익숙한 주제거나, 아니면 연계거나 이런 식이죠. 설령 어렵게 나오더라도 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1~2등급 학생들은 현대시에서 그렇게 고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운영을 망치는 주범은 대체로 현대소설과 갈래복합이죠.

목표 : 4

마지노 : 5

여기서는 헛갈리는 문제도 잘 나오지 않거니와, 4문제에 5분을 쓰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역시 **킵해둘 수 있을 겁니다.**

언매의 경우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과목을 위해 비축해두라고 했는데, 문학은 개인 선호에 따라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투자를 한다면, 문학 한 바퀴 이후 독서로 가기 전에 헛갈리는 문제를 곧바로 보게 되겠죠. 이미 한 번 돌고 와서 다시 보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축해둔다면, 전체를 다 돌고 나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언매 문학에서 헛갈리는 게 있으면 끝까지 비축해두고 마지막에 보는 편인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끝에 끝까지 넘겨야 하는 건 역시 언매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어차피 모르는 문제라면 답이 보일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독서로 가보겠습니다.

독서론 1~3

여유롭게 가져가도 좋습니다. 안 보인다고 다시 돌아오기도 애매한 난이도기 때문에 3분을 잡되 마지노를 5분까지 줘도 무방합니다. 마치 언매 장지문이 스타팅 포인트라서 여유를 주는 것처럼요. 쉬운 지문이라도 결국 보기 문제가 그나마 어려울 텐데, 개인적으로는 발목이 잡혀도 보는 게 낫다는 쪽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시간이 초과되면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목표 : 3

마지노 : 5

주제 통합 4~9

어떤 지문이 나오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10분 잡고 푸는 편입니다. 이 건 사람마다 다른데, 조금 느리다 하는 학생들은 13분을 배분하고 마지노를 15분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어려워도 6문제 중 5문제가 헛갈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건 안타깝지만 실력 부족한 거라서 시간 운영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2분 13분 정도 잡고 푸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하나 정도 헛갈리는 편이죠. 그런데 이 파트의 복병은 6, 7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수능도 그렇고 <보기>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는 대신 내용 일치나 소재 이해 파트에서 추론을 좀 강화하는 기조죠.

목표 : 13

마지노 : 15

헛갈리는 문제 : 1

13분 01초 ~ 14분 59초 구간에는 헛갈리는 문제 고민하기. 이제는 익숙할 겁니다.

사회(법/경제) 10~13

설명하기에 앞서, 지문 구성은 그냥 제가 설정한 것이라고 알려드려야 할 듯합니다. 올해 6월에 주제통합에 경제+경제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파본 검사 때 전략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니,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3번은 사회 지문으로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문학에서 현대 소설이 사고 다발 구간이었다면, 독서는 이 파트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 지문은 어차피 하나 빼고 다 맞거나 아니면 안 틀리는 쪽일 거고, 기술 지문은 원래 어렵다고 생각해서 크게 사고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꼭 10~13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생각하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0~13번과 14~17번에서는 확정적으로 헛갈리는, 혹은 시간이 많이 드는 보기 문제가 출제되죠

목표 : 8

마지노 10 (11이어도 괜찮음. 사고 방지)

헛갈리는 문제 : 1

역시 8분 01초부터 9분 59초 구간에는 대체로 아무리 봐도 잘 안 풀리는 <보기> 문제를 보고 있을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마지노를 터치하면 일단 넘어가야 합니다.

기술(생명/기술) 14~17

보통 기술과 생명과학을 엮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의외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단어 문제는 그냥 푸는 거고, <보기>는 어차피 어렵고, 내용 일치 문제도 나올 거고 등등.. 변수가 거의 없는 파트입니다.

변수가 없어서 그런지 목표 시간과 마지노선 사이 구간에서 대부분 마지막 문제를 풀게 되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결국 풀 사람은 풀고 못 풀 사람은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착에 사로잡혀 마지노를 절대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 : 8
마지노 : 10
헛갈리는 문제 : 1

마찬가지로 8분 01초부터 9분 59초 구간에는 1문제를 붙잡고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언매는 15~17분, 문학은 20~26분, 독서 32~40분입니다. 독서에서 마지노를 터치하지 않으면 (보기 문제가 안 풀릴 때 빨리 넘겨주면) 35분 정도겠죠.

이게 전체적인 틀이긴 한데 드릴 말씀이 좀 남았고,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답식으로 해보겠습니다.

**Q. 나는 아날로그 시계를 시험 상황에서 체크할 능력이 안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평소에 저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각 파트가 끝날 때만 시계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ex. 언매 8분 걸렸네 -> 시험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만약 당장 급한데 잘 안 보이는 편이라면 남은 3일 간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평소에' 이렇게 연습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큰 틀조차 떠올리지 못해서, 망해도 한두 문제만 망치면 될 텐데 시험 전체를 망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Q. 독서에서 주제 통합에 대한 설명은 납득된다.
그런데 사회와 기술 지문을 8~10분 안에 풀라니, 이론만 완벽한 것이 아닌가?**

1~2등급을 기준으로, 법/경제 지문이나 기술 지문을 저 시간 안에 풀기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모든 문제를 맞히려고 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마 보기 1문제 말고는 8~10분 안쪽으로 대부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1문제는 목표 시간 ~ 마지노 구간에 계속 고민해보고 만약 안 풀린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내 능력 밖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위의 대답은 문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뭐? 소설을 6분 안에 다 풀라고?" 정확하게 다 푸는 건 힘든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보기 문제를 제외한 서술상 특징, 내용 일치, 소재 이해 문제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저대로 운영했을 때 마지막에는 결국 남아 있는 '헛갈리는 문제'들이 핵심일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건 선지 판단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학이든 독서든 특정 문제가 만약 내가 아예 버린 게 아니라면, 즉 헛갈리는 거라면 이는 지문의 내용에서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문에서 단서를 찾으면 8 : 2 내지는 9 : 1로 기울어질 두 선지가, 단지 근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5 : 5로 보이는 거죠.

당연히 잔여 시간 동안 고민해봐야 하겠지만, 결정하지 못한 채 시험 종료가 다가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6 : 4 정도라도 차이가 있다면, 일단 그 선지를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5 : 5라면, 이전까지 덜 나왔던 거 같은 선지 번호로라도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사실 덜 나왔다고 답이 아니라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여기서 핵심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일단 먼저 체크는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넘기다 보면 아예 마킹도 안 하고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헛갈리는 문제' 중 어떤 문제에 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렇게 두 선지만 남아 저울질을 해야 한다면, 분명 나는 어떤 특정 선지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목표 시간 ~ 마지노 구간에서도 "1번 3번은 무조건 아니긴 한데 2, 4, 5번은 아예 판단이 안 되는데?" 같은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린다는 생각으로, 만약 시간이 없다면 가차없이 찍어야 합니다. 2개가 남아 있을 때는 그나마 저울질이 통하지만, 3개가 헛갈린다는 건 지문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잔여 시간 동안에도 '헛갈리는 문제' 중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죽일 것인지(포기할 것인지) 냉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들 6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수능 국어 한 문제 더 맞힐 수도 있을 글

-상식을 뒤집는 선지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2.05.20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국어의 모든 파트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점수 못 올리면 어쩔 건데?"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가능성을 논하는 듯한 어투로 썼지만, 실제로 이걸 알려주고 나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만큼 확신을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물론 98점이 100점 되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1컷 이하의 학생 분들께는 나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체화 시간이 최대한 짧은 주제**를 고른 것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읽자마자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체화가 가능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6모 점수를 단기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것도 좋지만, 사실 이 내용은 수능 날까지 가져가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일 듯합니다. 좀 길지만,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제시된다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들은 이를 골라 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틀리고 나면 나중에 채점하고 나서도 "아니 뭐 이런 걸 틀렸지? 자꾸 실수해서 짜증 나네." 같은 생각만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실수가 아닙니다.

수업에서 가르칠 때 상식을 비트는(?) 선지/진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단계별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제 주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한 것이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난이도 : 쉬움)

이 정도 문제는 오히려 쉬워서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지조차도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모두 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헌법에서도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제시된 주권자는 말하자면 '대표로 설정된 한 명'**이고,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럼 저 한 명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지?" 같은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주목해야겠죠.

문제를 보면

10.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 ②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 ③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 ④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 ⑤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3번 선지를 보고, 얼핏 봤을 때 이상함을 못 느낀 경우가 꽤 있었을 듯합니다. 이 선지가 바로 주권재민을 풀어 써놓은 것이니 너무 자연스럽죠. 하지만 본문에 나온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주권자는 '대표 한 명'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6번 (난이도 : 중간)

이것도 그닥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지문이 모든 쉬워 보일 만한 요소를 다 짚어누른 쪽이라고 봐야죠. 그래도 틀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번 보겠습니다.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직관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직관은 원래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 "감각적으로 직관이 들어와야 해" 같은 말에서 쓰이는 거 아니었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니까요. 즉 본문에 나온 직관의 정의는 상식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직관은 "감"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면, 지문에서 제시한 직관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직관하러 갔다 왔음."에서 쓰이는, 말 그대로 직. 관인 거죠. 그래서 지문을 읽고 나만의 말로 이해할 때도 직관 = 있는 그대로 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선지를 보면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이 직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니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게 표상인지 사유인지 실전에서 헷갈렸다고 한들, 직관 =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했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 새로운 창작 기획과 같이 매칭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걸 못 짚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창작이란 영감을 얻으면 느낌이 팍 꽃혀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 예술은 직관의 영역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술은 직관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말에 활용된 직관의 뜻은, 말씀드렸듯 지문에서 준 정의가 아닙니다. 상식을 뒤집는다는 게 뭘지 점점 이해되지 않나요?

이런 상식을 뒤집는 내용은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독서에서 더욱 그런데, 일단 그걸 보기 전에 문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체로 비문학에 비해 쉽지만 아마 유의미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난이도 : 쉬움)

내용 일치 문제라 당연히 쉬운 문제입니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제시된 부분만 대충 보더라도, 여씨는 상당한 빌런으로 설정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대목을 읽으면서 한 생각은, "아니 애는 뭐 악인이 부끄러워할 줄도 아나?"였습니다. 빌런이라면 적반하장의 면모를 보여줄 만도 한데 말이죠. 역시 상식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선지로 가보니 바로 정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경우라면, 시간 단축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면, 즉 **상식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게 낸다는 걸 미리 알고 있다면, 실전적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난이도 : 중간)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어차피 이 시기 정도면 작년 기출은 풀어보셨을 테지만 줄거리를 대략 알려드리면, 주인공은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산책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책을 나온 이후로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비로소 맛보게 되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저 통증은 '자유에 대한 갈망' 정도로 보는 게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지문을 살펴보면 '공리적인', '변질' 이런 데 볼드체가 들어가 있죠. 줄곧 칼럼으로 써왔던 <보기> 문제에 대한 관점을 떠올리고 이 글과 연결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리적인 치료가 변질된 걸 부정적인 것처럼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짚을 만했습니다.

"변질은 상식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자유를 갈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긍정 쪽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대놓고 낚시를 하고 있죠.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나오는 걸 안다면, 이 정도는 가볍게 비웃어주면서(?) 나는 낚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 정답 선지라고 체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연이고, 사후적일까요? 제가 썼던 글을 읽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사후적인 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나온다! 라는 말은 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나올 만한데?**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21번 (난이도 : 쉬움)

바로 앞 문제에 비해 이걸 학생들이 되게 잘 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3수능 문학이 쉬웠던 만큼 틀린 학생도 많지 않을 거 같은데, 바로 보겠습니다.

옥영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최척을 보았다. **들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양국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

사진에 제시된 부분은 이별했던 두 인물이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엄청난 기쁨을 느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피눈물과 관련된 것에 볼드체가 들어가 있으니, "보통 기쁘다고 피눈물까지 흘리나? 피눈물은 상식적으로 적개심, 증오, 복수 뭐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니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선지를 보면

- ⑤ 최척과 옥영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군.**

이 문제의 경우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에 두 내용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뒤집는 내용을 이렇게 널 만하다는 걸 미리 짚으면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주인공은 장인/장모의 생사를 모른다는 문제를 확인하게 되나 그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으니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겠네요.

문학에서도 이렇게 상식을 뒤집는 선지를 미리 짐작해보는 훈련은 유용합니다. 첫 번째 내용 일치 문제에 비해 심화된 내용이긴 하지만, **의식만 하고 있으면 바로 체화도** 가능할 겁니다.

이제 고난도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위의 내용은 중상위권 이하 학생 분들께만 유용하고 상위권에게는 당연한 얘기였을 수 있으나, 이제부터는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에게도 유의미할** 듯합니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걸 진득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17번 (난이도 : 최상)

이다음 문제로 다룰 2020학년도 6월 세포 내 공생설 지문의 문제와 더불어 10%대 정답률이 찍혔던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상식을 뒤집는 진술이 나와 있었고, 오히려 맞힌 학생 입장에서는 쉬운데 정답률이 왜 이러냐는 말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들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런데 순서쌍의 값에 상용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그래프'라 하자.

지문 분석 칼럼이 아니니 간단하게만 이해시켜드리고 넘어가면, L-그래프라는 건 결국 "직선에 올 수 없는, 곡선에 있어야 할 것을 직선으로 편입시키는 그래프"입니다. 일단 지문을 보면 증가율이 다를 경우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학이지만 쉬운 내용이니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선 $y = 2x$ 는 x 가 1 증가할 때 y 가 2 증가합니다. y 의 증가량 / x 의 증가량 =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아주 쉬운 수학 내용이니, $2/1$ 라서 기울기는 2입니다. 이 직선에서 x 가 1 증가하던 게 두 배가 되면, y 도 2 증가하던 게 두 배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2/1$ 이나 $4/2$ 나 기울기는 똑같이 2니까요. 직선에서는 항상 일정하지 않나요? x 가 세 배 증가해도, y 도 똑같이 세 배 증가하여 $6/3 = 2$ 로 역시나 기울기는 2입니다. **다시 말해 증가율이 같은 것들끼리 모으면 한 직선에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증가율이 같으면 직선 분포인데, 만약 각각 1에서 출발했는데 x 는 2배씩 커지고 y 는 3배씩 커지면 어떤가요? (1,1) (2,3) (4, 9) (8, 27)... 과 같이 가겠죠. 이걸 직선일 수가 없습니다. **두 증가량이 계속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직선이 되려면 예를 들어 한 쪽이 1씩 증가할 때마다 다른 하나는 계속 2씩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곡선 분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L-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말을 읽고 "여기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증가율/증가율인가?"라는 의심을 할 만하지만, 실전에서는 어째서?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기에 조금 더 읽어봐야 합니다.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이 내용을 보면 확실히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증가율/증가율이 맞네요. 여기서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등장한 거죠. "아니 직선의 기울기는 증가량/증가량이잖아. 근데 뭘 증가율/증가율이야."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연히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그스케일이 뭔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걸 상식을 뒤집어도 너무 뒤집는 내용** 아닌가요?

문제를 보면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 ①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 합은 더 작겠군.
- ③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렇게 가져왔는데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a: 게딱지 폭, b: 큰 집게발의 길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 2/3쯤으로 해볼까요?

그럼 a의 증가율은 3이고 b의 증가율은 2입니다. 즉, a는 3배씩 증가하고 b는 2배씩 증가합니다. 똑같이 1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1, 1) (3, 2) (9, 4) (27, 8)...처럼 되어버리죠. 그럼 증가'율'이 3 : 2로 일정하게 비례하는 것이지 증가'량', 즉 각각의 값 자체가 일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선지를 찾는 문제였으니 정답이 되겠네요.

그런데 제 설명을 보고 나니, "아니,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으면 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건가? 둘 다 증가하는 것 자체도 비례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사진을 앞쪽에 너무 많이 쓸 수 없어서 여기에서 설명하지만, 역시 상식을 뒤집는 내용 때문에 저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에는 없지만 글을 읽다 보면 "지문에서의 비례 = 일정하게 비례구나!"라는 걸 짚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상식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고, 증가할 때 같이 증가, 감소할 때 같이 감소 이렇게만 되어도 상식적으로는 비례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는 분명 지문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이렇게 제시되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멘탈이 완전히 갈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많이들 3번을 골랐지만, 3번은 보기에서 L-그래프를 썼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걸러지는 선지였습니다.

위로 올려보시면 선지 사진과 보기 내용이 같이 보이도록 잘라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내용은 이보다 간단하지만,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이것보다도 높았다고 느꼈던 문제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41번 (난이도 : 최상+)

이 지문의 주제는 세포 내 공생설인데, 말 그대로 공생 관계가 세포 안에서도 일어났을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일단은 넘어가고, 제시된 부분을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

빨간색 부분을 먼저 보면

유기적 상호작용이 정확하게 뭔지 못 짚어도, **어쨌거나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공생 관계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에 제시되는 세포 소기관 관계 같은 거야 당연히 떨어져 살 수 없다고 해도 납득이 됩니다. 소기관은 안에 포함되는 관계니까요. 그런데 공생 관계 중에 떨어져 살 수 없는 경우도 있단니, 이건 진짜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 아닌가요?

말하자면 악어가 죽을 때 악어새도 같이 죽는다는 소리인데, 당연히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특이하게 이런 게 가능한 건가 보다."라는 생각과 함께, 상식이 뒤집힌 것이니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죠.

참고로 악어새와 관련하여 알려진 상리 공생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둘은 공생 관계가 아닌 게 밝혀졌고 저도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 파란색 내용을 나만의 말로 정리해본다면 "세포 소기관 관계는 대장이 복제할 때 부하도 같이 복제가 되는 구조네." 정도가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첫 번째 복어 케이스는 손쉽게 공생 관계인 걸 짚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메바 케이스를 보니

대장 따라 증식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증식 가능하다고 제시했으니 이건 독자적인 거고, 그러니 공생 관계임을 알겠는데, 그럼 "죽으면 같이 죽는다? 이걸 세포 소기관 관계 아니야?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공생이랑 세포 소기관이랑 동시에 존재한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상식을 뒤집는 내용을 기억해줬다면,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건 공생이든 세포 소기관이든 가능한 거잖아."라고 생각할 겁니다.

(살짝 홍보를 하면 저희 모의고사에도 이 논리가 쓰인 부분이 시즌1 2회에 등장합니다. 마치 두 케이스 둘 다에 해당하는 것처럼 써놓았지만, 사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 근거가 될 수 없는 식으로 말이죠.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건 공생이든 세포 소기관이든 다 가능하다는 점을 짚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입니다.)

어쨌거나 문제를 보면

- 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이겠군.

사실 이걸 늘 강조하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선지'가 나온 문제입니다. 1번과 5번은 정반대에 서 있는 선지니까요. 이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찾아야 했으니 정답이 1번인 게 분명했지만, 대다수가 5번을 골랐다는 건 그만큼 난도 높은 문제였다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 7가지 예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단일 주제를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아 써본 것은 처음이네요. 스스로 가장 애정하는 제 칼럼은 비문학 독법에 관한 글이지만, 그런 건 강의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단일 주제지만 이전 칼럼 전체를 통틀어도

이만큼 중요한 글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걸 제대로 체화한 학생은 어쩌면 백분위 앞 자리가 바뀔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백분위 100에서 90대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의고사에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 저런 부분이 제시되면 문제화될 수밖에 없어서 잘 기억해두시면 쓸모가 있을 듯합니다.

정말 긴 글이었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문학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글

-갈래별로 주목해야 할 부분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3.02.22

지금 시기가 아니라면 다들 어느 수험생들처럼 일률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 같아서 글을 간단하게 써보려 합니다. 즉, 갈래별 포인트 중에서도 지금 생각해볼 것들입니다. 기출을 바탕으로 누구나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시간이 비교적 여유로울 때 이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잡고 공부하기 전에 방향성 챙기기' 정도가 될 듯합니다.

- 고전 시가

고전 시가는 두 가지 학습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 1. 고전 어휘 2. 고전 시가의 주제
입니다.

어휘랑 주제는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거 같으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전 시가에서 등장하는 고전 어휘를 공부하라고 하면 내신식으로 모든 구절의 의미를 다 파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쓰겠지만 이러한 내신식 문학 공부는 분명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문학 사용설명서 활용법 편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 글에서 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복잡한 사자성어, 한자로 이루어진 긴 구절 등은 사실, 문제 풀이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파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부분 정확히 모르고도 잘 풀립니다. 우리는 수능 문학 문제를 푸는 것이지 아버지 세대의 고문(古文)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시기에는 **고전 시가에서 주로 다루는 기본 어휘(ex. 듣다, 어리다, ~르세라, 동다/좋다 ...)**를 꼼꼼하게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기출 분석을 할 때 하나씩 알아가겠지만, 지금은 고전 어휘 정리본을 들고 생각날 때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계속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이런 무식한(?) 공부하는 지금이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아무래도 점점 바빠지다 보니 기본적인 공부를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필수 고전 어휘 정리본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고
제 인생을 바꿔주었던 책 <개념의 나비효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정리본 2~3개 프린트 + 개념의 나비효과 어휘 정리본을 같이 보는 건데, 읽다 보면 겹치는 게 많아서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겹쳐서 읽게 되면 빈틈을 대부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겹쳐서 읽는다는 부분은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에서도 배경 지식을 위한 공부법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고전 시가의 주제 파악 역시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얻어지겠지만, 지금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문제 풀이보다는 '그냥 읽기'입니다.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맞혀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기출에 나온 작품들을 그냥 빠르게 읽어 보세요. 예를 들어,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며 5개년 기출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그냥 고전 시가에서 뭐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읽으면 됩니다.

읽다 보면 매번 나오는 주제들이 있죠. 결국 문제 풀이에 매몰되지 않고 가볍게 읽어 내렸던 것들이 문학 전반에 대한 내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면

[완상을 위한 자연,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의 갈등, 임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 이별에 대한 슬픔, 세태 비판, 임금/부모에 대한 공경] 등이 있겠네요.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나중에 가면 딱히 애쓰지 않고도 저런 주제들이 머리 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계속 작품을 접하다 보면 주목해야 할 포인트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완상을 위한 자연: 자연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의 갈등 : 속세를 그리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강호에서의 빈궁함, 임금에 대한 순수 그리움, 혼란한 세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등)

이별에 대한 슬픔 : 이별을 대하는 자세가 수동적인지 적극적인지, 이별을 받아들이는지 극복하려 하는지, 극복하려 한다면 어떤 방식인지

부정적 세태에 대한 비판 : 부정적인 세태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전란 이후 백성의 곤궁함을 외면하는 관리들 등),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독려하는지 아니면 그냥 은둔해버리는지

이외에도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런 느낌으로 '고전 시가 그 자체의 흐름'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결국 기출 분석으로 이어지는 거라..

- 고전 산문(소설)

//파편화된 요소 분석(나눠서 분석하기)

학생들은 고전 산문을 고전 시가보다도 더 어렵게 느낍니다. 제가 오랜 시간 생각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었던 해결책 중 하나는, 제대로 된 공부 (기출 분석) 전에 '파편화된 요소 분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전 산문이 어려운 이유는, **같은 사람을 자주 다르게 부르고, 하나의 장소조차 이름이 난해한데 계속해서 이동이 일어나고, '차설'이니 뭐니 하면서 장면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등이 있을 겁니다.

파편화된 요소 분석이란

인물이면 인물, 장소면 장소, 시간의 흐름이면 흐름, 이렇게 단일 요소에만 주목해서 작품을 읽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시점과 시간의 흐름조차 난해하다고 느끼겠지만,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동시에' 됩니다. 그러나 초심자의 입장에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고전 산문을 처음 읽을 때는 인물의 관계, 동일 인물에 대한 명칭의 변화 등에만 주목해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장소의 변화가 주는 영향 등에만 주목해서 읽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걸 신경 쓰면서 읽는 거죠.**

소설은 전체 부분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인물에만 주목한다고 나머지 부분을 아예 안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만 주목할 때도, 장소에만 주목할 때도 자연스럽게 전체 흐름을 익히게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면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요소 분석' 방법을 활용하다 보면 고전 산문에서 주목해야 할 게 뭘지 따로 떠올리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애초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쪼개서 분석해왔기 때문이죠.**

그에 더해 여러 작품을 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결국 고전 산문도 나올 이야기만 나오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바로 고전 산문을 완전히 정복한 시점일 겁니다. 수능에서는 춘향전이 뭘지, 사씨남정기가 뭘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고전 산문'이라는 큰 틀에 맞춰서 독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뿐입니다.

- 현대 시, 현대 소설

// 고전 시가, 고전 산문의 흐름을 그대로

사실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현대 시와 현대 소설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별다른 학습 포인트라고 할 게 없는데, 아무래도 고전 파트에서 비해서 비정형화된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제가 썼던 칼럼에서 "**문학 <보기>에 나올 내용은 정해져 있다.**"라고 쓴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평가원이 제시하는 관점은 대체로 고정된 편**입니다.

개별 시, 소설별로 따로 정리하기보다 <보기>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관점을 바탕으로 물어보는 걸 파악할 수는 있어도 고전 파트만큼 다 쪼개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전보다는 훨씬 더 '한글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관점을 챙기는 공부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차피 기출 분석 때 하게 될 내용이라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 극 수필

// 장면별 연결 지점 파악(유기성 파악), 시나리오 용어 이해

수필은 주로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쓴 글이 많고, 그래서 사실 "너는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뭔데?"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기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필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극 장르의 경우, 무조건 출제되지는 않지만 나오기만 하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극의 베이스는 시나리오 용어 이해, 장면(Scene | Ex. #81. ~~~)별 유기성 파악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굉장히 간단하는데, 시나리오의 경우 사실 낯설다는 느낌만 떨치면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극이 다른 파트에 비해 훨씬 쉽고 재밌다고 느끼는데, 아마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정 파트의 낯선 느낌을 지워내고 나면 사실 극 장르에서 묻는 것은 "A이면 A인가? B를 위해서는 C가 필요한데 C가 없으면 B를 이룰 수 없는가?"와 같이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한 것들 뿐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굳이 뭘 얻어야겠다고 느끼기보다는 정말 하나의 영화, 드라마를 보듯이 재미있게 읽기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재미를 들이지 않으면.. 어차피 나중에는 다 재미없기 때문에 결국 낯설다는 느낌을 극복하지 못 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의 공부나 그렇다는 것이지 기출 분석을 할 때도 재미로만 보면 정말 재미있는 성적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험담입니다. 어찌 됐든 극 수필의 난이도가 최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 갈래 복합

// 왜 하필 이 작품들이 묶여서 나왔는가?

갈래 복합 작품들 역시 푸는 데 집중하기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출제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갈래 복합으로 묶여서 출제 되는 작품들은 언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표현상 특징을 유사하게 활용했어도 묶일 수 있고, 주제가 유사하거나 문학사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같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 이유 없이 두세 개를 묶어서 던져 놓은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래 복합을 마주하고 나서는 언제나, **왜 이 작품들이 같이 나와야만 했는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학에서의 갈래 복합이나, 독서에서의 주제 통합 지문을 보고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출제자의 시각에 더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개별 작품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쓰다 보니 고전 파트에 조금 몰려 있는 느낌이긴 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걸 가볍게 해두면 앞으로 국어를 공부할 때 베이스를 잘 다져놓고 갈 수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

문학에서 낡이지 않는 방법, 선지 거르는 법

-사고의 범주를 조절하기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3.04.17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실전적인 칼럼을 하나 써봤습니다.

수능 문학을 놓고 넓게 봤을 때는 오답 거르는 법이자, 헛갈릴 때 (또는 평가원에게 낡이려고 할 때) 떠올리면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간중간에 일반적인 학생들의 풀이와 비교하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A 대신 B가 제시되면 혼란에 빠진다.

지난 몇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이 부분을 짚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A 대신 B를 제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수능 비문학 지문과 문학 선지 판단의 기초 자체가 웬만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항 대립적 서술'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부정을 나누어 판단하라는 강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항 대립적' 분석에 매료되어서 선지 판단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죠.

이건 강의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간편한 쪽으로 사고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긍정/부정 말고도 다른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참 좋겠지만..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긍정과 부정을 대놓고 둘로 쪼개버리는 가장 명시적인 논리를 떠올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큰 틀에서의 내용 일치'조차도 많은 학생이 짚어내기 어려워합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A 대신 ~A(not A)를 제시했을 때는 수월하게 걸러내지만 A 대신 B를 제시하면 그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사고는, "A는 당연히 A인데 그걸 B라고 설명해? 틀린 설명이네."가 되겠네요.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실 테니,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2022학년도 수능 23번의 4번 선지입니다.

나중에 보기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칼럼을 쓸 때 다시 쓰겠지만, 결국 이 문제에서 우리의 목표는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과 연관된 단락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이라는 것은 맞을 가능성이 높죠. 부호가 근처에 있다고 했으니.. 그리고 '적막함'이라는 정서를 찾을 수 있는지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제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본문을 보았을 때 특별히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이라는 파트의 앞뒤에서 특별히 낚시하는 서술이 되어 있지 않으니 이걸 맞네요. 그런데 적막함이라는 정서는?

귀함 - 천함의 대비되는 짝을 분명히 짝이었다면 귀한 것은 보살핌 받는 존재이고, 천한 것은 버려지는 존재라고 파악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 맥락에서는 귀한 존재에게 '안정감 내지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지, '적막함'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정감 vs. 적막함? 애네도 결국 긍정과 부정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안정감과 적막함만 놓고 봤을 때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 문제는 2022 수능 문학 중에서도 고난도로 꼽힙니다. 즉, 앞서 말했던 'A 대신 B'가 제시되었을 때 판단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저 구절을 두고 '안정감을 줄 수 없음을 드러내는군.'이라는 서술이 있었다면, 정답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나왔다면 앞서 말한 대로 A 대신 ~A를 제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안정감 느낀다는 얘기인데 뭘 안정감을 못 느껴."라는 사고 과정을 통해 쉽게 정답을 낼 만합니다.

그런데 A와 아예 관련도 없는 B를 쥐 버리니 판단의 기준이 무너지고 본인도 모르게 사고 과정에서 비약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보기 칼럼을 쓰면서 '평가원 낚시 코드'라는 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명칭이야 뭐 교재 대부분이 평가원 코드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낚시'라는 말만 넣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포인트는 "평가원이 이렇게 낚시를 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아니고. "평가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다."였습니다. 즉 실제로 그런 의도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면, 혼자 있을 테니 쓸쓸하고 외로울 수 있겠다. 장막에 가려진 곳은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읽었다면 적절하게 보이는 선지입니다. 다시 말해 출제자는 위와 같이 생각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평가원 낚시 코드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장막 안'이 외부와 분리된 공간인 것은 확실히 맞지만, 저 단락에서 묻고 싶은 것은 외로움을 느끼냐 안 느끼냐가 아니었죠. 이 단락의 핵심은 귀하면 편하게 지내고, 천하면 버려진다(=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으로 잡은 포인트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이 경우에는 사실 A와 B가 서로 대비되는 짝을 이루기 때문에 긍정/부정만 판단하면 됐음에도, 그러한 대립이 A와 ~A처럼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사고가 아예 다른 범주로 옮겨가는 바람에 답을 쉽게 고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문제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 ⑤ 최척과 옥영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군.**

2023학년도 수능 국어 21번의 5번 선지입니다. 23학년도 수능 문학이 이전에 비해 다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부분 쉽게 풀었을 겁니다.

옥영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 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최척을 보았다. 들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양국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

너무 간단하죠. 본문을 참고할 때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 두 가지 모두 재회의 기쁨이 극대화되어 표출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선지를 쭉 훑어내리고, 5번이 정답일 거 같아서 5번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 정답을 골랐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함부로 활용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극단적 시간 단축 - 문학편' 칼럼을 참고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작품의 내용을 몰라도, 눈물을 흘리다가 피가 되었다는 것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물론 저 상황을 넓게 보면 (보통 방식대로 보면), 제가 종종 설명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공격하는 오답 논리'를 활용해 **"피눈물을 흘린다는 건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평가원 낚시 코드가 되겠네요. 일반적인 생각을 공격한다는 건 다음에 다시 자세히 쓰겠습니다.

정답 논리에서 봤듯,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하고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선지입니다.

그러나 그 논리를 찾기 이전에도, 피눈물은 증오, 복수심, 적개심 등으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찬란한 피눈물.. 같은 말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선지까지 훑어내렸을 때 한 생각은, **"피눈물이라면 적개심이 나오면 나왔지 불안감으로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였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쉬운 논리로, 아예 그냥 기쁨과 불안감이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설명하기 좋을 듯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적개심과 불안감은 모두 부정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적개심을 불안감과 동의어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해결법을 약간 스포한 느낌인데, 예를 들어 불안하면 안절부절못하고 별별 떠다든가 하는 등의 묘사가 나와야지,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일** 겁니다.

저 소설이 아닌 다른 작품을 주고, 제가 말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많은 학생이 현장에서 이를 쉽사리 가려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범주를 조절하도록 의식적으로 훈련하기

문제 사진을 찾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사례로, 주인공이 무언가를 다짐하는 장면에서 '누군가를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선지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다짐이라는 것이 자신을 믿는 것이라면 다짐과 믿음은 그나마 비슷한 이야기겠지만, 타인을 믿는 것이라면 **다짐과 믿음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A 대신 B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짐과 믿음은 '희망'의 뉘앙스, 즉 긍정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읽다가 소위 말하는 비약을 해버리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검토를 할 때도 발견하기 어렵겠죠.

당장에 다짐과 믿음이 같은 건가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아니라고 답하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긍정/부정의 이항 대립적 분석을 논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비문학도 그렇지만) 특히 문학은 대체로 긍정/부정의 큰 틀에서의 내용 일치만 따져도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 즉 답이 안 보인다거나 헷갈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사고의 범주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설명을 이어가면, **적개심과 불안감은 모두 부정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 범위를 좁혀서 개별 단어끼리 비교하면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믿음과 다짐 역시 같은 이야기겠죠.

+ 제가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썼는데 이 부분도 문학 선지 판단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문학에서 흔히 말하는 감상, 공감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을 전부 테스트해야 하는데 해석이 갈리는 부분을 내면 출제 오류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선지'를 넣어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구성하고, '맞는 말이어야만 하는' 선지를 넣어 적절한 선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모 입시 사이트에서 어떤 분께서 올리신 국어 관련 만화를 본 적 있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방 안에서 먼저 떠나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화자가 제시된다면, 그 화자의 정서가 기쁨일 수 있겠는가? 였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가에 대해 질문해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슬픔'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쁨을 느꼈을 리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런 상황을 두고, 수능 문학에서는 '화자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와 같은 뉘앙스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담은 만화였죠. 제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느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네요.

어떻게 비유가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리하자면 위에 설명했던 내용에 더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선지'가 뭘 의미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간만에 긴 칼럼 중에서 문학 관련 칼럼을 써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극단적 시간 단축

-문학편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2.10.18

안녕하세요.

수능 전 마지막 이야기인, 문학 칼럼입니다.

파이널 기간이다 보니 국어 실력 자체는 오를 대로 올랐는데 시간이 없어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소 독특합니다.

이 글을 읽어서 도움을 받으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 말고
'내가 확신을 갖고 풀어서 틀린 문제'가 1~2개 내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 재고 풀면 잘 풀 수 있다! 하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학생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손가락 걸기'와 반대되는 느낌일 텐데
또 글을 읽다 보면 손가락 걸기와 같은 맥락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체화한 이후로 문학은 고정적으로 '20분 안에 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9모는 졸다 일어나는 바람에 15분 안에 풀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몰렸지만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I. 대전제

제가 이때까지 썼던 칼럼과 동일한 맥락일 거고
아마 독서 칼럼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의 문학 버전이라 보셔도 될 듯합니다.

문제를 지배하면서 푸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미리' **생각한다는 의미**는 비문학과 동일합니다.

II. 뇌를 빼고 읽은 후 답을 곧바로 체크하자

대부분 수험생은, 문학에서 선지 판단을 할 때
"1번의 근거는~~~ 뭐 이 정도면 합당하네 오케이. 2번은.. ??
이거 좀 헛갈리는데? 세모.
3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 아 그럼 답 3번"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을 겁니다.

말하자면 '정답이 될 가능성'을 따져 보고
이건 정답일 확률 10%, 이건 30%? 오 애는 70% 같네 이거다.
이런 식의 사고 과정을 거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 3번이 정답인 거 같으면 4, 5번을 보지 않고 넘기는 소위
"손가락 걸기"를 활용하죠. 그러다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도 많았겠죠.

제가 활용하는 방식은, 손가락 걸기 같으면서도 느낌이 다릅니다.

완전히 뇌를 빼고, 즉 별도의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빠르게 쪽
읽습니다. 읽은 후에 이런 게 있었나? /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싶은 걸 찾아서 '그
선지부터' 봅니다.

즉 이상함을 느꼈던 선지에 대한 근거를 찾은 후, 답을 곧바로 체크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제 머리 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면 지문 확인도 안 하고 체크하는 경우
도 많죠.

애초부터 저는 선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덜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왈,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보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소현성록>입니다.

저는 지문을 읽으면서 "아니 악역인데 부끄러워 할 줄도 아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문제는 특이한 부분에서 나온다.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은 항상 잘 짚자."라는 말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이 문제는 제가 '미리' 짚어놓은 부분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쭉 읽어 내린 후에 지문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답을 체크했습니다.

"손가락 걸기"와 다르게 모든 선지를 빠르게 훑어보고, 진짜 아닌 거 같은 선지 1개(혹은
2개)의 근거를 찾은 후 넘어갑니다. 그러니 좀 더 이상한 게 눈에 띈다면 1번만 보고 답
을 골랐는데 5번이 답이어서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확신을 가지고 체크
하면 잘 안 틀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되어야겠죠.

이게 엄청난 방법일까요?

이때까지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했을 뿐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모집했던 수업에서 문학 6~7개 틀리던 학생이 1개 아니면 안 틀리는 수준까지 갔다고 하니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학생은 아래에 상술할 문제별 전략까지도 체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 2022.11.18 추가 - 이 학생은 결국 수능 문학을 다 맞았습니다.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된 후에 유용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뇌 빼고 읽은 후

결국 몇 분이고 이전과 똑같이 선지 판단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실력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도

"보다 더 안정적인 손가락 걸기"로는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 방법 자체는 생각보다 쉬운 게 맞는데, 말씀드린 "뇌를 빼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쪽 읽어 내려가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선지 판단을 꼼꼼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끊어내는 데 저도 시간이 좀 걸렸었고, D-30인 시점에 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2주 내로는 그래도 보통 체화가 될 테니까요.

심지어 이 방법은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리스크도 없습니다.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원래대로 선지를 하나씩 읽고 판단하면서 가면 될 일입니다.

III. 유형별 전략

몇 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1) 표현상, 서술상 특징

별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때까지 그렇게 시도할 생각을 안 했을 뿐일 겁니다.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건 대구, 이건 설의, 여긴 하강 이미지 나오고~~~" 등의 생각을 '미리' 해놓고 푸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가)~(다)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표현상 특징이나 서술상 특징을 미리 짚고 간다면 읽자마자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에 비유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와 같은 생각을 하다가, 체화 이후에는 "아 그래 (가)랑 (나) 둘 다 비유가 있었지."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답을 고르게 됩니다.

(2) 구절의 비교, 이해

'정답 특성의 원리'가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 남의 권력으로

“정중으루 가져와요?”

독서와 마찬가지로, ㄱ을 쥐 놓고 문제를 안 내면 평가원장이 사퇴해야겠죠.

저렇게 제시해주었으니, 무조건 구절 관련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절 간 비교 문제일지 아니면 구절 5개를 주고 이해를 요하는 문제일지는 알 수 없죠.

정답 특성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한 이유는, 역시 나만의 말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에서 나만의 말은 생각보다 떠올리기 어렵지만 문학은 훨씬 쉽습니다.

저 내용을 한 마디로 말하면? "남의 권력으로"

항상 간단하게 머리 속에 집어넣고 가기 때문에 매우 짧게 생각합니다.

"남의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고 있다." 와 같이 길게 생각할 거면 문제 출제를 해야겠죠.

구절의 이해인 줄 알고 봤더니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 남의 권력으로

백 주사의 아들 ㉠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임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남의 권력으로' 아닌가요?

높은 확률로 구절 비교가 나올 거고,

제가 강조했던 대로 '정답 특정의 원리'를 활용하면 공통점에 대한 선지가 있어야겠죠.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애초부터 내고 싶었던 건 저 내용 하나뿐이었을 거고, 서술형으로 나와도 맞힐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독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유효합니다.

구절 이해인 줄 알았으나 ㉠까지 보고 나니

누가 봐도 구절 간 비교길래 역시 답 체크를 보자마자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구절 이해로 가볼까요.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 **별다른 방법 x**

a는 한 마디로 "별다른 방법 없음"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었다. -> **일떨결에**
의표하며, 짐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 **예전과 달라진 모습 비유적으로**

b는 "일떨결에"

c는 "예전과 달라진 모습"

나오지 않았지만 저러한 '비유적 표현' 역시 자주 등장하죠.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듬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상대보다 열등 = 위축**

-> **열반지만 상황이 별로라 탈주 불가**

d는 "상대보다 별로니까 쫓았음"

e는 "화나는데 상황 상 탈주 x"

저는 저에게 익숙한 말로 내용을 정리하여 머리 속에 넣어 두거나
5글자 내외면 적어 두기도 합니다.

(체화해서 적지 않고도 대략 기억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적응만 된다면 적는 시간을 들일 정도의 일도 아니니까요.)

항상 간단하게 적으라 하면 문장을 적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에서 그렇게 길게 적으면 시간이 없을 겁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은 후, 선지와 비교해서 맞는 거 같으면 곧바로 거를 수 있겠죠.
a, b, c, d는 잘 짚었을 겁니다.

그럼 c에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냐? 그냥 예전과 달라진 모습으로만 썼을 텐데?

돌아가보면 아래 부분에서 백 주사는 방삼복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보니 c와 e는 맥락이 완전 뒤바뀌지 않는 이상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틀려야
한다는 확신도 얻었네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저는 e에서 기대감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풀 때도 못 짚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번이 말도 안 되니 넘어가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5번 선
지에 그런 게 있었냐? 하고 한 번만 돌아가 보면 그만입니다.

반감은 확실한데 기대감이 있었나?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라는 구절을 볼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하네요.

저는 이 방법으로 풀면

5개 선지 중 3~4개는 제가 짚은 대로 나옵니다. 운 좋으면 5개 다 생각대로 나옵니다.

처음 하면 1~2개밖에 못 할 수도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연습해서 5개 선지 중 곧바로 걸러낼 수 있는 선지의 수를 늘리면 됩니다.

이는 기출이든 사설이든 동일합니다.

내가 헛갈리는 선지가 있을지언정, 답을 고르는 데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3) <보기> 문제

이 파트는 더 쉽습니다.

주제를 관통하는 식으로 문학을 출제한다는 다른 분들의 칼럼에 적극 동의하는 이유죠.

그냥 쪽 읽어 내린 후에

이질적인 선지 하나에 대한 내용만 본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주면 되니까요.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 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㉔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빠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위에 제시한 보라색 부분은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남편 미안" 이 정도겠죠.

(실제로 선지 옆에 그렇게 썼었습니다.)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육을 보고 돌아'왔다고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해당 부분이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거라면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하늘 같은 남편을 내가.."라는 생각을 하는, 아내자의 면모라고 봐야 할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쪽 읽어보고 4번이 이상하니 근거를 찾고, 답을 체크했습니다.

IV. 마치며

23수능 대비로 쓰는 칼럼은 이 글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왜 수정했냐면 갑자기 또 생각날 게 있을지도 모르니..)

잘 체화한다면, 실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건 몰라도 시간 부족으로 절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9개월 정도 활동한 거 같은데 벌써 또 수능이 다가왔네요.

마음 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

실전에서 언매 고난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문법은 곧 언어의 법칙이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2.05.01

안녕하세요.

실전적인 언매 칼럼은 처음인 거 같은데, 어떤 분께서 올리신 자작 문제를 보고 예전부터 쓰고 싶었던 주제가 생각나 글을 씁니다.

언매가 다소 까다롭게 나와도 잘 안 틀리는 편인데, 학생들이 어려워 할 만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문법이 다소 어려웠던 21수능과 22수능 모두 현장에서 문법/언매 문제를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들어볼 만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아마 언어뿐만 아니라 매체에서도 함정 선지들을 잘 가려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수능 언매의 핵심은 '그렇듯해 보이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고, 그래야 정직하게 물어보는 고난도 문제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낚시라는 게 당연히 문학에도, 비문학에도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내용을 매년 물어보는 문법 문제 특성상 낚시가 조금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평가원이 이런 낚시만을 하기 위해서 문법 문제를 낸다면 소위 말하는 '사설틱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조금 바꿔 말하자면 평가원은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뿐인데 그냥 우리가 낚시를 셸프로 당해버린 느낌입니다.

어찌 됐든 수험생 입장에서 분석했을 때는, 교과 과정 내에서 물어볼 수 있는 개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같은 주제를 살짝만 바꿔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틀리도록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느낌이죠. (매력적인 오답은 문학/비문학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문제도 출제해보고 오랜 시간 생각해본 뒤에 얻은 깨달음은,
"문법은 어쨌든 '법칙'이기 때문에 진술이 명확해야만 한다."였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대충 이렇겠지~"라는 어림짐작이 오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방금 말 자체를 문학이나 비문학에 가져다 놓으면 '나만의 말'로 바뀌 이해하는 것이 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법에서 저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쉬운 문제에서는 상관없지만 까다로운 문제에서 막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공부의 갈피를 잡기 어려우실 듯해서 예시를 갖고 와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겹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안긴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겹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도 쓰인다. 다음 밑줄 친 겹문장 ㉠~㉡의 쓰임을 설명해 보자.

- 기상청은 ㉠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 시민들은 ㉡ 공원이 많고 거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다.
- ㉢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산에서 내려갔다.
- 나는 나중에야 ㉣ 그녀는 왔으나 그가 안 왔음을 깨달았다.
- 삼촌은 주말에 ㉤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들판을 거닐었다.

- ① ㉠은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 ② ㉡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 ③ ㉢는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 ④ ㉣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 ⑤ ㉤는 조사와 결합 없이 부속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21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제가 문학에서 언급했던 평가원 낚시 코드를 굳이 찾아보자면,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말한 걸 문장으로 썼으니 내용 전달해주는 거잖아. 인용 표현이네."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인용절로 활용되는 것에는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이 있으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블 코테이션)을 쓰고 그 뒤에 '~라고'를 붙이거나, 하나의 절을 쓰고 그 뒤에 '~고'를 붙이는 것뿐입니다.

저 문장은 관형절이지만, 관형절인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라고 아니면 ~고가 와야 하는데 ~다는? 이걸 인용절은 아니네."와 같은 사고 과정을 거쳐 정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인용절에 '~라고'와 '~고'가 쓰인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저 둘 아니면 안 된다는 약속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인용 표현인데?"와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대충 그럴 거 같다는 어림짐작'에 해당합니다.

위의 설명은 정말 기본적인 문법만을 암기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니,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풀 때는 보자마자 "이거 한 문장으로 바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오는 걸 보니 동격 관형절인데?"라는 생각을 했고 답을 골랐습니다.

동격 관형절은 수식하는 어구를 문장으로 바꿨을 때 느낌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시를 바꿔 보면 "예보는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가 되는데 당연히 비문(非文)입니다. 동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사실상 같은 말이기에 저런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겠죠.

그에 비해 관계 관형절은 수식하는 어구를 문장으로 바꿨을 때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문항 퀄리티가 높은 지인선 N제'라는 어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는 '지인선 N제는 문항 퀄리티가 높다.'라는 문장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첫 설명이나 보충 설명이나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제가 문학 / 비문학에서 강조했던 '정답 특성의 원리'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분명 읽어 보면 관형절인 게 보이지만 선지를 먼저 읽게 되면 "인용절이라고? 그런가..?"라는 생각이 한 번은 들 만합니다. 저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다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도 순간적으로 헷갈릴 만 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위의 내용대로, **어차피 동격 관형절이니까 인용절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로 체크**한다면 애초에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종종 쉬운데 오답률이 왜 높은지 모르겠다는 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설명이면 아마 쉬웠다는 입장도, 어려웠다는 입장도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문가: ㉔ 사전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는 ㉕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22 수능 41번 문제입니다.

매체 파트에서 묻는 문법 문제죠.

41.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 '-느니라'를 통해 시칭자를 높이며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고 있다.
- ② ㉒: 접속 부사 '그래서'를 통해 앞 문장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㉔: 보조사 '는'을 통해 '사전등록 정보'가 문장의 화제임과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㉕: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앞 절의 내용이 '사전등록 정보'가 '자동 폐기'되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㉕: 보조 용언 '보다'를 통해 '앱'을 사용하는 것이 시험 삼아 하는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평가원 낚시 코드를 찾아보자면,

"사전등록 정보가 앞에 나오고 저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술 대응 관계 적절하네. 주어가 맞구나."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주술 대응 관계를 정확하게 짚는다면, 사전 등록 정보는 저장'되고' 있다고 해야 적절할 겁니다. "앞말 체언 주고 뒷말 용언 줬으니 대충 주어 술어 관계 아니야?" 라는 말을 속으로 곱씹어보시면 '그렇듯해 보이는 느낌'이 뭔지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사전 등록 정보'는' -> 사전 등록 정보'를' 과 같이 바꾸면 "사전 등록 정보를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가 되겠죠.

그럼 누가 저장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테고, 주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으면 주어가 따로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생략된 주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실전에서 감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해당 단어가 주어가 아닌 목적어라는 점만 짚으면 그만이죠

아니 근데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바꾸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이것도 조금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보조사 낚시'는 예전에도 다뤄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는 격 조사 자리를 바꿔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낚이기 쉬운 파트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면 "저게 주어라면 주격 조사를 써도 말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 등록 정보가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활유법도 아니고."라는 생각과 함께 걸러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름을 붙여서 "보조사가 나오면 격 조사로 바꿔 보기!"라는 스킬이 탄생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과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을 다루는 분야는 스킬이 언제나 정공법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이 스킬이지 이름을 붙여서 외울 정도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려 봤는데, 뭔가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한 달쯤 남았습니다. 모의고사는 점검용일 뿐이라고, 평소 하던 공부를 그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2406

+

-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의 권유나 친구의 추천, 자기 계발 등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 독서 동기는 '독서를 이끌어 내고, 지속하는 힘'으로 정의되는데, 이 정의에는 독서의 시작과 지속이라는 두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독서 동기는 슈츠가 제시한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라는 두 유형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독서의 '때문에 동기'는 독서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를 의미한다. 이는 독서 행위를 유발한 계기가 되므로 독서 이전 시점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에 해당한다. 독서의 '위하여 동기'는 독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그 목적은 독서 행위의 결과로 달성되므로 독서 이후 시점의 상태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책을 선물로 받아서 읽게 되었다고 할 때, 선물로 책을 받은 것은 이 독서 행위의 '때문에 동기'이다. 그리고 책을 읽고 친구와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면 이는 '위하여 동기'가 된다. 또한 독서 행위를 통해 성취감이나 감동을 느끼는 것, 선물로 받은 책을 읽어서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등도 이 독서 행위의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역시 '위하여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 개념은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공적인 독서 경험의 핵심은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책을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마음은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된다.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은 새로운 독서 행위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때문에 동기'가 된다. 동시에, 새로운 독서 행위를 통해 다시 경험하고 싶어지는 '위하여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독서 경험이 반복되고 심화되면서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따라서 독서 습관을 형성하려면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바탕으로 우선 독서 행위를 시작하는 것과,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독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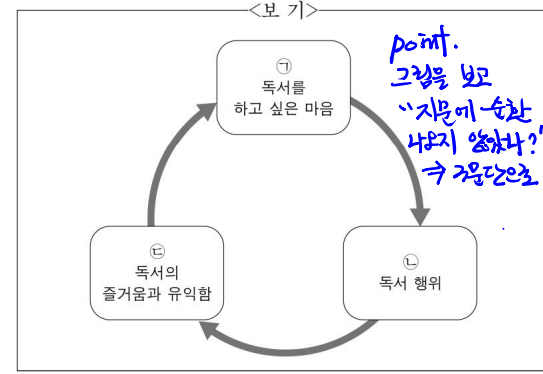
1. 뒷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 ㉠ 타인의 권유나 추천이 독서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 ㉡ 슈츠는 동기의 두 측면을 합쳐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 ㉢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서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독서 동기의 정의는 독서를 시작하게 하는 힘과 계속하게 하는 힘을 포함한다.
 - ㉤ 독서의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는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 다음은 학생의 메모이다. [A]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5

나는 ㉡ 학교에서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과제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읽을 책으로 철학 분야의 책을 선택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 철학에 대해 많이 알게 되겠지. 그리고 ㉢ 어려운 책을 읽어 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거야.

- ㉠ ㉡는 독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위하여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 ㉣는 독서를 하도록 만든 사건에 해당하므로 '때문에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 ㉡와 ㉣는 이미 발생하여 독서의 계기가 되었으므로 '때문에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 ㉡와 ㉣는 독서 이전 시점에 경험한 일에 해당하므로 '때문에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 ㉡와 ㉣는 독서의 결과로 얻게 될 기대에 해당하므로 '위하여 동기'라고 할 수 있다.

3.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으로 시작해 ㉢을 경험하면 ㉠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 ㉡ ㉣으로 ㉢을 얻는 것이 성공적 독서 경험의 핵심이다.
- ㉢ ㉢의 경험을 통하여 ㉠이 생기면 ㉣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은 ㉣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 ㉠, ㉣, ㉢의 선순환을 통해 독서 경험이 반복되고 심화된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포 소구는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의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제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하였다.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 소구를 세 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포 소구 연구를 진척시킨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공포 소구의 효과는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는 감정적 반응을 '공포 통제 반응', 인지적 반응을 '위협 통제 반응'이라 ㉡ 불렀다. 그리고 후자가 작동하면 수용자들은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지만, 전자가 작동하면 공포 소구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오히려 공포 소구에 담긴 위협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우선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하였다.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협을 자신이 ㉢ 견을 수 있는 것이 그 위협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그 공포 소구는 위협의 수준이 높다. 그리고 공포 소구에 담긴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 한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라는 안내문을 ㉣ 보냈다고 하자.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동호회 활동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된다. 그리고 그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낄 때, 안내문의 권고는 그에게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주게 된다.

위티는 이 두 요인을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에는 위협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그러나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 주지 않는다고 느껴 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 이렇게 정리된 결론은 그간의 공포 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4.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 ① 화제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 ② 화제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화제에 대한 연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 ④ 화제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한 후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화제에 대한 연구들이 봉착했던 난관과 그 극복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제니스 - 2기반관
- 위티
=> point.
앞에서
동시적이나
생각.

5.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제니스는 공포 소구의 효과를 연구하는 실험에서 공포 소구의 수준을 달리하며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았겠군.
 - ②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보았겠군.
 - ③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공포 통제 반응보다 위협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겠군.
 - ④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협을 느끼지 않아야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된다고 보았겠군.
 - ⑤ 위티는 공포 소구의 위협 수준이 그 공포 소구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겠군.
- point. 위협/효능감 두 요인만 다루기 제시함으로

참시포드
너무 위험하면
오히려 마음의
안개 되라는걸
보지 않는데...

6.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실험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5

<보기>

한 모임에서 공포 소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용자들의 반응은 위티의 결론과 부합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위협의 수준(높음/낮음), 효능감의 수준(높음/낮음)의 조합을 달리 하여 피실험자들을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1과 집단2는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 집단3은 위협 통제 반응, 집단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다.

- ① 집단1은 위협의 수준이 낮았을 것이다.
- ② 집단3은 효능감의 수준이 높았을 것이다.
- ③ 집단4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 ④ 집단2와 집단4는 위협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 ⑤ 집단3과 집단4는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같았을 것이다.

	위협	효능감
1	낮	높
2	낮	낮
3	높	높
4	높	낮

7.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 ① ㉠: 편향(偏向)되었다고
- ② ㉡: 명명(命名)하였다
- ③ ㉢: 경험(經驗)할
- ④ ㉣: 발송(發送)했다고
- ⑤ ㉤: 기여(寄與)하지 영향을 기여하?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 한다.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한다.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으며,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 한다.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지체이다.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한다.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9. 반응

11. <보기>

10. <보기>

10. <보기>

10. <보기>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point. <보기>로 내용거음 이상함 지양
- ① 촉매를 이용하면 화학 반응이 새로운 경로로 진행된다.
 - ② 고체 촉매는 기체 생성물과 촉매의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 ③ 고체 촉매에 의한 반응은 생성물의 탈착을 거쳐 완결된다.
 - ④ 암모니아 합성에서 철 표면에 흡착된 수소는 전자를 철 원자와 공유한다.
 - ⑤ 증진제나 지지체 없이 촉매 활성을 갖는 고체 촉매가 있다.

9. ㉠의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
- ㉡ 활성 성분의 소결을 촉진하는 증진제를 첨가한다. 소결 = 촉매 활성 ↓
- ㉢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지지체를 사용한다.
- ㉣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한다. 활성화 에너지 ↓ = 반응 ↑
- ㉤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큰 입자로 만든다.

반응은 표면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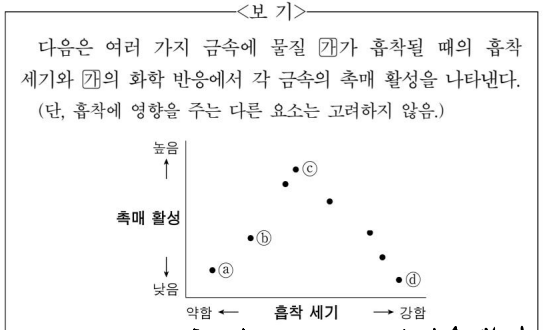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

<보기>

아세틸렌은 보통 선택적 수소화 공정을 통하여 에틸렌으로 변환된다. 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체 촉매는 팔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하여 만들며, 아세틸렌과 수소는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한다. 여기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 이때, 촉매에 규소 소량 포함시키면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가 변화되어 고온에서 팔라듐의 소결이 억제된다. 또한 은 소량 포함시키면 팔라듐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팔라듐 표면에 반응물이 흡착되는 세기가 조절되어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다.

- ㉠ 아세틸렌은 반응물에 해당한다.
- ㉡ 팔라듐은 활성 성분으로 해당한다.
- ㉢ 규소와 은은 모두 증진제에 해당한다.
- ㉣ 실리카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
- ㉤ 실리카는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금속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 ㉠ ㉠의 화학 반응은 ㉡보다 ㉢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할 때 더 느리게 일어난다. 오답률의 강유속 반응 ↓
- ㉡ ㉠은 ㉠보다 ㉢에 흡착될 때 흡착량이 더 적다. 원격의 강유속 농도량 ↓
- ㉢ ㉠은 ㉠보다 ㉣에 흡착될 때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 오답률의 강유속 안정성 ↑
- ㉣ ㉠은 ㉠보다 ㉢에 더 약하게 흡착된다. 사피 리노
- ㉤ ㉠의 화학 반응에서 촉매 활성만을 고려하면 가장 적합한 활성 성분은 ㉣이다. 사피 리노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 본다.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찢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설(Searle)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을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됨’은 몸 바깥에서 ㉡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에 ㉢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이다.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 알아보기 위해 아무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앞의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로랜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즉 로랜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나)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세계에 있다.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엄밀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엄밀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지각이라는 엄밀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15-㉡ 감각행 = 감각행 => 지각 12-㉢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12.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은/는 같지 않다는 설(Searle)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지 과정이 몸 바깥으로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하는 확장 인지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인지 중에서도 감각 기관을 통한 인지, 즉 지각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으로서의 지각을 주장하고 있다.

㉡	㉣
㉠ 의식과 함수적 역할	내 몸의 체험
㉡ 의식과 함수적 역할	물질적 반응
㉢ 의식과 뇌의 상태	의식의 판단
㉣ 의식과 뇌의 상태	내 몸의 체험
㉤ 입력과 출력	의식의 판단

4-㉠ point. 4번의 문 두가지 주체의 조건만

13.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 ㉠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뇌 의존적 = 의식
- ㉡ 설(Searle)은 '중국어 방' 안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다고 볼 것이다.
- ㉢ 로렌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라? → 부어 생각 확장
- ㉣ 로렌즈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 ㉤ 로렌즈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 기능주의-원리 (나) 지각과 감각중심이 그 이전까지 주체/대상 분리 X
 ㉠ 나만의 몸 X ㉡ 인지 = 주체 주체와 관련해서만
 → 주체가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14.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각 이전에 확장된 주체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 ㉢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므로 타당하다.
- ㉣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 기능주의-원리 ★
 감각성 = 감각됨 → 그것의 곧 지각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 ㉠ 감각과 지각 모두 물질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이 지각이기 때문에
- ㉢ 지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감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 ㉣ 지각은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감각하여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 ㉤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16.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3

<보기>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다.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사용하여 전달받는다.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CI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람과 컴퓨터의
 정보 공유
 → 뇌를
 양자컴퓨터

- ㉠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A와 B가 암실 내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 이때 둘의 의식은 차이가 없겠군.
- ㉡ (가)의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나겠군.
- ㉢ (가)의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 ㉣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경우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군. 막대기 = 자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 ㉤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 따르면, BCI를 통해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 들어온 자극에 따른 B의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겠군.

17.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4

- ㉠ a: 그간의 사정을 봐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
- ㉡ b: 이사 후에 가난하던 살림살이가 일어났다.
- ㉢ c: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 문제가 심각해졌다.
- ㉣ d: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펼쳤다.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다
- ㉤ e: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법 만질 줄 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십여 일이 지날 무렵 노비 막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낭군께선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거침없으시더니,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말 못할 근심이 있는 듯하옵니다.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19-㉔
 김생이 슬퍼하며 느낀 바를 사실대로 말하니 막동이 한참 생각하고 말했다.

“소인이 낭군을 위해 마복의 ㉑ 계책을 올릴 테니, 낭군께선 애태울 일이 없으십니다.” 20-㉕㉖

“그게 무엇이다나?”

“낭군께선 급히 주효(酒肴)를 성대히 마련하시고 바로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서서 손님을 전별(餞別)하려는 듯 하십시오. 방 하나를 빌려 잔치를 벌이시고 이눔을 불러 손님을 모셔 오라 하시면,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한 식경 후에 돌아와 ‘손님이 오십니다.’라 하지요. 낭군께서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 명을 받고 날이 저를 때쯤 돌아와, ‘손님께서 오늘은 숭별객이 많아 심히 취해 갈 수 없으니 내일 꼭 가겠노라 하셨습니다.’라 하지요. 이때 낭군께선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시고 그 주효를 먹게 하고,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날도 그렇게 하시면, 처음엔 고맙게 여길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할 것이며, 세 번째는 필히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 은혜에 감격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생각할 것이며, 의문이 생기면 하시고 싶은 바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흉금을 털고 말하신다면 일은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생은 진정 그럴듯하다 여기고 기뻐하며 말했다.

“내 일이 잘 되겠구나!”

생은 그 계책에 따라 즉시 주효를 갖추어서 곧바로 그 집이 전별 자리를 마련하였다.

(종략)

생이 사모하는 이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낮빛을 바꾸며 말했다.

“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厚意)를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과연 문월 모임 모친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 남자를 보았다네. 나이는 대략 십오륙 세에 푸른 적삼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백룡버선에 자색 신을 신었지. 진주 비녀를 꽂고 새하얀 옥 반지를 끼고, 홍화문 앞길을 지나 가고 있었다네. 내 마음이 화사해지고 춘정을 이기지 못해 뒤따랐는데, 마지막에 이른 곳이 곧 할멈의 집이었네.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호미하여 만사가 호릿하며, 오로지 그 남지만 생각했다네.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가 자나 깨나 잊히지 않아 상심하며 애태우길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 할멈이 나를 보고 낮빛이 파리하다 했는데 왜 그랬겠나?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 다며 할멈을 번거롭기 한 것이네.” 18-㉑ 사건의 후
 노파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애처로워했으나 생이 마음에 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서 말했다.

19-㉑
 생이 큰 번거롭다는 말을 들어서 해명하는 것이지 but. 자연 흥분하면 생경반, 아연이 호소했음을 부각하는 어려움.

“그런 애가 있습죠.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에요. 이름은 영영이고 자(字)는 난향이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한가?”

“이 애는 회산군 덕 시비예요.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 자색(姿色)이 고운 것은 낭군께서 이미 보셨으니 굳이 말할 것 없지만 고운 마음이며 암전한 몸가짐은 양반집 규수와 다를 게 없지요. 게다가 음률과 문장을 알아 나리께서 어여뻐 여기시고 장차 소실(小室)로 맞으려 하셨지만, 부인의 시선이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 그렇게 못 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지난번 그 애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식 때를 맞아 그 애가 어머니의 제사를 이곳에서 지내려고 부인에게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때마침 나리께서 외출하신 터에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던들 낭군께서 어찌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낭군께서 다시 만나시기는 참으로 어렵습죠. 참으로 어려워요!” 19-㉒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노파가 안타까워 명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

“딱 한 가지 ㉓ 방법이 있습죠. 단오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20-㉓㉔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에게 영영에게 만나질의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만에 하나 낭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낭군께선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 19-㉕

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 작자 미상, 『상사동기』 -

부인의 시선 → 고사 양용
 이 것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구면 전환 X
 생이 죽면 장보는 뒤 파격으로 안에서 일어남

18.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㉑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 ㉒ 앞날의 일을 가정하여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
- ㉓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 ㉔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 준다.
- ㉕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 ① 막동은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 ②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 ③ 노파는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인 것을 깨달았다.
- ④ 노파는 생의 사연을 엔치롭게 여기고 자신이 영영에 대해 아는 바를 알려 주었다. **'몸이 아끼크워 했으나'를 착안해야 함**
- ⑤ 생은 천상의 일에 빚대어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 ① ㉠과 ㉡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 ② ㉠과 ㉡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 ③ ㉠은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은 생의 제안을 노파가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숙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 ⑤ ㉠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내세우고, ㉡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

생각 특이 문디 ←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5

<보기>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 ①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감정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르는 것에서,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군. **비현실적 공간 묘사 X**
- ④ 영영이 회산군 댁 시비인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애정 성취에 곤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군.

애정 성취 방법 중립적 용어로 하지 관습 때문에 갈등하지 않음. 관습에 관한 건 외의 설명에 드러나봄. (회산군 적 시비라 이해할 수 없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①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 십재 황황(十載遑遑)하노라

22-① 평생 중대한 생각
22-② 충효 추구 → 신분
→ 이념

비록 못 이뤄도 임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22-① 여동생 X
22-② 충효 추구 → 신분
→ 이념

[A]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1수>

출(出)하면 치군택민* 치(處)하면 조월경운*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가 가난하게 살리도다

<제3수>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22-③ 신적 도는 현

성현의 가신 길이 ㉡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22-③ 공공 X
22-④ 안 다르다

[C]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떤들 어떠리

<제17수>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 백세(百歲)인들 길겠노

22-④ 바지 코트
백세면 긴 거 아냐?
but 세월이 백세까지
만세로라 백세
것? 아니다는 뜻은
시간의
길이 짧음

22-⑤ 귀가의 추세 지향
→ 현세의 장도 지향 대비

㉣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 십재 황황: 십 년을 허둥지둥함.
* 치군택민: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음.
* 조월경운: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갈음.

(나)

22-④ 거름 구하기가
중대한 것이냐
중요 X

[D]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함에, 아내가 취서사로 들어가
거름*을 구해 오길 권하였다. 유택은 안 된다고 하고, 유평은
해 보자고 하는데, 나도 스스로 생각해 보니, 짚은 기와를
쓰기에 거름은 그다지 아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민간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는 것이기에, 이를 요구하더라도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하였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
보지 않았다.

마침 처숙부 상사공이 약을 지으려고 취서사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가고자 함을 알고 따르게 하였다. 대개 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취서사에 도착하니 근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가 거의
승려들 수와 맞먹었는데, 모두 거름 때문에 온 자들이었다. 좌우
에서 낚아채 가며 많이 가지려 다투고,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 대어 곧 시장판을 만들었으며, 가져감이 많고 적음은 그
힘의 강약에 따랐으나 승려들은 참견하는 바가 없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하여 종도 없는 자는 승려들을 나무라며, 심지어
가혹한 일을 하기까지 했지만 또한 얻을 수 없었다.

(중략)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하였지만, 이미 그 속에 가 있었
기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
였다.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었다.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E]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

내 아내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하였으니, 가령 이와
같을 줄 알았다면 반드시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또한 마땅히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22-⑤ 비유 + 1228

상사공은 청렴하고 정직하여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다. 거처
하는 집 아래채가 세 칸의 초가집이니, 마땅히 거름이 필요하
였을 것이다. 그리고 막 삼계 서원 원장이 되었는데, 취서사가
바로 삼계 서원에 귀속된 절이었다. 그때 서원의 노비가 개인적
으로 취서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서너 명 있었으니, 진실로
가지려고 하면 힘이 없을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담당하게 한
마디도 간섭함이 없었으니, 그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를 비난하
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애써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 주신 것은 다만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
리라.

맹자는 “궁해도 의(義)를 잃지 않는다.” 하였고, 이극은 “궁할
때에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본다.” 하였다. 나는 궁할 때문에
이미 스스로 의를 잃어서 평소엔 하지 않던 행동을 했고, 또
어른에게까지 폐를 끼쳤으니 참으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이미
늪우칠 줄 알았으니,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해야겠기에 이를
갖추어 기록하고, 또 유택이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익한 말을
했음을 드러낸다.

25-④

- 김낙행, 「기취서행」 -

* 거름: 껌질을 벗긴 삼대

22. [A]~[E]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그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는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화자가 지닌 금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생의법 파악**
 - ④ [D]는 점층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⑤ [E]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 ㉠은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 ㉡ ㉠은 화자가 돌이켜 보는 삶의 시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다.
- ㉢ ㉠은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각설이요는 관자?**
- ㉣ ㉠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 ㉤ ㉠은 과거의 한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낸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권호문의 「한겨서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 <제3수>의 '입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관**
- ㉡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물 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관**
- ㉢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취함은 강론 중화하는**
- ㉣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 <제17수>에서 '아무 텐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일념은 부아버림.**

(관사의 취서)
유정의 기쁨
안았으면
공하는
안되는 생각
연와
한가한것
취의 삶은
한가하지 않았음
(=삼재 관화)

point. 3, 4, 5번 생각
<보기> 문제의 보기를 잘 읽음.
전원 내용 ()과 중재자의 생각을 연관짓
이) 5번 생각에서 '일념'을 제시했으니 내용을 찾아볼
전면에서는 일념이 양쪽 모두 해당 (사자자라고 함.
일념으로 바뀌는 게 아님.
=> 전원 내용 중재자의 생각을 비롯하여 바뀜

25.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 ㉠ 글쓴이는 겨름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이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 ㉡ 글쓴이는 아내가 자신에게 취서사에 가길 권한 것은 글쓴이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4, 5와 같은 바깥.**
- ㉢ 글쓴이는 겨름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취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 글쓴이는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 글쓴이는 겨름을 구하려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이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시 코드
아니오 생각
겨름을 얻으려고
하면 의리를
취할 텐데,
내가 주사라면
도리 양쪽가?
but 그냥 가면
부담해서 글짓

관명으로 보러 / 한 명은 찬사
=> 의리 / 이욕 중점으로 보러
구체적 상황 / 구체적 양용 상황으로 볼 수 있음.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

< 보 기 >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 ㉠ (가)의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 (나)의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군.
- ㉢ (가)의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을, (나)의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에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 (가)의 '도무지 할 일 없어'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나)의 '시골벽적하게 뒤섞여 밟아 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말아져 누름 => 강론 중화하기**
- ㉤ (가)의 '도가 여찌 다르리'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나)의 '의를 잃은 것에 대해'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는 다짐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물사든 물거든 도를 추구하는 건 똑같은데 개편을**

말아져 누름
=> 강론 중화하기
물사든 물거든
도를 추구하는 건
똑같은데 개편을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일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뻐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 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조인 놈! 하는 의분 같은 ㉡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백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통통이에 상식을 놓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 보자 하는 농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변칙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금씩 도장을 뒤져나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어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 두고 ㉣ 그걸 못 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종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예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서 것을 느끼며 ㉤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이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종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향 소리를 들었다.

(중략)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 내면 대사와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헛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 노인인 물은 보기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요를 독여서 병상을 돌우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 드렸다.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여놓고 물을 채워 놓았다.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 거닐듯한 감각을 시선으로 활듯이 돌려 보다가 그만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B]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 작은 폭포같이 들이 쏟고 또 떠서는 들이 쏟기를 계속하였다. 만수 노인은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드리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견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 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밖에 없었다.

- 최명익, 「무성격자」 -

27. 위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 ㉠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
㉣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 제1인물 전가적 작가 시선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 ㉠ ㉠은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는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 ㉢는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심판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 ㉣는 아버지와 용팔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는 아버지가 보여 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다. → 제1인물 주관적 기준 파악

28-㉠ 이해관계

28-㉠ 아버지가 상하는 삶 - 제1인물 관점에서

29-㉣

30-㉡

28-㉡ 상하관계가 도박

28-㉢ 나는 안락하게 자는 한가로운 삶과, 때때로 나는 인생의 불행이 상하관계와 관련

28-㉣ 대화가 있었기 → 대화 내용 주시

29-㉣

30-㉡

물론! 이런 것만 봐도

주관적 기준

인생 가치관을 (상관) 인생이 가치관 (상관)

주관적 기준

29. [A], [B]를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 ① ㉠은 용팔이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 ② ㉠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은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 ③ ㉠은 정일의 '신경 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은 아버지가 '꺼멧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 ④ ㉠은 용팔이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 ⑤ ㉠은 용팔이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

< 보 기 >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경매자만 나르 특권 놀이다.

① 산관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산관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군.

② 상대의 웃음에서 공포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③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④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너 생각은?**

⑤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경매자만 나르 특권 놀이다.
 용팔이 많음
 웃음 무뎠음
 나르 무마하려고
 웃음 깨 안보
 심연음 느끼고 난후
 근데 이게 의외라고
 함게 있냐?
 나는 어렸는데? 라는
 생각은?
 특 성역음 느끼는 신조와
 어이 없게서 웃었지
 보느기... (420)
 최소한 복래갈 무어는 아님.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년(萬年)을 짜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31-㉠**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가다 **33-㉡** **관자가 바라보는 대상.**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창백함은 화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

마지막 한방울 피마자 불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33-㉠** **죽음을 위해 피를 뱉어냄. 즉 죽음위한 희생**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뺨이 되는 먼 훗날까지 **31-㉡**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31-㉡**

마음 가난하거나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31-㉠**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솟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도침을 임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아 되는 날까지 **31-㉡**
 그 솟아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31-㉡**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

(나)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타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대 모두 이리 와 **㉠**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타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
 이고, 굴러라. **31-㉡** **33-㉡** **화자의 상상에서 모두가 자유로운.**

31-㉡
 봄은 자유다. 자 바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일 달고 싶은
 놈 일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
 이라고 하자. **31-㉡** **33-㉡**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잖아. 내 말이 옳으면
 자, **㉠**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오규원, 「봄」 -

33-㉡ 여러 대상. 각각 언어의 담벽, 꽃이 되고, 반짝이고, 굴러라. => 개방성

34-㉡ 행위 평가 어리? => 자유를 보석

34-㉡ 봄 = 꽃피는 자유 => 사소한 것의 자유를 보석

31-㉡ 나만의 말로 표현 => 자유를 보석

31-㉡ 자유인데 원 재한 권역?

31-㉡ 의무 상황 X 사소한 야담으로부터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 ㉡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 ㉢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심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 ㉤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낱시 코드
 서로 상반되면 양면성 드러낼 수 있지 않나?
 but 대상은 두면 양면성을 드러내는 표현 X

나연간 함.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은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은 (470)

★ **정답 특이 원리**
 ⇒ **의로운 사랑이 파멸인'**

과잉의
 행위화 X

32. 이문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 ㉠ 임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 ㉡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 ㉢ 대나무에 서린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 ㉣ 피리의 호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 ㉤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33. 다음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5

선생님: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 ★ ㉠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과비되는 시어 파악**
- ㉡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 ㉢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장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 ㉣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 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 ㉤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백'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낱시 코드
 광역 안에서 과잉과 자유를 누리게 맞겠지
 but: 장백도 '바람' 중 하나임.

point.
 * 특이에서 강조했던 '광역 관계/포함관계 구별' 원리가 쓰임.
 5번 선지에서 장백은 과를 대상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과를 대상으로 병렬 관계를 이룸.
 ⇒ 독자와 문학을 읽는 방식이 어찌지 있음을 보여주는 선지

34.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보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 ㉠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 ㉡ ㉡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 ㉢ ㉢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봄이 자유가 아니면 이듬바람이서라도 부는바람이 자유가 될까**
- ㉣ ㉣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 ㉤ ㉤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을 의미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살던’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특이한 구조이다. 이처럼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聖人의(聖人+의) 마르치산 法(성인의 가르치신 법)’의 경우, ‘聖人’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용언인 ‘마르치산’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인/의’가, 무정 체언 또는 존칭의 유정 체언에는 ‘스’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스’이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기 때문이다. ㉠-㉣ ㉤

중세 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예외는 부사격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을 기준으로, 모음 조화에 따라 ‘나중’에(나중+에), ‘프레’(플+에)에서처럼 ‘에’가 쓰인다. 단, 끝음절이 모음 ‘이’나 ‘안모음 ‘이’로 끝날 때에는 ㉠ ‘뒤’에(뒤+에)에서처럼 ‘에’가 쓰였다. 그런데 ‘에/에’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인 ‘의/의’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외는 ‘봄’, ‘나조항[저녁], ㉡ ‘우회’[위], ‘밀’ 등의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 확인된다. 가령, ‘나조항’에는 ‘의’가 결합하여 ㉢ ‘나조항(나조항+의)로, ‘밀’에는 ‘의’가 결합하여 ‘미티’(밀+의)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 가령, ‘이그에’는 관형격 조사 ‘인’에 ‘그’가 결합된 형태이고 ‘스기’ 역시 관형격 조사 ‘스’에 ‘기’가 결합된 부사격 조사다. 이들은 ㉣ ‘늬미그에(늬+이그에)나 ‘어마넉기(어마넉+스기)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평칭의 유정 명사 ‘늬’에는 ‘이그에’가, 존칭의 유정 명사 ‘어마넉’에는 ‘스기’가 쓰인다. 중세 국어의 ‘이그에’와 ‘스기’는 각각 현대 국어의 ‘에게’와 ‘께’로 이어진다. ㉤

35-㉢ 현대언어종양학에 관형격 조사 X

35.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 ㉠은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에서 받모음 ‘이’가 확인된다.
- ㉡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우회’가 된다. **의는 부사격 조사 ⇒ 시간 아 장소**
- ㉢은 현대 국어로 ‘저녁’으로 해석되어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
- ㉣의 ‘이그에’에서는 관형격 조사 ‘인’이 분석된다.
- ㉣이 현대 국어에서 존칭 체언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스’와 관련된다.

부사격 조사가 시간/장소를 뜻하는 것인 한자어라면 자신도 모르게 ‘초보 부사격 조사’로 통용될 수 있음.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5

<자 료>

- ㉠ 수플(수플+스) 神靈이 길헤 나아
(현대어 풀이: 수플의 신령이 길에 나와)
- ㉡ 늬미(늬+이) 말 드러샤 알 썬라
(현대어 풀이: 남의 말 들어야 아는 것이다)
- ㉢ 世界(세계+스) 일울 보샤
(현대어 풀이: 세계의 일을 보시어)
- ㉣ 이 사르미(사름+이) 잇는 方面을
(현대어 풀이: 이 사람의 있는 방면을)
- ㉤ 孔子의(孔子+의) 기티신 글유리라
(현대어 풀이: 공자의 남기신 글이다)

- ㉠: ‘神靈(신령)’이 존칭의 유정 명사이므로 ‘수플’에 ‘스’이 결합한 것이군.
 - ㉡: ‘늬’이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으므로 ‘이’가 결합한 것이군.
 - ㉢: ‘世界(세계)’스’이 ‘보샤’의 의미상 주어이고, ‘스’는 예외적 결합이군.
 - ㉣: ‘이 사르미’가 ‘잇는’의 의미상 주어이고, ‘이’는 예외적 결합이군. **상황 → 유정명칭 ⇒ 예외 X**
 - ㉤: ‘孔子(공자)’의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 ‘스’이 쓰일 자리에 인/의가 쓰여야 예외

37.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2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 현재 시제만 쓰일 것.
- ㉡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 안긴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실현 조건	예문
㉠, ㉡	㉠
㉠, ㉢	㉡
㉡, ㉢	㉢

- ㉠: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 ㉡: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으)세요? **~가 ~이 살아 ㉡**
 - ㉢: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 X**
 - ㉣: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 X**
 - ㉤: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꿈광이가 슬었어. **㉤ X**
- 관형격 ⇒ ㉢ X

38.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4

< 보 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음운의 변동 가운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를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적용 유무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그럼, 표준 발음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들을 분류해 보죠.

분류 전	㉠	㉡	㉢	분류 후
넙디넙다, 높푸르다, 뭇갈이, 닭갈비, 속대밭, 앞장서다, 읊다, 있다, 짓밟다, 흙빛	○	○	○	㉠
	○	×	○	㉡
	○	×	×	
	×	○	○	

○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
×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

- | | |
|---|---|
| <p>① 넙디넙다 [넙디넙다] ② 넙디넙다 [넙디넙다]</p> <p>③ 넙디넙다 [넙디넙다] ④ 넙디넙다 [넙디넙다]</p> <p>⑤ 넙디넙다 [넙디넙다] ⑥ 넙디넙다 [넙디넙다]</p> | <p>⑦ 넙디넙다 [넙디넙다] ⑧ 넙디넙다 [넙디넙다]</p> <p>⑨ 넙디넙다 [넙디넙다] ⑩ 넙디넙다 [넙디넙다]</p> <p>⑪ 넙디넙다 [넙디넙다] ⑫ 넙디넙다 [넙디넙다]</p> |
|---|---|

39.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4

< 보 기 >

(희철, 민수, 기영이 ○○서점 근처에서 만난 상황)

희철: 애들이, 잘 지냈어? 3일 만에 보니 반갑다. ㉠

민수: 동해안으로 체형 학습 다녀왔으며? ㉡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발표 준비하자. 기영인 어떻게 생각해?

기영: ㉢ 네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정수도 부를까?

희철: 그러자. ㉣ 저기 저 ○○서점에서 오전 10시에 만나서 다 같이 도서관으로 가자. ㉤ 정수한테 전할 때 서점 위치 링크도 보내 줘. 전에도 해봤잖아.

민수: 이제 아냐. ㉥ 어제 나랑 저기서 만났는데 잘 ㉦ 왔어.

희철: 그렇구나. 어제 잘 ㉧ 있었구나.

민수: 아, 기영아! ㉨ 우리는 회의 가야 돼. ㉩ 내가 ㉪ 우리 셋을 대표해서 정수에게 연락을 좀 해 줘.

- ~~㉠은 ㉡과 달리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 ~~㉡은 ㉢과 달리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 ~~㉢은 ㉣과 달리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 ~~㉣은 ㉤과 달리 화자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 ~~㉤은 ㉥과 달리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 ㉥은 ㉦와 달리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 ㉦는 ㉧와 달리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 ㉧은 ㉨와 달리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 ㉨는 ㉩와 달리 화자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 ㉩는 ㉪와 달리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40~43] (가)는 보이는 라디오의 본방송이고, (나)는 이 방송을 들은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매주 수요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애플이나 문자로 언제든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여행가 안○○님을 모셨습니다.

여행가: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진행자: (지난주부터 등대 스탬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중 '재미있는 등대'라는 주제를 소개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40-㉠

여행가: 네, 오늘은 '풍요의 등대'입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16개 등대와 □□ 생물 자원관을 돌아보면서 풍요로운 해산물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입니다.

진행자: 이제부터 '풍요의 등대'에 속한 등대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곳이 있나요?

여행가: 저는 천사의 섬이라는 모티브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 등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등대에 설치된 LED 조명이 켜지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곳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먹는 전복 라면은 정말 맛있죠.

진행자: 정말 맛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로 지난주에 안내했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를 물으시네요. 예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40-㉡

여행가: ㉢ 우선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모바일 여권은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종이 여권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고 사진을 촬영하시는 겁니다. 사진을 다 모으시면 누리집에서 완주 인증을 하시는 거죠.

진행자: ㉣ 실시간 댓글로 6789 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보을까요?

여행가: ㉤ 네,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엔 스탬프로 완주 인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스탬프를 찍기 원하는 여행자들이 많아 여전히 스탬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기쁨향 등대처럼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0-㉢

진행자: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잠시만요, (나머지 등대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2부에서 계속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풍요의 등대'의 완주 기념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40-㉣

여행가: (테이블에 오르골을 올리며) 바로 이 등대 오르골입니다.

진행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르폴이 귀엽다는 반응이 많네요.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 모양이 궁금하시죠? 작고 예쁜 등대가 나무 상자 안에 있고, 오른쪽에 태엽을 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뵈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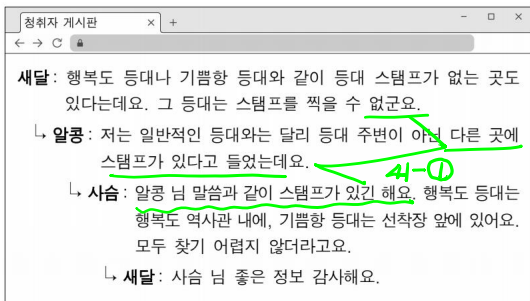
(나)

등대 스탬프 여행을 여행 지리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겠어. ㉠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되 여행의 순서가 잘 나타날 수 있게 표현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지. ㉡ '△△ 등대'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고,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지.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 ① 수용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므로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②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 ③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방송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한다.
 - ④ 청각적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수용자가 있으므로 방송 중에 제공한 시각적 정보를 음성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다.
 - ⑤ 수용자들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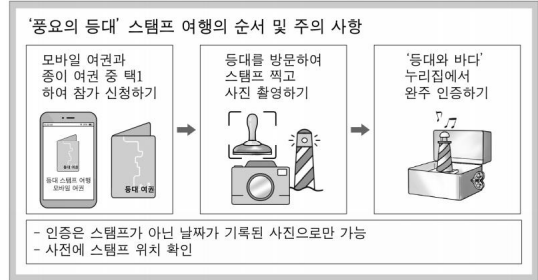
※ **저항 독재의 원리**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의 청취자 게시판이다.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 ①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의 잘못된 이해가 '알콩'과 '사슴'의 댓글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 ② 방송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공통된 생각에 '사슴'이 동조하고 있다.
- ③ 방송을 듣고 '새달'이 느낀 감정을 '알콩' 및 '사슴'과 공유하여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방송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서로 다른 생각이 '사슴'에 의해 절충되고 있다.
- ⑤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긍정적 감정이 '사슴'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발표 자료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5



△△ 등대 -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등대

특징: LED 조명이 만드는 이국적인 경관

주소: ▽▽도 ◇◇군 △△면

스탬프 위치: 등대 앞

볼거리: ◇◇ 철새 전시관, ◇◇산 전망대

먹거리: 전복 라면, 복어 튀김, 소금 사탕

재밌거리: 자전거 여행, 조개 잡기 체험

- ①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기로 한 ㉠은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자.
- ② 여행의 순서를 나타내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게 화살표를 사용하자.
- ③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의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
- ④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언급한 먹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자.
- ⑤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은 여행가의 말을 가져와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달자.

천사의 날개와 선박 형상화
→ 등대의 화상을 묘사하면
사라지 않을 모양이 있어
(볼거리, 먹거리, 재밌거리만 보여주세요...)

43.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 ① ㉠: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여, 방송을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다.
- ② ㉡: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여행가를 높이고 있다.
- ③ ㉢: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 ④ ㉣: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궁금증이 있는 주체인 '6789 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⑤ ㉤: '말씀'을 사용하여, 화자인 여행가의 말을 높이고 있다.

↳ **관객과 청취자에게 권.**
point: '말씀' 같은 관음은 방향이 2개 존재. 청취자/수취자 모두 사용
(Ref.) 2020.4월 '말씀', '말씀' 문제

[44~45]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나온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기기 구성 정보

전원 버튼, 액정 화면, 블루투스 연결 버튼, 측정 센서

44-㉑

2. 기기 연결 방법

1단계 [체중계] 전원 버튼을 눌러 체중계를 작동하세요.
 2단계 [체중계]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3단계 [휴대 전화] 설정-블루투스-기기 찾기를 선택하세요.
 4단계 [휴대 전화]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에서 ○○ 체중계를 선택하세요.
 5단계 [휴대 전화] ○○ 체중계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세요.
 6단계 [휴대 전화] 앱에서 기록을 선택한 후 성별, 키 등 사용자 정보를 기록하세요(기록한 정보는 개인 데이터 분석에 활용).

44-㉒

3. 기기 기능 안내(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능을 클릭)
 몸무게 측정 개인 데이터 분석 자동 추적 기록 기타 기능

44-㉓

4. 기타 안내

1) 앱 설치 바로 가기: <https://jgsw.com/app>
 2)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 <https://jgsw.com/set>
 3) 사용 설명서 다운로드: <https://jgsw.com/exp001>

사용 설명서 정보: 한국어 버전 2.1(2022. 10. 수정)

44-㉔

(나)

2023년 4월 15일

할머니 시연아, 혹시 너도 이런 체중계 쓰니?

네!!! 저도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시연

할머니 잘됐다.

할머니 혈압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해야 해서 하나 구입했어.

오! 할머니, 파이팅이에요! 시연

할머니 이거 단순한 체중계가 아닌 거 같더라. 설명서를 다운 받아서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너도 봐 볼래?

<https://jgsw.com/exp001>

이거 기능 정말 많아요. 시연

4. 기타 안내에 두 번째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따라 하세요. 시연

44-㉕

2023년 5월 6일

할머니, 체중계 잘 쓰고 계세요? 시연

할머니 어, 잘 쓰고 있지. 매일 아침 기록하고 있어.

혹시 예전처럼 달력에다 손으로 직접 쓰고 계세요? 시연

그거 다 이렇게 자동으로 앱에 기록돼요. 시연

44-㉖

할머니 그때 들었던 것 같네, 설명서에 이런 게 있나?

44-㉗

이거 단순한 체중계가 ... <https://jgsw.com/exp001> 시연

↳ [답장] 이게 저번에 할머니께서 저한테 보내 주신 설명서 링크예요. 이거 다시 보고 계시면 제가 이따가 전화해서 알려 드릴게요.

44.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 ㉑ 기기 구성 정보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했다.
- ㉒ 기기를 휴대 전화와 연결하는 방법을 조작 순서에 맞추어 안내했다.
- ㉓ 기기 연결 방법에서 앱에 기록할 정보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했다. 기록할 정보(성별, 키 등)은 크게 굵고 '기록'이라는 글자는 작게
- ㉔ 기기 기능 안내에서는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의 항목을 나열하여 배치했다.
- ㉕ 사용 설명서의 버전 정보를 수정 시점과 함께 제공했다.

45.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 ㉑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군.
- ㉒ (나)의 사용자들이 서로 교환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의 수정 과정을 점검할 수 있군.
- ㉓ (가)는 (나)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여 요청할 수 있군.
- ㉔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군. **언어도 하이퍼링크 있음**
- ㉕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교류한 이력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불러와 상대방에게 이전 내용을 환기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

-

-

열심히 한다는 것

-후회하지 않을 30일을 위해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2.10.14

수능이 30일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 말은 지금에서야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이전까지는 좀 아껴두고 있었네요.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저는 별 쓸 데 없는 일침을 놓기 위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독존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구나.. 하는 그 끝을 알았다더라면 더 열심히 했을 거고

그걸 알려 주고 싶어 글을 쓰신다고.

오늘 할 공부량을 정해 놓고, 또는 공부 시간을 정해 놓고

이를 완수하면 쉬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는 규칙적인 생활,

그야말로 루틴을 잘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달려야 하고,

"이만큼 했으면 '열심히' 한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았을 테니까요.

하루 종일 모든 걸 불태우고 나서, 잠에 들기 전에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로는 정신 건강에 아주 좋죠.

30일이면 많은 것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요즘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일들은 분명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기적만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그러한 성취를 이룰 거라 생각 못 했고

성공한 사람들도 다 한결 같이 얘기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걸 알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어차피 공부는 깨닫는 순간에 올라가니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라?

년 대학 갔으니까 그런 얘기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은 효율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쉬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쉬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다가 맥이 끊기면 멍 때리는 게 쉬는 거였고

밤새가며 20시간씩 공부한 적도 많았습니다.

어차피 한 달이면 모든 게 끝나니까

지금은 고민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고민되고 그런 날들이겠지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 속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성공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미친 것이라고 생각 드는 것 중 하나가

17시간 스터디윗미인데 (아직도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걸 9월에 했으니 수험생 신분에서 벗어난 지 9개월 만에 시도한 거였죠.

그럼에도 17시간을 버틸 정신력이 남아 있었던 건

수험생 때는 기본 19시간 20시간씩 앉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쳐도 좋고 효율이 떨어져도 좋으니 놓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공부하면

그게 열심히 하는 거고

마지막에 가서 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안 오를 거 같으시겠지만

지난 몇 개월 중에 있었던 그저 그런 30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지금 3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건 확실합니다.

다들 얘기하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

/

-

-

물리적인 시간의 중요성

-단기간 성공 신화의 이면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2.11.24

2023 수능의 여운도 어느 정도 가셨을 테고

새로운 수능을 위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써보려 합니다.

아마 일찍이 수험생 입시 사이트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선배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어렵פות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건데, 꽤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 칼럼을 보면서, 이 시기에는 이리이러한 공부를 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수정하면 좋다는 건 쉽게 깨달으실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입시 사이트의 최대 장점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아무리 공부 효율이 좋은 사람도

1달 만에 노베이스에서 메디컬 / 스카이에 합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공부에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제 수기나, 모 티비에 나왔던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나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늦게 시작했지?"

답은 간단합니다. 놀았으니까요.

남들이 공부할 때 놀았던 만큼 몇 배는 열심히 해야 했고

그러니 하루에 18시간 공부하는 것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기에 썼던 말이

보통 하루 순 공부 시간이 6~7시간쯤 되는데

나는 하루 18시간 동안 공부했으니

4개월의 시간이었지만 사실상 1년을 공부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에 6시간 정도만 공부해도

원하는 목표를 대부분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론, 좋은 콘텐츠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공부의 베이스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입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했을 때 좋은 점은

다소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고

또 공부 시간이 확보되다 보니 결과가 나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예 '틀린'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정표가 되어주는 글들,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부도 상향 평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 지금부터 공부해야 하나..에 대한 당위성을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면 쉴 거 다 쉬고 좀 힘들면 아예 하루를 날려버려도

즉 비교적 가볍게 공부해도 목표를 이루는 데 지장이 없겠죠.

우스갯소리로 150일의 전사, 심하게는 30일의 전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결국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말을 길게 늘어놓느냐 하면

뭐랄까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공부의 당위성'이라는 걸 어떻게든 납득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머리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꼭 현역이 아니더라도 24 수능에서는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 이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무지성 노력, 무지성 재능

-후천적 재능의 역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2.12.10

늘 생각하던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는 듯해서 글을 씁니다.

무지성으로 "나는 재능 하나 없이 노력만 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지성으로 "재능 있는 사람만 성공해"라고 비관 혹은 (남을)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일정 수준 재능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들과 열정의 총량이 달랐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4개월 만에 고려대에 합격할 때

웬만하면 하루 '순공 15시간 남짓'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18시간씩 공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순 공부 시간이 15시간가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재능 없이 노력만으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제가 과외를 처음 시작할 때도, 학생들과 수업 중에 얘기할 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처럼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재능도 없이 노력으로만 이 모든 걸 이뤘다고

저를 치켜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었고

공부하면서 공부 방향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재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력은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은 재능에 달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쉽습니다.

이미 수많은, 소위 '재능러'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참 신기한 게

재능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시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엄청난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공부에서의 재능'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노력 또한 재능이지만, 노력을 하려는 의지도 재능이겠지만

어떻게 억지로 억지로 꾸역꾸역 하다 보면

뛰어난 공부 머리를 가져올 수는 없어도

'의지'나 '노력'같은 재능은 일부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능 자체가 선천적인 것을 함의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후천적 재능'이라는 것이 실존하기 때문일까요.

어쨌거나 무조건 노력만으로 모든 걸 이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재능이 없으면 무조건 관둬야 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가장 쉽다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한때는 음악 쪽 진로를 꿈꾸었지만

압도적인 재능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

/

-

-

- 12가

-

수험생활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1)

-12가지 짧은 칼럼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2.02.23

안녕하세요.

칼럼을 쓰다 보면 가끔은, 넣고 싶은 내용인데 한 편으로 다루기에는 길이가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글은 말하자면 짧은 칼럼 모음인데, 직접적인 공부 내용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공부 습관이나 마음가짐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겁니다.

한 마디로 지난 몇 개월간 쓰고 싶었던 다양한 주제의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올리는 글입니다. 순서 상관없이 다 읽어볼 만한 이야기들이었으면 좋겠네요.

1. 누구한테나 완벽하게 맞는 강의/교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노베이스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뭐라도 하나를 끝내고 나면 비슷한 내용이 담긴 교재든 강의든 비교적 흥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이걸 이래서 안 맞고, 저걸 저래서 안 맞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바꾸다 보면 결국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안 맞더라도 일단 하나를 잡았으면 한 번은 끝까지 다 보고 결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2. 공부를 안 해서 재수(N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사실 실패의 이유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당일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이라든가.. 등의 이유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순수하게 공부를 안 하게 되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럼 현역 때(혹은 바로 직전 수험 기간)보다도 왜 공부를 안 하게 될까요?

여러 학생들을 만나고, 또 제가 직접 겪어본 바, 개념 공부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개념은 이미 본 거니까 안 봐도 되겠지.", "또 이런 (기본 개념 같은) 거나 붙잡고 있어야 되네." 같은 생각이 무조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구간을 생략하고 문제풀이만 한다면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생략하지 않으면 위에 말한 것처럼 '공부를 안 하게' 되어서 성적이 안 나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공부를 안 한 건 순전히 내 탓이라며 본인을 자책하는 사람이 많은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이유를 한 번 곱씹어 보면 슬럼프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 버틴다는 생각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어차피 문제 풀이 / 실모 기간이 되면 재미가 점점 붙는 건 당연하니까요.

3. 기출을 많이 풀다 보면 답조차 기억이 나서 효력이 없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기출을 50회독 이상 하게 되었던 사람인데, 답이 기억 나는 것과 실력 향상의 상관 관계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문제집이 아닌 책이라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법입니다. 실제로 2020학년도 수능 국어를 풀어오라는 과제를 내줬는데 학생이 2020년에 시행된, 그러니까 2021학년도 수능 국어를 풀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21학년도로 수업 내용을 바꿔서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출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놀라는 건,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좋은 설명을 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어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머리 속으로는 무언가를 얻어가고 있을 겁니다.

4. 기출 무용론 vs. 기출 만능론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든 수학이든 기출은 질릴 때까지 봐야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서 새로운 문제를 많이 접하지 않고 점수를 잘 받겠다는 것도 이상하죠. 개념만 보고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19~21 나형 수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조차도 실전 개념은 머리 속에 담고 있었어야 했고, 18 이전 나형은 30번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즉, 개념 + 기출이 중요하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5. 쉬는 시간

어느 정도 쉬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 그중 반나절 동안은 꼭 쉬었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은요? 정해놓은 공부가 끝나기 전까지 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는 계속하는 거고 그러다가 지치면 좀 쉬는 거고.. 얼마를 쉬고 얼마를 공부하고 그런 걸 굳이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6. 공부하는 이유

5번이랑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야기는 처음에 수능을 준비할 결심을 할 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헛소리처럼 들려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함,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아버지들이 매일 같이 지옥같은 직장에 나가시는 이유는, 가장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수험생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논어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는 뒤로 하고, 지금 당장 아무런 이득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니까 하는 거지 뭐 **이유가 있겠어?** 라는 마음가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7. N수 수험생활에서의 친구 관계

당연히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것 또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외로운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놀 거리가 많으면 실패하는 싸움입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 1~2명만 곁에 두고,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만 한 번씩 만나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수 때 슬럼프가 왔던 이유도, 아예 아무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8.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어차피 이건 수기에나 쓸 법한 이야기라 감성적으로 흐를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간단히만 쓰겠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지금부터 숨 참고 공부만 하면 의대 가능? 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천 없는 다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8번 글의 의미는, 자신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걸 남이 확신해주길 바라는 건 무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9. 열등감 없애기?

말하자면 열등감 바꾸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등감이 좋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크게 봤을 때 열등감은 승부욕과 같고, 그런 맥락에서 복수심도 아주 좋은 원동력입니다. 예전에 모 유튜브에 출연해서 '압축 공부법'을 설명할 때도 잠깐 나온 이야기이지만, 복수심과 열등감은 나만의 승부욕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연료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없앨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입시 사이트에서 공부 얘기나 하지 자기 재산 자랑은 왜 하는 거지? 괜히 열받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 사람보다 성공해

서 밟아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적개심, 복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성공하고 나면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성공하는 게 곧 복수다."라는 말처럼, 그때까지의 적개심은 전부 사라졌었습니다. 정말 목표 달성을 위한 연료로밖에 기능하지 못하는 거죠.

10. 성공의 척도

성공했냐 안 했냐는 내가 정하는 것이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래도 뭐 노베에서 고려대 갔으면 만족해라"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메디컬을 가고 싶으면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내 기준으로는 성공한 게 아니니까요. 이걸 다시 공부를 시작할지 말지 결정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1. 뱀새와 황새

사람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령 학원에서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는 벌써 수능완성을 펼쳐보고 있는데, 나는 아직 수능특강을 보고 있다면, 진도가 느린 것에 대한 강박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개념책을 보고 있어도 될까요?" 같은 질문들은 언제나 많습니다.

그러나 개념이 부족하면 개념책을 봐야 하고, 문제 풀이량이 부족하면 문제집을 풀고, 실전 감각을 원하면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것뿐입니다. 시기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수능 1달 전에 공부를 시작해도 개념이나 들으라는 소리냐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개념이 안 되어 있는 학생이 1달 간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실전력을 바탕으로 좋은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위 친구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쭉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이 '황새인 척하는 뱀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옆에서 앞서나가는 척해도, 사상누각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뱀새로 태어났으니 뱀새로 살아가! 가 아닌, 내가 도약할 수 있을 날을 기다려야지 남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 참고용으로, 동기부여를 위해 남들의 공부 진도를 알아보는 것은 좋습니다.

12. 개념의 모호성

특히 수학에서 그런데,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스스로 개념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개념의 모호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단계별로 "오케이 1차 개념 완료, 2차도 완료.."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척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 탓에 개념 학습 도중에는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50~80% 이해하고 있는 구간이 마치 어두운 터널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100% 완성이 되고 나면 "나 이제 개념 다 알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2편 3편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0가

-

수험생활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2)

-10가지 짧은 칼럼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3.03.09

안녕하세요.

1편을 올렸을 때 나름 유익했던 것 같아 2편도 써봤습니다. 아래 설명은 1편과 같습니다.

칼럼을 쓰다 보면 가끔은, 넣고 싶은 내용인데 한 편으로 다루기에는 길이가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글은 말하자면 짧은 칼럼 모음인데, 각 과목별로 직접적인 공부 내용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공부 습관이나 마음가짐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겁니다.

한 마디로 쓰고 싶었던 다양한 주제의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올리는 글입니다. 순서 상관없이 다 읽어볼 만한 이야기들이었으면 좋겠네요.

1. 노력 vs. 노력의 부재

노력이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위로하기 위해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한들, 입시라는 건 언제나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2022 수능에서 수학을 망쳤습니다. 물론 망쳐도 최상위권 기준으로 망친 거라지만, 어쨌든 복학해야 할 (= 고려대 일반과도 못 갈) 성적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의 국어가 전례없이 어려웠고, 저는 이때까지 풀어본 시험 중 가장 쉽게 풀었습니다. (물론 과몰입 때문에 비문학만 다 맞고 또 문학을 틀렸지만..)

다들 이런 얘기를 하면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라고 좋게 말씀해주시지만, 이게 운의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국민이 어려워하는데 나만 쉬운 시험이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무척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해서,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공부를 안 한, 그러니까 자책해야 할 만한 사람들은 알아서 잘 하실 테니 넘기도록 하고..

그러나 **노력의 부재는 대부분 실패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노력과 재능에 대한 설전이 난무해도 수험생은 '노력'이라는 걸 놓지 않습니다. 정말 타고난 천재가 아니고서야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이겠죠.

2. 슬럼프 극복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7~8월에는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든 슬럼프를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현상을 놓고, "지금 게을러지면 수능 망하는 거야. 슬럼프 같은 건 핑계야."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계속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슬럼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 슬럼프의 지속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기에,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건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더 몰아붙여서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도박수일 지도 모릅니다. 슬럼프가 찾아오면 잠깐은 쉬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지키면 좋은 공부 습관

공부 습관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한 과목만 쭉 공부하다가 그 날 할 분량이 끝나면 다른 과목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시간을 쪼개서 골고루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부 습관의 측면에서는 딱히 할 말이 없으나, 하나 지켰으면 좋겠을 공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국어 공부하기와 점심 먹고 영어 공부하기입니다.

사실 수학이나 탐구의 경우 컨디션의 지장을 덜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기도 하고 과목 자체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탐구가 지장을 덜 받는다는 것도 과탐 한정이지, 사탐은 지장이 아예 없습니다. 밤새고 풀어도 50점이 나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알아서 하되, 아침에 머리가 덜 깎을 때의 국어 공부와, 점심 먹고 졸린 순간의 영어 공부는 지켜주는 편이 좋습니다.

4. 공부하는 이유 - 2

저번 글에서도 공부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음악 쪽 진로를 꿈꿨습니다만, 예체능에서 압도적인 재능이란 어떤 것인지 체감하고 나서는 빠르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미술이든 음악이든 체육이든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공부는, 특별하게 무언가를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심지어는 지금 당장 꿈이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도, 나중에 뭘 하더라도 학력(을 포함한 공부로 얻을 수 있는 스펙들)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학벌주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일상에서 학벌만으로 사람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분야에서 일한다면 이를 배제할 수는 없죠.

5. 실전 판단 vs. 평소 공부

국어라는 과목에 있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쓰는 글입니다. 평소 공부를 할 때는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야 하고, 사후적인 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타 배경 지식 활용 등도 잘 익혀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판단할 때는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거니와, 특히나 '선지의 엄밀성'에 너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애매한 선지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나 강조하듯 '모든 부분이 애매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소 간단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전과 공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으면 실전에서 덜 당황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6. 정보량 줄이기

수능 국어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량 줄이기라니, 정말 우리가 글을 편집하고 조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상위권 학생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정보량 줄이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시간 관리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문학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어떤 대화 맥락을 제시한다고 할 때, 10줄 분량이 나오더라도 "아 이건 A가 B를 원망하는 상황이구나."와 같이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어떡하나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읽는 무게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기출 분석이 유의미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체크해서 읽어야 하고, 또 어

편 부분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압축해도 상관없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비문학은 문학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제시된 문장을 '나만의 말'로 이해하고, 한 문장 안에 제시된 개념을 파악하고, 맥락상 동의어들을 연결하면 '실질적인' 정보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몇 년간 생각해왔던 것들이 명료하게 기쁜 마음인데, 그만큼 최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정보량 줄이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관한 건 이때까지 썼던 칼럼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7. 의미없는 조언

원래는 국어 관련으로 쓰려고 했던 글인데, 생각해보니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가끔 보면 "고정 1등급인데, 만점에 가까운 실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등급~2등급 진동인데 안정적인 1등급은 어떻게 달성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아주 진부하고도 명확한 답은, "개념 정확히 잡고 문제 풀이량 늘리세요."겠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조언받을 필요가 없는 실력을 가진 수험생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노베이스 학생의 공부 방향이라든가, 3~4등급 학생들이 난관에 봉착하는 '개념의 모호성'은 조언을 받았을 때 그 의미가 꽤나 큰 편입니다. 그러나 특정 수준 이상부터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지 남들이 해결책을 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수능 국어에 리트 공부는 전혀 필요없다 생각하고, 실제로 22 불수능을 손쉽게 풀었던 축에 속하지만 리트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수험생이 주간 리트라는 책을 풀고 백분위 100을 달성했다면요? (리트 도서는 생각이 잘 안 나서.. 제가 그나마 검토해봤던 걸로 적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의 공부법은 그게 맞는 겁니다. 리트 공부로 국어 백분위 100을 찍었는데 잘못된 공부라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반대로 저는 리트를 공부하지 않았으니 국어 고득점에 적합하지 않은 공부법을 활용한 것일까요?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스스로 해답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서울대 배지를 달고 저에게 국어 조언을 부탁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 들려드린 이야기를 거의 가져온 느낌이에요.

8.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

이건 주로 고3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수시를 밀어주기 때문에 정시 준비를 하려면 눈치도 많이 봐야 하고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절대 다수가 수시로 진학함에도 학교의 정규 수업조차 따라가지 않고 독자 노선으로 정시를 준비하는 건데, 그게 쉬우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면 그런 어려움도 감수해야 하고, 그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3학년 때 내신 선택 과목이 생운 한지 사문 이렇게 3개였는데 수업 시간마다 동사/세계사를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뺏겨도, 받으러 가서는 점수로 증명하겠다고 말했었죠.

지금 와서는 학평/모평 점수가 아무 의미 없는 걸 알지만 4월 6월 모두 동사/세계사 1등급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부터는 뭐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공 수기나 그런 걸 보고 낭만 있게(?) 정시를 준비하는 건 괜찮지만, 뭔가를 선택했으면 언제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9. 언제나 배신하는 과목

8번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탐구는 언제나 수능날 수험생을 배신합니다. 6월에는 그냥 1등급도 아니고 둘 다 만점이었는데, 수능에는 무슨 처음 보는 이야기가 나와서 손도 못 대고 망해버렸죠. 재수생 이상부터는 다들 아는 이야기일 텐데, 유독 현역 때만 자신감이 넘쳐서 체감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럼 현역 때 만점 받은 사람은 뭐냐..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배신당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능날 뒤통수를 맞아도 점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한 것뿐이죠. 실제로 저는 재수 때 탐구 두 과목 모두 만점을 받았지만, 그때 난이도는 정말..

왜 하반기에 접어들면 수많은 입시 전문가, 칼럼러들이 탐구를 놓지 말라고 하는지 알게 되실 듯합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10. 무식한 공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나 남들의 이야기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부 방법론에 대한 글을 1년에 2~3개 쓸까 말까 한데, 그 글조차도 사실 제가 겪어봤으니까 쓸 수 있는 글입니다.

공부 방향에 대한 점검은, 말 그대로 '방향'에 대한 점검입니다. 방향이 아예 반대가 아니라면, 다소 무식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공 수기보다 실패 수기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요즘처럼 콘텐츠의 홍수에 빠져 살아가는 수험생들은, 너무 다채로운(?)효율을 추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식한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효율적인 공부라는 건 결국 나에게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이건 누가 찾아주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니 효율적으로 보이는 걸 참고해서 스스로 공부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편이네요. 쓰다 보면 수험생활 100가지 이야기 같은 걸로 모여서 나오려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계획의 추상성 없애기

-큰 그림을 바탕으로 쪼개서 계획하기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3.04.1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단일 주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줄곧 있었던,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받았던 질문인, 시기별 공부 진도에 대해 조금 적어보려 합니다. 추상적인 계획이랑 공부 진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스스로 세워둔 공부 계획이 없거나 혹은 그 계획이 추상적인 경우에 학생들은 공부 진도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일단 대전제는, 내가 전 단계에서 수행했어야 할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시기와 무관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핵심을 저러한 기준점을 두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허술한(?) 계획을 세워보면,

예를 들어 기초 개념 / 기출 / 심화 개념 / N제 및 모의고사에 각각 2개월씩 투자하면 그 과목은 이론상 완벽해야 합니다. 한 과목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즉 다른 과목을 병행하면서 해당 과목을 완성하는 데 8개월을 잡은 거죠.

그런데 마음을 뒤늦게 다잡은 사람도 있을 거고, 반수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베이스부터 상위권 반수생까지 이러한 시기별 마지노선을 잡는 건 간단합니다.

위에 말한 대로, 자신의 실력을 기준으로 허술한 계획을 세웁니다. 일반적인 학습 순서는 개념 - 기출 - 연계교재/N제 - 모의고사 순이겠죠. 그런 다음 비율은 유지한 채로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반영하여 계획을 세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직 허술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제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재수 4개월 동안 공부하여 3~4등급대에서 고려대에 합격했었습니다. (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시로만 간단히 들었습니다.)

3~4등급은, 인터넷상에서나 노베이스이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단순히 3등급에서 2등급까지의 향상을 노리는 사람이면 그냥 공부해도 되겠지만, 만점권을 도전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노베이스가 아님에도 당연히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일단 나에게 주어진 특수성을 하나 찾아놓고 가는 느낌입니다. 반수생 중에는 기초 개념부터 안 하고 넘어가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부터 위에 나온 계획을 활용해보겠습니다.

6월에 시작하는데, 어차피 3개월 이상 공부하면 점점 템포가 떨어지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5~6개월에서 슬럼프에 빠질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역시 특수성에 들어가네요. 실제로 저는 6개월을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제대로 공부한 건 4개월뿐이었죠.

아무튼 그 당시 제 기준으로 개념은 모든 과목을 병행한다고 쳐도 1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 번 봐둔 거고 수능 3등급이라는 게 특히 사탐에서는 전혀 노베가 아니니까요.

기출의 경우 이미 본 거라고는 하지만 현역 때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사실은 '최소 현역 때만큼은 보고 가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3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10월이 되어서 수능완성도 아니고 수능특강을 겨우 시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출과 연계 교재를 병행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공부량을 고려할 때 이미 한 번 본 거라고 해도 기출 + 수능 특강에 3개월 미만으로 투자하면 또 허점이 생길 거라고 봤기 때문에, 10월에 수능완성을 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6월 즈음에 수능완성이 출시되고 나면 누구는 수능완성 보는데 저는 겨우 이거 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라는 글이 넘쳐나지만,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월부터 봐도 어차피 유형 몇가지와 실전편 5회분이기 때문에 기출 + 수특 학습 단계를 제대로 거쳤다면 늦어도 2주 안에 끝납니다.

그랬을 때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실전 모의고사에 투자할 시간이 생기죠. 여기서도, 처음 계획은 허술하게 세웠지만, 저렇게 철저히 나눠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능완성을

학습할 때는 사설 실모도 병행하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모의고사 기간에 40일을 확보해둡니다.

이렇게 다 세우고 나면 시간을 과하게 잡은 단계가 보일 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기출 + 연계 교재에 3개월을 투자하는 저 단계일 텐데, 그대로 놔뒀습니다. 어차피 슬럼프가 올 것을 생각하면 타이트하게 짜두는 게 나으니깐요.

제가 세웠던 계획에서 기간이 1년으로 주어진다면 각 공부 기간을 2배로 책정하고 조금 느슨하게, 그만큼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면 되겠죠.

만약 저처럼 만점권에 도전하지 않고 인서울 상위 10개권 대학 정도에 만족하는 타입이라면 저 단계를 밟아가면서 일부를 생략해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ebs 교재를 전부 다 본권으로 학습했지만, 사실 콘텐츠로 빠르게 학습한 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이겠지만, 이는 목표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10개월은 걸릴 듯한데 남은 기간이 5~6개월이라면 남들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을 내든지, 아니면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 노베 학생들에게는 전자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공부'라는 것 자체도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수정을 거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남기셨던, 6월에는 어디까지 끝내 놓아야 하나요? / 9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공부해야 하나요? 등과 같은 질문에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출 학습에 2개월을 투자해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이 4월이라면 당연히 적어도 6모 전후로 기출은 다 봐야하는 게 맞겠죠.

이후의 계획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1개월 동안 5개년 평가원 기출을 분석하는 단계가 계획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총 15회분의 시험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일에 1회분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하루는 문학 기출 분석, 또 하루는 독서 기출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에 더해 어려운 기출을 만나면 당연히 시간이 지연될 테니 하루 공부량을 1회분보다는 좀 더 많이 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다 보면 결국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과목별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오늘의 계획을 완수하겠다는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루 계획에 관련된 것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압축 공부법' 칼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국 그 동력을 바탕으로 오늘 공부를 잘 마무리하다 보면, 일주일 공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쌓여 수능 전날 밤이 되는 거죠. 제가 수험생활을 했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하루를 반복적인 루틴 속에 살았을 뿐인데 어느 새 수능 전날에 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하루씩 지나가면 수능 전날이 되겠지 뭐 소리가 싶으시겠지만, 그런 의미라기 보다는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지루한 레이스가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끝난다는 뜻입니다. 수험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슬럼프가 오는 것도 이런 공부 계획이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줄 요약

추상적이고 허술한 계획 세워보기

내 능력/현재 여건에 맞춰 비율 조절하기

본인의 특수성까지 고려하여 계획 수정/보완하기

아마 이 글을 보고 아 나는 노베이스 글을 원했는데.. / 나는 반수생 전용 글을 원했는데.. 라고 느끼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부 계획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지 일개 칼럼으로 모든 것을 제시하기는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제 역할은 계획이라는 추상적인 무언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단순히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된다 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실전적인 공부 칼럼을 주로 업로드했는데, 워낙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생각나는 대로 써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과외에 관한 모든 것 총정리

– 대학생 과외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3.01.18

안녕하세요.

이제 대학 원서도 다들 넣었고 아마 성적표만 가지고도 과외를 구하려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3번째 수능을 준비하던 시절 과외 11개를 했었습니다. 만약 수능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20개도 했을 거 같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20~30개씩 과외 문의가 들어올 때였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사실 성공했는지 마는지 주변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맘 때쯤 되면 과외 노하우에 대한 글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어린 나이에 직장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었던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학생 입장에서 과외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도 써보겠습니다.

1. 과외를 진행하기 위한 성적

솔직히 일반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원해서 그렇지만, 저는 가르치는 데 있어 성적은 딱히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양심상 해당 과목을 '수능에서' 1등급 받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에 서술하겠지만, 본인의 성적보다 가르치는 실력이 한참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과외 구하는 플랫폼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르비 과외 구인 시장도 좋고, 다들 아시는 김과외, 숨고, 수만취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핵심은 플랫폼이 아니라 글과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과외나 숨고의 수수료를 싫어하는 저는 딱히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3. 과외를 구하는 법

(1) 칼럼 쓰기

사실 저와는 무관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저는 메인으로 활동하는 오르비에서 과외를 구해본 적도 없고, 들어왔던 신청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칼럼을 통해 내가 수능 대비를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을지 어필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인기몰이를 위해 칼럼을 쓰고 그걸로 과외를 구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늘 이야기하지만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학생들도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과외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칼럼이라면 제가 썼던 것들처럼 '무거운 칼럼' 위주로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이 정말 좋은 편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팔로워가 많아졌지만, 저처럼 무거운 글을 올리면 사실 사람들이 잘 읽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단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다면, 응원 글 / 후기 / 공부 방법 순으로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진 사람들은 결코 두터운 지지층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읽든 말든 그냥 계속 올리다 보면 알아서 연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전에도 이러한 글들의 링크를 들고 과외를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응원 글을 보고 과외를 결정할까요? 아무리 무거운 글이 읽기 싫어도 '본인의' 과외를 구할 때는 공부하듯이 끝까지 읽어보는 게 당연할 겁니다.

(2) 강의 촬영

같은 맥락입니다.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되, 인기 몰이용이 아닌 실력 증명용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재수 삼수할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과외를 주로 했는데, 유튜브에 나온 대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된다고 알려주면 비대면이 뭔지 몰라서 꺼리던 학생들도 납득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참고로 수업 자체의 효율만 놓고 보면 비대면이 더 좋은 거 같습니다. 대면은 필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합니다.)

(3) 구인 글 작성하기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물론 (1)과 (2)가 있는 상태라면 더욱 좋겠죠. 과외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으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학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에 걸맞는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력서를 하루에 20개씩 보내도 답장조차 못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해 수능에서 전체 4개를 틀렸는데도 말이죠. 사람들은 성적표에 찍힌 실력이나

대학에 대해서 의식하긴 하지만, 내가 의치한 / 스카이 출신이라고 어필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기본입니다.

그리고 글을 작성할 때는 내가 수능을 잘 봤으니 과외를 구한다는 식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팁이라고 할 만한 기준에 대해서 조금 써보겠습니다.

왜 꼭 나여야 하는가?

사실 인강도 이렇게 다양해진 시대에, 학생이 왜 날 선택해줘야 할까요? 그 해답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다면 경쟁력 확보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2~고2 겨울방학까지 공부 안함) 이걸 어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리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강사라고 해도 해결해주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제가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인강 강사 분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다."였죠. 독학으로 올라와 본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는 A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한데, 강사 입장에서 A는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설명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저는 이 방법으로 상위권을 물론이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얻었던 거 같아요.

아래에 타겟팅 파트에서 쓰겠지만, 저처럼 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다 존재합니다. 내가 늘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중하위권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해봐야 믿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위권~최상위권을 바라보고 홍보하는 게 맞겠죠. 제가 예전에 서울대생이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만 봐도 효과가 있구나."였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 학생은 이해력 역시 뛰어날 테니 효과가 더 좋겠죠.

열정을 보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재수~삼수 때 수업을 오전 6시에 진행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열정을 다 할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보라고 하면 뭐 대충 후기 몇 개 올리고 성적 올려줬다고 쓰면 되겠지 싶으시겠지만,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설령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을 운 좋게 만난다고 한들, 양심적이지도 못하거니와 길게 봤을 때 이득이 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거겠지만, 진심을 담아서 글을 쓰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겁니다. 가끔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돈 받은 만큼 해주면 되지."일 텐데, 여러분이 과외를 하기로 한 이상 해당 기간 동안에는 내 수험생활보다 더 열정을 다 해야 합니다. 보통 과외는 고액이다 보니 어차피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최소한의 직업 윤리입니다.

그리고 저런 고리타분해 보이는 이야기는 실제로도 도움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일침을 놓는다든가 하는 쓸 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진도가 밀린다든가 해서 빨리 수업을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대가 없이 추가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다들 뭘 그렇게 하냐고 하지만, 돈을 바라고 일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타겟팅해야 한다.

위에 서술했다시피, 모든 학생을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저는 그래도 노베~1등급을 모두 가르쳐봤지만, 갑자기 국어 고정 높1인데 100점을 맞게 해줄 수 있냐는 문의를 하면 그건 능력 밖의 일입니다. 7개년 국어 100점이나 2개년 연속 국어 수학 만점이면 몰라도..

어릴 때부터 바둑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비유를 하자면, 모든 걸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둑은 결국 상대보다 집이 많으면 이기는 게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초보를 넘어가는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집을 다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성향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다 가지고 싶은 거죠. 어차피 상대보다 약간이라도 더 많이 가지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있는 부분만 잡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저처럼 하시고, 늘 잘했던 사람은 재능력의 공부법을 전수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간혹 5등급이 평균이니 중하위권에 비해 상위권 과외는 상대적 열세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에 만 명 정도 가르칠 게 아니라면 수요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듯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쓰는 것이 좋다.

이건 시험이 어렵냐 쉽냐에 따라 각각 다른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납득이 가능하실 겁니다. 2022 수능을 기준으로. 언매를 1개 틀린 원점수 90점 학생도 백분위 99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점수 90점 과외 구합니다." 보다는 "수능 국어 백분위 99 과외 구합니다."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원점수 90점이면 그걸 적을 생각보다는 '국어 1등급'을 어필하는데, 더 유리한 지표가 있는데 굳이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기를 치지 않는 선에서 홍보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이걸 마케팅 전략에서도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재수 때 성적으로는 '수능 원점수 288점'이라는 지표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했었지만, 세 번째 수능 성적을 언급할 때는 '문과 정시 상위 0.3%'라고 썼습니다. 22수능은 불수능이어서 6~7개가량 틀렸지만 누적 백분위 상으로는 재수 때보다 높았습니다.

6~7개 틀린 성적을 어필하기보다는 상위 0.3%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다는 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서 가치를 찾아야 한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글을 썼었지만, 저는 두 번째 과외 때 이미 시급 5만원 / 주4회 과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별로 힘들지 않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전 과목을 다 가르쳐서 56399에서 13211로 만든 그 학생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단과로도 따로따로 과외를 구했기 때문에 전 과목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거기에 더해서 생활 패턴 관리나, 학습 방향 컨설팅, 매주 주말마다 진척도 보고 등을 포함시켰는데, 이게 과외 수업만큼 어려운 일인가요? 학습 방향 잡아주던 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늘 하던 일이고, 주말마다 진도가 어떻게 요즘 이해력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은 가볍게 문자로 알려드리면 그만입니다.

저는 그냥 혜택 느낌으로 제공하면 그만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만족합니다. 아래에 쓰겠지만 모든 대학생의 관심사인 시급 역시 합리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해줄 수 있지만 받는 쪽에서는 그 노하우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수업을 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진행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음에도, 코로나라서 이 정도밖에 못 챙겨준다고 하시던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열정과 진심을 보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 적지 않은 돈을 받으면서 이 정도로 대우받고, 또 학생의 성적이 오르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에만 집중해서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결국 서로 기분만 상하고 학교 이미지만 망치는 거겠죠. "역시 대학생은 믿을 게 못 돼." 제가 가장 기분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러한 말을 하는 학부모님께서 잘못된 거냐?라고 물으면 당

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정해진 보상을 받고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을 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글에 나오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 따로 갖고 있어야 한다.

위에 써놓은 내용만 보면 모든 걸 쏟아내야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개인 연락이 왔을 때 꺼내 들 만한 카드는 몇 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커리큘럼표 같은 것도 작성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거 같네요.

생각해보면 그런 카드들은 은근 많은데, "나는 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이런 것도 갖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글에 다 풀어내도 되겠지만, 일정 수준 어필이 된 것 같으면 소위 말하는 '비장의 카드'는 따로 설명하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후기는 의미가 없다.

전문 강사들도 후기가 많으면 조작된 것 아니냐, 현실적인 도움 되는 것도 없이 맨날 후기만 올라온다는 식의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과외를 하면서 후기를 광고한 적이 없었고 성적 향상 관련해서 성적표 몇 개 있으면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죠.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럼 후기가 없어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실력으로 증명하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좋은 후기라도 사람들은 본인에게 맞는 것을 원하고, 그런 맥락에서 강의 영상이나 칼럼이 유용합니다.

증명할 지표가 없다면 직접 뛰어라.

바로 위의 내용과 관련된 건데, 가끔 과외를 할 실력이 되는데 수능을 너무 말아먹어서(?) 자신이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증명된 사람을 더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시범 수업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가르칠 자신이 있었고, 처음 보는 학생 앞에서도 당연히 긴장하지 않았습시다. 시범 수업 이후에 정규 수업을 듣지 않겠다고 한 학생은 1명 뿐이었을 정도로 만족도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1~2번 정도 쌓이면 시범 수업료를 정규 수업료의 2/3 정도 받는 식으로 했던 거 같아요.

"수업을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라는 글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실력은 탁월해야 한다는 전제는 당연히 깔고 가야 합니다.

(4) 기타 명심해야 할 사항들

이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적겠습니다.

1. 학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한다.

과외를 구한 이상, 학교 이미지는 내가 만들어간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 대충할수록 대학생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내가 곧 그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 내가 가진 걸 전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시범 과외를 한다고 했을 때, "정규 수업도 아닌데 노하우를 다 보여주면 이것만 빼먹고 수업은 안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딱 시범 수업만 듣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기부도 하는 마당에 이런 걸 아까워 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3.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 수업료를 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줄 때까지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만큼 최선을 다하면 될 뿐입니다. 제가 썼던 것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 3일 전에는 수업료를 입금해주셔야 준비가 가능합니다.

수업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며, 수업료도 그에 맞춰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일 수업 취소를 하는 경우 수업 보강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는 잘 꺼내지 못하지만, 이야기한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1시간 걸려서 왔는데 당일 취소한다든가, 수업을 못 믿겠으니 2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절반을 준다든가 하는 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서로 얼굴 붉히고 좋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비를 잘 해둬야 합니다. 물론 당일 수업 취소의 경우 저는 언제나 말만 저렇게 하고 보강도 다 해줍니다.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4. 상황이 너무 급박한 게 아니라면 내 가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빨리 놀러가고 싶거나 돈을 벌어보고 싶은데 과외가 잘 안 구해져 아무거나 구해지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제 가치 이하의 조건을 제시하는 과외는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너무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기다리면 언젠가 조건에 맞는 사람은 찾아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과외를 돈 보고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급 5만원을 받다가 수업이 잘 안 구해지니까 2만 5천원으로 내려서 구한다? 사실 이렇게 되면 시급을 내리는 쪽이 절대적인 수입은 당연히 더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돈미새라면 낮춰서 구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 맛을 들이면, 나는 계속 시급 2만 5천원의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일을 못하고 그 시간에 자기 계발에 힘쓰지언정, 내가 생각한 가치를 깎아내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가치는 시급 10만원이니까 유지해야지! 라고 하면 대학 졸업 때까지 과외를 못 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5.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좋게 끝내야 한다.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학생이 예의가 없다거나 하는 일들로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는 깔끔해야 합니다. 이 바닥은 생각보다 좁고, 적을 만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거나 화나서 그만 뉘야겠다 싶으면 적당한 개인 사정으로 핑계를 대고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6. 학생과 학부모, 누구한테 맞출지 정해야 한다.

비유를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라고 썼는데, 내가 정말 이 학생을 바꿔보고 싶은지, 아니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수능 때까지 무난무난하게 끌고 갈 건지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교육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학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애초부터 열정이 없는 학생은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려 받을 처지가 아닐 테니, 만약 수능 때까지 그냥 붙들어만 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학생은 공부하기 싫어서 죽을 지경인데 학부모님들이 원한다고 수업을 할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생은 모르겠고 1년 버티거나 하자, 학부모님이 원하니까 그냥 가르치자 이런 수업들은 무조건 그만둡니다. 특히 부모님만 원하는 수업이다?

학생만 불행해집니다. 항상 학생과 상담을 먼저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7. 세금 관련으로는 확실하게 처리해두자.

꼭 환불 관련해서 소위 '진상'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8번 중에 첫 번째부터 5번을 빼 먹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해당 시간에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연락도 시도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1/2이 경과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하는 말이 "선생님은 대학생이라 법 적용 안 되지 않나요?"였습니다. 협박하는 거죠.

물론 좋게 말해서 넘기긴 했지만, 세금 관련해서는 그냥 내는 게 속 편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1년에 몇천씩 벌 게 아니라면 세금이 세지도 않아서.. 저는 오르비북스에 모의고사 저자를 하게 되면서 세금도 착실히 잘 내고 있습니다 πππ

대학생 과외 관련 사업자 등록에 대해 정리된 글이 있어 첨부는 해두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nds23/221459687313>

그리고 아래는 !!서울대 로스쿨 진학 예정 미래의 법조계 꿈나무!! 정시기다리는님의 조언입니다.

cf)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5-소득-22431)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이걸 보면 그냥 양심껏 알아서 결정하시는 걸로..

(5)번외 : 학생이 과외 선생님을 고르는 법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니, 스스로 원하는 게 뭘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위권 학생인데 명문대 과외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 시범 과외 때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학벌과 가르치는 실력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뒤집으면, 하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선생님을 찾고, 1~2등급 라인에서 최상위권 도약을 노린다면 늘 잘하던 '재능러'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과외라고 함은 수업만 제공하지 여타 사항들은 모두 별개입니다. 저처럼 다 제공하는 사람이 없진 않으니 그런 걸 찾는 것도 괜찮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내력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강만으로 공부하려고 한다면 사실 커리 추천을 해줄 수 있으면서, 그 강사 분 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선택하면 되겠죠. 내가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면서 과외 수업 듣는 걸 병행하려고 하는데 누가 스케줄을 짜주었으면 좋겠다? 관리형 독서실 다니면서 독학한 대학생을 찾는 게 좋을 겁니다.

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게 또 있는데,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아무 선생님이나 막 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하지만 중요한 시기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심적 슬럼프가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증명도 됐고 수업도 잘 잡히기에 당연히 제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대학생 과외'를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잘 가르치려면 언제 시험 쳐도 1등급이 나올 수준으로 경향성이나 시험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그게 바로 연령대가 높은 전문 과외 선생님보다 대학생이 우위를 점하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그 시험 속에서 갓 빠져나온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위에서 써 놓은 것처럼 성실한 대학생을 찾는 안목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끝낸 거 같습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헛소리는 아닌 게, 소위 말하는 '월 천'을 벌여본 기억도 있고 그렇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자책으로 내려고도 했던 내용이었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서 그냥 칼럼 형식으로 올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더 해도 좋지만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작성일 : 2022.11.18

저도 예전에 누가 말린다고 해서 다시 도전하지 않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미리 마음먹고 시작을 해버린다면

효율이 높은 공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험담입니다.

늘 하던 공부를 이어서 하면 다 아는 거 같아서 재미가 없고

그러니 그냥마냥 나른한 느낌으로 공부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공부했다고 착각만 하지 '제대로 된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다가 망했던 기억이 있네요.

비워야 들어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계속 이어서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개념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데 이거 빨리 마스터하고 올해는 실전에 집중하자"

N수의 N이 쌓여갈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공부를 다시 하려면 개념도 다시 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1년을 쏟아 붓고 또 돌아가서 개념부터 하는 건 어렵습니다.

맨날 보던 개념서에, 똑같은 내용을 복붙이라도 한 것처럼 1년 더?

앉아 있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놀아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머리를 비우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전부 다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벌써부터 바로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글을 썼습니다.

많이 겪어 봐서 그 참담한 심정을 알지만 조금만 본인을 놓아주세요.

지금은 그냥한 해 동안 수고했던 수험생 1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위로와 응원을 받고 편안하게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